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17. 1.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목 차

Ⅰ. 국정조사위원회의 구성 ····· 1

1. 구성경위 ····· 1

2. 구성현황 ····· 3

가. 위원명단 ····· 3

나. 직원명단 ····· 5

Ⅱ.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개황 ····· 6

1. 조사목적 ····· 6

2. 활동기간 ····· 6

3. 조사범위 ····· 8

4. 조사대상(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 11

5. 조사일정 ····· 13

6. 증인 및 참고인 ····· 17

가. 기관증인 ····· 17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 24

다. 증인 고발 현황 ····· 39

Ⅲ. 국정조사 실시내용 ····· 43

1. 기관보고 ····· 43

[11월 30일] ····· 43

(1) 문화체육관광부 ····· 43

(2) 법무부 ····· 84

(3) 보건복지부 ····· 104

(4) 국민연금공단 ····· 116

[12월 5일] ····· 145

(1) 대통령비서실 ····· 145

(2) 대통령경호실 ····· 156

(3) 국가안보실 ····· 168

(4) 기획재정부 ····· 171

(5) 교육부 ····· 180

2. 청문회 주요 질의·답변 요지 ····· 190

[12월 6일. 1차 청문회] ····· 190

(1) 대통령 독대 관련 사항 ····· 190

(2) K스포츠와 미르재단 지원 관련 사항 ····· 195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항 ····· 206

(4) 최순실 인지 시점 관련 ····· 226

(5) 정유라 지원 관련 사항 ····· 228

(6) 평창동계올림픽 운영과 인사 관련 사항 ····· 231

(7) 최순실과 정유라 지원 관련 ····· 236

(8)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 사항 ····· 238

(9) CJ 부회장 퇴진 관련 ····· 240

(10) 차은택과 K컬쳐벨리 관련 ····· 241

(11) 최순실 비선실세 지원 관련 사항 ····· 242

(12) 기타 사항 ····· 243

[12월 7일. 2차 청문회] ····· 263

(1)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의혹 관련 사항 ····· 263

(2) 세월호 참사 부적절한 대응 의혹 관련 사항 ····· 268

(3) 최순실 문화체육계 비리 의혹 등 국정농단 관련 사항 · 270

(4) 프로포폴 투약 등 불법진료 의혹 관련 사항 ····· 314

(5) 정유라, 정시호 부정입학 등 특혜의혹 관련 사항 ····· 315

(6)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의혹 관련 사항 ····· 317

(7) 기타 사항 ····· 321

[12월 14일. 3차 청문회] ····· 322

(1)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 대응 미흡에 관한 사항 ····· 322

(2) 대통령 비선진료에 관한 사항 ····· 335

(3) 의료농단 의혹에 관한 사항 - 서창석 증인
(前 대통령주치의, 現 서울대학교병원장) ····· 375

(4) 김영재 관련 사업 중동 진출 특혜 등에 관한 사항 ····· 376

(5) 차병원 특혜 의혹에 관한 사항 ····· 396

[12월 15일. 4차 청문회] ····· 399

(1) 청와대 비선실세 및 정윤회 문건 관련 사항 ····· 399

(2) 특별감찰관 관련 사항 ····· 418

(3) 정유라 입시부정 및 학점 의혹 관련 사항 ····· 430

(4) K스포츠재단 관련 사항 ····· 465

(5) 문체부 농단 관련 사항 - 김종덕 증인(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480

(6) 최순실 등의 부정 인사 의혹 관련 사항 ····· 494

(7)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사항 ····· 498

(8) 동계스포츠재단 관련 사항 ····· 499

(9)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미수 관련 사항 ····· 503

[12월 22일. 5차 청문회] ····· 506

(1) 우병우 증인, 광주지검의 해경 서버 압수수색 방해 직권남용 의혹 ···· 506

(2) 우병우 증인, 정윤회 문건 사건 관련 은폐 의혹 ····· 512

(3) 우병우 증인,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관련 여부 ····· 516

(4) 우병우 증인, 청와대 민정비서관 낙하산 임명 의혹 ····· 525

(5) 우병우 증인, 직무유기 여부 ····· 529

(6) 우병우 증인, 박근혜 정부 '알자회' 세력화 의혹 ····· 534

(7) 우병우 증인, 김영한 비망록의 우병우팀 관련 ····· 537

(8) 우병우 증인,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 부실 관련 ····· 540

(9) 우병우 증인에 대한 개인 및 친인척 비리 등 기타 의혹 ··· 543

(10) 우병우 증인, 개인 신상 관련 ····· 556

(11) 조여옥 증인, 14.4.16.세월호 사건 당시 진료 관련 ····· 559

(12) 조여옥 증인,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일반 진료 관련 ···· 563

(13) 조여옥 증인, 청와대 비선의료 관련 ····· 567

(14) 조여옥 증인, 언론추적 회피 관련 국방부, 기무사 등
정부의 지원 여부 ····· 569

(15) 위증교사 의혹 관련 ····· 572

(16) 노승일 증인, 코레스포츠와 삼성 계약 의혹 ····· 581

[1월 9일. 7차 청문회] ····· 582

(1)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 582

(2) 청와대 보안손님 출입 통제 관련 - 구순성 증인(청와대 행정관) ··· 598

(3)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관련 ····· 602

(4) 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및 독일에서의 사업 관련 ·· 608

(5) K스포츠재단 직원 징계 및 이사회 회의록 관련 ····· 617

(6) 최순실 및 박근혜대통령 관련 질의 ····· 622

(7) 최순실과 그 측근에 대한 삼성의 지원 의혹 ····· 625

(8) 기타 ····· 630

3. 현장조사 ····· 639

[12월 16일] ····· 639

(1) 김영재의원 현장조사 ····· 639

(2)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현장조사 ····· 658

[12월 26일] ····· 659

(1) 서울구치소 증인 수감동 출입 및 면담 신문 ····· 659

(가) 출입 및 면담 신문 개요 ····· 659

(나) 주요 면담 신문 요지 ····· 659

(2) 남부구치소 증인 수감동 출입 및 면담 신문 ····· 665

(가) 출입 및 면담 신문 개요 ····· 665

(나) 주요 면담 신문 요지 ····· 665

Ⅳ. 종합의견 ····· 701

1.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경위 ····· 701

2.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 및 원인 규명 ····· 702

(1) 최순실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최순실의 정책·
인사 개입 의혹 ····· 702

(2) 최순실 및 소위 '보안손님'의 청와대 무단 출입 의혹 ··· 704

(3)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출연·운영과정의 의혹 ··· 705

(4)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공모 의혹 ····· 707

(5)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비리 의혹 ··· 709

(6) 정유라에 대한 삼성 및 승마협회의 부정지원 의혹 ····· 710

(7) 박근혜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및 부실대응, 은폐 의혹 ··· 711

(8) 박근혜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 713

(9) 김영재 등 최순실 주변인물에 대한 청와대 등의 특혜 지원 의혹 ·· 714

(10)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혹 ····· 719

(11) 최순실 등의 문화예술계, 체육계 농단 의혹 ····· 720

(12) 대법원장 사찰, 언론탄압, CJ부회장 퇴진압력 등 기타 의혹 ··· 722

3.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향후 대책 ····· 723

4. 위증 및 불출석등 고발의결사항 ····· 725

(1) 위증고발 관련사항 ····· 725

(2) 불출석증인에 대한 고발 관련사항 등 ····· 726

5. 기타 사항 ····· 728

(1) 특검 수사 의뢰사항 ····· 728

(2) 기타 논의사항(국정조사제도 개선사항 등) ····· 73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국정조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국정조사위원회의 구성

1. 구성경위

가. 2016년 11월 15일 정진석·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91인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제출됨.

나. 2016년 11월 17일 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18인을 선임·통지함(새누리당 9인,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당 2인, 비교섭 1인)

다. 2016년 11월 1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함.

라. 2016년 11월 1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승인함.

2. 구성현황

가. 위원명단

(2016. 11. 17. 구성 명단)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비 고
위원장	새누리당(1인)	김 성 태	
조사위원	새누리당 (8인)	이 완 영 이 만 희 이 혜 훈 장 제 원 정 유 섭 추 경 호 河 泰 慶 황 영 철	간사
	더불어민주당 (6인)	박 범 계 김 한 정 도 종 환 박 영 선 손 혜 원 안 민 석	간사
	국민의당 (2인)	김 경 진 이 용 주	간사
	비교섭단체 (1인, 정의당)	윤 소 하	

※ 위원 사보임 현황

- 추경호 → 최교일('16.11.21, 새누리당), 이혜훈 → 이종구('16.11.29, 새누리당), 이종구 → 이혜훈('16.12.13, 새누리당), 최교일 → 백승주('16.12.21, 새누리당) 백승주 → 최교일('16.12.26, 새누리당), 이완영('17. 1. 2, 새누리당) 사임 이채익('17. 1. 3, 새누리당) 보임, 이채익 → 엄용수('17. 1. 9, 새누리당)

(2017. 1. 13. 현재 최종 명단)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비 고
위원장	바른정당 (1인)	김 성 태	
조사위원	더불어민주당 (6인)	박 범 계 김 한 정 도 종 환 박 영 선 손 혜 원 안 민 석	간사
	새누리당 (4인)	정 유 섭 엄 용 수 이 만 희 최 교 일	간사
	바른정당 (4인)	이 혜 훈 장 제 원 河 泰 慶 황 영 철	
	국민의당 (2인)	김 경 진 이 용 주	간사
	비교섭단체 (1, 정의당)	윤 소 하	

※ 교섭단체 변동 위원
- 김성태, 이혜훈, 장제원, 河泰慶, 황영철('16.12.27, 새누리당→개혁보수신당)

※ 간사 선임
- 정유섭('17. 1. 3, 새누리당)

※ 교섭단체 명칭 변경
- 개혁보수신당→바른정당('17. 1. 9)

나. 직원명단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요 환	
〃	전 문 위 원	정 운 경	
〃	입 법 조 사 관	이 동 현	
〃	입법조사관보	박 동 범	
〃	입법조사관보	조 명 식	
〃	주 무 관	최 경 근	
〃	주 무 관	허 순 남	
국회운영위원회	입 법 조 사 관	이 광 근	
〃	입 법 조 사 관	양 혜 자	
법제사법위원회	입 법 조 사 관	구 슬 이	
〃	입 법 조 사 관	김 대 회	
〃	입 법 조 사 관	백 장 운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보	장 용 석	
〃	주 무 관	이 미 숙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입 법 조 사 관 입법조사관보	문 정 호 조 종 오	
보건복지위원회	입 법 조 사 관	김 은 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 제 관 법 제 관 보	장 만 수 황 현 진	
의사국 의정기록2과	주 무 관	이 순 영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실	주 무 관	이 영 선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경 호 관	신 현 일	
입 법 조 사 처	입 법 조 사 관	조 인 식	

Ⅱ.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개황

1. 조사목적

최순실 등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관여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며,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는 등 국가행정에 대한 직·간접 관여를 통해 국가시스템을 혼란하게 하고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에 여야 5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활동기간

- 조사기간 : 2016. 11. 17. ~ 2017. 1. 15. (60일)
- 예비조사기간 : 2016. 11. 17.부터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 기관보고 :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 현장조사 : 현장검증을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 청 문 회 :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간 연장함.

3. 조사범위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관련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고 한다] 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 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해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

(16) 그 외에 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 의결하는 사건

4. 조사대상(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o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검찰청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기관

- 추가 의결된 기관 : 금융감독원

o 민간 기관

-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 추가 의결된 기관 : 은행연합회, 증권거래소, 법조윤리협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리앤킴법률사무소, 김영재의원, 차움의원

※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서류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음.

나. 증인 및 참고인

o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

5. 조사일정

○ 기관보고

날짜	주요 활동	비고
’16. 11. 30	○ 기관보고(1차)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16. 12. 05	○ 기관보고(2차)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 위원회 회의

회의차수(날짜)	주요 활동	비고
제1차 전체회의 (’16. 11. 17)	○ 위원장·간사 선임 ○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제2차 전체회의 (’16. 11. 23)	○ 위원회 운영 일정 결정 ○ 기관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의결 ○ 국정조사청문회 실시 의결 ○ 증인 출석요구 의결	
제3차 전체회의 (’16. 11. 29)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의결 ○ 국정조사대상기관 추가 의결 - 법조윤리협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리앤킴법률사무소	
제4차 전체회의 (’16. 12. 06)	○ 국정조사청문회 실시(제1차) ○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의결	
제5차 전체회의 (’16. 12. 07)	○ 국정조사청문회 실시(제2차) - 동행명령장 발부 ○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의결	

회의차수(날짜)	주요 활동	비고
	○ 국정조사대상기관 추가 -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 현장조사 실시 의결 ○ 청문회 일시 변경	
제6차 전체회의 ('16. 12. 08)	○ 개의 - 국정조사청문회 계속(차수변경)	
제7차 전체회의 ('16. 12. 14)	○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제3차) - 동행명령장 발부 ○ 청문회 일정변경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참고인의 증인 채택(오병희)	
제8차 전체회의 ('16. 12. 15)	○ 국정조사 청문회(제4차) ○ 동행명령장 발부	
제9차 전체회의 ('16. 12. 19)	○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제10차 전체회의 ('16. 12. 22)	○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제5차) - 동행명령장 발부 ○ 위증교사 의혹 건 특검수사 의뢰 ○ 증인 추가 채택 ○ 참고인의 증인 채택(박헌영, 노승일)	
제11차 전체회의 ('16. 12. 26)	○ 국정조사 현장청문회 실시(제6차) ○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 -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 구치소 수감동 방문 증인 면담·신문 - 최순실(서울구치소) - 안종범·정호성(서울남부구치소)	서울구치소
제12차 전체회의 ('16. 12. 29)	○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위증 증인 고발의 건	
제13차 전체회의 ('17. 1. 3)	○ 간사 선임의 건(새누리당, 정유섭) ○ 위증 증인 고발의 건	

회의차수(날짜)	주요 활동	비고
제14차 전체회의 ('17. 1. 9)	○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제7차) - 동행명령장 발부 ○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 촉구의 건 ○ 참고인 채택의 건(박건찬, 우상일) ○ 불출석 및 동행명령 증인 고발의 건 -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32명 ○ 위증 증인 고발의 건 ○ 정동춘 증인 이사장직 사퇴 권고 결의의 건	
제15차 전체회의 ('17. 1. 12)	○ 위증 증인 고발의 건 ○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현장조사

날짜	주요 활동	비고
’16. 12. 16	○ 김영재의원 현장 조사 (김영재의원 회의실)	
’16. 12. 26	○ 구치소 수감동 출입 및 증인 면담·신문 - 서울구치소 : 최순실 - 서울남부구치소 : 안종범, 정호성	

6. 증인 및 참고인[1)]

가. 기관증인

❑ 11. 30(수) 1차 기관보고

(단위 : 인)

구 분	기 관 장	부서장 등	계
1. 문화체육관광부	1	15	16
2. 법무부	1	3	4
3. 대검찰청	1	3	4
4. 보건복지부	1	6	7
5. 국민연금공단	1	2	3
계	5	29	34

❑ 12. 5(월) 2차 기관보고

(단위 : 인)

구 분	기 관 장	부서장 등	계
1. 대통령비서실	1	11	12
2. 대통령경호실	1	8	9
3. 국가안보실	1	2	3
4. 기획재정부	1	4	5
5. 교육부	1	7	8
계	5	32	37

1) 이하 표의 음영부분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참고인임.

❑ 11. 30(수) 1차 기관보고

1. 문화체육관광부

직 위	성 명	출 석 일 시	신 문 요 지
장관	조윤선	2016.11.30(수) 10:00	국정조사범위 및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제1차관	정관주	〃	〃
제2차관	유동훈	〃	〃
기획조정실장	송수근	〃	〃
문화예술정책실장	공 석	〃	〃
문화정책관	이형호	〃	〃
예술정책관	우상일	〃	〃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	〃
콘텐츠정책관	최병구	〃	〃
체육정책실장	김재원	〃	〃
체육정책관	한민호	〃	〃
체육협력관	전병극	〃	〃
관광정책실장	황명선	〃	〃
관광정책관	김태훈	〃	〃
국제관광정책관	이우성	〃	〃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	〃

2. 법무부

직 위	성 명	출 석 일 시	신 문 요 지
장관	공석	2016.11.30(수) 10:00	국정조사범위 및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차관	이창재	〃	〃
기획조정실장	권익환	〃	〃
검찰국장	안태근	〃	〃

3. 대검찰청

직 위	성 명	출 석 일 시	신 문 요 지
검찰총장	김수남	2016.11.30(수) 10:00	국정조사범위 및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차장검사	김주현	〃	〃
반부패부장	박정식	〃	〃

※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차장 김주현, 반부패부장 박정식 불출석사유서 제출

4. 보건복지부

직 위	성 명	출 석 일 시	신 문 요 지
장관	정진엽	2016.11.30(수) 10:00	국정조사범위 및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차관	방문규	〃	〃
보건의료정책실장	권덕철	〃	〃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	〃
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	〃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	〃
연금정책국장	장재혁	〃	〃

5. 국민연금공단

직 위	성 명	출 석 일 시	신 문 요 지
이사장	문형표	2016.11.30(수) 10:00	국정조사범위 및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본부장 (기금이사)	강면욱	〃	〃
팀장 (책임투자팀장)	정재영	〃	〃

❑ 12. 5(월) 2차 기관보고

1. 대통령비서실

직 위	성 명	출 석 일 시	신 문 요 지
대통령비서실장	한광옥	2016.12.5(월) 10:00	국정조사범위 및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정책조정수석	공 석	〃	〃
정무수석	허원제	〃	〃
민정수석	최재경	〃	〃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	〃
홍보수석	배성례	〃	〃
경제수석	강석훈	〃	〃
미래전략수석	현대원	〃	〃
교육문화수석	김용승	〃	〃
고용복지수석	김현숙	〃	〃
인사수석	정진철	〃	〃
총무비서관	이관직	〃	〃

※ 민정수석 최재경 불출석사유서 제출

2. 대통령경호실

직 위	성 명	출 석 일 시	신 문 요 지
경호실장	박흥렬	2016.12.5(월) 10:00	국정조사범위 및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경호실 차장	이영석	〃	〃
경호본부장	류국형	〃	〃
기획관리실장	이상붕	〃	〃
경비본부장	박형곤	〃	〃
안전본부장	김기현	〃	〃
경호지원단장	강부순	〃	〃
경호안전교육원장	신동호	〃	〃
감사관	문병연	〃	〃

※ 경호실장 박흥렬 불출석사유서 제출, 경호본부장 류국형 불출석사유서 제출후 출석

3. 국가안보실

직 위	성 명	출 석 일 시	신 문 요 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2016.12.5(월) 10:00	국정조사범위 및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국가안보실제1차장 (NSC사무처장겸임)	조태용	〃	〃
안보전략비서관	전성훈	〃	〃

4. 기획재정부

직 위	성 명	출 석 일 시	신 문 요 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2016.12.5(월) 10:00	국정조사범위 및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제1차관	최상목	〃	〃
세제실장	최영록	〃	〃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	〃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5. 교육부

직 위	성 명	출 석 일 시	신 문 요 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2016.12.5(월) 10:00	국정조사범위 및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차관	이 영	〃	〃
기획조정실장	이기봉	〃	〃
대학정책실장	배성근	〃	〃
감사관	김청현	〃	〃
교육과정정책관	남부호	〃	〃
대학정책관	서유미	〃	〃
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	〃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 12월 6일(화) 제1차 청문회

○ 증인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	구본무	㈜LG 대표이사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기부금 출연 등	
2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3	손경식	CJ(주) 대표이사	〃	
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5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 기업합병,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등	
7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	
8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9	최태원	SK(주) 대표이사	〃	
10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11	최 광	전)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삼성 합병 특혜 의혹 등 질의	
12	홍완선	전)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13	김종중	삼성전자미래전략실 사장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의혹에 관한 질의	
14	김 신	삼성물산 사장	〃	
15	박원오	전)승마국가대표 감독	〃	불출석사유서 제출(암수술)

○ 참고인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	주진형	전)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삼성합병의 불합리성 등 질의	
2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3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부회장	〃	
4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5년 7월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고 당시 외압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 내용과 관련한 질의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12월 7일(수) 제2차 청문회

○ 증인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	고영태	전)더 블루케이 이사	민간인 국정개입,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설립과 운영 등	
2	김기춘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문건유출, 정부부처 인사개입 등	
3	안봉근	전)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청와대 및 정부부처 문건 유출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수사중 사건 영향) ※ 동행명령 거부
4	안종범	전)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설립 및 기부금 출연 강요, 공공기관 등 인사 개입 등	〈구속중〉 불출석사유서 제출 (재판중, 건강악화) ※ 동행명령 거부
5	우병우	전)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문서유출, 국기 문란 관련 공직기강 감독, 최순실 등 비리행위에 대한 직무유기 등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6	이성한	전)재단법인 미르 사무총장	재단법인 미르 설립과 운영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뇌경색)
7	이재만	전)청와대 총무비서관	청와대 및 정부부처 문건 유출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의 사유) ※ 동행명령 거부
8	조원동	전)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CJ 이미경 부회장 강제 사퇴 종용 및 병원 해외 진출 지원 등	
9	정호성	전)청와대 부속비서관	청와대 및 정부부처 문건 유출 등	〈구속중〉 불출석사유서 제출 (형사재판 진행중) ※ 동행명령 거부
10	차은택	전)창조경제추진 단장	포레카 강제 인수, 문화창조융합벨트 이권개입, 광고 일감 몰아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 개입 등	〈구속중〉
11	최순실 (최서원)	-	청와대 및 정부부처 문건 유출, 직권남용,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설립 운영 등	〈구속중〉 불출석사유서 제출 (수사·재판중) ※ 동행명령 거부
12	최순득	-	대리진료 및 대리처방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 이유, 암) ※ 동행명령 거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3	장시호	-	동계 영재스포츠센터 특혜의혹 등	〈구속중〉 ※ 동행명령에 따른 출석
14	정유라	-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 및 대가성, 입학관련 의혹 등	출석요구서 미송달 (외국체류, 소재불명)
15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	현대자동차 납품청탁에 관한 질의 등	
16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차은택의 문화창조 융합벨트 전횡 등 관련	
17	유진룡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의 문체부 인사농단 등 질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의 이유) ※ 동행명령 거부
18	노태강	전)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현)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정유라 승마판정 및 승마협회 조사 등 관련	
19	김 종	전)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최순실과 공모해 권한남용, 강요 등 체육계 농단 등	〈구속중〉
20	송성각	전)콘텐츠진흥원 원장	차은택과 연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각종 전횡사건에 대한 질의	〈구속중〉
21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관련 질의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22	홍기택	전)KDB산업은행 회장	금융계 인사개입 관련 질의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23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질의	
24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의혹에 관한 질의 등	
25	전대주	전)베트남대사	베트남 대사 임명에서 비선실세 개입 관련	
26	장승호	유치원 경영(베트남 소재)	베트남 대사 임명 개입 관련 등	베트남 거주 불출석사유서 제출 (유치원 일정)
27	조인근	전)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연설문 유출 관련 등	

❑ 12월 14일(수) 제3차 청문회

○ 증인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	조여옥	전)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미국연수중)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로서 대통령 진료 관련	불출석사유서 제출 (교육수료 일정) 외국연수 *출석(12.22) 재요구
2	신보라	전)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	
3	서창석	전)대통령주치의 현)서울대병원장	대통령 진료 관련, 청와대 의료시스템 등	
4	이병석	전)대통령 주치의 현)연대세브란스병원장	〃	
5	김원호	전)대통령경호실 의무실장 현)연대의대교수	〃	
6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대통령 진료 관련, 김영재의원 특혜 의혹 관련 등	
7	김상만	전)대통령자문의 전)녹십자아이메드병원장	대통령 진료 관련, 비선 진료 의혹 등	
8	김석균	전)해양경찰청장	세월호 참사 보고 체계 관련 등	
9	김장수	전)국가안보실장 현)주중한국대사	세월호 참사 컨트롤타워, 보고체계 관련 등	
10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대통령 진료, 차병원그룹 특혜의혹 관련	
11	윤전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최순실 청와대 인사개입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특검·검찰 수사) ※ 동행명령 거부 *출석(12.22) 재요구
12	이영선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	불출석사유서 제출 (특검·검찰 수사) ※ 동행명령 거부 *출석(12.22) 재요구
13	정기양	전)대통령 자문의 현)연대의대교수	대통령 피부과 진료 관련 등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4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교수	최순실 특혜 관련 등	
15	정기택	전)보건산업진흥원장 현)경희대 경영대 교수	김영재의원 해외진출 관련 중도 사임 문제 등	
16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김영재의원 해외진출 지원과 세무조사 등	
17	오병희	전)서울대학교 병원장	김영재의원 지원관련	자진출석 증인(당일 의결)

❑ 12월 15일(목) 제4차 청문회

○ 증인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	이석수	전)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시절 감찰 활동 관련 및 중도사임 관련	
2	박재홍	전)승마국가대표 감독	정유라 특혜 관련	불출석사유서 제출 (생업에 지장) ※ 동행명령 거부
3	정윤회	전)박근혜의원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 교체 인사 등 국정개입 의혹, 2013년 청와대를 통해 승마계에 개입한 정황 의혹 등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4	박관천	전)청와대 행정관	최순실, 정윤회 등 국정개입 실체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재판중, 가족) ※ 동행명령 거부
5	한 일	전)서울경찰청 경위	정윤회 문건 파동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 이유) ※ 동행명령 거부
6	조한규	전)세계일보 사장	〃	
7	한용걸	전)세계일보 편집국장 (현 논설위원)	〃	불출석사유서 제출 (취재원 보호) ※ 동행명령 거부
8	최경희	전)이화여대총장	정유라 특혜 등	
9	김경숙	전)이대체육대 학장	정유라 입학, 학사 관리 관련 등	
10	윤후정	전)이대명예총장	정유라 특혜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11	정수봉	대검찰청 정보기획관	정윤회 문건 수사 미진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수사·재판중)
12	박기범	승마협회 차장	정유라 특혜 관련 등	
13	금보아	이화여대 의류학과 학생(과대표)	정유라 학점 특혜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기말시험)
14	이혜지	이화여대 의류학과 학생(과대표)	〃	불출석사유서 제출 (기말시험)
15	김상률	전)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김한수 선임행정관의 역할 및 관할 업무 관련 등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6	김영석	전)미르재단 이사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행사 기획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17	김종덕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순실-차은택과의 관계, 최순실 관련 예산 및 예산지원 의혹, 문체부 및 산하기관 인사 개입	
18	김한수	전)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최순실 비롯 일가와의 관계, 대선부터 청와대 재직까지 조직에서의 직책과 관할 업무, 최순실씨 비선조직 운영 의혹, 최순실씨 태블릿 pc 개통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주소 불명으로 출석요구서 미송달) ※ 동행명령 거부
19	김형수	전)재단법인 미르 이사장	재단 설립 및 운영, 기업 모금과 관련한 위법 소지 등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20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	정유라 입학, 학사관리, 교육부 주관 사업 관련 등	
21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	
22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	불출석사유서 제출 (수사중, 건강상 이유) ※ 동행명령 거부
23	심동섭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김종 전 차관 업무 지시 관련	
24	이규혁	전)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문체부 개입 및 인사조치 건 관련 등	
25	이한선	전)재단법인 미르 상임이사	케이타워 사업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의 이유) ※ 동행명령 거부
26	정동구	전)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재단설립 및 자금 출연 배경, 용처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해외출장)
27	최원자	이화여대 교수	정유라 특혜 관련 등	
28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	차은택 관련 진술 등	
29	박헌영	전)재단법인 K스포츠 과장	재단법인 k스포츠 지원 관련 의혹 등	
30	정동춘	전)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재단 설립 및 운영, 기업 모금과 관련한 위법 소지 신문	

○ 참고인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정윤회 문건 보도 관련 의혹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의 이유)
2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공정방송 훼손 및 정부의 방송 공정성 저해활동 관련 등	
3	김준모	전)세계일보 팀장	정윤회 문건 보도 관련 의혹	불출석사유서 제출 (취재원 보호)

❑ 12월 22일(목) 제5차 청문회

○ 증인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	박원오	전)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의혹에 관한 질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 이유, 암)
2	최순실 (최서원)		청와대 및 정부부처 문건유출, 직권남용,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등	〈구속중〉 불출석사유서 제출 (형사재판중) ※ 동행명령 거부 ※ 12. 26. 서울구치소 등 현장조사에 동행명령 의결
3	안종범	전)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부금 출연 강요, 공공기관 등 인사개입 등	〈구속중〉 불출석사유서 제출 (형사재판중, 건강) ※ 동행명령 거부 ※ 12. 26. 서울구치소 등 현장조사에 동행명령 의결
4	정호성	전)청와대 부속비서관	청와대 및 정부부처 문건 유출 등	〈구속중〉 불출석사유서 제출 (형사재판중) ※ 동행명령 거부 ※ 12. 26. 서울구치소 등 현장조사에 동행명령 의결
5	우병우	전)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문서유출, 국기 문란 관련 공직기강 감독, 최순실 등 비리행위에 대한 직무유기 등	
6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관련 질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 이유, 노령) ※ 동행명령 거부
7	홍기택	전)산업은행 회장	금융계 인사 개입 관련 질의 등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8	정유라	-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 및 대가성, 입학관련 의혹 등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9	최순득	-	대리진료 및 대리처방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10	장승호	유치원 경영(베트남 소재)	베트남 대사 임명 개입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베트남 거주)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1	안봉근	전)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청와대 및 정부부처 문건 유출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수사중인 사건, 자녀에게 영향) ※ 동행명령 거부
12	이재만	전)청와대 총무비서관	〃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의 이유) ※ 동행명령 거부
13	유진룡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의 문체부 인사농단 등 질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해외여행) ※ 동행명령 거부
14	이성한	전)재단법인 미르 사무총장	재단법인 미르 설립과 운영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 이유, 뇌경색, 루푸스)
15	조여옥	전)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미국연수중)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로서 대통령 진료 관련	
16	이영선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최순실 청와대 인사 개입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수사·재판중) ※ 동행명령 거부
17	윤전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불출석사유서 제출 (수사·재판중) ※ 동행명령 거부
18	고영태	전)더블루케이 이사	민간인 국정개입,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설립과 운영 등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19	노승일	K스포츠 부장	재단법인 K스포츠 지원 및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 증언 관련 사항 등	
20	박헌영	전)K스포츠 과장	〃	

○ 참고인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	정동춘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재단법인 K스포츠 지원 및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 증언 관련 사항 등	
2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	〃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12월 26일(월) 제6차 청문회

○ 증인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	최순실 (최서원)		청와대 및 정부부처 문건유출, 직권남용,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등	〈구속중〉 ※ 동행명령 거부 (형사재판중) ※ 12. 26. 서울구치소 수감동 출입 및 면담 신문 실시 (비공개)
2	안종범	전)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부금 출연 강요, 공공기관 등 인사개입 등	〈구속중〉 ※ 동행명령 거부 ※ 12. 26. 서울남부구치소 수감동 출입 및 면담 신문 실시(비공개)
3	정호성	전)청와대 부속비서관	청와대 및 정부부처 문건 유출 등	〈구속중〉 불출석사유서 제출 ※ 동행명령 거부 ※ 12. 26. 서울남부구치소 수감동 출입 및 면담 신문 실시(비공개)

❑ 2017년 1월 9일(월) 제7차 청문회

○ 증인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	안봉근	전)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청와대 및 정부부처 문건 유출 등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2	이재만	전)청와대 총무비서관	〃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3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최순실 비롯 일가와의 관계, 대선부터 청와대 재직까지 조직에서의 직책과 관할 업무, 최순실씨 비선조직 운영 의혹, 최순실씨 태블릿 PC 개통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4	윤전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최순실 청와대 인사개입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수사·재판중, 건강) ※ 동행명령 거부
5	이영선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	불출석사유서 제출 (수사·재판중) ※ 동행명령 거부
6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정유라 특혜 관련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7	박원오	전)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의혹에 관한 질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 이유, 암) ※ 동행명령 거부
8	유진룡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의 문체부 인사농단 등 질의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 동행명령 거부
9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정유라 특혜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의 이유) ※ 동행명령 거부
10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정유라 입학, 학사 관리 관련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의 이유, 암) ※ 동행명령 거부
11	남궁곤	전) 이화여대 교수	정유라 입학, 학사관리, 교육부 주관 사업 관련 등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2	정동춘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재단 설립 및 운영, 기업 모금과 관련한 위법 소지 신문	
13	우병우	전)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문서유출, 국기 문란 관련 공직기강 감독, 최순실 등 비리행위에 대한 직무유기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수사에 영향) ※ 동행명령 거부
14	조여옥	전)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미국 연수중)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로서 대통령 진료 관련	불출석사유서 제출 (미국 위탁교육 일정)
15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의혹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증언거부권 등) ※ 동행명령에 따라 출석
16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및 대가성 의혹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강상 이유, 병원 입원) ※ 동행명령 거부
17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우병우와 공모하여 불법사찰 의혹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신분 보안) ※ 동행명령 거부
18	정송주	대통령 미용사 (청담동 토니앤가이 원장)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 등	불출석사유서 제출 (수사중, 건강상 이유) ※ 동행명령 거부
19	정매주	대통령 분장사 (대구 토니앤가이 점장)	〃	불출석사유서 제출 (수사중, 건강상 이유) ※ 동행명령 거부
20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	불출석사유서 제출 (가족, 자녀) ※ 동행명령에 따라 출석

○ 참고인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비고
1	정동춘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재단법인 K스포츠 운영 및 최순실 일가 독일 행적 관련 의혹 등	1. 6. 위원장·간사간 합의로 추가 참고인 채택
2	노승일	K스포츠 부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등	1. 6. 위원장·간사간 합의로 추가 참고인 채택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3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
4	김소영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	〃	〃
5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국장	〃	1. 9. 청문회 중 추가 참고인 채택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6	박건찬	경찰청 경비국 국장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한 노트 관련 의혹 등	〃

다. 증인 고발 현황

❑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 현황

성 명	직 위	고발의결일	고발사유
최순실	-	제11차 (2016.12.26.)	불출석 3회 및 동행명령 거부 3회
안종범	전)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	〃
정호성	전)청와대 부속비서관	〃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제14차 (2017. 1. 9.)	불출석 3회 및 동행명령 거부 3회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	〃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	불출석 2회 및 동행명령 거부 2회
윤전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불출석 3회 및 동행명령 거부 3회
이영선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	〃
박재홍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	불출석 2회 및 동행명령 거부 2회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	불출석 3회 및 동행명령 거부 1회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불출석 3회 및 동행명령 거부 3회

성 명	직 위	고발의결일	고발사유
최경희	전 이화여대총장	〃	불출석 1회 및 동행명령 거부 1회
김경숙	전 이화여대체육대학장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불출석 2회 및 동행명령 거부 2회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	불출석 2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	불출석 1회 및 동행명령 거부 1회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	〃
정송주	대통령 미용사(청담동 토니앤가이 원장)	〃	〃
정매주	대통령 분장사(대구 토니앤가이 점장)	〃	〃
정윤회	전 박근혜의원 비서실장	〃	불출석 1회 및 동행명령 거부 1회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	〃
한 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	〃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	〃
윤후정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	〃	〃

성 명	직 위	고발의결일	고발사유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	불출석 1회 및 동행명령 거부 1회
김형수	전 재단법인 미르 이사장	〃	〃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	〃
이한선	전 재단법인 미르 상임이사	〃	〃
정동구	전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	불출석 1회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	불출석 2회 및 동행명령 거부 2회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	〃
최순득	-	〃	〃
장승호	베트남거주, 유치원 경영	〃	불출석 2회
이성한	전 재단법인 미르 사무총장	〃	불출석 2회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	불출석 1회 및 동행명령 거부 1회

❑ 위증 증인 고발 현황

성 명	직 위	고발의결일	고발사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12차 (2016.12.29.)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 개입 관련 위증
홍완선	전)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13차 (2017.1.3.)	문화계인사 블랙리스트 및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여명숙) 사임 관련 위증
김종덕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
정관주	전)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
최경희	전)이화여대 총장 현)이화여대 교수	제14차 (2017.1.9.)	정유라 입학특혜 등 관련 위증
김경숙	전)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현)이화여대 교수	〃	정유라 학점 및 출석관리 특혜 등 관련 위증
남궁곤	전)이화여대 입학처장 현)이화여대 교수	〃	정유라 입학특혜 등 관련 위증

Ⅲ. 국정조사 실시내용

1. 기관보고

[11월 30일]

(1) 문화체육관광부

(가) 보고 내용

1 보고 요지

□ **보고 대상**

○「최순실, 차은택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관련, 그간 국회 및 언론 지적 등을 통해 문체부 소관사업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소관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이 요구됨

○ 이에 '16. 11.1.부터 1차관을 팀장으로「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을 구성·가동하여 기존 의혹사업은 물론, 새로이 제기되는 여러 의혹 사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 특별감사 실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현재까지 자체점검을 통해 의혹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사업들은 아래와 같으며, 의혹 사업을 지속 규명하고 조치할 예정임

【 대상 사업 목록 】

연번	의혹 제기사업	연번	의혹 제기사업
1	국가브랜드 개발 및 홍보, 확산	10	K 스포츠클럽 육성
2	정부상징체계 개발	11	승마 관련 사항
3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만찬 및 문화행사	12	동계스포츠영재 육성 지원사업
4	뮤지컬 원데이(One Day)	13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
5	문화창조융합벨트	14	로잔 국제스포츠협력센터
6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관련 의혹	15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7	미르재단 설립 허가	16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8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17	순방 계기 문화행사
9	늘품체조	18	KCON 2016 프랑스

□ 보고 내용

○ 의혹제기 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확인내용 및 조치계획 등

2 그간의 조치 현황

□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TF) 구성·운영 (11. 1. ~)

○ **(임무)** 의혹이 제기된 문체부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점검, 관련인사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한 정밀 검증 및 관련 조치

* 1차관(팀장), 기조실장(간사), 분야별 실장(문화예술・콘텐츠・체육), 감사관(감사 분야)

○ **(점검기준)** 사업추진에 관여한 주요 내.외부 관계자,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적.비경제적 수혜그룹, 법령.규정.업무 관행 위반사항 등

○ **(활동내용)** 문제사업 재점검·확인, 추가 의혹사안 파악 및 사실관계 확인, 특별감사, 제도개선 등 관련 조치 요구

□ 자체 특별감사 실시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보조금 관련 특별감사('16.11.3.~)

*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비위혐의(장시호의 업무방해, 횡령, 보조금 부당집행 교사 등) 관련 자료를 수사 참고자료로 검찰에 송부('16.11.15.)

** '15~'16년 영재센터 보조금(717백만 원) 집행내역의 적정 여부 등 감사 중

○「ONE DAY 공연(PADAF조직위원회)」지원 관련 특별점검 ('16.11.7.~)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확인, 지원액(공익사업적립금 179백만 원)중 자부담 미집행 비율(81.4%)에 따라 146백만 원 환수 조치 예정 (총사업비 544백만 원, 자부담 365백만 원)

○ 빙판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특별감사 ('16.11.22.~)

* 수행과제 선정과정, 평가과정(평가위원 선정, 평가 등), 사업성과 평가(결과물 활용 등) 등에 대한 감사 진행 중(콘진원, 머큐리포스트 등 관계자)

○ 대한승마협회 감사('16.11.23.~)

*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규정 위반, 국가대표 훈련 내용의 허위 여부, 국가대표 훈련비 집행 및 승마협회 운영 전반 조사 중

□ 의혹제기 사업 '17년 예산 감축 : △1,748억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국가브랜드 사업 등 총 26개 사업 삭감

- 문체부 조정안(872억 삭감) / 상임위 조정안(1,748억 삭감)

* 문체부 정부안 총액 5조 9,104억원 대비 2.95% 감액(세부내역 '별첨')

3 향후 계획

□ 추가 자체감사

○ 자체감사, 회계법인 감사 등을 통해 '플레이그라운드', '엔박스에디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머큐리포스트' 등 국정농단 세력이 관여한 사업에 철저한 사후 검증

- 해당 기획사가 당초의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이나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내역이 있다면 보조금 환수.민사상 가압류.형사 고발 조치 등 엄정 조치

□ 정책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 공공-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 사업 운영주체 집중에 따른 부정 및 비효율 차단, ▲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 ▲ 사업단계별 점검 및 평가 강화 등 사업체계 및 운영방식 점검 및 개편

- 사업추진 절차, 역할 및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 선정과 사업 추진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보조사업 단계별(선정·집행·사후관리) 관리체계 강화, 수의계약 허용 조건 엄격 제한, 소속·공공기관의 하청 및 재하청 계약 관리강화 방안 등 마련

□ 인사 쇄신 및 조직 재정비

○ 인사쇄신 추진

- 최근 1차적으로 이루어진 실국장급 간부인사에 이어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후속 인사 단행 예정

○ 조직 문화 및 체질 개선

- ① 조직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② 명확한 권한위임과 책임행정 강화, ③ 공정인사 확립 ④ 내부소통 활성화, ⑤ 고객지향 현장행정 강화 등을 통해 조직 역량 및 대외 신뢰 회복

Ⅲ. 제기된 의혹 및 점검·확인내용

1 국가브랜드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가브랜드 개발 및 홍보·확산
○ 사업기간 : '15년~
○ 수행방식 : 직접 수행
○ 예산 : '15년 국고 28.7억, 적립금 11.1억, '16년 11.3억
* 집행 기준

□ 제기된 의혹

○ **(비선 개입 의혹)** 국가브랜드 사업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

○ **(국가브랜드 슬로건 관련)**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도 최순실이 만들었다는 의혹

○ **(수의계약 및 재하청 관련)** 최순실, 차은택 관련 업체가 국가브랜드 공모전 일부 사업을 수의계약 및 재하청 형식으로 수주했다는 의혹

□ 점검 및 확인내용

○ **(비선 개입 의혹 관련)** 국가브랜드 개발은 정부상징 통합과 함께 전임 김종덕 장관이 취임 후 역점 추진한 사업

- 국가브랜드 개발 추진단 위원은 최순실.차은택과 무관한 인사들로 파악
- 관련 업체(㈜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모스코스)와 계약 체결 사실 없음

○ **(국가브랜드 슬로건 관련)**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문체부가 추진단을 구성(‘15.3.16)하여 공모전 및 한국다움 키워드 수집 등을 통해 도출한 대한민국 핵심가치(창의, 열정, 화합)를 토대로, 브랜딩 작업(인터브랜드 수행) 및 전문가 자문, 토론회(’16.2.2./4.29./5.24.) 등을 거쳐 확정, 발표(’16.7.4.)

○ **(수의계약 및 재하청 관련)** 종합홍보용역은 조달청 경쟁입찰 거쳐 ㈜프레인글로벌 대행사 선정(‘15.5.12)

- ㈜프레인글로벌에서 공모전 관련 ㈜크리에이티브아레나, 인터브랜드, 아이디움 등 다수 업체에 재하청 사실 확인

2 정부상징체계 개발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부상징체계 개발
○ 개시년도 : 2015년~2016년(완료)
○ 집행예산 : '15년 1,341백만원, '16년 310백만원, '17년 없음
○ 수행방식 : 직접 수행
○ 추진경과 : 정부협의체, 관계기관 협의,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 국가상징체계 개발 계획(문체부) : 차관회의('15.3.12), 국무회의('15.3.17)
* 정부상징 디자인(안) 보고(문체부) : 차관회의('16.3.10), 국무회의('16.3.15)
* 정부기에관한공고 개정(행자부) : 차관회의('16.3.17), 국무회의('16.3.22)
* 2016년 11월 현재 42개 중앙행정기관 및 1,220개 소속기관 등에 적용

□ 제기된 의혹

○ **(갑작스런 추진)** 차은택의 은사인 김종덕 장관 취임 이후 갑작스럽게 추진된 사업으로, 추진단장 장○○ 교수 또한 차은택의 은사임

○ **(최순실 태극.오방색 사전 기획)** 사업 초기인 '15년 3월에 소재를 태극으로 이미 결정하고 '15년 11월에 오방색 도입을 시도하는 등 "최순실 오방색.태극"으로 사전 기획됨

□ 점검 및 확인내용

○ **(갑작스런 추진)** ▲ 네덜란드('07~'08), 프랑스('95~'07), 영국('12~) 등 주요 선진국이 내.외부 소통 강화 등 목적으로 정부상징 통합 ▲ '09년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도 추진(2009.7.~2010.8.) ▲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시각디자이너인 전임 김종덕 장관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재추진

- 추진단.사업단.심사위원 등 참여자들은 최순실.차은택과 무관한 인사들이며, 추진단장(장○○ 교수)는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장'으로서, '영상대학원'을 다닌 차은택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밝힘

○ **(최순실 태극.오방색 사전 기획)** 정부상징 소재는 2015년 3월이 아닌 11월 자문회의 이후 결정

- 2015년 3월 디자인공모에서 "무궁화"와 "태극"을 지정소재로 하고, 자유소재를 포함하여 공모

- 2015년 9월 디자인공모 심사 결과에도 "무궁화"와 "태극"이 모두 선정되었으며, 수정.보완을 거친 11월의 후보작 5점 중에 2점이 무궁화임

- 언론의 오방색 사전 기획 의혹 제기는 11월 20일 자문회의에서 일부 전문가가 오방색 사용을 제안한 회의록 일부 내용을 인용한 것이나, 오방색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을 거쳐 적·청색은 반영됨

<2015.11.20. 전문가 자문회의에 올린 후보작 5점>

3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만찬 및 문화행사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만찬 및 문화행사
- ○ 개시년도 : 2014년
- ○ 사업예산 : 총 3,415백만 원 (문체부 위탁사업비 2,176백만 원, 외교부 예비비 810백만 원, 문체부 보조금 429백만 원)
- ○ 수행방식 : 직접수행(행사 대행업체 수의계약)

□ 제기된 의혹

○ 행사 총감독이었던 차은택씨가 HS애드를 대행사로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차명회사인 엔박스에디트를 통해 2억 8,600만원 알선수재

□ 점검 및 확인결과

○ **(추진경위)** 외교부 준비기획단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계획' BH 보고('14.10.08) 이후 '오·만찬 및 문화행사'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조정('14.10.20일 경)

○ **(대행사 선정과정 개입)** 본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당시 HS 담당 부장 면담(11.23) 결과, '차은택씨가 국제행사 수행 실적 등을 근거로 HS애드를 문체부(김종덕 전 장관)에 추천했다'고 검찰에 진술함

○ **(알선수재 관련)** 정산서 및 HS애드 확인결과, 영상제작 비용으로 2억 8,600만원을 하청업체인 ㈜큐스컴을 통해 차은택씨 차명회사로 알려진 엔박스에디트에 지급

* HS 담당 부장은 차은택씨 요청으로 영상제작 업무를 엔박스에디트에 재하청 준 것으로 검찰에 진술

* 제작영상물 : 만찬장 미디어 월 영상(1개), 만찬장 문화공연 영상(1개), VIP 라운지 장인영상(6개), 전통공예체험 전시 영상(6개), 로비 프로젝션 영상(1개)

4 뮤지컬 원데이(One Day)

사업개요

○ 행 사 명 : 융복합공연 뮤지컬 '원데이(One day)'
○ 행사일자 : 2014.8.27.(「8월 문화가 있는 날」 계기 공연)
○ 사업시행자 : 파다프조직위원회(대표 : 한선숙 상명대 교수)
○ 예산 : 공익사업적립금 179백만원(영상물 등 81백만원/(주)아프리카픽쳐스)
* 총연출 : 차은택 / 예술감독 : 한선숙

□ 제기된 의혹

○ **(차은택에 대한 특혜)** 차은택이 연출한 뮤지컬 '원데이(One day)' 공연 10일 전 국고 179백만 원 긴급 지원

□ 점검 및 확인내용

○ **(차은택에 대한 특혜)** 김희범 당시 제1차관의 지시로 파다프(PADAF) 조직위에서 추진하는 원데이 공연에 공익사업적립금 179백만 원 지원

- '원데이(One day)' 공연은 파다프조직위의 지원요청에 따라 행사성격.공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결정
- 차은택이 총연출을 맡았으며, 지원예산 중 일부(81백만원)가 아프리카픽쳐스로 집행됨
- '원데이(One day)' 공연의 예산지원과 집행 과정에서 차은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

○ **(지원금 집행 적정성)** 파다프조직위는 총 사업비 544백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정산 보고하였으나, 점검결과 적립금 179백만원은 정상 집행하였고, 자부담 365백만원 중 일부(재능기부, 협찬.후원)는 지출근거가 미비함

□ 조치사항

○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점검 중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조치 예정

5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운영

○ 사업년도 : 2015년 이후 계속사업

○ 사업예산 : 2016년 904억, 2017년 419억 (교문위 의결 기준)

* 2015년(관광기금) : 벤처단지 구축 8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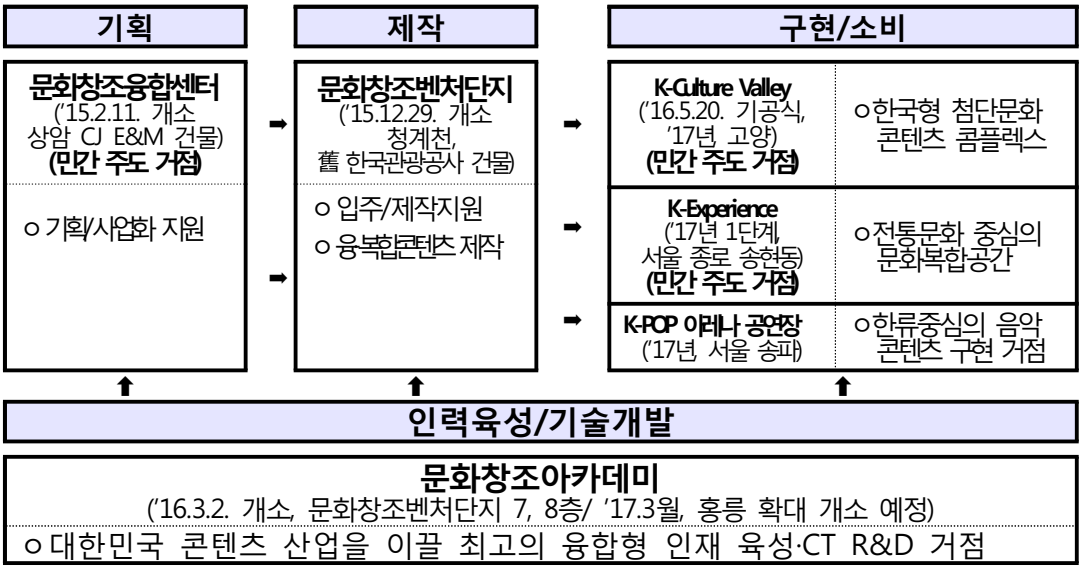
○ 수행방식 : 민간경상보조(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콘텐츠'라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존의 '장르별.제작 지원'에서 '장르복합.기업 성장/인프라 지원'으로, 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 해외 주요국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입주/인큐베이팅 지원 등 수행

○ 주요내용 : 기획.개발, 제작.사업화, 구현.소비, 인재육성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모든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 지원

(출범 당시 개념도)



○ 개편계획(안) : 민간주도 거점(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K-컬처밸리)은 민간에 일임하여, 각 기업 자율로 추진하게 할 예정

□ 제기된 의혹

○ **(특정인 기획 사업)**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

○ **(관광기금 전용)**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시 관광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전용했다는 문제 제기

○ **(입주기업 특혜)** 차은택이 친분이 있는 기업들(G사, P사, Y사)을 입주시키고 지원 사업에 선정되게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

○ **(지원사업 특혜)** 윤○○ 교수에게 30억 원 이권 사업(궁 프로젝트)을 몰아줬다는 의혹

□ 점검 및 확인내용

○ **(특정인 기획 사업)**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체부가 추진해 오던 기존 정책(콘텐츠코리아 랩, 창의인재양성 사업 등)과도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

○ **(관광기금 전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

* 한류 콘텐츠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이므로 문화창조벤처단지와 k스타일허브 사업(구 관광공사 리모델링 사업)을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입주기업 특혜)** 언론에 거론된 특정 기업(Y사, G사, P사)을 포함하여 벤처단지 기업 입주 선정시, '공고-접수-평가위원회 구성-평가' 등 과정 자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

○ **(지원사업 특혜)** 궁 프로젝트의 예산 10억원은 윤○○ 교수가 참여한 기획 단계에 지원된 금액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콘텐츠 개발 업체에게 지원된 예산인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

* 당초부터 기획-개발이 분리되어 이루어진 사업으로, 문화창조아카데미에서 기획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사업화(언론에 언급된 교수는 기획 단계에 참여)

□ 조치계획

○ 사업의 기본 취지를 볼 때 창업기업가 육성.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의 중단시 콘텐츠산업 현장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근간은 유지

○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산 심의 등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전면 재편할 계획

- 기존 사업 중 민간이 주도하던 거점은 민간의 자율에 맡겨 각 기업이 자유롭게 추진하도록 하고, '콘텐츠기업 육성' 및 '콘텐츠인재 양성'을 위해 공공 주도로 추진해 온 문화창조벤처단지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은 전면 재편

○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감사 등을 통해 특정 인물의 불법행위 등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필요 조치 시행

6 빙판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과제 연구기관 선정 관련 (송성각)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계스포츠 공연 연출을 위한 빙상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 연구기관 : 빛샘전자 컨소시엄(주관 : 빛샘전자, 공동 : 머큐리포스트 ('16년부터 화이어웍스), 세항, 부경대학교)

○ 연구기간 : 2015.6월 ~ 2018.3월

○ 지원금액 : 총 33.5억 원 ('15년 10.2억, '16년 10.8억, '17년 12.5억)

-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21억 원이며, '17년 12.5억 원은 미집행 금액으로, 평가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금액

- 머큐리포스트는 공동연구기관으로 '15년에 2.5억 원을 지원받았음 ('16년부터는 해당 컨소시엄의 요청으로 연구기관에서 제외)

□ 제기된 의혹

○ 송성각 전 콘진원장이 머큐리포스트사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고, 이후, 머큐리포스트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동 과제를 수주했다는 의혹

□ 점검 및 확인내용

○ 동 사업의 연구기관 선정시, 공고-접수-평가위원회 구성-평가 등 과정 자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지만, 현재 추가로 특별감사 진행 중(11.22.~)

○ 동 과제를 활용하기 위해 기획했던 평창올림픽 사업 예산 ('17년 20억)은 전액 삭감 조치를 취함

□ 조치계획

○ 현재 머큐리포스트가 동 연구과제 수행기관은 아니지만, 동 과제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당초 '17년 지원금으로 협약했던 12.5억 원은 집행하지 않을 예정

○ 송 원장의 연구개발 과제 선정 과정에의 구체적 개입 정황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체부 감사, 검찰 수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 중단.연구개발비 환수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

7 미르재단 설립허가

재단 개요

○ 설립시기 : 2015.10.27.
○ 재단규모 : 486억 원 ('16.11.23일 기준 잔액 약 460억 원)
○ 주요사업 : 음식문화 저변 구축 및 확산, 저개발국 영양식 보급 등
○ 임원현황 : 이사장 1명, 이사 3명, 감사 1명 등

□ 제기된 의혹

○ **(설립허가)** 재단 설립허가 신청 하루 만에 설립허가가 이루어져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 **(신청서류 날인 누락)**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이 없는 하자있는 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음에도 설립허가 했다는 의혹

□ 점검 및 확인 내용

○ **(설립허가)** '15.10.22. 청와대 회의에서 '문체부는 10.27.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요청 받음

* '15.10.22. 청와대 회의 → 10.22.~23. 설립허가 신청 상의→ 10.26. 허가 신청 → 10.27. 설립허가

- 이후 전경련 사회공헌팀장이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서울 출장접수 요청을 했고, 과장은 담당자에게 출장 지시

- 담당자는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15.10.26.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결재문서를 기안했으며, 10.27. 설립허가

○ **(신청서류 날인 누락)** 문체부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에 SK하이닉스 포함 모든 발기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

8 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재단 개요

- ○ 설립시기 : 2016.1.13.
- ○ 재단규모 : '16년 288억 (20개 기업 출연)
- ○ 주요사업 : 태권도 홍보, 장애인 스포츠 진흥, 국제체육 교류 등
- ○ 임원현황 : 이사장 1명, 이사 4명, 감사 1명 등

□ 제기된 의혹

○ **(설립허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승인이 이루어져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 '16.1.11. 전경련 관계자 안내 → 1.12. 허가신청 → 1.13. 설립허가

○ **(설립 관련 서류 작성)** 케이스포츠재단의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문체부 체육정책관실 공무원이 작성해 주었다는 의혹

□ 점검 및 확인 내용

○ **(설립허가)** 당시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문체부에 조속히 허가를 내주도록 요청('16. 1. 8.)

- 설립허가 신청 하루 전인 1.11.에 당시 체육정책관이 체육정책과장과 실무 담당자에게 바로 허가를 내주도록 지시

- 담당자는 지시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전경련 관계자에게 안내(1.11.)해주고, 서류를 제출받아(1.12.)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1.13.)

○ **(설립 관련 서류 작성)**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결과, 문체부에서 재단의 정관, 회의록 등 작성해 준 바 없는 것으로 확인

9 늘품체조

사업개요

○ 행 사 명 : 문화가 있는 날 (대통령 참석 생활체육 현장체험)
○ 행사일자 : 2014.11.26.
○ 사업시행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 (주)블루인마케팅서비스사
○ 예산 : 238백만 원 (영상물 88백만 원, (주)엔박스에디트)
* 늘품체조 보급(2015.3월～12월) / 대한체육회(270백만 원)

□ 제기된 의혹

○ **(시연행사 관련)** '14.11월 문화가 있는 날에 당시 개발 중이던 코리아체조를 대신해 늘품체조가 선정된 경위

○ **(행사 영상물 관련)** '14.11월 '문화가 있는 날' 영상물 제작사(엔박스에디트, 88백만원)가 차은택 씨의 소유라는 의혹

○ **(거짓해명 요구)** 문체부에서 체조 개발자(정 모 씨)에게 '늘품체조 개발을 문체부에 먼저 제안했다고 이야기하도록 요청' 했다는 주장

□ 점검 및 확인 내용

○ **(시연행사 관련)** 김종 전 2차관 지시로 문체부에서 작성된 '대통령 참석 생활체육 현장체험 행사 계획'에 따라 늘품체조를 시연

* ('14.10.20일) 김종 前 차관, 체육진흥과장에게 늘품체조 제안서 검토 및 관계자 면담 지시 → (10.24일) 체육진흥과장, 관계자 면담 → (10.30일) 김종 前 차관 주재 첫 늘품체조 시연회 → (～'14.11.26일) 지속 보완을 거쳐 대통령 참석 행사

○ **(행사 영상물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행사대행사인 ㈜블루인마케팅서비스사에 위탁, 대행사가 영상물제작 업체로 ㈜엔박스에디트 선정

○ **(거짓 해명요구)** 당시 담당자(담당과장 및 담당사무관 등)들은 거짓 해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함

※ 사실 확인을 위해 9월중 정 모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음

10 K-스포츠클럽 육성

사업개요

○ 목적 : 생활체육 저변 확산,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엘리트선수로 육성하는 학교・생활・엘리트 스포츠 선순환 거점 마련('13년~)
○ 현황 : 현재 총 37개소(지역형 34개소, 거점형 3개소) 운영
○ 유형·지원 : △ (지역형) 대도시 연 3억 원(3년간 9억), 중소도시 연 2억 원(3년간 6억), △ (거점형) 연 8억 원(3년간 24억)
○ 시행/예산 : 대한체육회 / '16년 13,000백만원('17년 정부안 13,000백만원)

□ 제기된 의혹

○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직원이 K스포츠재단 직원을 지자체 체육시설 현장실사에 동행하는 등 재단에 특혜를 주려 했다는 의혹

□ 점검 및 확인 내용

○ **(현장실사 동행 관련)** 김종 전 2차관이 스포츠클럽에 관심이 있는 단체 직원이 있다고 하면서 관련 안내를 하도록 지시('16.3월초)

- 문체부·대한체육회 직원이 K스포츠재단 직원*과 함께 6개 지자체**를 방문('16.3.16.~23.)한 바 있다는 사실 확인

* 당시에는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심이 있는 단체라고만 소개

** 서울 은평, 남양주, 강릉, 대구북구, 고창, 남원

- 안내 과정에서 거점 K-스포츠클럽 공모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체육시설 위탁)하여 공모에 참여하는 절차 등을 소개

○ **(선정 결과)** 케이스포츠재단 탈락, 최종 3개(광주·부산·남원) 선정 (‘16.11월)

- 남양주·K스포츠재단은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1~2차 평가 합산결과 6개 중 5위, 3차 현장 실사시 남양주에서 공모포기 의사 표명(‘16.7~10월)

11 승마 관련

□ 제기된 의혹

○ **(국가대표선발 관련)** 정유라 선수가 2014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14년 6월 상주)에서 첫날 12위에 그쳤으나 다음 날 2위를 기록, 최종 국가대표로 선발

○ **(삼성·승마협회 정유라 지원 관련)** 삼성·승마협회에서 중장기 로드맵(올림픽 프로젝트)을 계획하는 등 정유라 선수를 지원해왔다는 의혹

□ 점검 및 확인 내용

○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감사 진행 중이며, 감사를 통해 주요 의혹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

- 삼성·승마협회 관련사항은 검찰 조사 중

· (시기 및 기간) 2016.11.23.~12.7(15일) *필요시 기간 연장
· (감사대상) 대한승마협회
· (감사반 구성) 문체부·대한체육회 합동감사반(9명)
*문체부(4명/감사관실 1명, 체육정책과 1명, 스포츠비리신고센터 2명), 대한체육회(5명/감사실 등)
· (감사방법) 실지감사
· (주요감사내용) ① 정유라 국가대표훈련 내용 및 규정개정 등 선발과정 문제 ② 국가대표 훈련비 등 보조금 집행 ③ 승마협회 회계(5년간) 및 협회운영 전반

□ 조치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가 종료되어 결과보고서를 1월 13일까지 제출 예정

12 동계스포츠영재 육성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주최단체지원(동계스포츠영재육성)
○ 개시년도 : 2015년
○ 사업예산 : '15년 2.4억 원(공익사업적립금 0.4, 주최단체지원금 2), '16년 4.8억 원(주최단체지원금)
○ 수행방식 : 민간보조

□ 제기된 의혹

○ **(장시호 개입)** 동계스포츠영재육성 지원 사업에 장시호 개입 및 자금 횡령 의혹

□ 점검 및 확인내용

< 문체부 특별감사 실시 >
○ 감사기간 : '16.11.3. ~ 12.2.(예정) *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11.1.)
○ 중간 조치 경과 : 장시호의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11.15.)

○ **(장시호 개입 여부)** 특별 감사 결과, 장시호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

○ **(보조금 유용 여부)** 특별 감사 결과, 국고 보조사업의 자부담 지출 내역 중 장시호의 차명회사로 추정되는 누림기획에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확인

* 누림기획 지급 내역 : 총 57,320천원

□ 조치계획

○ **(환수 조치)** 보조금 집행 점검, 감사 등을 통해 부적정 집행 내역 확인 시 국고보조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예정

* 일부 사업(제2회 스키캠프) 집행보류 조치(10.31.)

13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건립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
(시설건립지원-개폐회식장 건립)
○ 개시년도 : 2015년
○ 사업예산 : '15년 60억원, '16년 150억원, '17년 348억원
○ 수행방식 : 지자체보조 * (강원도 → 조직위)

□ 제기된 의혹

○ **(누슬리 참여)** 문체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설계에 더블루K와 업무협약을 맺은 스위스 업체 누슬리를 참여시키라고 요구

○ **(사업 지연)** 누슬리 참여로 인해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

□ 점검 및 확인내용

○ **(누슬리 참여 관련)** 개폐회식장 기본설계 진행 중 해외전문업체의 대안검증 필요성으로 '15.12월 3개 업체(GL이벤트, Nussli, Arena)를 초청 대안검토를 진행했으며, 검증결과 기본설계 디자인 컨셉 등에 부합하지 않아 해외업체의 참여가 어렵다고 결론 내림

* 개폐회식장 사업은 문체부가 올림픽대회 유치(2011년) 이후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 개폐회식장 이전이 검토되던 2014년부터 재정절감 차원에서 조립·해체식 체육시설 전문 해외업체에 활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사업 지연 관련)** 개폐회식장 건설은 턴키방식으로 ㈜대림산업이 책임 설계·시공한 사업으로, 대안 검토와 관계없이 ‘15.11월부터 부지 조성 토목공사 우선시행과 설계용역을 함께 추진하였기 때문에 현재 예정대로 정상 추진 중(공정율 31.2%, 금년 목표 40%)

14 로잔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사업개요

○ 추진 목적

- 국제스포츠기구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 스포츠 외교역략 강화
- 주요 국제기구 및 유럽 지역 선진 스포츠 행정, 정책 시스템 벤치마킹

○ 추진 경과

- '08.12. WTF(세계태권도연맹) 로잔사무소 문화부 직원 파견 검토
- '15.05. '16년 예산(20억 원) 반영 추진하였으나 미반영
- '16.02. '16년「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사업 공익사업적립금 10억원 반영
- '16.04. 로잔 국제스포츠협력거점 구축 중간 보고

* 사업시행(대한체육회), 인력파견(체육회 1명, 태권도단체 1명, 현지채용 2명)

□ 제기된 의혹

○ **(올림픽 이권 확보 의혹)** 김종 前 차관, 로잔협력센터 주도로 센터 설립 후 더 블루케이, 더 스포츠엠 등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의혹

□ 점검 및 확인내용

○ **(추진 경과)** 문체부는 '08년부터 스포츠 외교의 핵심무대인 스위스 로잔*에 현지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왔음

* 스위스는 IOC본부와 20개 올림픽종목 국제연맹(IFs)본부 등 국제스포츠 기구가 밀집한 도시로 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형성의 최적지

○ **(사업 검토)** '15년 초 체육단체와의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로잔에 스포츠 외교거점을 구축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6년 예산 미반영

*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세계스포츠평화봉사재단, IOC, UN 산하 국제기구 재편

○ **(점검 결과)** '16년 로잔협력센터 구축을 검토하였으나 사무실 확보 어려움 및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추진 중단

15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실업팀(GKL휠체어펜싱팀) 창단
○ 추진연도 : 2015~2016년
○ 사업예산 : 2016년 10억(GKL 자체예산)
* 체육기금(대한장애인체육회 실업팀 창단지원금 지원) 5천만 원 지원('16년)
– 지원항목 : 인건비, 훈련지원비, 대회참가비, 장비구입비 등

□ 제기된 의혹

ㅇ 문체부가 장애인펜싱팀 창단 관련 GKL을 압박해 더블루K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

□ 점검 및 확인내용

ㅇ **('15.9.8. 공문) 관련** (문체부 → GKL)

- 문체부는 장애인실업팀 활성화를 위해 '15.3월부터 산하 공공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GKL)과 장애인실업팀 창단을 협의 추진해왔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애인스키팀을 창단('15.7월)하였음

- GKL은 내부사정(주식회사로서 이사회 설득명분 필요 등)으로 창단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문체부는 GKL에 장애인실업팀 창단 협조 공문을 시행('15.9.8.)하였음

- 동 공문 이후, GKL이 장애인수영실업팀 창단 추진을 준비해 나가던 중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창단이 지연되는 상황이 되었음

ㅇ **('16.5.3. 공문) 관련** (문체부 → GKL)

- GKL은 문체부에 장애인펜싱팀 창단 계획을 보내왔고('16.4.8.), 원활한 실업팀 창단을 위해 '스포츠 에이전트 활용 관련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16.4.29.)을 해왔음

- 이에 문체부는 전문 스포츠에이전트 제도를 활용할 경우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권익보호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공문을 시행 (‘16.5.3.)한 것임
- 동 공문 시행 당시, 에이전트 회사인 더블루K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와 같은 의혹이 있는 사실은 알지 못했음

16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및 운영
○ 개시년도 : 2015년 * 2014년 산업부 예산(일반회계) 67억원 별도
○ 사업예산 : 2015년 263억원(일반회계 207억원, 관광기금 56억원)
○ 수행방식 : 민간경상보조(주관기관 : 한국관광공사)

□ 제기된 의혹

○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사업이 산업부에서 문체부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급증했다는 의혹

○ 밀라노엑스포 시 과거 송성각이 대표로 있었던 머큐리포스트가 5억원 상당의 영상물 제작용역을 수주했다는 의혹

□ 점검 및 확인내용

○ **(예산 증가)** 문체부 이관 이후 전시 주제 구현을 위한 콘텐츠 보강 및 설계변경(동선 변경, 식당·기념품점의 전시 연계 인테리어 등) 등을 위해 예산증액 필요

- 당시 '15년 예산 국회 심의 중인 상황으로,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89억원 증액

○ **(영상물 제작용역 수주)** 전시·영상 용역업체인 시공테크가 머큐리포스트와 5억 원의 영상S/W 제작 재하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

- 해당 계약에 차은택, 송성각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확인은 어려움

17 순방 계기 문화행사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통령 해외 순방 계기 문화행사

○ 내　　용 : 언론 등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상외교 시기에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

방문국	행사일	기획사(대표)	지급비용 (천원)	비고
멕시코	'16.4.3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김홍탁)	459,685	플레이그라운드 참여
이란	'16.5.2	㈜아이오라이브마케팅 (김승희)	445,071	케이스포츠재단 태권도 시범단 참여
아프리카 3개국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16.5.28 ~5.31 *에티오피아(5.28), 우간다(5.29) 케냐(5.31)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김홍탁)	1,114,930	플레이그라운드 참여, 케이스포츠재단 태권도 시범단 참여

○ 수행방식 : 위탁 계약(이란), 민간보조(멕시코, 아프리카 3개국)

□ 제기된 의혹

○ **(순방 행사 참여)** 신생 태권도 팀(케이스포츠재단 소속 태권도 시범단)의 순방문화 행사 참여에 대한 특혜 의혹

- '16년 1월 설립되어 신생임에도 불구하고 케이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단이 이란('16.5.2), 아프리카('16.5.28~31) 순방 문화 행사 행사에 참여

- 케이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단에게 과도한 사례비를 지급했다는 의혹

○ **(순방 행사 대행)** 최순실·차은택 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순방 행사의 기획사로 참여 시켰다는 의혹

-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과도한 행사비 지급 의혹

* 이란 : 445,071천원 / 아프리카 3개국 : 1,114,930천원

□ 점검 및 확인 내용

○ **(순방 행사 참여)** 프로그램 구성, 공연팀 선정, 기획사 선정 등 순방문화행사 준비는 청와대 관련 비서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

- 시범단에 지급된 사례비는 다른 공연단체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

* 이란은 한 회에 1인당 90만원을 지급, 아프리카(3개국)는 1인당 22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다른 공연단체 사례비와 비슷한 기준

○ **(순방 행사 대행)** 멕시코, 아프리카 순방행사의 경우, 다수의 국제행사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연출자(전OO 이사)를 우선 선정하고 해당 연출자가 소속된 기획사(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가 순방행사에 참여

* 당시에는 플레이그라운드와 최순실, 차은택 간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함

□ 조치사항

○ **(제도개선)** 순방 문화행사 매뉴얼 작성 *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 순방 계기 문화행사의 추진 절차와 주체별 역할(청와대, 해외문화홍보원,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현지 공관 등)을 명확히 규정

- 예술 감독·기획사·출연단체의 선정 기준을 문서화하고, 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 **(정산철저)** 현재 회계법인(우리회계법인)을 통해 플레이그라운드가 참여한 멕시코, 아프리카 순방 행사의 정산 업무를 진행 중이며, 철저하게 정산 조치 계획

- 해당 기획사가 당초의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이나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내역이 있다면 반환 조치하고, 필요시 민사상 가압류나 형사 고발 조치 검토

18 KCON 2016 프랑스 (한식문화 세계화 전시관 조성)

사업개요

- ○ 사 업 명 : KCON 전시 중 한식문화 세계화 전시관 조성 사업
- ○ 사업년도 : 2016년(한시사업)
- ○ 사업예산 : 500백만원
- ○ 수행기관/방식 : CJ E&M/민간보조

□ 제기된 의혹

○ **(선정 및 지원)** KCON 2016 프랑스는 당초 한-불 공식인증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16.5월 지원키로 결정하고 곧바로 지원

○ **(업무위탁)** CJ E&M은 플레이그라운드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5억 원) 전액을 그대로 이체하였으며, 전시행사 부실 의혹 제기

□ 점검 및 확인내용

○ **(공식인증사업 채택)** 2015년부터 양국 조직위원회는 현지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사로 K-pop공연 개최를 협의 중이었는바,

- 2016년 초부터 프랑스에서의 KCON 개최를 검토해 오던 CJ E&M측이 2016년 5월 사업신청을 하여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하게 됨

○ **(업무위탁 계약)** 본 사업은 CJ E&M이 주관한 민간사업으로 플레이그라운드에 업무위탁 계약체결 사항은 정산과정에서 계약서를 통해 알게 됨

○ **(전시행사 운영)** 메뉴 구성 등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관단체인 CJ E&M에서 주관한 사항으로 문체부에서는 직접 개입한 바가 없음

□ 조치사항

○ 현재 위탁계약(PG 등)체결 사유 등 추가자료 요청 중, 사업수행 상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보조금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

참고 의혹제기사업 2017년 예산 심의 현황

(단위 : 억원)

	17년 정부안	문체부 삭감안	교문위 의결
계	**3057.7**	**△872.2**	**△1,748.55**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 (국가브랜드 개발 및 홍보 확산)	30	△15	△20
아리랑 핵심 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	20	△1.5	△10
위풍당당콘텐츠펀드 *융복합콘텐츠계정	300	△100	△270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127	0	△87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한국문화가 있는 날)	12	0	0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한식문화 교육)	18	△3	△8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K-컬처체험관 운영)	40	△10	△20
문화박스쿨 설치 및 운영	45	△20	△35
전통문화 진흥 (한복 콜라보레이션)	6	0	△6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빙판디스플레이 운영 및 갈라쇼 개최)	20	△20	△20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실리콘벨리)	10	△10	△10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콘텐츠 가치평가)	10	△3	△3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문화창조융합센터 조성 및 운영)	10	△10	△10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문화창조벤처단지)	555	△192	△341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문화창조아카데미)	309	△51	△138

	17년 정부안	문체부 삭감안	교문위 의결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86	△86	△86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98	0	△98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구축)	36	△36	△36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169	△145	△169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실버문화육성)	25	0	0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육성	192	△36	△81
국가이미지 홍보 (순방계기 문화행사)	18	△8	△10
한국관광공사 운영 지원 (케이스타일 허브)	13	△13	△13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300	△100	△230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스포츠산업 잡페어)	4	△2	△2
태권도 진흥 (K-POP 시범공연 해외매칭사업)	10	△10	△10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개・폐회식장 건립)	348	0	0
광고산업 활성화 (글로벌 광고인재 센터)	5	0	0
스포츠산업육성 (스포츠산업포럼)	0.7	△0.7	△0.7
역사전통문화관광 활성화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	8	0	0
올림픽공원 운영 지원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233	0	△34.85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문제

○ (지적)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의 속전속결식 설립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힐 필요가 있음.

○ (질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남은 재산에 대한 환수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 (답변) 법원 판단에 따라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결이 나오면 그 후속절차에 따르도록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단을 설립 취소하거나 해산시키고 유사목적의 재단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국고로 귀속하는 방법이 있음.

○ (질의) 하윤진 대중문화산업과장이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설립 관련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에 보고했는지, 그 사실이 장관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 질의

- (답변) 조윤선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최병구 정책관은 기억을 하지 못함.

○ (지적)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대한 외압 행사와 이권 개입에 우병우 민정수석 및 K스포츠재단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지.

○ (지적)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김종 전 차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하여 사전 관리·감독했어야 할 필요

② 문화체육관광부 등 문화체육 분야 인사의 문제점

○ (지적)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문화수석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지적) 김종덕 장관 및 김종 차관이 추천한 인사에 대한 재검증과 노태강 국장, 전재수 과장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함.

- (답변) 문제점이 있는 인사들은 점검 중이며, 일부는 사직을 하였음. 노태강 국장, 전재수 과장의 경우 당사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음.

○ (지적) 대통령이 뉴욕문화원장 선발방식을 변경한 인사 개입의 문제점

○ (지적) 소위 “최순실 부역자”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업무정지 및 내사·감사 필요

○ (지적) 김종 차관에 대하여 여러 의혹이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사조치 없이 방치한 데에 문제가 있음.

③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관련

○ (지적)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관련 권영빈 문예위원장의 발언의 사실관계 및 경위 확인 필요

○ (질의)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포함 인원 중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은 얼마인지.

- (답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았으며, 리스트에 포함된 9,400명 중 600명이 지원을 받았음.

○ (질의) 비선실세들의 문화·체육사업에 대해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외부 감사가 아닌 자체감사가 적절한 방법인지.

- (답변) 자체감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을 검찰 수사에 참조하도록 기관에 송부함.

④ 최순실 등 비선실세 문제 관련

○ (지적) 차은택-최순실 관련 예산이 2013~2015년 급증하였으며, 부실집행되고 있음.

○ (지적) 장시호가 관여한 누림기획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질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예산 증가는 최순실, 차은택이 국고를 빼돌리려는 전략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감사할 생각이 없는지?

- (답변) 수사되고 있고 언론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속 감사하고 있으며, 그 경과를 보고하겠음.

○ (질의) 정유라와 최순실의 진정서 제출로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가 제주에서 인천으로 변경된 것이 감사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 (답변)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지적) 후원기업인 삼성전자가 도쿄올림픽 승마유망주 선발에 있어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등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⑤ 기타 사항

○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러 사업이나 예산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문제된 사업의 재점검·재정비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 (답변) 주요 직책의 인선에 있어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원금 사업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하고 있음.

○ (지적)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1,300억원의 예산 중 3개월 만에 97억만 남았다고 발언한 보도와 관련하여 조치계획을 보고할 것

○ (질의) 김종 차관의 박태환 선수 올림픽 불참 강요 사실을 파악하였는지.

- (답변) 보도를 보고 알게 됨.

(2) 법무부

(가) 보고 내용

Ⅰ. 개 요

○ 최순실 등과 관련된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16. 10. 27.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수사

○ 최순실, 안종범(前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호성(前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고발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을 수사하여, 11. 20.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11. 27. 차은택(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前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각 구속기소

○ 그 외 장시호(前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 11. 21. 구속), 김종(前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11. 21. 구속) 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하여 수사 중임

Ⅱ. 수사 · 재판 현황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운영 등 관련 사건

○ 피고인

-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여, 60세, 임대업)
- 안종범(57세, 前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정책조정수석비서관)

○ 사건 경과

- '16. 9. 29.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장 접수

  ※ '16. 10.~11. 시민단체 등 고발장 5건 추가 접수

- '16. 10. 11.~23. 고발인 및 관련자 등 조사, 주요 피의자·참고인 출국금지 및 통신사실 확인
- '16. 10. 26.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6. 11. 3. 최순실 구속
- '16. 11. 5. 안종범 구속
- '16. 11. 20. 최순실·안종범 각 구속기소

  ※ '16. 12. 13. 제1회 공판준비기일 예정

○ 주요 공소사실 요지

(최순실, 안종범)

- ’15. 10.하순~’16. 1.초순경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모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15. 2.~3.경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약 11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16. 4.~5.경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최순실 운영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약 71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16. 5.경 롯데그룹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 원을 케이스포츠에 출연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16. 3.경 최순실 운영의 스포츠마케팅회사 더블루케이가 운영권을 넘겨받을 목적으로 포스코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펜싱팀 창단에 합의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차은택, 송성각과 공모하여, ’15. 2.~6.경 포스코의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을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침【강요미수】

- 차은택과 공모하여, ’16. 3.~8.경 (주)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차은택의 지인인 이○○ 등 2명을 채용하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변경하게 한 후, 최순실 운영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약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김종과 공모하여, ’16. 5.경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순실)

- ’16. 2.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상대로 연구용역 수행을 가장하여 더블루케이 명의로 용역대금 7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사기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 **피고인**

- 정호성(47세, 前 청와대 부속비서관)

○ **사건 경과**

- ’16. 10. 26.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 ’16. 11. 5. 정호성 구속
- ’16. 11. 20. 정호성 구속기소

※ '16. 12. 13. 제1회 공판준비기일 예정

○ **공소사실 요지**

- ’13. 1.~’16. 4. 「행정부 및 공공기관 인선안」, 「국무회의 말씀자료」, 「행정부 및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총 47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등으로 최순실에게 유출【공무상비밀누설】

광고업체 지분 양도 요구 등 관련 사건

○ 피고인

- 차은택(46세, 前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민간단장)
- 송성각(58세, 前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사건 경과

- ’16. 10. 13.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 ’16. 11. 11. 송성각 구속
- ’16. 11. 12. 차은택 구속
- ’16. 11. 27. 차은택·송성각 각 구속기소

○ 공소사실 요지

(차은택, 송성각)

- 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하여, ’15. 2.~6.경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을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지분을 양도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

(차은택)

-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16. 3.~8.경 (주)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최순실 운영의 플레이그라운드에 약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15. 1.~4.경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관련 용역을 ㈜HS애드에서 수주하도록 문체부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준 대가로, 2억 8,600만 원 상당의 영상제작 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수주【특가법위반(알선수재)】
- ’06. 1.～’16. 10. 허위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주)아프리카픽쳐스 자금 총 10억 4,700만 원 상당 횡령【특경법위반(횡령)】

(송성각)

- ’14. 11.～’16. 10. (주)머큐리포스트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위 회사 법인카드 3,800만 원 상당 사용【특가법위반(뇌물), 사전뇌물수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관련 사건

○ 피의자

- 장시호(여, 37세, 前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

- 김종(55세, 前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사건 경과

- ’16. 10. 27.~31. 시민단체 등 고발장 2건 접수

- ’16. 11. 21. 김종, 장시호 각 구속

○ 주요 피의사실 요지

(장시호, 김종)

- ‘15. 10. ~ ’16. 3.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 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16. 4.~6.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계자로 하여금 위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시호)

- ’15. 9.~’16. 7. 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할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보조금 7억 1,683만 원 편취【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 ’15. 11.~’16. 5.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법인 자금 3억 1,832만 원 횡령

【업무상횡령】

(김종)

-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16. 5.경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14. 5.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으로 하여금 지인이 재직 중인 美 조지아대를 해외연수 기관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케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16. 3. 케이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공무상비밀누설】

前 비서실장·민정수석 직무유기 등 사건

○ **피의자**

- 김기춘(77세, 前 대통령 비서실장)
- 우병우(49세, 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사건 경과**

- ’16. 10.~11. 시민단체 등 고발장 접수
- ’16. 11. 9. 우병우 주거지 압수·수색
- ’16. 11. 23.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 주요 피의사실 요지

(김기춘)

- ’14. 10.경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우병우)

- ’14. 5.경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주변인사인 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 등의 비리를 알고도 이를 방기【직무유기】 등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사건

○ 피의자

- 조원동(60세, 前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사건 경과

- ’16. 11. 14. 주거지 등 압수·수색 (11. 11. 검찰 직인지)

- ’16. 11. 21. 구속영장 청구 (11. 23. 기각)

○ 피의사실 요지

- ‘13. 7.경 CJ그룹 회장 손경식에게 VIP 뜻이라며 CJ그룹 부회장 이미경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강요미수】

이화여대 입시비리 등 관련 사건

○ 피의자

- 최경희(여, 54세, 前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 남궁곤(55세, 前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
- 김경숙(여, 61세, 前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

○ 사건 경과

- ‘16. 10. 18.~21. 시민단체 등 고발장 2건 접수
- ’16. 11. 22. 이화여대 사무실, 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6. 11. 24. 교육부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 접수

○ 주요 피의사실 요지

- ‘14. 9.경 체육특기생 입학사정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업무방해】

- ‘16. 4.경 정유라의 지도교수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지도교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학생지도 업무를 방해【업무방해】

- ‘15. 3.경부터 ’16. 10.경까지 정유라의 수강 과목 교수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높은 학점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교수의 학사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업무방해】

Ⅲ. 향후 계획

○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진행 예정

○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최순실 일가 조사 관련

○ (질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관련자 재산 보유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

- (답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받은 바 없음.

○ (질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입장은?

- (답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음.

○ (지적) 최순실에 대한 검찰 수사 개시가 지연된 문제점 지적

○ (질의) 정유라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지. 소환결정 및 신병확보가 필요함.

- (답변) 검찰에서 소재를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음.

○ (지적) 최순실 등 최태민 일가의 재산취득 경과에 대한 조사 필요

○ (질의) 정유라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환 대상인지.

- (답변) 소환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검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임.

○ (질의) 현명관 마사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정유라 지원을 위한 인천승마장 인수 논의와 관련된 것 아닌지.

- (답변) 어떤 부분을 조사했는지 밝히는 것은 곤란하지만, 삼성그룹에서 코레스포츠에 송금해 준 부분과 지원 약속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 사실임.

② 우병우·김기춘 수사 관련

○ (지적) 우병우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등에 대한 검찰수사 의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 의지보다 뒤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답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에 못지 않을 정도의 엄정한 태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지적) 우병우 변호사의 민정수석 취임 직후 “효성”의 경영권 분쟁 수사 담당이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변경되었는바,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

○ (지적) 우병우 민정수석의 차은택 비위 묵인·증거인멸·국정농단 등 의혹과 최순실의 개인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질의) 직권남용 의혹이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및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필요

- (답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내용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임.

③ 정호성 녹취파일 관련

○ (질의) 검찰 수사가 지연되어 시작된 이유, 청와대 압수수색이 미진한 이유 및 정호성 전 비서관 녹취 관련 보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 소명을 요구함.

- (답변) 의혹이 구체화되고 증거가 있을 때 영장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 시작 전에는 의혹이 구체화되지 않았음.

○ (질의) 정호성 녹음파일이 대통령 혐의의 핵심증거가 맞는지,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 (답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지적) 언론의 정호성 녹음 보도 관련 여러 의혹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 (지적) 정호성 녹음파일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

④ 대통령 관련 사항

○ (지적) 대통령 담화가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법률적 당부판단에 명확한 견해를 밝힐 필요가 있음.

○ (질의) 대통령이 하야하면 구속여부가 문제되는데 현재 세 차례 담화 과정을 보면 허위진술 및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어 대통령의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지. 또한 관저·의무실·경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답변) 대통령 구속사유 여부는 현재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려움.

○ (지적) 업무보고에 대통령 관련 공모부분이 빠진 이유 소명 요구

○ (질의) 대통령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에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는지.

- (답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적)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 대가로 최순실의 사익을 챙겨주었다면 본인의 사익추구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 (지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수사하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음.

⑤ 기타 사항

○ (지적) 2014년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 결과가 잘못되었으며, 제대로 조사했었어야 했다는 문제 지적

○ (지적) 삼성-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 결과로 제3자 뇌물혐의를 입증할만할 자료가 나왔는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지적) 연금공단 직원 핸드폰 교체 등 증거 인멸 시도와 관련하여 수사 필요

○ (지적) 검찰의 중요 압수수색 과정을 볼 때, 검찰, 법무부, 민정수석실, 대통령 등에서 수사정보가 사전 유출되었다는 강한 의심이 있으므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속수사가 필요함.

○ (질의) 검찰총장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 조사 및 보고 필요

- (답변) 전혀 사실이 아님.

○ (지적) 고영태는 더블루K 배드민턴 창단 관련 강요죄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확실히 조사할 필요

○ (질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 등 보고서 작성 시 민정수석실, 검찰 또는 법무부가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

- (답변) 협조한 사실은 전혀 없음.

○ (지적) 안종범과 공모해서 미르·K스포츠 모금을 주도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구속수사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음.

○ (지적)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수주는 국가를 위한 공적사업으로 볼 여지가 없음.

○ (질의) 엘시티 특혜 의혹 관련 황교안 총리가 수사대상인지.

- (답변) 현재로서 수사선상에 놓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없음.

○ (지적)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이후, 특별감찰관실 전 직원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해석을 이끌어낸 법무부에 문제가 있음.

○ (질의)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를 검찰이 갖고 있는지, JTBC에서 어떻게 입수한 것으로 파악되는지.

- (답변) JTBC 관계자가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JTBC의 입수 경위는 재판 진행 중으로 답변이 곤란함.

○ (지적)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 PC가 JTBC 보도한 것과 동일한지와 입수경위에 대하여 확인 필요

○ (질의) 특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특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지.

- (답변) 좀 더 검토해볼 문제임.

○ (질의) 세월호 7시간이 검찰조사 대상인지.

- (답변) 모든 의혹에 대해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특별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으로 생각함.

(3) 보건복지부

(가) 보고 내용

1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지침, 연간 기금운용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국민연금법 제103조)

* **(기금운용위원회: 총 20인)** 위원장(복지부장관) 1인, 당연직 위원 5인(정부 4인, 이사장 1인),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 관계 전문가 2인

-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실무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

*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구체적**인 **기금운용, 투자집행**업무 수행

- 주식·채권 등 개별 투자결정, 의결권행사, 자산군별 위험관리 등

* 국민연금법 제31조(기금이사)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규정

□ 의결권 행사

○ **(주체)**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가 행사

-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의결권행사지침 제8조)

* '06.1월~'15.7월까지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60건 중 59건을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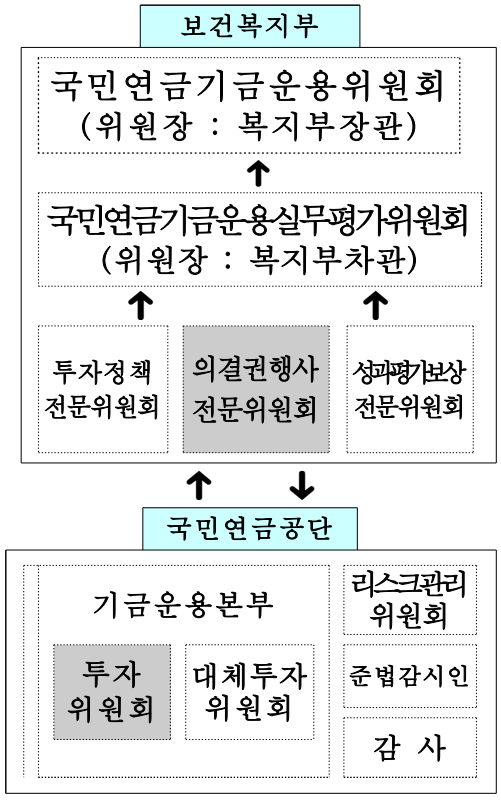
> 【의결권행사지침】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①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의결권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한다 (이하 생략) ②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의결권행사의 원칙)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의결권행사지침 제4조)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한 결과, **합병 찬성 결정**('15.7.10)

참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기구별 역할]

구분	주요 내용
기금운용 위원회	· (구성)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 총20인 · (기능) 기금운용지침, 중기자산배분계획, 연간 기금운용계획 등 심의·의결
전문위원회	· (구성) 민간전문가 · (기능) 의결권행사지침, 성과평가보상지침 등 기금운용 세부지침 검토 및 자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 기금운용 실행 · 자산별 투자 및 위험관리 · 의결권행사

□ 기금 규모

○ 운용 수익금 250.9조 원을 포함하여 총 683.9조원을 조성, 연금급여 등으로 139.9조원을 지출하고 **544.6조원 운용 중** ('16.9월)

〈 기금 조성 내역(1988.1～2016.9) 〉

조 성 683.9조원	지 출 139.3조원	기금적립금 544.6조원
연금보험료등* 433.3조원	연금급여 132.7조원	금융부문 543.5조원
운용수익금 250.6조원	관리운영비 6.5조원	복지/기타 1.1조원

* 연금보험료(432.3조원) + 임대보증금 등(1.0조원)

2 차움의원 및 김영재의원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복지부, **차움의원의 대리처방여부** 및 **김영재의원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11.10)

○ **강남구 보건소**, 관련 **진료기록부·처방전** 등 **의료기록**과 **의료인 면담조사**(의사, 간호사 등 14명)로 행정조사 실시(11.11~11.15)

* 차움의원·김영재의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실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旣 조사

□ 조사 결과

○ **(차움의원) 의사 김 모씨**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환자를 직접 진찰 후 처방**해야 한다는 **의료법령 위반 소지** 확인

○ **(김영재의원)**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을 부인**함에 따라 **수사 필요**

□ 조치 사항

○ **(차움의원 의사 김 모씨 :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보건소, 11.18)

- 또한, **의사자격정치처분**(75일) 절차 **개시**(복지부)

* **(차움의원 개설자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의료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 고발**(보건소)

○ **(의사 김영재: 수사의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보건소, 11.18)

○ **(최순실·최순득씨 진료내역 일체 : 수사의뢰) 차움의원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내역 일체**를 검찰에 수사의뢰(보건소, 11.18)

참고	관련 의료법령 규정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 (의료법 제22조제3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실과 달리 기재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위반한 의료인은 (벌칙)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자격정지처분 1개월

⇒ 의료인이 속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양벌규정 적용

□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

○ (의료법 제17조제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하지 못 함

⇒ 위반한 의료인은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자격정지처분 2개월

⇒ 의료인이 속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양벌규정 적용

※ 대리진찰을 요구한 환자에 대한 의료법 상 제재처분 규정은 없음

3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 현황

□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 현황

○ **(근거 규정)** 체세포복제배아 생성 또는 연구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허용(생명윤리법 제31조 제4항)

○ **(승인 절차)** 연구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 산하 배아전문위원회 심의 → 국생위 심의 → 승인

○ **(그간 승인현황) 생명윤리법** 제정('05 시행) 이후 **3건 연구 모두, 법령**에 따라 **승인**

* ①서울대 황우석 박사('05. 1월 승인, '06. 3월 승인 취소) ②차병원 정형민('09. 5월 승인, '12. 1월 연구중단), ③차의대 이동율 교수('16. 7월 승인)

□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승인 경과

○ **차의대**, 연구계획 승인 **신청**('16.2.16)

- (연구 주요내용) 신경손상·뇌졸중 등 난치병 환자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적합성 항원을 가진 줄기세포주 확립

* 잔여난자 600개 사용계획: 체외수정 후 잔여 동결난자 500개, 미성숙.비정상 난자 100개

○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아전문위원회** ('16.4.15), **국생위** 심의('16.5.12)

-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허용**하는 ①**체외수정 후 잔여동결 난자**, ②**미성숙·비정상적인 난자** 사용에 대해 승인

* (연구가능 난자) ①체외수정후 잔여 동결난자 ②미성숙 또는 비정상적인 난자 ③수정실패 난자 ④난임치료용 채취 후 수증자 없는 난자 ⑤적출난소 채취 난자

- ①난자 구득과정상 합법성, ②기관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③인간복제 가능성 방지, ④연구 진행상황 전반을 관리·점검 받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

○ 복지부, **국생위 심의 결과에 따라** 차의대 연구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16.7.11)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청와대 약품 사용 관련

○ (질의) 청와대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엠라5%, 푸르설타민주, 히시파겐씨주 감초주사, 라이넥주 태반주사,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의 용도는 무엇인지.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주사제를 대통령이 처방전 없이 임의로 맞는 것은 국가 안위에 중요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 (답변) 피로회복, 피부미용 등을 위해서 사용됨. 대통령이 주사를 맞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음.

○ (질의) 비아그라, 88정이 고산병에 효과가 있는지. 청와대에서 해외순방 중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는지.

- (답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여행가이드라인에 고산증에 비아그라 50mg를 8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라는 내용이 있음. 실제 사용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 (지적) 김영재, 김상만 등 인물과 청와대에서 구입한 주사제, 마취제와 세월호 7시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지적) 자낙스, 할시온, 스틸녹스 등 위험성 있는 약품을 청와대에서 사용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지적)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의 대리처방 관련 진료기록부 제출 필요

② 국민연금공단 관련

○ (지적)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절차에 있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관련하여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는데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적) 정진엽 장관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에 개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질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과 관련해서 청와대나 외부의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 (답변) 압력이나 외압이 없었음.

③ 차병원 등에 대한 특혜 의혹 관련

○ (지적) 비동결난자 연구 승인, 배아·태아대상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제대혈 공공관리사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의 혜택이 소위 비선 실세들이 이용한 병원에 주로 돌아갔다는 데 상당한 의혹이 있음.

○ (지적) 차병원그룹 계열사로 운용실적이나 자본금이 소규모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에 보건복지부의 글로벌헬스케어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과 보건복지부 출신 퇴임 관료가 차병원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

○ (질의) 분당차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R&D예산 지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부적격임에도 지원을 한 것 아닌지.

- (답변) 2013년도에 10개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했으며, 분당차병원은 2016년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음.

○ (질의) 6개 정부 부처 연두 업무보고를 차병원 연구소에서 진행하였는데, 차병원 연구소 측에서 업무보고나 발표가 있었는지. 차병원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지.

- (답변) 차병원연구소 측 업무보고나 발표는 없었으며, 차병원 관련 보고는 안하고 보건복지부 연두 업무보고를 하였음.

(4) 국민연금공단

(가) 보고 내용

Ⅰ 일반현황

1. 설립 목적 및 주요업무
2. 조직 및 인력 현황
3. 기금운용 방향 및 체계
4. 기금운용 현황

1.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 설립 목적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1986.12.31. 국민연금법 제정)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급여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설치(국민연금법 제101조)

□ 주요업무

○ (**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연금보험료 부과, 급여 결정·지급

○ (**기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 (**복지**) 복지증진사업 및 수탁사업(기초연금, 장애등급 심사 등) 등

□ 연혁

○ 1987 국민연금공단 설립

○ 1988 국민연금제도 실시, **국민연금기금 설치 및 운용**

○ 1995 농어촌지역 확대 적용

○ 1999 **기금운용본부 출범,** 全 국민 연금제도 시행

○ 2003 **기금 100조원 돌파**

○ 2007 **준법감시인 신설, 기금 200조원 돌파**

○ 2009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법제화

○ **2010 기금 300조원 돌파**

○ 2011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징수업무 이관

○ 2011 **뉴욕 해외사무소 개소**

○ 2012 **런던 해외사무소 개소**

○ **2013 기금 400조원 돌파**

○ 2014 기초연금 지원업무 수행

○ 2015 **싱가포르사무소 개소, 기금 500조원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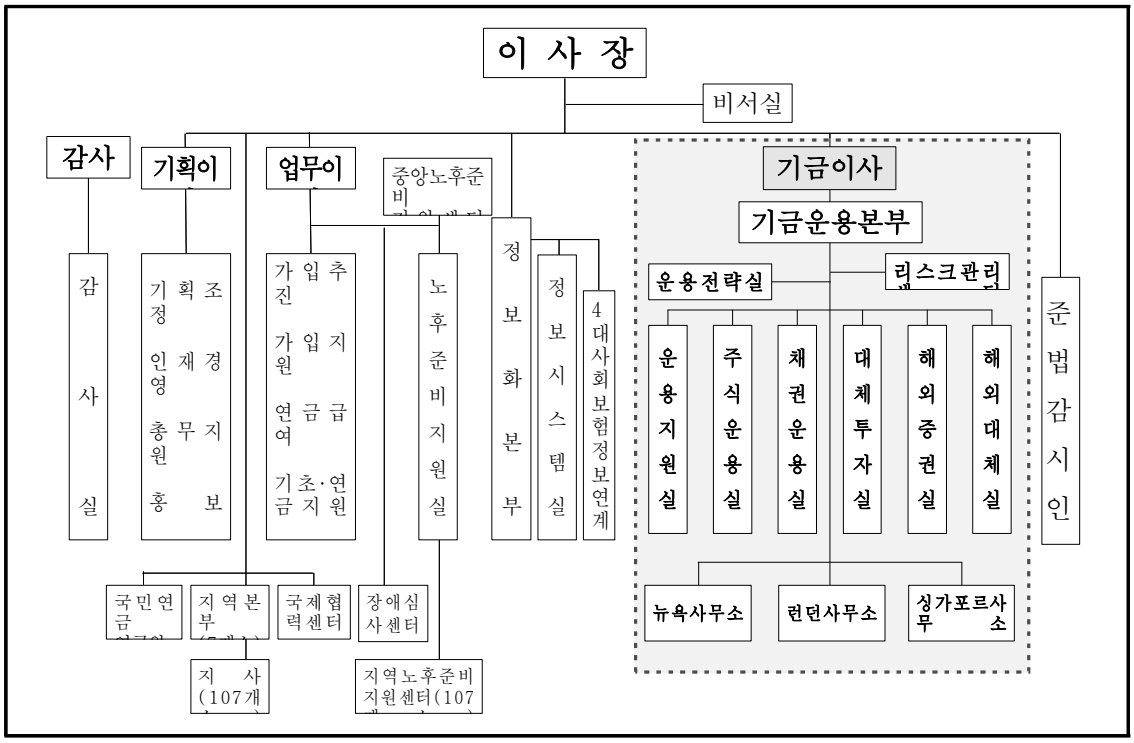
2.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현황

○ **(본부)** 13실 1센터, 기금운용본부, 준법감시인, 국민연금연구원, 정보화본부

○ **(하부조직)** 107개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장애심사센터, 국제협력센터

○ **(기금운용본부)** 1센터 7실(4부, 23팀), 3개 해외사무소로 구성



□ 인력(정원) 현황

○ 공단 전체

(2016. 11월말 기준, 단위 : 명)

계	임원	1급	2급	3급	4~6급	기금	연구	별정	기능
5,599	5	60	239	742	3,958	272	39	2	2

* 기금운용직 정원은 각각 기금운용본부 259명, 준법지원실 11명, 연구원 2명 배치

○ 기금운용본부

(2016. 11월말 기준, 단위 : 명)

계	기금 이사	기금운용직					일반직				
		소계	수석	선임	책임	전임	소계	실장	부장	차장	직원
316	**1**	**259**	**13**	**44**	**94**	**108**	**56**	**1**	**3**	**13**	**38**

3. 기금운용 방향 및 체계

□ 기금운용 방향

○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 (국민연금법 제102조)

○ 기금은 장기운용수익률이 실질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달성하도록 노력(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 기금운용 체계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 위원회에서 결정

○ 공단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

4. 기금운용 현황

□ 기금 조성

○ 2016년 9월 현재 운용 수익금 250.6조 원을 포함하여 683.9조 원을 조성, 연금급여 등으로 139.3조 원을 지출하고 544.6조원을 운용 중임

〈 기금 조성·운용 내역(1988.1~2016.9) **〉**

조 성 683.9조원	지 출 139.3조원	기금적립금 544.6조원
연금보험료등* 433.3조원	연금급여 132.7조원	금융부문 543.5조원
운용수익금 250.6조원	관리운영비 6.5조원	복지/기타 1.1조원

* 연금보험료(432.3조원) + 임대보증금 등(1.0조원)

□ 기금 포트폴리오 현황

○ 자산별 비중은 채권이 57.4%, 주식이 32.1%, 대체투자가 10.3%이고 해외투자는 131.5조원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

('16.9월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금 액	비 중
계	5,445,867	100.0
금융부문	5,434,872	99.8
주 식	1,745,755	32.1
(국 내)	1,001,301	18.4
(해 외)	744,454	13.7
채 권[1]	3,125,765	57.4
(국 내)	2,900,820	53.3
(해 외)	224,945	4.1
대체투자	563,352	10.3
(국 내)	217,830	4.0
(해 외)	345,522	6.3
복지부문[2]	1,411	0.03
기타부문[3]	9,584	0.2

주1) 단기자금(41,079억원) 포함
2) 복지부문 : 복지타운(청풍리조트), 보육노인시설 대여, 신용회복지원자금, 노후긴급자금(국민연금실버론)
3) 기타부문 : 공단사옥운영, 기금보관금

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결권행사

1. 의결권 행사 대상 및 절차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1. 의결권 행사 대상 및 절차

□ 의결권 대상

○ **보유지분율 1%이상 또는 보유비중 0.5%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총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행사**

□ 의결권 주체 및 의사결정 절차

○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판단이 곤란하여 요청한 경우 기금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의결권행사 지침 제3장)

* 의결권행사의 법적근거(국가재정법 제64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

○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는 의안분석 기관의 자문, 담당운용역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위원들이 심의・의결

- (구성) 기금운용본부장, 실장 8인 및 본부장이 지명하는 팀장 3인
- (의결)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한 안건을 결정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

  * 정부・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연구기관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후조치 사항

○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한 건에 대해서는 기업에 통보하고 주총 이후 14일 이내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

-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 동의 시 주총 이전 발표 가능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가. 합병 개요

□ **(방법 및 목적)** 제일모직의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합병비율 1:0.35)으로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여 외형성장 및 신규사업 발굴**

* 이사회결의('15.5.26)-주주확정(6.11)-주주총회(7.17)-합병기일(9.1)

□ **(소유구조 변화)**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9.9%이며, **국민연금은 6.7%**(3대주주)

【 합병전후 주주구성 (단위: %) 】

구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법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주	52.2	13.6	**39.9**
KCC	10.2	5.76	**8.9**
국민연금	4.8	11.2	**6.7**
엘리엇	-	7.12	**2.1**

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건희, 이유정, 조운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회사

□ **(지배구조 변화)** 합병 후 계열사 지분이동에 따른 **기존 순환출자 구조 변화**

○ (합병전)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제일모직

○ (합병후) 합병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전기→합병삼성물산 등

□ **합병관련 법적 논란**

○ **(주총금지가처분 등)** 엘리엇은 국민연금과 주요주주를 상대로 **합병 반대를 권유**(6.4)하고 법적으로는 합병주주총회 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소송**(6.11)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됨

○ **(법규위반 등)** 합병시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총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법적 문제가 없다는 회사의 소명과 회사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한 공단 내부의 준법검토 완료

나. 합병에 대한 분석

□ 합병시너지

○ **(긍정적)** 기존 사업부문인 레저·건설·상사부문 시너지,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확대**, 지주회사로서 신사업진출 확대, 주주환원 강화 등

* 합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제일모직 46.3%, 삼성물산 4.9%)한 후 합병법인의 주도적 투자활동 및 이익창출

○ **(부정적)** 기존 사업부문인 건설·상사의 **합병시너지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합병이후 **바이오 등 향후 성장에 대한 근거 부족**

* 양사가 영위하던 건설 및 상사의 사업영역이 상이하여 합병시너지가 의문이며, 바이오의 가시적 성과가 없이 장기성장이 고평가

□ 합병비율 적정성

○ **(긍정적)** 합병비율 산정에 대한 **법적절차를 준수***하였고 주가순자산 비율 등을 고려시 주식시장이 양사의 **현재·미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 최근 1개월, 1주일, 1일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

○ **(부정적)** 삼성물산의 자산, 매출액 등 재무지표, 보유한 지분가치(삼성전자 등 12.5조원), 건설 등 영업가치 고려시 **저평가**(8.7조원)되어 있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시점에 합병이 결정**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삼성물산)** 사업다각화, 성장동력 확보, 핵심경쟁력 확보 등 긍정적

○ **(엘리엇)** 불리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의 주주가치 훼손, 비율 재산정 필요

○ **(의안분석기관)** 기금과는 달리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점으로 분석하여 권고*

* 합병권고: CGS(삼성물산 반대, 제일모직 반대), ISS(삼성물산 반대, 제일모직 찬성)

□ 합병이 기금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 **(합병비율)** 제일모직 주가기준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높이면 기금의 시가평가액 및 보유지분율은 (+)효과, 낮추면 (-)효과 발생

- 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1:0.35)*과 리서치팀이 추정한 합병비율(1:0.46)간에 0.44%p의 차이가 발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출

【합병비율에 따른 보유 적정평가금액 변동 (단위: 억원, %, %pt)**】**

삼성물산 합병비율	기금 적정 평가액	합병 후 국민연금 지분율	
		지분율	차이
0.35	20,977	6.73	-
0.46	22,365	7.17	+0.44

주1: 지분율은 보통주(우선주 제외)기준으로 산출함

주2: 합병법인의 적정주주가치는 311,820억원(삼성물산 108,850억원, 제일모직 202,970억원)으로 평가

○ **(기업가치 분석) 합병 시너지 효과 등으로 미래가치 증가효과가 합병비율의 불리함을 상쇄** 가능

- **삼성물산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제일모직의 신사업 포트폴리오****가 결합되면서 **추가적인 성장기회** 제공

* 제일모직의 패션, 식음사업의 글로벌 확장에 기여

** 삼성물산의 건설, 상사의 추가 성장에 기여

- **삼성그룹의 신성장 주력사업인 삼성 바이오**(´16.11월 상장, 11.24일 기준 시총 10조원)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를 통한 **성장 확보** 및 **이익창출**

- 향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의 브랜드 로열티 수취** 가능성 및 **신사업 진출 기반 확대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

다. 투자위원회 심의·의결

□ **합병사안의 중요성, 기금수익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의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되,

- 투자위원회에서 찬·반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기로 함**

○ **투자위원회**에서 주주가치 및 기금의 이익, 합병 시너지, 합병 비율 및 포트폴리오 수익, 삼성바이오 가치평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후,

- 위원들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중립 · 기권 · 표결기권** 중 하나를 기명 표결함

○ 표결결과, 합병안건에 대해 **과반이 넘는 찬성**이 나와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함**

* 찬성 8명, 중립 1명, 기권 3명

라. 합병발표 이후 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 **주가의 등락은 시장상황, 업황, 실적 등의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데,

○ 최근 삼성물산 주식은 업황 요인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동종 업종에 비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舊)삼성물산 주가는 합병발표 전일인 2015년 5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 수익률은 동기간 KOSPI, 건설업종, 유통업종대비 각각 **-2.7%** , **+12.3%p, +8.8%p를 기록**

**(舊)삼성물산 최근일 주가는 (합병)삼성물산 주가에 합병비율(0.3501)을 곱하여 계산

□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 지속적인 운용역량 강화와 철저한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수익제고 노력을 지속하겠음

Ⅲ 참고자료

1. 삼성합병관련 추진 경과
2.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현황
3. 투자위원회 현황
4. 합병비율에 따른 기금포트폴리오 변화
5. 삼성물산의 합병 전후 수익률 변화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추진경과

일자	내용
2015. 5. 26.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발표
2015. 6. 4.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보유 공시 및 경영참여 선언
2015. 7. 7.	이재용 부회장 면담
2015. 7. 10.	투자위원회 개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2015. 7. 14.	의결권전문위원회 (안건 미상정 입장에 대한 입장 발표)
2015. 7. 1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2015. 9. 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2016. 1. 27.	합병관련 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16. 5. 30.	합병관련 항고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삼성물산 합병관련 시민단체 고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2016. 6. 16.	삼성물산 합병관련 시민단체 고발 (참여연대, 민변 등)

2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현황

□ 설치 및 운영 근거

○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설치 의결 (’05.12.22.)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제정 (’06.3.30.)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위원장은 호선)

○ 위원구성 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정부(2), 사용자(2), 근로자(2), 지역가입자(2), 연구기관(1)에서 민간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선정

□ 기능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세부 기준 검토에 따른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 마련

○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이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점검 등

□ 위원명단(2015.7.10, 투자위원회 개최일 기준)

구 분	성 명	임기(2년)	소 속 · 직 위	추천단체
정부 추천	김병덕	2014.7.1.~ 2016.6.30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기획재정부
	박창균	2014.7.1.~ 2016.6.30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금공단
사용자 대표 추천	조영길	2015.1.13.~ 2017.1.12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변호사	경총
	이병기	2014.3.4. ~ 2016.3.3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경련
근로자 대표 추천	유철규	2015.1.13.~ 2017.1.12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노총
	강정민	2015.1.13. ~ 2017.1.12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	한국노총
지역 가입자 대표 추천	오정근	2015.1.13. ~ 2017.1.12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 시민회의
	황인태	2015.1.13. ~ 2017.1.12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인 회계사회
연구 기관 추천	김성민	2015.1.13. ~ 2017.1.12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보사연

<별첨>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결권 행사) ① 기금의 보유 주식 의결권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한다.

②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행사기준, 행사절차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을 따른다.

⑤**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생 략)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①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한다.** 다만,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30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이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1.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등
2.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
4.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투자위원회 현황

□ 관련근거

○ 자금운용계획, 의결권행사 등 기금운용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투자위원회를 운영(기금운용규정 제7조)

□ 구성 · 운영

○ 위원장(본부장), 기금운용본부 각 실장, 3명이내 팀장 3명 등 9~12명으로 구성(팀장위원은 매 회차별로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명)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 당시 팀장위원은 투자전략팀장, 리크스관리팀장, 패시브팀장이 참석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 의결 당시 12인 의원이 전원 참석하여 7인 이상 찬성이 의결요건이었음

□ 안건 부의 프로세스

○ 안건 초안 작성 → 준법감시인 검토 → 최종 안건 작성(준법감시인 의견 첨부) → 투자위원회 부의

○ 부의 안건은 담당부서의 의견일 뿐이며, 투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됨

* 예) 2015-42차 투자위원회에 책임투자팀은 KT&G 사장 선임건에 대해 찬성안을 부의하였으나, 참석위원 전원의 판단으로 재심의 의결하여 추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함

□ 사후**보고**

○ 간사(운용전략실장)는 투자위원회 심의내용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의 열람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감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4 합병비율에 따른 기금포트폴리오 변화

□ 합병비율의 변동 영향

○ **(포트폴리오 영향)** 제일모직 주가기준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높이면 기금의 시가평가액 및 보유지분율은 (+)효과, 낮추면 (-)효과 발생

- 단, 비율조정시 현실적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변동효과는 반영되지 않음

【 합병비율에 따른 보유평가금액 변동 (단위 : 억원, %, %pt)**】**

삼성물산 합병비율	기금포트폴리오		합병 후			
	기금 시가 평가액	합병비율 대비 손익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국민연금	
			지분율	증감	지분율	증감
0.25	19,646	-3,153	42.3	+2.4	6.2	-0.4
0.30	21,222	-1,576	41.1	+1.2	6.5	-0.2
0.35	22,799	-	39.9	-	6.6	-
0.45	25,952	+3,153	37.9	-2.0	7.0	+0.3
0.50	27,528	+4,729	37.0	-3.0	7.1	+0.5

주: 보유평가금액 = [제일모직 15. 6. 11. 종가(180,000) × 제일모직 주수] + [제일모직 15. 6. 11. 종가(180,000) × 삼성물산 합병비율 × 삼성물산 주수]

○ **(공정가액* 반영)** 리서치, 의안분석기관, 회계법인이 추정한 공정가액에 따른 합병비율(1:0.35~1.61)로 시가평가액 추정

* 기업의 공정가액: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산출한 가격을 의미하며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가증권은 주식시장의 주가, 보유자산의 가치 평가 등을 활용하여 산출

- 공정가액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이 상이하며, 합병비율의 차이에 따라 기금시가평가액이 비례하지 않음

【 추정 공정가액에 따른 기금 시가평가액 변동 (단위 : 억원, %, %pt)】

구분	합병비율	주가(공정가액)		기금 시가평가액		
		제일모직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물산	계
합병비율	0.35	159,294	55,767	10,410	9,768	20,179
ISS	1.21	91,172	110,234	5,958	19,309	25,267
리서치팀	0.45	150,348	69,677	9,826	12,205	22,031
딜로이트	0.38	158,090	59,879	10,332	10,489	20,820
KPMG	0.41	146,971	59,909	9,605	10,494	20,099
E&Y	1.61	66,648	107,366	4,356	18,807	23,162

주: 보유평가금액 = [제일모직 적정주가 × 제일모직 주수] + [삼성물산 적정주가 × 삼성물산 주수]

* 삼성물산(딜로이트안진), 제일모직(삼정KPMG), 엘리엇(E&Y한영)

5 삼성물산의 합병 전후 수익률 변화

구분	합병 발표전 2015.5.22일	합병 후 ① 2016.10.31일		합병 후 ② 2016.11.17일	
	가격(원)/ 지수(pt.)	가격(원)/ 지수(pt.)	수익률 (%)	가격(원)/ 지수(pt.)	수익률 (%)
삼성물산 (원)	55,300	56,541	2.2	49,539	-10.4
KOSPI	2146.10	2008.19	-6.4	1980.55	-7.7
KOSPI 건설업종	149.06	114.46	-23.2	115.17	-24.7
KOSPI 유통업종	567.19	476.87	-15.9	458.19	-19.2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 (질의) 문형표 이사장이 안종범 수석과 만나서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협조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 (답변) 만난 적은 있지만 협조를 부탁받은 적은 없음.

○ (질의) 문형표 이사장이 최경환 부총리, 최광 이사장 등과 함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에 관하여 논의한 바가 있는지.

- (답변) 논의한 바 없으며, 개별투자 건은 이사장이나 장관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질의)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이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는지.

- (답변) 사후 보고받음. 일상적 업무차원 면담으로 보고받았음.

○ (질의) 합병비율을 평가함에 있어 국민연금 리서치팀의 적정합병비율 분석결과를 보고받았는지, 경영권 승계가 용이하도록 평가한 것이 아닌지

- (답변) 기금운용본부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합병비율이 규칙, 공식에 의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들었음

○ (지적) 국민연금이 재벌총수일가 및 비선실세 지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음.

○ (지적)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비율을 평가함에 있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평가된 것이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과 연관된 것이 아닌지, 단 한차례의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이 문제가 아닌지 지적

○ (지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음.

○ (질의)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 (답변) 그러한 요청에 대해 의사결정과정과 함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설명을 하였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안건을 다루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음.

○ (지적)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문위원회 전문위원에게 바로 연락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지적)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비율을 평가함에 있어 최순실 라인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이 있음.

○ (지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삼성물산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인위적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있음.

○ (지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과 1주당 매수가격의 정당성에는 상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질의) 정재영 책임투자팀장이 삼성 측 누구와 만났을 때 합병비율 조정을 요청하였는지.

- (답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요청했고, 그 전에도 요청을 한 것으로 들었음.

○ (지적)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개입한 정황은 뇌물죄 성립 의혹이 있음.

○ (지적) 연금공단 직원 핸드폰 교체 등 증거 인멸 시도에 문제가 있음.

○ (질의) 문형표 이사장이 복지부장관 사퇴 이후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 시 안종범 수석의 도움을 받았는지.

- (답변) 본인의 인사문제로 그에 대해 답변이 어려움.

[12월 5일]

(1) 대통령비서실

(가) 보고내용

Ⅰ 주요 조치

□ ‘16.10.25, 「국민께 드리는 말씀」발표

□ ‘16.10.28~11.3, 대통령비서진 개편 단행

○ 10.28,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일괄 사표 지시

○ 10.31, 비서실장, 정책조정.정무.민정.홍보수석비서관 면직 및 신임 민정.홍보수석비서관 임명

○ 10.31, 총무비서관.부속비서관.국정홍보비서관 면직

○ 11.3, 신임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

□ ‘16.11.2, 국무총리.경제부총리.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발표

□ ‘16.11.4,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발표

□ ‘16.11.6, 신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개최

○ 광화문 광장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 최순실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

□ ‘16.11.7~11.9, 대통령, 종교계 원로를 초청해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 청취

○ 종교계 원로들은 현 시국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하루빨리 국정정상화를 통해 민생과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

□ ‘16.11.8, 대통령 국회의장 방문

□ ‘16.11.22,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시행

□ ‘16.11.24,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 ‘16.11.29,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 ‘16.11.30, 대통령 특별검사(박영수 변호사) 임명

Ⅱ 국정조사 대상 의혹 관련 사항 및 향후 계획

□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출범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문화융성 등 추진

ㅇ 각 국의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과 기술.산업을 융합하고, 창조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흐름

□ 주요 정책 추진과정 등에서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ㅇ 이미 검찰에서 청와대 관계인 및 최순실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현재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특검 수사가 진행될 예정

ㅇ 대통령께서는 향후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임

□ 대통령께서는 최근 주말집회 등을 통해 표출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11. 29일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고,

ㅇ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를 것임을 표명

□ 대통령비서실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ㅇ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임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세월호 참사 대응 관련 질의·지적사항

○ (질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께 관련 7차례의 정무수석실 서면보고를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 (답변) 당시 정무수석실 산하에 해경이 소속되어 있어서 정무수석실에서 해경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였고, 당시 해경에서 파견 나온 담당자가 수석비서관들의 확인을 받은 후 내부망 메일을 통해 부속실로 송부했고, 부속실에서 받아 본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13번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및 당시 대통령은 무엇을 하였는지?

- (답변)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셨고, 그 이후 올라가는 보고는 구조 인원이 계속 보고되었음. 이후 오후 2시에 큰 오보가 났고, 2시 50분에 오보에 대한 정정보고를 했고, 그 직후 구조인원 혼선에 대한 질책과 '정확한 통계를 재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 (질의)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 머무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및 왜 5분 거리인 집무실에 나와서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 (답변) 관저는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집무를 볼 수 있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관저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셨음.

○ (지적) 세월호 상황 관련하여 잘못된 보고가 이루어지고, 방송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에 대한 지적

- (답변) 당시에는 실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으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함.

○ (지적) 세월호 사건 당시 긴박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관저에만 머무른 것이 직무유기라는 지적

- (답변) 직무유기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체크하고 지시를 하셨음.

② 대통령의 향후 거취 관련 질의

○ (질의)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국회가 결정해 줄 것을 언급하였는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 및 그 취지가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의미하는 것인지?

- (답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회 등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결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됨.

○ (질의) 대통령이 4월말까지는 퇴진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당론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 (답변) 대통령께서도 당원의 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당론을 수용하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음.

○ (질의) 대통령이 즉시 하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및 대통령이 물러날 의사가 확실히 있는지, 언제 물러날 예정인지 등을 국민 앞에 밝힐 의사가 있는지?

- (답변) 날짜를 특정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국정이 안정되게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심사숙고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당론을 수용하신다는 입장은 명확하심.

○ (질의)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언론과의 질의응답도 하지 않는 등의 태도에 대해 정국 수습 의지가 없다는 지적 및 특검수사 시에는 대면수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의

- (답변) 특검수사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실 것이고, 대면수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임.

○ (질의)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및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한 비서실장의 의견은?

- (답변)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질의) 대통령이 촛불집회를 지켜보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 (답변) 지켜보고 계심. 수석비서관들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대통령도 같은 마음이실 것으로 생각.

③ 대통령의 집무 관련 질의

○ (질의) 대통령 근무에 있어 관저와 집무실의 차이에 대한 질의 및 대통령의 관저에서의 집무에 대한 질의

- (답변) 관저는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고 관저에서도 회의를 하거나 집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관저나 집무실 어디에서든 집무가 가능함.

○ (질의) 최근 대통령의 집무실 정기적 출근 여부 및 정기적 수석회의 주최 여부

- (답변) 대통령이 집무실에 매일 출근하시나 시간은 일정치 않음. 수석회의는 매일 하지는 않음.

○ (지적) 대통령께 대면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세월호 당일에도 없었던 대면보고를 지난 토요일에는 실시한 점에 대한 지적

- (답변) 지난 토요일 대면보고를 실시한 것은 맞음.

○ (질의) 대통령의 집무일지를 누가 관리하는지?

- (답변) '집무일지'라는 것은 없음. '관저일지'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음.

④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질의

○ (질의) 청와대에서는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 언제부터 알았고,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 (답변) 최순실의 존재 및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에 알게 되었음.

○ (질의) 부적격자인 권오준 포스코회장 취임, 인사위원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우병우 민정비서관 임명 등에 대한 해명 요구

- (답변) 포스코회장 취임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 민정비서관은 인사위원회 논의 대상이 아님.

○ (질의) 대통령이 7대 그룹 회장들과 만나 출연금 지원 요청을 하였는데, 강압적인 할당 또는 요구가 있었는지?

- (답변)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함.

○ (질의) 재계 총수들이 미르재단 등에 출연금을 낸 것이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 (답변)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그런 목적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함.

○ (지적)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최순실 측근의 화장품을 홍보하거나, 차병원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회의장으로 사용하거나, 늘품체조 시연식에 참가하는 등 최순실 측근에 유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답변) (질의위원의 답변 청취 거부로 인하여 답변하지 못함)

○ (질의) 대통령의 의상·가방 구입경로 및 예산 집행 관련하여 청와대의 비용으로 구입했는지, 최순실이 뇌물성으로 구입하여 제공한 것인지?

- (답변) 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은 없음. 대통령의 사비 등 개인적으로 집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⑤ 기타 사항

○ (질의)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대위 면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 (답변) 그런 적 없음.

○ (질의) 대통령의 최근 대구 서문시장 방문 관련, 방문 일정이 어떻게 사전에 계획되는지 경위 및 방문 일정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 (답변) 전날 계획되어 당일 오전에 확정되었는데 여러 기관이 관계되어 준비하다 보니 정보가 알려진 것으로 생각됨.

○ (지적)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하여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답변) (특별한 답변 없음)

(2) 대통령경호실

(가) 보고내용

국정조사 의혹(Ⅰ) : 출입 관련

❑ 제기된 의혹

○ **(출입기록)**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순실, 차은택 등 **민간인 청와대 수시출입 정황 의혹에 따른 출입기록** 여부

○ **(출입절차)** 최순실, 차은택 등 **민간인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경호경비시스템 운용 미비**

❑ 점검 및 확인내용

○ **(청와대 출입기록)** 관련 사항이 세부적으로 **공개될 경우 경호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 출입절차)** 청와대 출입절차는 **관련규정, 매뉴얼 등에 의한 경호경비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어 완벽한 **경호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조치 계획

○ 국정조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출입시스템을 재검토하여 개선·보완토록 조치 예정**

국정조사 의혹(Ⅱ) : 의무실 관련

❑ 제기된 의혹

○ **(의무실 의약품 구입 및 사용)** 비아그라류, 영양주사류, 향정신성의약품류, 국소마취제류 등 구입 및 사용 목적 의혹 등

○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실장, 간호장교 근무내용)** 의무실장, 간호장교 등을 통한 미용시술 등 의료행위 여부

❑ 점검 및 확인내용

○ **(의무실 의약품 구입)** 대통령 진료를 위한 **필수 의약품은 주치의 및 자문단의 판단하에 요구한 의약품을 반드시 포함하며, 기본 구비 및 직원대상 의약품은 자체 판단**하여 최종 의약품 구매 목록과 구매량을 결정

○ 의무실은 **경호실 예산으로 대통령 및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며, **「약사법」, 「의료법」을 근거**로 의무실이 의약품을 구매, 처방 및 조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운영

○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前 **정부와의 의약품 구매 비용의 현격한 차이는 언론 공개 자료의 오류에서 비롯한 오해**이며 **연간 의약품 구매 비용은 별 차이가 없었음**

구 분	年 평균 구매비용
前 정부(이명박 정부)	74백만원
現 정부	55백만원

○ **(의무실 의약품 사용)** 일반 진료 뿐만 아니라 대통령 및 청와대 직원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대학병원 응급실 수준의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을 구비**

[의약품별 사용 용도]

1. **비아그라, 팔팔정** : 고산병 예방 및 치료
2. **에토미데이트프리로주(제2프로포폴로 알려짐), 베카론주** : 기관 삽관시 진정제, 근이완제
3. **리도카인, 엠라5%크림** : 주사 및 외상 처치시 통증 감소용
4. 수술용으로 알려진 **보스민액, 니트로주사, 아데노코주사, 염산도파민** 등
   : 응급상황 대비용, 청와대 의무실은 수술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물
5.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스틸녹스, 자낙스, 할시온, 리제) 및 서카딘정(멜라토닌)** : 해외 순방 시 빠른 시차 적응을 위한 수면유도제
6. **프로스카** :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5 절단 시 발모치료제(비용 1/10이상 절감)

○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실장, 간호장교 근무내용) 오전에는 별도의 진료 없이 청와대 경내와 의무실에서 일상·대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간호장교는 가글 전달을 위해 잠시 관저를 방문하였음. 오후의 경우 의무실장은 외부 행사(중대본 방문)시 대통령을 수행하였음.

❑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 청와대 의약품 구입, 처방, 조제 등에 관련된 업무규정 및 시스템 일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 조치 예정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세월호 참사 당일의 경호상황 관련

○ (질의)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 방문객의 관저 방문 사실이 있는지?

- (답변) 그런 사실 없음.

○ (질의)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실의 신보라 간호장교가 관저에 방문했는지, 방문 목적은 무엇이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간호장교 외에는 어떤 사람도 관저에 출입사실이 없는 것이 맞는지?

- (답변) 가글 전달을 위하여 방문하였고 약 4분 가량 머물렀음. 관저 부속실 직원에게 전달하였음. 다른 사람의 출입사실은 없음.

○ (질의)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관저에서 의무동으로 방문했다는 제보가 사실인지?

- (답변) 아는 바 없음. 관저에만 7시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세월호 당일 대통령 소재가 파악이 안되거나 연락이 안되었다는 것은 경호 실패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답변) 소재가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은 경호 문제는 아님.

○ (지적) 세월호 당일 여러 번 보고가 올라갔는데, 그 시간에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 및 청와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는 의혹 지적

- (답변) 경호 보안상 자세하게 밝히기 어려움.

○ (질의)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취제를 처방한 일이 있는지, 당일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 지적 및 이에 관한 의견 질의

- (답변) 당일 그러한 일은 없고,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음.

○ (질의) 세월호 당일 전후로 대통령의 얼굴에 변화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소명 요구

- (답변) 대통령의 얼굴 변화를 느낄 수 없고, 당일에 시술 등이 있었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음.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함.

○ (질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주사 시술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 (답변) 의무실에서 아는 한 없었고, 관저에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함.

② 대통령 건강 관련 사항

○ (질의) 대통령의 혈액이 2급 기밀에 해당하는지, 대통령 혈액을 외부로 반출하여 검사한 것이 적절한지, 반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의

- (답변) 2급 기밀에 해당되나, 외부 반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

○ (질의) 백옥주사,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이 대통령에게 처방된 것이 사실인지?

- (답변) 미용 목적으로 처방된 적은 없고 증상에 따라 처방되었음.

○ (질의) 대통령 외의 사람에게 감초주사,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을 처방한 사실이 있는지? 처방하였다면 몇 명에게 처방하였는지?

- (답변) 태반주사는 대통령에게만 처방됨. 감초주사, 백옥주사는 극소수의 청와대 직원에게 처방됨. 외부인에 대한 처방은 없음.

○ (질의) 대통령에게 불면증 약을 처방한 사실이 있는지?

- (답변) 열 번 정도 처방하였으나 드시지 않았음.

○ (지적) 경호실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김상만, 김영재 등의 비선 의료행위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이것은 경호실의 직무 태만 및 보안상의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지적

- (답변) 비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

○ (질의) 대통령이 간호장교에게 직접 시술을 지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의무실장 부재상태에서 간호장교에 의한 시술 등의 의료행위가 가능한지?

- (답변) 의무실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간호장교가 어떠한 시술도 할 수 없음.

③ 청와대 의약품 관리 문제 관련

○ (지적) 청와대의 향정신성의약품 다량 구매 및 사용 의혹에 대한 지적, 불출(拂出) 내역이 불명확한 점 등 관리상 철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지적

- (답변) 불출내역 등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겠음. 대통령 처방 내역은 불출내역과 별도로 작성, 관리됨.

○ (질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청와대 의약품 구매량과 재고량이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 (답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고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음.

○ (질의) 2015년 의약품 불출(拂出)대장에 ‘사모님’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 (답변)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해당 날짜의 진료 기록을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음.

○ (질의) 비아그라, 88정 등의 구입 사유가 2015년 4월 콜롬비아 순방 시 고산병 예방을 위해 구입한 것인지, 당시 수행원이 많아서 부족하여 추가 구입했다는 것이 맞는지?

- (답변) 고산병 예방을 위하여 구입한 것이 맞음.

○ (질의) 태반주사 등의 주사 처방이 대통령 공식 일정이 없는 날 대부분 이루어졌고, 하루에 많은 양의 주사 처방이 이루어지거나, 대통령 순방 시 직원들이 주사를 맞기도 하였다는 것 등이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 (답변) 모든 처방은 증상에 따라 적정한 진료를 받아 이루어진 것임. 순방 시에는 대비용으로 가져감.

○ (지적) 청와대 사용 의약품이 청와대 직원에게 처방되었다면, 사적인 치료까지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

- (답변) 사적인 치료까지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동의함.

○ (질의) 지난 2년간 프로스카(전립선비대증 치료제/발모제)를 지속적으로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 (답변) 환자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으나 청와대 직원이고 남성임.

○ (지적) 청와대의 태반주사, 백옥주사 및 감초주사의 대량 구입 지적 및 사용 관련 의혹이 있다는 지적

- (답변) 관련 주사들은 증상에 맞게 처방되었고, 미용 목적으로는 처방되지 않았음. 청와대 직원이 2,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대량 구입이 필요하였음.

④ 청와대 무단출입 문제 관련

○ (지적) 최순실이 청와대에 어느 정도 출입하였는지 향후에라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답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밝히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 (질의) 누군가, 외부의 민간인이 의료장비를 가지고 청와대 부속실을 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지?

- (답변) 2급 비밀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음.

○ (지적)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접견 출입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는 청와대 보안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답변) 지적을 검토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음.

○ (질의) 차은택이 늦은 밤에 일주일 2~3번씩 청와대에 방문했다고 진술하는데, 관저에 출입하는 경호사각지대가 있는 것인지?

- (답변) 경호에 사각지대는 없다고 말씀드림.

○ (질의) 소위 '보안손님'에 대해서는 부속실에서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해 별도로 명단을 작성하여 경호실로 전달하거나 하는지, 의료장비 지참하는 보안손님의 경우 의무실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 (답변) 보안손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명단을 작성하여 전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님. 의무실에서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음.

○ (질의) 차은택, 김상만, 김영재, 최순실이 보안손님인지, 이외에 다른 보안손님이 존재하는지?

- (답변) 차은택, 최순실은 보안손님이고, 김상만, 김영재는 주치의임. 다른 보안손님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

○ (질의) 보안손님으로 오가는 사람에 대한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정보를 경호실이 파악하고 있는지, 보안손님들이 동일한 인물들인지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 (답변) 정확한 신원은 알지 못함.

○ (질의) 안봉근비서관이 최순실, 정유라 등을 청와대 차량에 탑승시켜 기록 없이 관저에 출입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보안손님에 대해서는 경호실에서 알 수 없음.

⑤ 기타사항

○ (질의) 대통령의 최근 대구 서문시장 방문 시 시민단체에서 플래카드를 준비하는 등 대통령 일정이 사전에 유출된 의혹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지적 및 방문 일정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에 대한 질의

- (답변) 방문 일정은 당일 아침에 확정되었는데, 관계 기관들이 많아 어디선가 정보가 알려진 것으로 생각됨. 보안상의 문제는 없음.

○ (질의) 청와대의 두 간호장교(조여옥, 신보라) 중 조대위가 주사를 잘 놓는지, 두 간호장교와 의무실장의 국정조사 전 통화 여부에 대한 질의

- (답변) 조대위가 주사를 잘 놓음. 통화는 하였음.

(3) 국가안보실

(가) 보고내용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외교 · 통일 · 국방 분야 주요 정책 조정

❑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등을 통해,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대비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 및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

❑ 지난 '14.1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신설 이래 '16.11.30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국가안보실장 주재) 143회,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 130회 개최

o 중요한 안보 관련 사안들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

❑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하에 북한의 전략·전술적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이행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교안보부서가 취할 조치를 수시 점검

2. 국가안보 전략 기획, 정보 융합 및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 북한정세 및 주변국 對한반도 정책의 분석과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한반도, 주변지역 등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의제를 발굴

❑ 북한의 △군사동향(핵실험·미사일 발사 및 도발위협 등) △대내외 동향 △대남 선전·선동 △국제정세 등 각종 정보를 종합 분석, 도발 가능성 진단

❑ 사이버안보 위협 능동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국가 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사이버 위기대책본부 가동 등 상시 위기 대응체계 운영

3. 국가위기 관련 징후감시 및 초기대응(위기관리센터)

❑ 북한의 군사·비군사적 도발, 핵·대량살상무기 등 안보분야 국가위기 징후감시 및 상황발생시 신속한 전파 등 초기대응

※ 안보분야 국가위기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토의하여 외교·국방 등 관련 부처에서 필요 조치 시행

❑ 재난·국가핵심기반 분야 위기 징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재난 사고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 보고 및 전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민안전처 장관)' 에서 정부차원의 재난 대응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 시행

/끝/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 (질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 (답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

○ (질의) 세월호 당일 유선보고는 경내 전화였는지, 개인 핸드폰이었는지?

- (답변) 유선, 무선 모두 포함됨.

○ (지적) 세월호 당일 관저에 있는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직원 파악 필요, 중요 사건 보고 시 부서장이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직원이 부속실로 문서를 전달했다는 점 지적

- (답변) 당시 안보실에 근무하였던 사람을 파악해 보아야 함.

○ (지적)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한다면 안보 문제를 챙긴다는 것이 부적절함 지적

- (답변)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보고하겠음.

(4) 기획재정부

(가) 보고내용

국정조사 관련 업무현황

1 기부금단체 지정경위

□ (지정절차)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법인세법시행령 §36①)

○ **주무관청**은 **매분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추천서류***를 제출

* ① 기부금단체 추천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정관 ④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⑤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설립후 2년 미만시 제출 가능 결산서, 예산서와 향후 사업계획 세부설명자료 제출

○ 기재부는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매분기 종료일까지 공고**

□ **((재)미르·(재)K스포츠) 문체부**는 (재)미르 및 (재)케이스포츠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추천서류를 기재부에 제출**

구 분	설립허가일	지정추천일	지정일
(재)미르	’15.10.27.	’15.11.27.	’15.12.24.
(재)케이스포츠	’16.1.13.	’16.2.29.	’16.3.31.

※ (’15.4분기) 234건 신청 / 218건 지정, (’16.1분기) 112건 신청 / 106건 지정

○ 기재부는 (재)미르, (재)케이스포츠에 대해 **다른 비영리 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요건* 검토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 정관 기재사항(수입의 공익 사용,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인터넷 공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참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현황

○ **'16.9월말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지정단체: 3,478개**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장학단체, 종교단체** 등은 **별도 지정절차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 **주무관청 · 국세청**은 지정이후 2년마다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 · 사후관리**

* ① 지정요건 충족(정관에 공익성,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실적 공개 포함)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④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 여부
⑤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3월말까지)

- 점검절차: 지정기부금단체 (자체 점검결과 보고) —3.31→ 주무관청 (점검결과 통보) —6.30→ 국세청 (확인)

- 단체의 지정요건 불충족, 의무위반 사실 확인시 **국세청장**은 기재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

⇒ **기재부장관**은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3년간 재지정 제한)

○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매년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등을 **점검·사후관리 → 위반시 증여세 추징 등**

* ①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②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③ 결산서류 및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공시 의무

2 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1) 추진 배경

□ '12년 관세법 개정으로 **특허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면세산업에서의 투자, 경영** 및 **고용 문제가 제기되어 제도개선 추진**

* 특허기간 단축(10년→5년) 및 갱신제도 폐지 (홍종학 의원안)

○ (투자) **초기투자비용 회수 곤란으로 투자 위축**

○ (경영)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제약** 및 **브랜드유치 협상력** 저하

○ (고용) **5년 주기의 구조적인 고용 불안정** 발생

□ '15년말 **기재위**는 **관세법개정안 부대의견**으로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15.11.30일)

*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통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방안, 특허수수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효율적·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방안 등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2) 추진 경과

□ **면세점 제도개선 T/F*** 운영 : '15.9월 ~ '16.3월

* 기재부, 관세청, 문체부, 공정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 **면세점 제도개선 추진 발표** ('15.12.16, 「2016 경제정책방향」)

□ **면세점 공청회 개최** ('16.03.16, KIEP주관)

※ 개최 취지 : 면세점 이슈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각계 의견청취

① 진입장벽 완화 검토 : (1안) 현행유지 (2안) 특허수 확대 (3안) 신고제

② 특허기간 : (1안) 현행유지 (2안) 연장 & 1회 갱신 (3안) 연장 & 갱신

③ 특허수수료 : (1안) 5~10배 정률인상 (2안) 매출구간별 누진인상 (3안) 부분입찰방식 도입(특허수수료 입찰을 부분적으로 심사반영)

□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발표** ('16.3.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 **제도개선 방향**은 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② 시장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등 **독과점 해소 방안**을 **패키지로 추진**

※ 제도개선 주요내용

○ (특허기간) 특허기간을 현행 5→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

○ (독과점 해소방안) ① 시장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특허수 확대 ② 특허수수료 인상 : (현행) 매출액의 0.05% → (인상) 매출규모별 0.1~1.0% ③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 : 신규특허심사시 일정점수 감점, 지위남용 행위시 신규특허 참여제한, ④ 갱신심사 마련, ⑤ 심사운영방식 개선

□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 발표** ('16.4.29일, 관계부처합동 브리핑)

○ **관세청**은 **서울 4개, 부산·강원 각각 1개의 신규특허 추가 발급**하기로 **발표**

(3) 관련 입법추진 내용

□ **19대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과 함께 **관세법 개정** (나성린의원안*) 이 **추진**되었으나, **회기만료**로 **법안 폐기** ('16.5.29일)

* 특허기간 연장(5년→10년) 및 갱신제도 허용

□ 특허기간 연장 등 **관세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1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발표 (7.28일)

* ① **법** 개정사항 : 특허기간 연장
② **시행령** 개정사항 :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 제재 강화 등
③ **시행규칙** 개정사항 : 특허수수료 인상 등

○ **관세법 개정사항**인 **"특허기간 연장안"**이 **조세소위**에서 **논의** 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음**

○ **특허수수료 인상**(시행규칙)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

참고 **신규특허 발급 관련 (관세청)**

1. 신규특허 발급요건 준수 여부

□ **발급 요건**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7조)

①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이상**일 것
②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할 것
- **외국인 관광객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
-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

③ 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건과 무관히 신규특허 발급 가능**

□ **요건 준수여부** (쟁점 : 서울지역 '요건 ②' 충족 여부)

○ 신규특허 공고('**16.6월**) 당시 **'15년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음**

○ **규정에 따라** 직전년도인 **'14년도 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

- '14년 **서울**의 **외국인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약 **150만명 증가**

➡ **서울지역 요건 충족 : 신규특허 4개** (중소중견 1개) **발급**

(**부산, 강원 : 중소·중견면세점**으로 **요건 ③에 해당**)

2. 신규특허 추진 일정

□ **신규특허 추가 발표** (4.29일) & **신규특허 공고** (6.3일)

□ **신규특허 발급일정**

○ **특허공고** 및 **신청**접수 : '16.6.3일 ~ 10.4일 (4개월)

○ **특허심사**(신규사업자 선정) : '16.12월 중

□ **신규특허 신청기업** (서울지역, 대기업 기준)

○ 호텔롯데, HDC신라, 신세계DF, 현대백화점, SK네트웍스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규제프리존' 및 면세점 관련사항

○ (지적) 이른바 '규제프리존' 법은 대기업 편에 서서 재벌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

- (답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희망해야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 (지적) 규제프리존 전담기관인 창조경제추진단의 단장이 차은택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

- (답변) (특별한 답변 없음)

○ (지적) 12월 신규면세점 심사는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 및 면세점 관련하여 재벌총수와 대통령 간의 독대에서 선정 청탁 의혹 등 신규면세점 심사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지적

- (답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음.

② 최순실 개입의혹 관련

○ (질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 (답변) 기재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입장이 아니고,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임.

○ (질의) 내년도 예산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삭감되었는지, 올해 예산에서는 관련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 (답변) 약 1,700억원이 삭감되었고, 올해 예산의 경우 다부처에 관련된 것이라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움.

③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 (질의) 전경련에게 재단 출연금 모금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금을 독촉하여 모금한 적이 있는지?

- (답변) 그런 사실 없음.

○ (질의)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 (답변) 수석이 지시를 하였음.

(5) 교육부

(가) 보고내용

Ⅱ 특별 감사 추진 경과

□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운영상 특혜 논란**

○ 이화여대 '15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선발 및 학사운영상 부적절한 특혜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 : '16.9.27.~

* 딸 지도교수까지 갈아치운 최순실의 힘, 3학기 등교 않고도 학적 유지 (한겨레,'16.9.27.) 등

□ **이화여대 학생선발·학사관리 실태 조사 실시**

○ 사실관계 확인 : '16.10.4.~10.20., 사안 조사 실시 : '16.10.21.~10.27.

○ 이화여대 특별 감사 착수 결정 : '16.10.28.

※ 사안조사 결과 부적절한 학사운영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구조적 비리·부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별감사로 전환

□ **특별감사 실시** : '16.10.31. ~ 11.15 (16일간, 15명의 감사관 참여)

□ **특별감사결과 발표** : '16.11.18.(금)

□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시행*** : '16.11.24.(목)

* 이화여대에 신분상・행정상 조치,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등

Ⅲ 특별 감사 주요 내용

1. 감사 범위 및 대상자

분야	감사범위	감사대상자
입시	정유라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관련 의혹	◆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관계자 - 입학처장 및 입학업무 담당자 - 체육과학부 소속 교수(학장 포함) - 서류평가위원, 면접위원 및 지원 조교 등
학사	정유라 출석·학점부여 등 학사 관련 의혹	◆ 체육특기자 수강과목 담당교수 ◆ 학사관리 관련 본부 교직원 등 - 교무처장 및 학적·수업 담당 직원 - 기획처장 및 학칙개정 관련 담당 직원
연구비	기타 연구비 관련 의혹	◆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교수 ◆ 연구지원팀 연구비 담당 직원 등 ◆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등

2. 감사 주요결과

□ 입시 분야

○ 입학처장 등의 면접평가 부당 개입

- 원서접수 마감('14.9.15)이후 정유라가 획득('14.9.20)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입학처장이 면접당일('14.10.18)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강조

- 정유라가 면접고사장에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소지하고 입실

※ 정유라 본인이 메달을 고사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 요청, 면접위원들에게 '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언급

○ **면접평가 시 특혜부여**

- 면접위원들이 아시안게임 수상실적을 반영하라는 입학처장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 면접대상자 21명 중 정유라에게 최고점 부여
- 또한, 서류평가 先순위자인 특정종목 지원자 2명에게 객관적 근거도 없이 낮은 면접평가 점수 부여

※ 정유라는 1단계 서류평가에서 350점(공동9위)을 받았으나, 면접평가에서 최고점(192점)을 받아 종합점수 542점으로 최종 합격(6등)

○ **최순실의 압력으로 총장이 학교관계자에게 지시하여 정유라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관련**

- 입학처장이 정유라의 지원 사실을 보고하자 총장이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수사의뢰

□ **학사 분야**

○ **수업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고 대체자료가 없음에도 출석처리**

- '15-1학기부터 '16-1학기, '16계절학기까지 8개 과목 수업에 한 차례의 출석이나 출석대체 자료가 없음에도 출석인정

○ **평가자료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학점부여**

- 시험 未응시 또는 대체 과제물 未제출에도 성적이 부여되거나, 결시하였음에도 본인 명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발견
- 제출한 과제의 경우 다수의 맞춤법 오류, 욕설.비속어 사용 등 정상적인 과제 수행으로 볼 수 없음에도 학점 부여

○ **최순실의 압력에 따른 정유라의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 여부**

- 최순실을 만난 김모 학장이 이모 학부장 등 4명의 교수들에게 정유라의 출석 및 학점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사실 확인 → 관련자 고발 조치

○ **총장이 정유라에게 학점특혜를 주려고 부당하게 지시하여 학칙이 개정되었는지 여부**

- 당초 학칙개정안에는 시행일이 '16. 9. 1. 이었으나 교무회의 당일('16.6.7.) '16. 3. 1.자 소급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그대로 의결 → 수사의뢰

□ **연구비 분야**

○ **김모 학장(6개 과제), 이모 교수(3개 과제)가 정유라 학점특혜 제공 등의 대가로 연구비를 부당 수주하였다는 의혹 관련**

- 총 9건의 과제 중 교육부 소관 3건에 대한 검토 결과, **선정절차상 하자**나 **부당수주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연구비 부당집행 사실* 발견

* 未검수 잔금지급 및 부당하도급 허용으로 손실 발생,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사용 등

Ⅳ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1. 신분상·행정상 조치 및 고발·수사 의뢰

□ 신분상 조치

○ 중징계(7명) : 입시부정 및 학점 부당부여 등에 관여한 입학처장, 학장(이상 해임), 면접평가위원 총 5명 중 3명, 관련 교수 등

○ 경징계(8명) : 학칙개정 절차 등을 위반한 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 기타(경고 3명, 주의 3명, 문책 7명)

□ 행정상 조치

○ 정유라 입학취소 및 학점취소(9개 과목) 요구

□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

○ 고발(13명) : 중징계 대상자 7명, 면접평가위원 1명, 학점 부당부여 교수 등

○ 수사의뢰(4명) : 총장, 대리시험 과목담당 교수, 최순실 母女

2. 대학에 대한 불이익 조치

□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감액 등 조치 검토

< '16년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선정의 공정성 관련>

❖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며, 전체 평가과정을 관리하는** 위탁기관도 사업별로 다름(연구재단, 대교협, 교육개발원 등)

⇒ **다수 사업**에서 **특정 대학이 선정되도록 개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 **'16년** 이화여대 지원사업은 **총 7개 사업, 185억원**, 전체 4년제 대학 중 **16위 수준임**

○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비리 발생대학에 대한 재정제재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 조치(사업비 집행정지, 지원 중단, 신청 시 감점 등) 실시('16.12월 중)

※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관리매뉴얼('16.2)」에 따라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대학 지원사업은 최대 30%, 사업단 지원사업은 최대 10% 집행정지 또는 삭감 가능

○ 특히 대학 입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입시 부정이 발생한 이화여대**에 대해 **강력한 조치 검토**

☞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년 사업 지원중단 및 '17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12월 중 확정 예정**

□ 정유라 입학취소 요구 및 불이행 시 모집정지 처분 적용

○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16.12.23.(금)까지 **정유라에 대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시정명령 조치('16.11.24)

○ 시정명령 **불이행 시** 법령*에 따라 **모집정지 처분 적용**

*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2 별표4

□ **이화여대 측에 체육특기자 입시 부정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출 요구**('17.2.28.까지)

3. 관련 제도 개선

□ **대학별 체육특기자전형 실태 점검** 및 **추가 대책 논의**

○ 대학별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운영실태**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대학**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사항 권고**('16.12~'17.1, 대교협과 공동실시)

※ 대학별 학칙 및 규정, 모집요강 등을 점검하고, '16.3월 발표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의 조기 안착 유도

○ **점검 결과를 토대**로 **근절대책 보완** 논의(~'17.2)

※ 대교협,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협조

□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전국 대학의 체육특기자 재학현황 조사(~11.30.)를 통해 재학생이 많은 10개 내외 대학을 실태분석('16.12.~'17.2월)

○ 실태 분석을 토대로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실정에 맞는 관리 체계 수립 및 **내실화 도모**

※ **고교입시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추진**

-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관련 시도교육청·문체부 협의('16.12)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출결관리 강화 등을 시·도교육청에 안내(~'17.2)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추진

○ 특성화보다 가급적 많은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대학의 소모적·경쟁적 사업 신청 관행 해소를 위해 **사업구조 단순화 추진**

※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전체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①교육(특성화), ②연구, ③산학협력, ④대학자율역량강화로 단순화

○ 대학이 건학이념,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구상한 발전계획을 지원하는 방식(Bottom-up)으로 전환하여 **대학 자율성을 확대**

< 대학 재정지원사업 구조 개편도 >

< 2016년 현행 >

<table>
<tr><td colspan="3">BK 21 플러스 사업</td></tr>
<tr><td>대학 특성화 사업(CK)</td><td colspan="2">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td></tr>
<tr><td>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PRIME)</td><td colspan="2">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CORE)</td></tr>
<tr><td>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td><td colspan="2">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td></tr>
<tr><td colspan="2">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td><td>전문대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사업</td></tr>
<tr><td colspan="3">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td></tr>
</table>

< 개편(안) >

<table>
<tr><td>연구 지원</td><td>대학/전문대 특성화 지원</td></tr>
<tr><td colspan="2">산학협력 지원 (LINC+)</td></tr>
<tr><td colspan="2">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td></tr>
<tr><td>연구특성화</td><td>교육특성화</td></tr>
</table>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특혜 관련

○ (질의) 교육부에서도 김경숙교수에게 연구과제 등 특혜를 준 의혹이 있는데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

- (답변) 내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서 인지하지 못하였음.

○ (질의) 정유라 입학특혜 관련 최경희총장이 최순실의 딸임을 알고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 (답변) 그 점에 대해서는 최경희총장이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음.

○ (질의) 정유라 부정입학 비리를 교원들이 저지른 동기 또는 이유는 무엇인지?

- (답변)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였음.

○ (질의) 장시호의 입학특혜 관련 연세대 감사 예정은 없는지?

- (답변) 입학 관련 서류는 시일이 지나 폐기되었고, 학사관리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볼 예정임.

② 기타 사항

○ (지적) 수도권의 사립대 증원은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으로 운영중인데 2013년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구역만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혜택을 받은 곳은 차의과대학임을 지적

- (답변)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당시 규정에 따라서 하였음.

○ (질의) 국정교과서가 이른바 '최순실 교과서'로 불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관계 없는 사안임.

2. 청문회 주요 질의·답변 요지

[2016년 12월 6일. 제1차 청문회]

(1) 대통령 독대 관련 사항

(가) 이재용 증인(삼성전자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5년 7월 25일 및 2016년 2월 17일 두 번에 걸쳐 대통령과 독대를 하였는지?	○ 그러함.
○ 20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몇 분 만났으며,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한 말은?	○ 삼사십 분 정도 만났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음. 회장님 건강도 물어보셨고, 핸드폰 사업, 국내투자 현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음
○ 2015년 7월 25일 재단에 기부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는지 여부 질의.	○ 그런 기억 없음.
○ 대통령과 독대하여 문화융성 및 스포츠융성 관련 자금 출연 요청을 받았는지, 당시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는지 질의.	○ 문화융성, 스포츠융성 관련 기업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출연 관련 정확한 말씀은 없어서 당시에는 잘 알아듣지 못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과 독대시 재단 출연과 관련한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 그 자리에서 나올 때 재단에 출연을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못 했음.
○ 대통령과 독대할 때 문화융성과 관련된 재단 설립 얘기가 있었는지 질의.	○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 체육 발전인지 이것이 우리나라 관광 사업이라든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니까 삼성도 많이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음.
○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어디에서 만났는지 질의.	○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음. 청와대 근처 자택 건물에서 만남.
○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삼성 합병 관련해서 엘리엇 때문에 힘들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는지 여부.	○ 청문회전에 일자를 확인해 보니까 독대가 있었을 때는 이미 주주총회라든지 합병이 다 된 뒤의 일이었으며, 질문하신 합병 건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음.

(나) 손경식 증인(CJ(주)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을 몇 번 독대했는지 여부, 어디에서 만났는지, 안가에서 일대일로 만났는지, 배석자가 있었는지 여부 및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 청와대 안가에서 두 번 만났음. 일대일로 만났을 때도 있었고, 배석자가 있을 때도 있었음. 처음에는 정부가 문화산업을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정하고 난 다음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며, CJ가 문화사업을 많이 하니까 좀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격려를 들었음.
○ 대통령 독대했을 때 논의하셨던 내용은 무엇인지, 이재현 회장 사면 논의한적 없는지?	○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음.

(다) 신동빈 증인(롯데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6년 3월 14일 대통령 독대 사실이 있는지, 독대를 전후하여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K스포츠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관련 자금 요청을 받은 적 있는지?	○ 독대한 적 있음. 그런 사실 없음.
○ 독대하고 5월에 하남 체육시설에 70억,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했는데 압수수색 하루 전에 돌려 받았는지?	○ 그런 것 같음.

(라) 김승연 증인(한화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 독대시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출연과 관련한 대화는 하지 않았는지, 출연에 대한 내용은 언제 처음 들었는지?	○ 경영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이에 대하여 답변함. 재단 출연 이야기는 없었음. 재단 출연 이야기는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저희 실무자한테 그런 연락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음.

(마) 허창수 증인(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과 독대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 2월에 했음. 출연금도 우리가 다 내고 나서, 앞으로 저희 그룹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하고 한국 산업계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음.

(바) 정몽구 증인(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당시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을 현대차가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정몽구 변호인 최창묵).	○ 공소장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기억하시는 것은 면담 말미에 회사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다 하는 정도로 들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용환 부회장이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연락처를 확인했는지?	○ 비슷한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음.

(사) 최태원 증인(SK(주)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 독대에서 펜싱, 테니스, 배드민턴 등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80억원 지원 요청을 받은적 있는지?	○ 안 수석으로부터가 아니라 K 스포츠 사람들로부터 받았다고 들었음.
○ 대통령 독대했을 때 논의하셨던 내용은 무엇인지, 김창정 회장도 최태원회장 사면에 대해 논의한적 없었는지?	○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들었음.

(아) 이승철 증인(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5년 7월 24일과 7월 25일 9개 그룹 총수가 대통령을 독대했는지?	○ 7개 그룹으로 언론에서 봤음.
○ 7개 그룹 독대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재단설립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지?	○ 거기 참석하지도 않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본 게 다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청와대로부터 재단설립과 관련한 얘기를 들은 것이 최초로 언제인지?	○ 7월 24일 날 창조경제센터 관련 회장님들과 대통령과 오찬 간담이 있은 얼마 뒤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그 회의에서 이 재단 관련된 말씀을 나누어서 재단 설립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음.

(2) K스포츠와 미르재단 지원 관련 사항

(가) 이재용 증인(삼성전자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재단에 대한 출연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성이라는 의혹 질의.	○ 삼성은 단 한 번도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하거나 지원을 한 적이 없음.
○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를 해달라는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 실무자선에서 전경련을 통해서 진행 된 거 같음.
○ 재단 출연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질의	○ 모든 사회공헌이든 출연이든 어떤 경우에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음
○ 재단 출연 관련, 최순실일가 지원 등에 관한 박상중, 김종중 등 삼성 사장단의 결정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 받는 입장이 아닌 것인지 확인	○ 재단 출연에 관해서는 잘 몰랐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 비선실세 등으로부터 “압력”과 “강요”를 받아서 재단에 출연했다고 대답한 것인지 여부 확인	○ 재단 출연은 전경련에서 각 기업별로 출연한 것으로 알고있음.
○ 삼성테크윈 매각, 독일 정유라 승마 지원, 합병, 대통령과 독대, 재단에 거액 출연, 삼성 주가 관리 의혹 등 전체적으로 포괄일죄로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점 지적에 대한 의견은?	○ 말씀하신 것 전체에 동의할 수 없지만, 저희가 부족한 점도 많고,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음.
○ 2015년 7월 대통령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면서 재단 기부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는 점에 대한 지적	○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기부’라는 단어는 없었음
○ 대통령과 독대 이후 삼성 계열사들에서 비슷한 시점에서 일괄 출연이 있었는데 증인의 지시는 없었는지 여부.	○ 전경련 회비 배분하듯이 단순히 그런 절차에 의해서 회사 안에서도 배분을 해서 낸 것 같음. 앞으로는 이런 건까지 나중에 오해가 되고 의혹이 될 건이 있으면 더 철저히 챙기겠음.
○ 2015년 8.15 특별사면 관련 건설사들이 설립하기로 한 사회공헌재단 출연금 10억과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차이 지적	
○ K스포츠, 미르재단에의 출연의 부적절성을 몰랐는지 여부	○ 전경련회비 내듯이 그냥 할당이 되어서 관례상 내는 것으로 그냥 나간 것임

(나) 이승철 증인(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처음에는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 청와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음. 청와대로부터 출연 요청을 종종 받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인정함
○ 미르, K스포츠재단과 다른 재단에 대한 출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	○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을 청와대에서 많이 관여를 하셨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함
○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에 관해 뇌물 또는 강요에 의한 출연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당시에 청와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함
○ 전경련이 나서서 돈을 거뒀는지, 기업에는 출연 관련해서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 질의	○ 2015년 7월 24일 날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된 회장님들과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음. 청와대와는 안종범수석과 접촉함.
○ 2013년부터 전경련 부회장으로 재직했는데, 정부 요청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설립한 재단은 미르재단이 처음인지?	○ 그런 것으로 기억함.
○ 총수가 있는 기업에서 출연이 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황제경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개별 기업 사장의 뜻은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청와대에서 안종범 수석 또 청와대 비서관의 주재 하에 전경련 직원들이 참석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재단 설립에 관한 회의를 한 것은 맞는지?	○ 맞음.
○ 사건이 문제되자 안종범 수석과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증인의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또 문건들을 파쇄하는 등 증거 인멸 행위를 한 것도 맞는지?	○ 휴대폰을 바꾼 것은 맞지만, 증거 인멸 한 적은 전혀 없음.
○ 재단 설립과 관련된 서류 파쇄한 사실 있는지?	○ 없음.
○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동일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전경련 상근 부회장을 사직하는 것이 어떤지?	○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재단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경제 관련법, 노동 관련법 추진이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지?	○ 그런 기대로 한 것이 아님.
○ 재단 출연은 총 몇 개 기업이 했는지? 대통령과 독대하지 않은 기업들은 재단 출연에 대해서 출연할 때 처음 알게 된 것인지?	○ 16개 기업이 참여함. 당시에는 독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느 그룹이 사전에 알았고 사후에 알았는지 잘 몰랐음.
○ 재단 설립에 지원 관련하여 배분 비율은 누가 정했는지, 배분 관련 기존 관례가 있는지 여부	○ 총액은 청와대에서 정했음. 배분비율은 보통 관례에 따라서 했으며, 기존 관례가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한진그룹에 재단출연 요청을 했는지?	ㅇ실무 임원차원에서 했음.

(다) 신동빈 증인(롯데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이후에 70억 추가 지원 사유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	ㅇ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우리 그룹한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의사결정은 우리 그룹의 돌아가신 이인원 부회장님을 비롯한 분하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결정했음.
ㅇ롯데에서 70억을 제공한 이유는 면세점, 롯데가(家) 형제들 수사와 관련하여 지원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	ㅇ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함
ㅇ재단 출연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질의	ㅇ대가를 기대해서 출연한 사실 없음
ㅇ이인원 부회장에게 75억 원 지원에 대하여 처리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ㅇ없음.
ㅇ롯데그룹 각 계열사의 70억 원 K스포츠에 추가 출연 관련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ㅇ최근 10월 말이나 12월 전에 그런 보고를 받았음.
ㅇ2016년 6월 10일 롯데그룹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돈이 반환되었는데, 출연금의 액수 등을 감안할 때 회장 보고 없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ㅇ전혀 아는바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면세점 특허권 탈락한 롯데면세점의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추가 선정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추가 출연이라는 지적	ㅇ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ㅇ최순실게이트 관련, 70억원을 지원했다가 반납 받았는데 이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ㅇ그룹에 대해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지불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ㅇ자금 지원 관련, 직접 보고를 받은 바 있는지	ㅇ전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정도 보고받지만, 70억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고받지 않음.
ㅇ면세사업 관련 70억원이 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의혹은 무관한 것인지?	ㅇ전혀 관계없음.
ㅇK스포츠재단에서 70억 반환된 날이 압수수색 바로 전날인데,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얻은 것은 아닌지	ㅇ압수수색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음.

(라) 최태원 증인(SK(주)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재단 출연 이후 추가적으로 80억 지원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질의	ㅇ80억을 요구 받은적 있음. 제가 직접 관여된 것도 아니고 저한테 보고한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음
ㅇ어떤 명목으로 요구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ㅇ펜싱, 테니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에 대한 육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명목 하에 왔다고 실무진에게 들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다른 그룹과 달리 SK는 지원 요청을 거절한 사유는?	○ 실무진 얘기로는 당시 왔던 계획이나 얘기가 상당히 부실했고 또 돈을 전해 달라는 방법도 좀 부적절했다라고 들었음
○ SK는 회장님 사면 때문에 출연을 했다는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질의	○ 그렇게 하지 않았음
○ 재단 출연이 자발적 출연인지 여부, 사면 등과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질의	○ 전혀 대가성을 갖고 출연하지는 않았음.
○ 추가로 70억원 요구를 받았은데 3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역제안한 사실이 있는지?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지?	○ 제가 한 것은 아님. 청문회 나오기 전에 보고 받았음.
○ 30억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그 부분이 무산된 내용은 보고받았는지?	○ 최근에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고 받음.
○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제안이 SK가 작년 11월 달에 탈락했던 SK 워커힐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제안했다는 생각은 해 본 적 없는지?	○ 어떻게 해서 그런 제안이 그쪽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없으며, 면세점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마) 구본무 증인((주)LG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재단 출연이 준조세 성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	○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함
○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케이스포츠, 미르재단 출연 관련 대기업을 피해자로 적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이나 대가성 의혹이 있음. LG만 그런 의혹이 없는데 왜 돈을 냈는지에 관한 질의.	○ 한류나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그렇게 하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 생각이지만 정부가 뭔가 추진하는 데 민간 차원에서 협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했음.
○ 공소장에는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출연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맞는지 확인	○ 아님.

(바) 허창수 증인(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재단은 미르재단이 처음이라는 이승철 부회장의 말의 사실여부 확인.	○ 맞음.
○ 김대중 대북 쌀 지원 등 각 정부마다 대기업에 공익재단 설립 목적으로 자금 출연을 요청했는데 이번 미르 재단 등의 출연과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 비료 보낼 때는 제가 전경련에 있지 않았음. 이번에 미르하고 K스포츠는 청와대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 하는 사람들의 입장임.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가 힘든 것은 한국적인 현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승철 부회장이 기업출연을 주도하였는데 재단설립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청와대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았는지 여부.	○ 이승철 부회장도 메신저 역할 이상은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님. 이승철 부회장으로부터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설립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음. 청와대가 대기업에게 출연 요구 입장을 설명했을 것임.
○ GS그룹에서 기부한 것은 세무조사 회피를 위한 것인지, 댓가성인지, 자발적으로 하신 것인지?	○ 다른 그룹들이 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했음. 대가성 갖고 안 했음.

(사) 정몽구 증인(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6년 2월 15일 대통령 독대사실이 있는지, 안종범 수석이 정몽구 회장과 함께 들어간 현대차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독대한 적 있음. 본인은 광고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기억이 나지 않음.
○ 재단 출연금 128억과 관련하여 검찰 공소장 내용과 현대에서 제출한 내용이 다른데 이에 대한 해명 요구	○ 어떤 사안인지 알아보고 실무자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음.
○ 청와대의 의도대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출연했는지, 대가를 기대하여 출연한 것인지 여부 질의	○ 기금을 출연하는 이유는 다각적임.

(아) 김승연 증인(한화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재단 출연 과정에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 이사회 의결은 있었음. 회계처리 부분은 기억나지 않음.
○ 청와대의 의도대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출연했는지, 대가를 기대하여 출연한 것인지 여부 질의	○ 기꺼이 출연함.

(자) 손경식 증인(CJ(주)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청와대의 의도대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출연했는지, 대가를 기대하여 출연한 것인지 여부 질의.	○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모두 하니까 저희도 같이 따라서 했음.

(차) 조양호 증인(한진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청와대의 의도대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출연했는지, 대가를 기대하여 출연한 것인지 여부 질의.	○ 평창조직위원회 때문에 바빴지만 대표이사가 그런 요청을 전경련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받았다 해서 다른 기업들이 다 하면 같이 하라고 했음.
○ 한진이 미르재단에 10억 출연했는지? 자발적으로 낸 건지?	○ 출연했음. 다른 기업들이 다 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냈음.
○ K스포츠재단 출연 요청은 거절했는지? 직접 전화 받고 거절했는지? 거절을 했기 때문에 해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일각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동의하는지?	○ 거절했음. 평창조직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와서 K스포츠에 또 추가로 하라고 해서 저희 그룹이 평창조직위에 약 650억을 스폰서를 하고 있었고, 저 자신을 비롯해서 40명의 한진그룹의 직원이 평창조직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스포츠인데 또 돈을 내야 되느냐, 한번 좀 알아보라고 했음. 직접적인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음.
○ K스포츠 요청을 거부한 것인지 요청을 안 받은 것인지, 회사에서 요청은 누가 받았는지, 전경련에서는 누가 요청했는지.	○ 거부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요청을 받아서 보고를 받았음. 대표이사로 부터 전경련에서 요청을 받았다고 보고받았음.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항

(가) 이재용 증인(삼성전자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민연금 측에서 합병비율 조정 요청이 있었는지? 또한 증인이 합병비율의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 맞는지?	○ 합병비율은 여러 안건 중 하나로 언급되었고, 합병비율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들었음.
○ 국민연금측 실무자인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난 사유는 무엇인지?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의가 있을 당시 국민연금 측에서 요청이 있어 만났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에 대한 질의.	○ 양사의 합병이 승계와는 관계가 없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전에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5.76% 매각 사유 및 누가 매각을 지시했는지, 김종중 사장이 지시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 자사주를 판 것은 삼성물산 합병 전에 이루어진 일로 기억함. 아직 합병한지 1년이 조금 넘었으며, 조금 기다려 주시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임.
○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 질의.	○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않지만 당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최고경영진 몇 분들이 협의를 한 다음에 저에게도 의견을 물어 봤던 기억이 있음.
○ 삼성 합병 비율이 왜 국민적인 관심 사항인지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의, 왜 이런 의혹이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저희가 부족했던 점이 많았으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입장을 조금 더 투명하게 설득을 하고 공감을 받았어야 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이 사용되었다는 점 지적.	○ 답변 없음.
○ 미래가치 상승을 위해 삼성물산에서 어떤 투자를 했는지 질의.	○ 임직원들이 지금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을 알고 있는지 여부	○ 그렇지 않다고 들었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내부와 청와대, 최경환부총리, 복지부장관 등을 통한 로비와 청탁이 있었는지?	○ 그런 청탁을 한 적은 없음. 여러분들께서 그 합병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제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회, 임직원, 고객사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제가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삼성물산 합병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 반대하는 주주들도 있다고 알고 있음.
○ 국민연금 내부에서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반대가 있었고, 면담에서도 문제가 제기됨. 합병비율 조정에 대해서 요청을 받지 않았는지?	○ 국민연금 내부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합병의 핵심이 삼성그룹 승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은 아닌지.	○ 합병한지 1년이 넘었으며, 삼성그룹 승계하기 위한 법적 최종 절차 아님.
○ 합병을 취소할 생각이 있는지?	○ 이렇게 오해를 받고 국민 여러분들의 의혹이 있으면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할 여지가 있을 수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 과정을 두고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심 갖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 청와대에서 어떤 관심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음.
○ 국민연금이 처음 합병에 반대의견 제시한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 그런 일 없다고 알고 있음.
○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 대해 갑인가 을인가에 대한 질의와 삼성전자가 국민연금을 찾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연금 담당자가 삼성전자를 찾아가는 것이 맞는지?	○ 국민연금공단은 갑과 을을 떠나서 전체 국민들의 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임. 제가 찾아갔어야 되는 것 같음.
○ 합병이 경영권 승계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추진한 건지	○ 임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삼성물산을 정말 좋은 회사로 만들어 놓겠음.
○ 3대 주주인 엘리엇이 합병 비율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 아니었는지?	○ '예'라고 답변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에 대한 엘리엇의 반대를 안종범 수석에 전달한 적이 있는지?	○ 그런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음.
○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났을 때 합병 문제에 대해 말한 적 있는지?	○ 합병비율도 여러 안건 중에 하나였음.
○ 엘리엇의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 기억 있는지?	○ 엘리엇 이야기가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음.
○ 삼성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출연	○ 절대 그렇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고, 최순실에게 80억을 지원한 것은 2015년 7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해 준 것과의 거래였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동의 하는지?	
○ 2015년 7월 17일은 삼성의 합병안이 가결된 날이자 삼성전자가 37억 원을 최순실의 비덱스포츠에 송금해서 비덱스포츠의 전신 마인제959가 설립된 날임. 비덱스포츠의 전신 마인제959가 설립된 날과 삼성의 합병안이 가결된 날이 7월 17일로 같은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에 대한 지적.	○ 그 날짜에 대해서는 모르겠음.
○ 같은 날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은 사전에 기획된 비리의 커넥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함.	○ 절대 그렇지 않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국민연금 손해액이 막대하다는 지적	○ 국민연금이 우리 삼성 계열사에 제일 많이 투자를 했고 저희가 제일 많은 수익을 냈음.
○ 합병이 구 삼성물산의 주주입장에서는 대단히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는지?	○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삼성물산을 좋은 회사로 만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함. 결과적으로 합병 후에 구 삼성물산 쪽 사업에 부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창피한 일임. 합병으로 손해가 났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법원에서조차도 합병과정에서 의도적인 주가하락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지?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청와대에 관계된 사람들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 이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	○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음.
○ 7월에 의결이 있었는데 2달 동안 광고비로 250억을 지출함으로써 언론의 힘을 얻어 인수합병을 추진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인지, 최근 3년간 매월별로 그룹 전체 광고비 제출 요청함.	○ 광고 액수는 잘 모르겠음. 정확한 사실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랬을 것 같음. 각 CEO에게 이야기를 해서 취합해서 제출하겠음.
○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림으로서 삼성 합병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 저희가 미비한 것도 많고 앞으로 고쳐 나갈 것도 많지만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의심 하시는 점에 대하여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음.

(나) 홍완선 증인(前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일체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이재용 부회장과 2015년 7월 17일 얼마 동안 만났는지?	○ 한 시간 반 정도 만났음
○ 국민연금기금은 합병비율 1 대 0.35는 부당한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청했는지 여부	○ 1 대 0.35라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결정된 합병비율임
○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 삼성물산에 최치훈 사장을 통해서 요청을 했음.
○ 2015년 5월 삼성 합병 발표 전날 김신 삼성물산 사장과 만났는지 여부.	○ 만났음.
○ 합병비율을 1 대 0.35로 하면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아닌지?	○ 합병비율이 1 대 0.35라는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법률적인 요인이었음.
○ 국민연금에서 요청한 합병비율 조정은 삼성에서 처음에 거절한 것인지?	○ 거절했다기보다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음.
○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에게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재의 요청을 했는지 여부.	○ 7월 1일에 법원에서 법적으로 엘리엇이 임시주총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7월 1일 날짜에 대하여 '합병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판결이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제일모직 영업가치를 삼성물산의 두 배가량 했는데 결국 제일모직은 그때 당시는 4개 사업 부분을 아주 저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도 두 배 이상 평가함. 삼성만 나오면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지, 10년간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내역 60건 중에 책임투자팀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이 건 하나라는 지적.	○ 답변 없음.
○ 이재용 회장 만났을 때 직원들을 사전에 만나면 공정성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만류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사실인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 및 삼성물산 관련 발언에 대한 설명 요청.	○ 그렇지 않음. 실제 같이 동행을 한 실·팀장을 제외하고는 기금본부에서 만나는 날 사실 자체를 아는 직원 숫자가 많지 않았음. 기본적으로 기금본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투자위원회의 위원 각자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저는 12분의 1, 위원장으로서 한 표만 가지고 있는 위치임. 합병 부분에 여러 가지,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손실이 오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상쇄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투자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제공을 해서 투자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전문가들은 '국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난해 합병 비율을 문제 삼는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임. 국민연금이 큰 그림을 그려야하기 때문에 합병 후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야함. 국민연금으로서는 합병이 무산될 경우 엘리엇이 이사진 교체 등을 통해 삼성물산 의사결정에 주도권을 좌우하면서 삼성전자에까지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다'라는 의견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문제가 있었음. 삼성물산에 약 1조 2000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일모직도 똑같이 1조 2000억을 가지고 있었음. ISS나 글래스루이스 같은 세계적인 주총 분석기관들도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했지만,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찬성을 했음. 당시에는 엘리엇이라는 세계적인 헤지펀드의 영향도 많이 있었음. 언론에서도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돈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언론의 기사도 많이 있었음.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위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했음.
○ 이재용 부회장을 1시간 30분 만났는데 보팅 권한이 없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지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은 이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권 강화의 목적이 있었는데 국민연금은 무엇을 했는지.	○ 보팅을 할 때에 12분의 1이라는 말씀을 드렸음. 저희가 36개 자산운용사의 무려 96개 펀드에서 삼성물산을 사고팔고를 하고 있음.

(다) 최광 증인(前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합병과 관련하여 최광 이사장과 최경환 부총리와 충분히 이야기 하고 나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는게 순서가 아닌지?	○ 저는 삼성 합병 건이든 또 다른 건이든 최경환 부총리하고 한 번도 만난 일도 통화한 일도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전화해서 지시한 사항과 증인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임에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삼성 합병 건을 가지고는 청와대 누구와도 통화를 한 일이 없으며, 기재부 누구와도 한 일이 없고, 복지부 누구와도 통화나 만나서 안건을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음. 제가 물러나야 되는지를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있음.
○ 이런 합병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 기금운용본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못 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
○ 전에 SK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위원회 의결을 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굳이 했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지?	○ 어떤 과정에도 개입을 안 하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음. 결정은 투자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놓고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함. 그 자체가 절차적인 특혜라고는 보지 않음.
○ 문형표 장관이 인수합병에 대한 사항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갔다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 당시에 관여는 안 했지만 제가 기관의 장이었기 때문에 공이 있다면 저한테 돌려야지 어째 문 이사장한테 가는지 의문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근 기금관리본부를 국민연금공단과 별개로 공단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 19대 국회 때 5개의 의원 법안이 있었음.
○ 홍완선 기금관리본부장을 본부를 독립시킨 후 본부장 자리에 앉혀 놓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음.
○ 대구고 출신의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그 자리에 앉혀 놓고 국민연금을 좌지우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국민들의 의혹이 있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드릴 내용이 없음. 그 관계를 모름.
○ 임기를 얼마 남기고 사직했는지? 홍완선 본부장에게 합병 관련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절차와 내용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홍완선 전 본부장에게 여러 번 강조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삼성으로 흘러갔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 임기 6개월 남기고 사직함. 합병건 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들에게 일에 있어서는 한 치의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함. 삼성 합병 건과 관련해서도 홍 이사에게 이것은 전 세계가 주시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절차와 내용에서는 한 치의 흠이 잡히면 안 되며,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함. 나머지 절차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홍 이사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답변할 수 없음
○ 2013년 홍완선 본부장 선임 시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및 누가 최광 이사장을 나가라고 했는지?	○ 홍완선 본부장 선임 시 이사장을 하고 있었음. 전에는 기금이사를 뽑을 때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들은 바가 있음. 그러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홍 이사를 뽑을 때는 청와대고 기재부고 복지부 어디에서도 압력이 전혀 없었음. 혼자의 책임 하에서 선정이 됐음. 최광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나가라고 했음.
○ 엘리엇의 반대문제를 복지부, 기금운용본부와 상의한 바 있는지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엘리엇의 ISD 제기가능성 등에 대하여, 연금공단은 사전적 법률검토 없이 사후적 법률자문만을 구했다는 지적.	○ 엘리엇의 여섯 번에 걸친 서한과 관련하여 홍완선 기금이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법적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수 있으니 공단 내부의 변호사와 외부의 법무법인 두 개 이상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함.
○ 합병 비율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적당하다고 생각했는지?	○ 전혀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임.

(라) 이승철 증인(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검찰에 가기 전 장충기 사장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과의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이 아닌지	○ 63빌딩에서 조찬 했음. 전혀 그렇지 않음.

(마) 김신 증인(삼성물산 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는 어땠는지?	ㅇ 2014년보다 2015년이 별로 좋지 않았음.
ㅇ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중 현대건설, GS, 대우, 대림의 경우 건설업 평균 28.7% 주가가 상승했지만, 삼성물산만 마이너스 8.9%로 주가가 하락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건지?	ㅇ 다른 건설사의 경우에는 14년도에 건설과 관련해서 상당한 부실이 생겼는데 저희 회사는 그 부분이 공사 진행이 좀 늦다 보니까 15년 말에 부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부분들이 15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바) 주진형 참고인(前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삼성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에 합병에 대하여 찬성 압박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ㅇ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음
ㅇ 삼성이 합병에 찬성하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학 등의 주식투자 운용자금을 지원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지.	ㅇ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하여 찬성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ㅇ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대했는지	ㅇ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는 과대평가된 제일모직과 과소평가된 삼성물산의 합병은 단지 그냥 삼성물산의 이사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자본시장법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시행령 핑계대면서 합병한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음. 국내 언론이나 우리나라의 발언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눈을 감거나, 입을 닫거나, 찬동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았음. 증권회사들까지 다들 옹호하는 보고서를 쓰는 것을 보고 한국인으로서 창피했음
○ 삼성 합병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지 말라는 한화 내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 질의	○ 보고서가 나가기 며칠 전 한화그룹의 경영기획실장인 금춘수 사장이 한화그룹과 삼성은 사이도 좋고 앞으로 사업도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서는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함. '증권회사 사장한테 그런 것을 부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약속 못 드립니다'라고 이야기 했고, 그다음 주 월요일 1차 보고서가 나갔음
○ 삼성그룹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 삼성그룹 지인 네 사람이 전화로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는 연락이 왔음. 저희 회사는 삼성물산 주식을 3만 9000주 정도, 0.02% 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는 연락이 왔고, 위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찬성해 달라고 전화가 왔으나 그것도 안 하겠다고 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삼성물산 합병 반대 이후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퇴 압력을 받았는지,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 1차 보고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경영기획실장인 금춘수 사장이 '당신 때문에 삼성의 장충기사장에게 불평전화를 들었으며, 다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말을 계속 함. 이와 관련하여 약속은 못 드리겠다고 했음.
○ 한화가 보유한 주식 지분이 크지 않음에도 합병에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한화그룹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누구라도 한마디 말을 거역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함
○ 회사에서 강제로 사임시킨 것이 사실인지?	○ 사임하라고 하는 압력이 있었지만, 언론에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간에 임기를 마치는 걸로 타협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는지,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 불법적이었다면 여기에 앉아 있지 못함.
○ 절차적으로는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 삼성은 불법이 아닌 방법을 찾는 것을 알고 있음.
○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삼성합병과 관련하여 연임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 (답변없음)

(사) 김상조 참고인(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이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삼성의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질의	○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은 계열사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무리한 판단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함
○ 자사주 매각 관련 이재용의 매각 동의 과정 등 삼성의 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	○ 김종중 사장으로부터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자사주의 매각을 강력히 권고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초반부에 거부 의사를 보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팔게 되었다라고 들은 바 있음
○ 삼성의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 요청	○ 삼성그룹은 자신의 성공을 황금의 삼각축으로 설명함. 회장의 영도력, 미래전략실의 기획력, 계열사의 전문 경영력이 삼각축이며, 과거에는 그것이 성공의 원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음. 변화한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삼성그룹이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삼성 합병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에 동의하는지, 당시 합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 한화그룹에서 참모조직이 경영기획실이며,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미래전략실 금춘수실장이 주진형 사장에게 물러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회장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김승연 회장은 한화투자증권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으며 등기이사도 아닌 분이 상장회사에서 주주의 뜻에 의해서 뽑힌 사장을 물러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엉망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제일모직은 과거에 삼성에버랜드였음.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제일모직의 주식으로 갖고 있었으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였음. 이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을 그룹 전체의 사실상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삼성그룹의 3세 승계 과정의 완성지는 아니지만 거기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제출된 회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약 3500억의 손해라고 사전적으로 계산이 됐으며, 사후적으로 보면 시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8000억 이상의 손해가 났다는 계산 결과도 있음.
○ 삼성에 대해서 총평을 부탁함.	○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이병철 회장이 60년대에 비서실을 만든 이래로 그룹 전체의 계열사들을 관리하고 통할하는 그룹의 컨트롤 타워였음. 이 조직이 모든 중요한 사항을 매일같이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음.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장충기 사장, 김종중 사장 등의 핵심 임원들이 해외출장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결정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음. 삼성물산 합병은 김종중 사장이 담당업무로 주도 했던 일이며, 장충기 사장의 업무는 대외 로비이며, 대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 역할을 했다고 생각함. 중요한 업무들이 사후에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움. 오늘 회장님들께서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계속 내 업무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아니다, 보고받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답변은 기업 지배 구조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그룹의 총수가 하루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을 다 보고받을 수는 없음. 하지만 등기이사 또는 등기이사가 아닌 사실상의 이사이든 그룹의 회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이 그룹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의 하나임.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또는 구축하고서도 그것의 통제대상에서 벗어나는 비선조직의 활동을 방임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함. 이러한 측면에서 나중에 형사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합병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 개진	ㅇ 2016년 5월 30일 날 일성신약과 같이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매수청구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사건이었음. 삼성은 이 삼성물산의 합병을 진행하면서 조정 비율을 자본시장 법령 등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했다고 함.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정당하지 않음. 정당한 타이밍이 아니었으며, 정당한 비율로 결정하지 않았고, 절차도 정당하지 않았음. 일성신약이 제기한 비송사건의 고등법원 판사는 그런 정황 증거들을 다 고려해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 봤을 때 그 합병 비율은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임.

(아) 윤석근 참고인(일성신약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국민연금이나 삼성물산에서 압력을 가한 바가 있는지,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	ㅇ 국민연금에서 직접적으로 압력 받은 것은 없음. 삼성물산에서는 계속 설득을 당했음. 다섯 번 정도 만나서 찬성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설득 당했음.
ㅇ 만난 시점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ㅇ 7월 10일 국민연금에서 투자위원회를 연 날이며, 전날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관계자와 만났음. ‘만약 연금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내 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금은 다 됐다’고 이야기함. ‘이것이 찬성의 의미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함.
○ 삼성물산에서 국민연금측은 찬성하기로 했다고 말해준 사람은 누구인지?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사장님하고 삼성물산의 김신 사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면 제가 찬성을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왜 저를 설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국민연금은 다 됐습니다’, 다 됐다는 의미를 꼭 무슨 나쁜 의미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찬성으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함.

(4) 최순실 인지 시점 관련

(가) 이재용 증인(삼성전자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ㅇ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주 오래 된거 것 같지는 않음.
ㅇ최순실에 대하여 언제 처음 들었는지	ㅇ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모름.
ㅇ2015년 초에 한화에서 삼성으로 승마협회장이 바뀌었는데 그 때 최순실에 대해서 인지했는지	ㅇ아님.
ㅇ2015년 7월 대통령과 첫 번째 독대할 때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2016년 2월 두 번째 독대할 때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는지	ㅇ몰랐음. 최순실을 언제 정확히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음.
ㅇ최순실 존재에 대하여 누가 처음 알려줬는지, 최순실의 배경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들었는지	ㅇ얼마 전에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정말 기억을 못하겠음. 최근에 와서 많이 들었음.
ㅇ최순실을 2015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알았는지 여부와 2015년 3월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최순실을 알았는지	ㅇ제가 언제 알았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음.
ㅇ2014년 12월 소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권력순위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는 보도가 있었음. 당시 삼성	ㅇ제가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음. 승마협회 회장사를 저희가 맡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세부내용에 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신문보도 등을 통해서라도 최순실에 대해 인지했을 것이라는 지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지원하는 정유라가 최순실 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지적.	해서는 챙기지를 못했음.
○ 2015년 8월 독일의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당시 최순실을 알았는지	○ 몰랐음.
○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 시간도 좀 된 일이고 여러 사람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움.
○ 최순실을 만난적이 있는지	○ 만난 적 없음.
○ 최순실 어떤 인물이라고 보고받았는지	○ 그런 일로 보고받은 적 없음.
○ 최순실이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면서 큰돈이 지출되게 놔두었다는 것인지	○ 그 부분은 적절치 못했음.

(나) 이승철 증인(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최순실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최순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최순실은 모르며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존재를 알게 되었음. 최순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사실도 몰랐음.

(5) 정유라 지원 관련 사항

(가) 김승연 증인(한화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한화가 승마협회장 직을 유지하고 2014년 4월 26일 한화가 한화갤러리아 명의로 구입한 8억3천만원 상당의 말 2필의 사용 용도에 대한 질의.	ㅇ 알지 못함.
ㅇ 한화가 구입한 말의 정유라 사용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ㅇ 증여한 사실 없음.
ㅇ 한화와 삼성이 빅딜을 위하여 정유라에게 말을 상납했다는 것에 대한 질의.	ㅇ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충하겠음.
ㅇ 승마 관련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	ㅇ 문화나 스포츠지원은 일일이 다 보고하지 않음.

(나) 이재용 증인(삼성전자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10억 상당의 말을 제공한 것에 대한 질의.	ㅇ 삼성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2014년 삼성테크윈의 한화 매각이 정유라에 대한 말 제공 지원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질의.	ㅇ 앞으로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할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과 정유라 측에 지원한 금액에 대한 질의.	○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함.
○ 정유라에 대한 말 지원의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지, 장충기, 박상진 사장인지 여부 질의.	○ 스포츠나 문화나 이런 지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도 안 하고, 이건에 관해서는 저도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모르겠음.
○ 사건 발생 이후 정유라 말 지원 관련해서 보고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질의.	○ 미래전략실 실장과 팀장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음.
○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 몰랐음.
○ 삼성이 말을 구입하여 정유라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승마 경기장 구입 건도 알고 있는지	○ 나중에 들었음.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지원이 됐던 것을 인정 하며, 세세하게 챙겨 보지 못한 것이 후회됨. 승마경기장 구입은 잘 모름.
○ 삼성이 정유라에게 186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았는지, 정유라가 세계랭킹 몇 위의 선수인지를 알고 있는지	○ 모르고 있음.
○ 승마협회를 통한 지원 대신 정유라에게 직접 지원한 것은 누가 지시한 것인지?	○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으며,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님.
○ 삼성은 정유라에게 말 관련 35억 지원 등 최소 수백억원 지원 약속을 한 바 있는데, 다른 승마선수에게도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 자세한 내용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원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정유라에게 지원했다는 국민들의 의심이 사실인지?	○ 절대 그런 적 없음.
○ 부적절한 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안 해 보셨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특검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조사하기 때문에 특검 조사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실 규명이 되리라고 생각함.
○ 삼성은 유일하게 정유라에게 직접적 지원을 했는데 이미 지원 전에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 무슨 혜택을 받으려거나 줄을 대려거나 그래서 한 게 절대 아니며, 승마협회를 맡은 것도 그때부터 철저히 챙겨 봤어야 되는데 본인의 불찰임.
○ 승마단에 35억원 말고 또 지출한 것이 있는지, 정유라에게 구입해 준 말의 금액은 얼마인지?	○ 승마단에 35억 외에 추가 지원 없음. 정확히 액수는 모름.
○ 19억짜리 말을 정유라한테 왜 사줬는지?	○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음.
○ 이재용 부회장이 말을 사주고, 최순실한테 돈을 주라고 지시를 했는지?	○ 무슨 변명을 해도 여지가 없음.
○ 정유라에 대한 35억원 송금을 누가 결정했는지?	○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음.
○ 정유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운 것인지?	○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연루가 돼 있고, 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앞으로 특검 조사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정유라에게 70억원을 송금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박상진 사장인지, 장충기 사장인지	ㅇ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음.

(다) 김종중 증인(삼성전자미래전략실 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2015년 9월과 10월에 정유라를 위해서 35억을 송금한 것은 누가 결정했는지?	ㅇ 알지 못함.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음.

(6) 평창동계올림픽 운영과 인사 관련 사항

(가) 조양호 증인(한진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평창올림픽 준비위원장 사퇴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	ㅇ 사퇴하라는 통보를 받았음.
ㅇ 사퇴 이유를 물어 봤는지에 대한 질의.	ㅇ 물어보지 않음.
ㅇ 최순실 등을 비롯한 더블루케이 등과의 불편한관계로 평창올림픽 준비위원장을 사퇴하게 된 것인지 여부.	ㅇ 이러한 이야기를 최근 신문 지상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음.
ㅇ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물러나기 전에 최순실을 만났는지 여부, 최순실을 두 번 만났다는	ㅇ 최순실 만난 적 없음. 임명권자의 뜻으로 생각하고 물러났음. 기부금을 덜내서 물러났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 조직위원장 사의가 최순실과 관계 없는 사항인지 질의.	는 이야기는 들은적 없으며, 업무에 여러 가지가 지쳐 있기 때문에 그냥 사의를 표명했음.
○ 김종덕 장관과 4월 초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출장을 함께 간 사유 질의.	○ 마스코트에 대해서 IOC와 한국 평창조직위원회의 이견이 있었고, 마스코트에 대한 것은 조직위원회가 해야 되지만 장관이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코트 만드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장관한테 위임함. 마스코트 결과에 대해서 IOC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하러 가겠다고 해서 조직위원장으로서 IOC와의 연결을 해 주기 위해서 같이 동행함.
○ "누슬리"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본 바 있는지, 누슬리가 평창올림픽에 관여하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누슬리는 국제적인 체육, 건설장비 대여 전문회사이며, 개폐회식장은 2주간 쓰기 때문에 임시로 만들고 있으며, 설계과정에서부터 그런 장비 대여회사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본 적이 있음.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하여 유감이며, 김종덕 장관과 함께 마스코트 변경 요청을 위해 IOC위원회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 그런적 있음.
○ 김종덕 장관이 5월 2일 조직위원장을 그만 두라고 해서 사임했는데 사실인지?	○ 사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IOC 마스코트 변경 건으로 스위스에 출장간 사실과 관련하여 마스코트를 진돗개로 변경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 마스코트에 대한 책임은 조직위원장과 조직위가 갖고 있지만, 문체부장관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마스코트의 모든 사항을 장관한테 위임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 모르고 중간 과정에 대해서 문체부 관계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음. 호랑이였다가 개로 바꿨을 때에 IOC에서 개는 좀 문제가 있으며, 마케팅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음.
○ 출장시점이 한진그룹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때였다는 점 및 결국 마스코트를 바꾸지 못했다는 점 지적.	○ 한진그룹의 자율협약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채권단과 한진해운 경영진 또 한진그룹의 금융 관계의 전문가들이 협상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꼭 남아 있었어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조직위원장으로서 장관이 가는데 장관은 IOC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같이 갔음.
○ 누슬리 회사를 만난 적이 있는지와 청와대가 누슬리에 동계올림픽 시설의 공사를 맡기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음. 누슬리가 좋은 회사인데 한번 만나보라는 이야기는 들었음.
○ 누슬리는 최순실 소유의 더블루K와 협약을 맺은 업체인 건 알고	○ 그때 몰랐음. 누슬리하고 최순실하고 다음 해 2월 달에 협약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있었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을 체결했고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 받은 것은 그전 해의 12월 달이었음.
○ 4월 19일 위원회 조직이 상근부위원장 체제에서 사무차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때문인지? 김종 전 차관이 김재열 사장을 국제담당 상근부위원장으로 임명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지?	○ (답변 없음)
○ 사무차장 체제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 것이 김종 전 차관의 압력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인지?	○ 김재열 사장이 오기 전에 이미 3 부위원장 제도를 하나의 사무총장 및 2개의 차장 제도로 바꿨음. 부위원장으로 다시 하라고 해서 조직 내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바꾼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것은 조직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재열 사장은 동계올림픽 유치 때 이건희 회장을 수행해서 쭉 다녔기 때문에 IOC하고 관계가 좋았음.
○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의 평창 조직위 부위원장 추천은 누가 했는지, 문체부의 누가 청탁했고 그 문체부 직원 이름은 누구인지?	○ 누구라고 확실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문체부에서 증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부위원장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음. 조직위에 파견된 문체부 김기홍 국장임.

(7) 최순실과 정유라 지원 관련

(가) 이재용 증인(삼성전자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코레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에 대한 80억 자금 지원 등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사유 질의.	○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저희가 연루가 돼서 정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대비책을 철저하게 강구하겠음.
○ 삼성이 독일에 얼마를 후원했는지 질의.	○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는데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박상진 사장의 독일 출장 및 회사의 돈을 독일에 지원한 것을 보고 받았는지 질의.	○ 나중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적절치 못하게 지원을 한 것은 인정함.
○ 미르와 스포츠재단 말고 비덱스포츠로 지원됐던 37억, 별도로 43억 지원된 거 알고는 있었는지?	○ 문제가 되고 나서 들었음.
○ 최순실 국정농단에 삼성이 협조를 했는지 여부.	○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문제가 있어서 책임질 게 있으면 지겠음.
○ 비덱스포츠가 최순실, 정유라가 주주인 회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삼성전자가 컨설팅 이력이 없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 및 지원 금액으로 최순실이 호텔과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질의.	○ 문제가 되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음. 나중에 이야기 들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덱스포츠에 대한 지원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질의.	○ 여러 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으며, 제가 직접 연루가 된 일이 아니라서 여기서 말씀을 잘못 드리면 잘못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 여러 사람이 정유라 지원 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는데 장충기 사장이 포함되는지, 비선 실세 뒤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	○ 승마 쪽에 관계가 되었던 것 같음. 승마협회 건은 여러 명이 연루가 되어 있고 지금 검찰에서도 조사 중이고 저희가 앞으로 특검에서도 조사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음.
○ 삼성전자 회사의 돈을 최순실에게 지원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지원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고 받았는지.	○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이 일의 배경에 대해서 들었음. 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얘기 듣고 있음.
○ 삼성전자가 독일로 송금한 자금 결재는 누가 했는지에 대한 질의.	○ 결제를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음.
○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을 한 달에 몇 번 만나는지와 장충기 차장이 최순실 관련한 자금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는지 여부와 만약 300억을 보고 없이 지원했다면 장 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	○ 한 달에 한번내지 두번 만남. 문제가 되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으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가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지원한 것 같음.
○ 독일 송금 관련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 세부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비덱스포츠 지원금에 대하여 오전 답변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사정은 무엇인지, 그 사정이 승마협회 지원건과 관계가 있는지.	ㅇ검찰 조사 중이고 특검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상히 사실 규명이 되리라고 생각됨. 승마협회 지원 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음.
ㅇ최순실의 비덱스포츠에 37억, 그 다음에 그랑프리 우승마인 비타나V를 비롯한 말 구입에 43억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증인인지, 미래전략실 인지, 장충기 사장인지?	ㅇ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음.
ㅇK스포츠・미르재단 204억, 최순실한테 80억, 장시호 16억 그리고 말을 지원하는 것을 몰랐는지?	ㅇ당시에는 몰랐음.

(나) 조양호 증인(한진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최순실 측에서 독일 쪽으로 돈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ㅇ그런 적 없음.

(다) 신동빈 증인(롯데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최순실 측에서 독일 쪽으로 돈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ㅇ그런 사실 없음.

(라) 최태원 증인(SK(주)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최순실 측에서 독일 쪽으로 돈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ㅇK스포츠 처음 찾아왔을 때 그런 요구 있었음.
ㅇ액수가 얼마 였는지? 돈을 보냈는지?	ㅇ8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함. 안 보냈음.

(8)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 사항

(가) 허창수 증인(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전경련 해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	ㅇ해체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함
ㅇ5대 기업이 1년에 납부하는 전경련 회비가 얼마인지?	ㅇ200억 임.

(나) 이재용 증인(삼성전자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전경련 해체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ㅇ전경련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자격이 없고,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삼성은 전경련을 탈퇴하고, 전경련을 해체시키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싱크탱크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 여부.	ㅇ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음.

(다) 정몽구 증인(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전경련에 1년 회비로 내는 금액이 30억 원 정도 되는지.	ㅇ 나중에 정확한 금액을 보고하겠음.
ㅇ 전경련을 탈퇴할 의향이 있는지?	ㅇ 의사는 자연히 있게 돼 있음.

(라) 조양호 증인(한진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전경련을 탈퇴할 의향이 있는지?	ㅇ 답변 없음.

(마) 구본무 증인((주)LG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전경련을 탈퇴할 의향이 있는지?	ㅇ ‘예’라고 답변함.

(바) 최태원 증인(SK(주)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전경련을 탈퇴할 의향이 있는지?	ㅇ전경련이 환골탈태 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라고 답변함.

(9) CJ 부회장 퇴진 관련

(가) 손경식 증인(CJ(주)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2013년 하반기 조원동 경제수석과의 전화통화를 기억하는지,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 질의.	ㅇ처음 전화가 아니고 만나자고 해서 직접 만났음. 조원동 수석 이야기는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조금 자리를 비켜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음.
ㅇ경제수석이 사기업체 부회장에게 회사를 떠나라는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ㅇ조수석의 말은 대통령 말씀이라고 전했음.
ㅇ조원동 수석과의 만남 이후 다시 시도한 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및 이미경 부회장은 통화 이후 퇴임을 했는지 여부 확인.	ㅇ통화를 또 한 이유는 당사자인 이미경 부회장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다고, 조수석 얘기를 자기도 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음. 퇴임하지는 않고, 그런 일이 7월 중에 있었는데 9월 말에 미국으로 갔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청와대의 퇴임 요구 관련 이유를 파악했는지 여부 및 대통령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는지 여부 질의.	○ 저희가 경솔하게 추측을 할 수는 없고, 이 얘기를 말한 조 수석이 확실히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 수석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음.
○ 그간 재계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통해 사기업의 부회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질의.	○ 직접 겪어 보지 못했음.
○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회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내용에 위배된다는 점 지적 및 이런 대통령이 공직 수행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의.	○ 지금 대통령 말고 과거에도 군부 정권 때나 그럴 때는 이런 경우도 좀 있었다 하는 기억이 있음. 흔한 일은 결코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음.
○ 이미경 부회장이 청와대 눈 밖에 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 전혀 알지 못함.

(10) 차은택과 K컬쳐벨리 관련

(가) 손경식 증인(CJ(주)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케이컬쳐벨리와 관련하여 차은택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및 차은택이 어떤 요구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	○ 행사장에서 한 번 그저 수인사 한 일만 있고 그 이후로는 만난 일이 없음. 저희 회사에 창조혁신센터라고 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화융성하는 조직의 책임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 들었음. 우리 직원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고 들었음.
○ 차은택이 K컬쳐밸리를 제안한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제안자는 누구인지	○ 잘 모르겠음.

(나) 이재용 증인(삼성전자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차은택 만난적 있는지?	○ 만난 적 없음.

(11) 최순실 비선실세 지원 관련 사항

(가) 조양호 증인(한진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6월에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고영태 친척(고창수, 전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제주지점장으로 발령내달라는 요청을 받은적 있는지?	○ 제가 받지를 않고 우리 대표이사한테 부탁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고영태의 친척 고창수가 제주지점에서 사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던 당시, 안종범 전 수석이 구명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ㅇ 대표이사 보고에 의하면 요청을 했지만 회사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으며, 그렇게 처리함.

(12) 기타 사항

(가) 김승연 증인(한화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가격 담합해 가지고 화약업계 70% 이상 점유하는 것이 맞는지와 고려노벨화약하고 가격 담합해 가지고 추징금 받은 적 있는지?	ㅇ 잘 모르겠음.
ㅇ 그룹 회장이 과징금 643억 받은 거 모르는지?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도 못 하게 만들고, 1000억 원대 배임하고, 비선실세 딸 찾아다니면서 말 상납하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민낯임.	ㅇ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충하겠음.
ㅇ 삼성테크윈 비롯한 방산업체를 삼성으로부터 매수해서 한화는 재계 순위 9위로 상승했는데 인정하는지?	ㅇ 별로 신경 안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승연 회장은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는지?	○ 없음.
○ 아들 김동선이 정유라와 함께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그때 최순실이 오지 않았는지.	○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왔는지 모름.
○ 아들이 정유라와 잘 아는지, 김승연 회장 사모님과 최순실이 서로 잘 아는지. 승마장에서 사모님이 최순실을 매일 만났다고 하는데 맞는지?	○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승마선수라는 것은 알고 있음. 아내와 최순실은 전혀 모름. 아내는 승마장에 매일 간 적 없음.
○ 승마협회를 왜 삼성에 넘겼는지, 누가 넘기라고 했는지. 왜 협회일이 벅차다고 느꼈는지, 삼성과 승마협회 관련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지 여부.	○ 승마협회를 감당하기 벅차서 넘겼음. 삼성과 승마협회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한적 없음.

(나) 이재용 증인(삼성전자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와 '황유미'라는 노동자 아는지	○ 예.
○ 황유미 노동자는 2010년 사망 당시 나이가 스물 넷이었음. 삼성은 보상금으로 500만 원 제시함.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그 것을 몰랐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삼성은 조정위원회가 공익재단 1000억을 조성해서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은 개별적으로 사과하고 개별적으로 보상하고 개별적으로 재발방지대책만 내놓았음을 지적함.	○ 반도체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종업원들과 저희 고객들의 안전을 더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좀 미비했던
○ 삼성반도체와 LCD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중 무려 76명이 사망했으며, 병·뇌종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가 224명임. 삼성서비스센터 협력업체 노동자가 에어컨실외기 작업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함. 성핸드폰을 만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요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상실했음. 삼성은 직원이 아니라고 했음. 이 모든 일에 삼성 책임이 없는지?	○ 모든 일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삼성의 사업장 말고도 모든 협력사까지도 작업환경이나 사업환경을 개선하겠음.
○ 향후에도 미래전략실을 통해 그룹을 전사적으로 지배할 것인지 질의.	○ 회사가 잘되고 각 계열사들이 다 잘되는 게 제가 잘되는 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더 열심히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 미래전략실에서 국내 정치경제 관련 분석 등 정부 자료를 전달	○ 가끔 받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한 바 있는지?	
○ 정윤회 문건 사건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으며,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 없음.
○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도 보고하지 않았는지?	○ 회사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음.
○ '정윤회 문건'은 당시 정치사회에 있어 가장 큰 사건임에도 보고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	○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는 않음.
○ 기업 가맹단체의 회장사라면,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생각은?	○ 가맹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함.
○ 이건희 회장이 2008년 4월 전략실을 해체하고, 차명계좌는 세금 납부 후 유익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 회장님께서 투병하기 전까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돈을 좋은 일에 쓰실 기회를 찾으시다가 지금 투병 중임. 어머님과도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형제들과 결정할 시기가 오면 좋은 일에 쓰겠음.
○ 미래전략실 해체에 대한 의견.	○ 창업자이신 선대 회장께서 만드신 거고, 회장께서 유지를 해오신 거라 조심스럽지만 국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여러분들께서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면 없애겠음.
○ 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의 공개적 사과가 필요하다고 기자회견한 기사가 삼성의 광고 압박에 의해 사라졌다고 하는데 알고 있었는지?	○ 모르고 있었음.
○ 삼성에 불리한 기사에 대해 언론사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게 어떤지?	○ 압력을 가하지 않겠음.
○ FBI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애플사의 대응을 교훈삼아 삼성이 다른 기업으로 태어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게 어떤지.	○ 앞으로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구태가 있었으면 고치고,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음.
○ 삼성이 국내산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 투자액의 90%를 한국에 하고 있으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은 100%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음.
○ 삼성그룹에서 청와대를 상대하는 대관업무를 하는 곳이 미래전략실인지?	○ 정부나 국회는 미래전략실로 연락함.
○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수석이 연락하고, 삼성에서는 장충기 사장이 주로 연락하는 것이 맞는지?	○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음.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 전에 상장됨. 이 상장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는 상장, 특혜 상장이라	○ 이익을 낸 적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의문투성이의 의혹을 받고 있음. 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는 회사인 것이 맞는지?	
○ 적자 기업이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사례가 있는지?	○ 잘 모르겠음.
○ 삼성이 지주회사로 갈 것인지?	○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검토 중임.
○ 삼성 지주회사의 지분 약 30% 정도를 그냥 거저 갖게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정경유착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음.	○ 지주회사에 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음.
○ 8조원이나 되는 재산을 증식해 오면서 상속세는 16억원 납부에 그친 것에 대한 지적.	○ 답변 없음.
○ 신상필벌 얘기를 하니까, 장충기 사장을 신상필벌 할 거냐 최지성 사장을 신상필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고,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답변함. 과거에 삼성이 차떼기 때, 삼성 특검 때 구조본 해체하고 전략기획실 해체하고, 그때마다 해체, 해체해서 1면 톱을 장식하고 미래전략실을 또 만들었음. 이번에 또 해체하고 무엇을 또 만들건지?	○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함.
○ 삼성전자에서 독일에 누가 자금을 보냈는지? 장충기 사장이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음. 불미스러운 일에 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보냈는지? 본인이 결정했는지? 본인이 보내라고 했는지?	루가 돼 갖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함.
ㅇ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장충기 팀장, 김종중 팀장 등은 미래전략실 4인방이라고 하며, 증인께서 외국 출장 중이 아니시라면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ㅇ 아님.
ㅇ 최지성 사장과 김종중 사장 이런 분들은 늘 만나십니까?	ㅇ 최지성 실장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같이함.
ㅇ 장충기 사장은 최순실과 연루된 중요한 인물인데, 고의로 김신, 김종중 등으로 증인 바뀌게 한 것 아닌지?	ㅇ 그런 건 아님.
ㅇ 기업은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지 못하는지.	ㅇ 앞으로는 제가 잘못한 것 허물을 다 버리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ㅇ 검찰에서도 오늘과 같은 태도로 진술하였는지?	ㅇ 아는 대로 진술했음.
ㅇ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은 그룹 내 어떤 위치인지? 장충기 사장은 대외 홍보 담당 맞는지?	ㅇ 미래전략실의 부회장 맞음. 사회공헌, 대관 업무 수행함.
ㅇ 삼성생명 자산이 얼마인지 아는지와 260조 자산을 가진 삼성생명 출신이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향후 삼성은 금융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더 잘 살펴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좋은 경영인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어떤 분을 제시하실 건지?	ㅇ 답변 없음.
ㅇ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CEO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ㅇ 어느 조직이든 유능한 분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함.
ㅇ 세간의 여론을 어떤 경로로 전달받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ㅇ 되도록이면 많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ㅇ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장충기 실장으로부터 안종범 청와대 수석 만난 것을 전달받은 적이 있었는지 및 정유라 지원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ㅇ 대외업무를 담당함. 안종범 수석 만난 것에 대하여 들은 적 없음.
ㅇ 장충기 실장으로부터 독일 말 구입 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ㅇ 문제가 되고 나서 들었음.
ㅇ 구미의 일자리가 베트남으로 간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베트남의 일자리가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는 점과 이에 대한 각오의 말씀 부탁함.	ㅇ 여건이 되는 대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음.
ㅇ 삼성에서 박상진 사장이 최순실을 만났는지?	ㅇ 만났음.
ㅇ 삼성 본관 앞에서 5년째 부당해고에 항의하고 있는 삼성SDI 노동자들 아는지? 삼성 서비스 하청 노동자들 문제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ㅇ 한번 잘 챙겨 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성격이 부친, 모친 누구를 더 닮았는지, 부친의 경영스타일이 다 마음에 드는지. 부친의 경영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에 관한 질의	○ 두 분의 좋은 점만 닮도록 노력하겠음. 아직 미숙한 게 많아서 배울 게 많으며, 아직 제 스타일이 없다고 생각함.
○ 투자 외부 지출시 전결 금액이 얼마인지, 위임 전결 규정에 대한 설명 요청. 이사회 지출에 대한 통과 액수는 얼마인지?	○ 모름. 액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사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규정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름.
○ '어쩔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 박상진 사장이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독일에 가서 최순실 만나라는 지시를 받아 장충기 사장에게 보고한 것이 아닌지 여부,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서 최순실 만난 것을 알고 있었는지?	○ 들은 적 없음.
○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위해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기 위한 포부를 요청함	
○ 삼성 승마단은 언제 해체 했는지 질의 및 최근 프로야구, 축구에 대한 지원금이 감소하였음을 지적.	○ 정확히 모름.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음.
○ 고등학교와 대학교 중에서 언제 승마 국가대표 였는지?	○ 대학생 때 였음.

(다) 조양호 증인(한진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퇴출을 막기 위한 한진그룹 차원의 2조 원 가까운 돈을 넣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자구노력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음. 최순실에 대한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때 한진해운이 좋지 않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회는?	○정부와의 협력이 잘 안 되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융권이 금융논리 이외에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함.
○K익스피리언스가 들어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은 백지화 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015년 5월에 호텔은 포기하였고, 문화센터로서 추진하는데 문화체육부에서 K익스피리언스를 이름을 쓰겠다고 해서 방향에 맞췄기 때문에 K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사용을 허용을 했을 뿐 종합문화센터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은 한진그룹 독자적으로 하고 있음.

(라) 허창수 증인(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기부금을 많이 내며, 어린애들 봐 주는 곳에 기부금을 많이 내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GS그룹은 임신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원들한테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들어 보고, 각계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앞으로 전경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제가 듣고 판단하겠음. 임신한 여직원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여성 우대하려고 직원들한테 많이 부탁함.

(마) 정몽구 증인(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저출산, 양극화,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힘 쓸 의향이 있는지.	○ 관심이 있으며, 딸 셋에 아들도 있고 형제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케이디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의견.	○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그것이 사실이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겠음.
○ 현대그룹 소속의 창원·울산·당진에서 올라온 노동자들과 하청 유성기업 노동자들까지 있었는데, 권력에게 돈 주고 노동 문제 해결하려	○ 현장 중심으로 하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고 하지 말고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서 해결할 생각 없는지?(정몽구 증인 대리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 삼성동 부지 가액(10조) 관련, 감정가 대비 3새 이상 매입한 것에 대한 설명 요청. 권력의 특혜와 관계가 없는지 및 비싸게 구입한 이유(정몽구 증인 대리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 권력의 특혜와 상관없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금액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입찰에서 그 정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임.
○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의 역사문화 환경 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한 현대차의 입장과 서울시와 봉은사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정몽구 증인 대리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 입찰 시에 서울시에서 내리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라는 기준하에 입찰금액을 정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개발에 관한 모든 결정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임. 서울시하고 조계사하고의 문제지 저희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음.

(바) 신동빈 증인(롯데그룹 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요망.	ㅇ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그룹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는 꼭 예년대로 채용하도록 하겠음.
ㅇ 롯데가 일본계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부 유출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롯데가 한국 기업이 맞는지 질의.	ㅇ 롯데는 한국기업임.
ㅇ 최순실과 무관하게 정치자금을 추가로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지?	ㅇ 아는 범위 내에서 없음.
ㅇ 회장 며느리와 부인은 일본인이 맞는지?	ㅇ 맞음.
ㅇ 70년대에 강북에서 백화점이 안 될 때 백화점을 열고, 2010년 성남공항 활주로를 변경하여 제2롯데월드 허가를 받은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지적.	ㅇ 당시에 롯데그룹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음.
ㅇ 금년 12월 롯데면세점이 관세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ㅇ 본인이 알 수 없음.
ㅇ 롯데푸드 협력업체와의 '갑질'문제 파악을 요청함.	ㅇ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며 알아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부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성이 확실치 않은 사업에 롯데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BNK에서 1조 8천억이 대출되었는데 이 뒤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지?	○ 엘시티 대출 부분을 잘 모름. 최순실 배후에 대하여 들은 적 없음.
○ 오늘 이후로 국내 투자를 늘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각오 요청.	○ 많이 투자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특히 마트나 슈퍼나 그리고 쇼핑센터의 출점 규제 때문에 투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 규제 완화를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백화점, 마트, 아웃렛이 개장하면 인근 중소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인들과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 하겠음.
○ 롯데는 기성 면세점 특허권 실패, 신규 면세점 특허권 실패함. 롯데는 면세점 특허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면세점 특혜를 위해서 기부를 했거나 특혜를 위해서 특정인에게 수십억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찌라시 등 소문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면세점 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함. 기부한 사실 없음. 비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혀 그런 사실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검찰의 내사는 언제 알았는지, 70억을 돌려받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소진세사장이 최경환 장관과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6월 10일 수사가 시작했을 대 처음 알았음. 하남인가 어딘가에 부지를 구입하지 못했고 돌려받았다고 알고 있음. 소진세사장이 최경환 장관과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정도로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친한지 모름.
○ 롯데에서 최경환 의원한테 50억을 줬다는 기사가 있음.	○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함.

(사) 구본무 증인((주)LG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권력 눈치를 보는 이유가 세무조사 때문인지, 정경유착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정부정책에 대해서 기업이 반대할 입장이 아님. 재단에 출연한 것은 나중에 알았음. 정부가 문화하고 스포츠를 발전시켜서 국가 이미지를 올린다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재단인 줄 알았지 최순실이 하는 것 몰랐음.
○ 국회에서 준조세를 폐지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올리면 반대할 것인지	○ 찬성하지 않음.

(아) 손경식 증인(CJ(주)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이재현 회장 관련 법원 재상고 포기에 대한 지적과 사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질의	ㅇ사면을 약속받지 않음. 이재현 회장은 재상고를 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고가 한 번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상고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가서 법조인이라든지 언론에서 모두들 하는 말씀이 '재상고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함. 이것은 틀림없이 되지도 않는 일이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사면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그래서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재상고를 취하함.
ㅇ상고를 포기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야 해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 치료 때문에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및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ㅇ당시에 재상고를 취하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또 냈으며,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계속 병원에 그대로 있었음.

(자) 최태원 증인(SK(주)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대통령에 의해 사면되고 이후 창조경제 관련 적극적인 역할을	ㅇ사면 이후에는 창조경제 혹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한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으로 호응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능한 한 나라경제에 보탬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음.
○ SK CNC와 SK 합병의 비율문제로 문제가 많았는데 알고 있었는지?	○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에 반대함.
○ 국회에서 준조세를 폐지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올리면 반대할 것인지?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면 찬성함.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꼭 그렇게만 정말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음.
○ 언제 사면되어 나왔는지	○ 2015년 8월 14일임.
○ 그룹에서 연구하고 투자할 분야를 찾아야함. 국내 투자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의 피력을 요청함.	○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서라도 투자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음.

(차) 이승철 증인(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한국학중앙연구소 이사 시절, 이승철 증인에게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부적격자인 이기동 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질의함.	○ 누가 추천했는지 개인적 신상 문제라서 답변할 수 없음.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국정한국사 교과서 당연직 편찬심의	○ 일부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위원이며, 필자들의 원고를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 왜 이렇게 중요한 조직의 원장으로 추천을 했는지?	○ 주변에서 말씀하시고 과거 경력을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신 분 같아서 추천함.
○ 누가 증인에게 추천을 했는지? 교문수석, 최순실, 대통령이 추천을 했는지?	○ 전혀 아님.

(카) 주진형 참고인(前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책 공약단으로 활동했는지 여부 및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	○ 입당 한적 없음. 총선정책공약단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잘 아는 김종인 박사가 비상대표위원장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왔음.
○ 오늘 청문회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정경유착에 대한 청문회이고 오늘의 증인들은 주범이라는 지적. 재계의 순위가 상속세, 증여세, 사회적 배려의 순위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참고인에게 의견 표명 기회를 부여함.	○ 오늘 이야기도 최순실에 관련된 의혹이 생기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며, 삼성은 작년에 이미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임. 작년에 김종중 사장한이 '당신들 이렇게 하는 것 소탐대실이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1년 걸렸음. 부메랑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도 않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데서 일이 터짐.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인데 재벌에 계신 분들은 옛날에는 집행유예, 병원 가고 말다가 요즘은 한두 명씩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도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것임.

(타) 김상조 참고인(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오늘 청문회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정경유착에 대한 청문회이고 오늘의 증인들은 주범이라는 지적. 재계의 순위가 상속세, 증여세, 사회적 배려의 순위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참고인에게 의견 표명 기회를 부여함.	○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한다고 선언한 것은 충격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재벌은 기업집단임. 삼성은 국내 계열사만 60개이고 해외 현지법인을 합치게 되면 400개가 넘는 그룹임. 그룹의 컨트롤타워 없이 경영될 수는 없음. 미래전략실이 바로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임. 컨트롤타워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비공식 조직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해체하겠다고 했음. 과거처럼 이름을 바꾸면서 소속을 바꾸면서 조금씩 규모를 줄이는 정도에 그칠 것인지, 지주회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법적 실체를 가진 그런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후자의 방향은 삼성물산의 합병에 못지않게 사회적 논란과 법률적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것임. 이 부분에 관해서 삼성그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사회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올바른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 주기 바람.

(타) 모든 증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전경련이 정치성을 띠고 있으며,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비판이 있음 ○ 대기업이 근로자, 소외계층,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	

[2016년 12월 7일 제2차 청문회]

(1)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의혹 관련 사항

(가) 김기춘 증인(前 대통령비서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머리 손질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ㅇ 몰랐음.
ㅇ 대통령 보고를 안봉근 비서관을 통해 취했는지?	ㅇ 그렇지 않음.
ㅇ 안봉근 비서관과 몇 차례 통화했는지?	ㅇ 기억이 없음.
ㅇ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의료 진료를 받았는지?	ㅇ 모름.
ㅇ 세월호 전일에 대통령에 대한 의료행위 또는 시술이 있었는지?	ㅇ 모름.
ㅇ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을 처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ㅇ 모름.
ㅇ 증인은 태반주사 등을 맞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ㅇ 없음.
ㅇ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근무 기간 및 근무 기간 동안 일주일 중 대통령과의 대면 횟수는 몇 회인지?	ㅇ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도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뵙는 경우도 있고, 일정하지가 않음.
ㅇ 대통령이 매일 9시경 머리손질을 한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ㅇ 모름.
ㅇ 세월호 7시간에 대하여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 7시간	ㅇ 저희는 아침 10시, YTN에서 죽 그것을 보다가 아마 그때 안보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는 했는지?	장께서 10시경에 이렇게 서면보고를 올리고 곧 전화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도 정무수석실이나 여러 군데에서 서면보고를 올리고 그러다가 오후 5시 조금 지나서 중앙대책본부에 모시고 갔음.
○ 세월호 참사 이후 미용사 정씨의 출입기록 등을 보고받았는지?	○ 몰랐음.
○ 비서실장은 대통령 공식 집무 관련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공식 일정은 알고 있음.
○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대통령의 머리 손질 사실을 알았는지?	○ 모름.
○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관저에서 집무를 보고 있었다'라는 진술과, '관저 내에서 사사롭게 일어나는 일은 알지 못한다' 라는 진술은 엇갈린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 요구	○ 관저도 올라가 보면 집무하는 장소가 있고 주무시는 내실이 있는데 그 내실에서 일어나는 일, 머리를 어쩐다든지 화장실에 가신다든지 하는 이런 사사로운 일은 알지 못한다는 뜻임.
○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에게 어떻게라도 대면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아쉽게 생각함.
○ '대통령은 24시간 근무한다'는 발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생활이 없는게 아닌지, 만약 사생활이 있다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는 집무 수행중이었다고 진술한 사유	○ 24시간 근무를 해도 공무를 수행하는 시간도 있고 사사로이 주무시는 시간도 있다고 생각함.
○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국민적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사유가	○ 세월호 참사는 정말 불행한 참사이기는 하지마는 그것은 재판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 수사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세월호 회사의 부실도 있었고 구조하는 것이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한 것도 있었고 많은 원인이 겹쳐졌다고 생각함.
○ 세월호 당일(4월 16일) 정말 대통령은 관저에만 계셨는지?	○ 청와대 분들이 모두 관저에 계셨다고 해서 관저에 계신 줄 알았음.
○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보면, 7월 8일자 내용에 청와대의 보고 및 그 과정의 혼선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 팽목항, 인천 해경본부, 서울 중대본 등 여기저기서 보고가 이루어져 상황실에서 정리하는 과정에 혼선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함.
○ 민정수석 업무일지 7월 14일자에 보면, 4월 16일자의 위치, 말씀 알려고도 하지 마라. 자료 제출 불가능하다는 지시 내린 적이 있는지?	○ 그런 지시 내린 적이 없음.
○ 민정수석 업무일지 9월 23일자, VIP 7시간 관련 주름수술설 사이버수사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보고가 올라온 것은 아닌지?	○ 전혀 모름
○ 당일 이런 수술이 있었는지 진위 파악 위해서는 CCTV가 보존되어야 될 것인데 CCTV가 어떤 경로로 폐기되었는지?	○ 청와대 출입자의 확인은 경호실 소관으로, 비서실에서는 알지 못함.
○ 비망록 내용에 대해 비서실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월호 당시 서면보고를 증인이 지시한 것인지?	○ 각 소관 수석들은 자기 업무에 관해서 지시하나 안 하나 당연히 보고할 일은 보고하게 되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대통령 전에 증인이 먼저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후에 보고를 받으시는지	ㅇ 시간 관계상 선보고를 먼저함.
ㅇ 당일 증인에게 사후보고는 누가했는지?	ㅇ 해당 수석들이 했음.
ㅇ 세월호 당시 서면보고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었는지 최종 확인했는지?	ㅇ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보셨을 것으로 생각함.
ㅇ 세월호 당시 대면보고는 안하고 서면보고만 했는지?	ㅇ 그러함.
ㅇ 세월호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서면보고 또는 대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ㅇ 없음.
ㅇ 세월호 당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ㅇ 그건 아님.
ㅇ 세월호 당시에 정호성 비서관은 어디에 있었는지?	ㅇ 잘 모르겠음.
ㅇ 세월호 당시 정호성 비서관의 대면보고를 막았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당시 할 필요가 없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아닌지?	ㅇ 그건 아님
ㅇ 특조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ㅇ 특조위에 나가서도 충분히 설명했음.
ㅇ 위증의 증거가 나오자 증언을 바꾼 답변 태도 지적. 법망을 피하더라도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지적.	ㅇ 죄송하게 생각함.
ㅇ 세월호 사건 당시 미장원 원장	ㅇ 몰랐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 출입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는지?	

(나) 차은택 증인(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은 세월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 최순실 씨를 소개받은 게 그 세월호 사건 이후 몇 달 지난 후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지는 못했음.

(다) 고영태 증인(전 더블루K 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4년 4월 16일쯤에는 최순실과 친했던 것으로 아는데, 최순실의 당시 세월호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 세월호의 노락색만 봐도 별로 안 좋게 생각했음.
○ 최순실이 세월호 관련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 세월호 당일 날은 일단 오전에 원단 컨펌을 받고 그 뒤로는 바빠서 통화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그 이후로 그런 얘기를 안 했음.

(2) 세월호 참사 부적절한 대응 의혹 관련 사항

(가) 김기춘 증인(前 대통령비서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김영한 비망록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지?	ㅇ비망록을 본 적이 없고,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음.
ㅇ김영한 비망록 2014년 10월 27일자를 보면, 세월호 인양, 시신 인양 X, 정부 책임·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당시 김기춘 증인의 말을 민정수석이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ㅇ의미는 잘 모르겠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음.
ㅇ세월호 인양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의혹에 관한 질타	ㅇ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 이런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함.
ㅇ세월호에 관해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지?	ㅇ기억나지 않음
ㅇ10월 8일자 민정수석 업무일지 내용을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를 미리 검토하고 발표한 것은 아닌지?	ㅇ그러지 않았음
ㅇ실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일자는 몇 일인지?	ㅇ기억이 나지 않음.
ㅇ세월호 인양의지가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인데 핑계를 대며 고의적으로 인양을 안하고 있	ㅇ그렇지 않고, 해수부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세월호 참사 시 미군의 원조를 거부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 모름
○ 해군 통영함의 출항을 막은 주체는 누구인지, 증인이 아닌지?	○ 아님
○ 세월호 유족과의 면담주선 등도 했어야 한 것은 아닌지?	○ 청와대에 유족들이 오셔서 대통령이 다음 날 평택항에 가시고, 그 뒤에 유가족이 와서 대통령이 만났음.

(3) 최순실 문화체육계 비리 의혹 등 국정농단 관련 사항

(가) 김종 증인(前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기춘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지?	○ 아님.
○ 최초로 최순실을 알게 된 날짜, 차은택의 소개 여부, 차은택이 아니라면 누가 소개했는지?	○ 차관된 이후 알았고, 차은택이 소개한 것은 아니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됨.
○ 지난 5월 박태환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 금지를 종용한 경위는?	○ 그 당시에 제가 박태환 선수를 보내 준다고 얘기하게 되면 정부가 IOC 헌장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리 했음.
○ 김연아 선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 그것은 김연아 선수나 김연아 선수 팬들에게 적절치 못한 표현이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유를 말하기는 어려움.
○ 최순실을 차은택과 김기춘이 아닌 지인 소개로 만난 것이라는 진술과 관련하여, 그 지인이 누구인지, 김기춘인지?	○ 지인이며, 검찰 수사단계이므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검찰조사 받을 때 최순실을 김기춘 실장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셨는지?	○ 와전된 것임.
○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 지시 등 비망록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전부 부정하는 것인지, 故 김영한 수석이 모든 내용을 날조했다고 생각하는지?	○ 검찰에서 조사해 보면 다 알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을 소개한 사람의 성별, 하정희 교수인지 이재만인지?	○ 답변하기 어려움.
○ 2013년 10월쯤 차관에 내정된 뒤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최순실을 소개받았다고 얘기했는지?	○ 와전된 것임.
○ 장시호 및 김재열 증인이 모두 김종 차관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실이 아님.
○ 누구 추천으로 차관이 되었는지?	○ 잘 모름.
○ 이재만 비서관의 추천으로 된 것 아닌지?	○ 아님
○ 차관되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최씨 집안에 이권 지원한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사실이 아님
○ 문체부장관 후보자, 콘텐츠진흥원장 후보자 등과 문자를 주고받은 적 있는지?	○ 직접 하지 않았음
○ 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생활체육회 사무총장을 최순실에게 추천했는지?	○ 그런 적 없음
○ 한화 김효진 상무와 프라자호텔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 가끔 만났고, 승마협회 관련 건을 상의했음.
○ 이영국 상무와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 기억이 잘 안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영국 상무와 김효진 상무를 같이 만난 적이 있는지?	○ 같이 만난 적 없음.
○ 더블루K, 누슬리를 알고 있는지, 업무협약식 때 참석 했는지?	○ 알고 있고, 참석했음.
○ 업무협약식 때 안종범 씨도, 안종범 전 수석도 같이 참석했는지?	○ 기억이 안 남.
○ 체육계쪽에서 최순실의 여러 일을 대신 해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의	○ 더블루K가 최순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음.
○ 차은택과 김기춘 실장이 만난 시점에 대한 진술 중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 두 분 말이 다 맞음.
○ 김재열 사장하고 플라자호텔에서 만난 것이 아닌지, 같이 동행한 사람이 삼성직원이 아닌지?	○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누구인지 불분명함.
○ 김재열 사장 만나면서 동계스포츠 지원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지?	○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음.
○ 관광공사 개편하고 의료관광 박람회 개최한 것이 차병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 작년에 메르스 이후 관광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진 것임.
○ 박태환 올림픽 출전이 IOC 규정상 가능한 것 아니었는지?	○ IOC 규정상으로는 가능한데 KOC 규정을 바꾸지 않아서 규정 때문에 안 됐음.

(나) 고영태 증인(前 더블루K 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차은택을 최순실에게 소개했는지?	ㅇ 그러함.
ㅇ 고원기획, 모스코스, 코어플레이, K스포츠, 독일 더블루K 등이 최순실의 유령회사인지?	ㅇ 그렇게 알고 있음.
ㅇ 최순실을 알게 된 경위 및 어떤 사유로 친해졌는지?	ㅇ 2012년경에 우연치 않게 빌로밀로라는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가방을 보여 주러 간 자리에 최순실이 있었고, 가까운 측근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임.
ㅇ 최순실에게 차은택을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	ㅇ 그러함.
ㅇ 차은택과 언제, 무슨 사유로 소원해졌는지?	ㅇ 2014년 말 광고 관련 건으로 소개를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음.
ㅇ 최순실이 연설문 고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한 사실이 있는지?	ㅇ 좋아한다는 말은 한 적 없고, '연설문을 고치는 것 같다' 라고 말한 적 있음.
ㅇ 고영태의 TV조선 제보에 관한 질의 - 언제, 무슨 사유로 TV조선에 찾아갔는지, 어떤 문건을 가지고 누구를 만났는지, 보도를 원해서 가지고 갔는지 등	ㅇ 2014년 12월 대통령 옷 담당할 당시 순방일정표, 차은택 씨가 했던 트루 코리아(True Korea)라는 자료, CCTV 자료 등 많은 자료를 가져갔음. 보도를 희망해서 가져갔음.
ㅇ 대통령에게 전달한 빌로밀로 가방의 전달 방법 및 가격은?	ㅇ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한두 개씩 받아갔고, 가격은 50만 원, 60만 원 정도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최순실이 청와대에 드나드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ㅇ 없음.
ㅇ 최순실이 김기춘 실장에 대해 얘기한 적 있는지?	ㅇ 없음.
ㅇ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한 질의	ㅇ 대통령 옷을 만들게 되면서 부터임.
ㅇ 본인 회사 제품 중 대통령이 사용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ㅇ 30～40개 정도임.
ㅇ 사용 제품량을 봤을 때 최순실이 대통령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는지?	ㅇ 초반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옷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이영선 비서랑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음.
ㅇ 최순실과 싸우면 증인에게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후회는 안했는지?	ㅇ 보복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고, 후회도 없었음.
ㅇ 최순실이 컴퓨터, 카톡 사용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지, 명칭을 뭐라고 사용했는지, 태블릿 PC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ㅇ 태블릿 PC를 쓰는 걸 본 적은 없고, 컴퓨터를 쓰는 것과 카톡을 하는 것은 봤음. 명칭은 기억이 안남. 태블릿 PC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음.
ㅇ 태블릿 PC는 정유라가 대신 쓴 것이라 생각했는지, PC 내용 중 사진 등을 최순실이 직접 찍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질의	ㅇ 태블릿 PC는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JTBC 방송을 접했을 때는 독일 현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았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사진을 최순실 본인이 직접 찍었으면서 왜 나한테 넘기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고영태 증인이 최순실게이트의 판도라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는지?	ㅇ 없었음.
ㅇ 박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지?	ㅇ 없음.
ㅇ 옷을 만들어서 누가 가져갔는지, 옷을 만들라는 지시는 누가 했는지, 지금까지 박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는지,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그 100벌 옷은 다 어디로 갔는지, 처리방법은 알고 있는지, 30만원 이하로 비용을 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ㅇ 이영선 비서 등이 가져갔고, 최순실 씨가 지시했음. 지금까지 100벌 가까이 만들었고,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았음.
ㅇ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ㅇ 그냥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귀담아듣지 않고 다 알아. 다 알아' 하는 이런 식이었음.
ㅇ 김종 증인을 논현동에서 자주 봤는지,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무시하는 발언 등을 본인 앞에서 했는지?	ㅇ 한 번 봤고, 그냥 수행비서 정도였음.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음.
ㅇ 김기춘 증인을 본 적이 있는지?	ㅇ TV에서만 봤음.
ㅇ 김기춘 증인은 최순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시는데 그걸 믿는지?	ㅇ 정확히 말하기 어려움.
ㅇ 김기춘 실장에 대한 최순실의 관점은 어땠는지에 대한 질의	ㅇ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이전에도 가방을 만드셨는지, 가방대금은 받으셨는지, 가방가격은 도매가였는지?	ㅇ 이전에도 제작, 판매했고, 가방대금은 받았으며, 도매가였음.
ㅇ 차은택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고 보는지?	ㅇ 그냥 일하는 관계로 저는 알고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음.
ㅇ 본인과 최순실과의 관계가 남녀관계인지?	ㅇ 절대 아님.
ㅇ 고민우라는 가명을 사용했는지?	ㅇ 사용하지 않지만, 포스코 스포츠팀 창단 시 사용했던 명함에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남.
ㅇ 의상실 CCTV를 언제 설치했는지, 몰래 촬영했는지, 설치사유, 최순실과의 갈등을 염두하고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여부, 설치 과정에 있어 조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ㅇ 2014년 가을에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일하는 분이 지인들을 데려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설치과정에서 조언을 받은 적은 없음.
ㅇ CCTV 영상을 넘겨준 언론사 종사자와의 관계는?	ㅇ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음.
ㅇ 최순실의 대포폰 보유 개수 및 장시호의 보유 개수, 최순실이 대포폰으로 대통령과 통화했는지, 통화 시 대통령 호칭 등	ㅇ 최순실 대포폰은 2개 정도, 장시호의 것은 본 적 없음. 통화를 누구와 했는지는 잘 모르겠음.
ㅇ JTBC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연설문 고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 것은 사실인지, 그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ㅇ 잘하는 게 뭐 있냐 물어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고 연설문 고치는 건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사무실 PC에서 연설문을 봤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아이카이스트라는 벤처기업을 알고 있는지, 김성진 대표를 알고 있는지?	ㅇ 정확하게는 모름.
ㅇ 박근혜, 정홍원, 반기문 모두 김성진 대표를 만나 칭찬하고 창조경제 혁신 기업가로 추켜세웠는데 모르는지?	ㅇ 정확하게는 모름.
ㅇ 정윤회의 동생 정민회가 부사장으로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ㅇ 모름.
ㅇ 의상실 CCTV의 설치 의도 및 어떤 내용을 TV조선에 제보했는지 등	ㅇ 큰 의도는 없었고, 의상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제보했음.
ㅇ 더블루K 문 닫을 때 고영태 증인의 책상에 태블릿 PC가 사진에 찍혀 있다는 얘기 들어 봤는지?	ㅇ 없음.
ㅇ 의상실 CCTV 관련 제보에도 불구하고 TV조선에서 보도되지 않자, JTBC에 태블릿PC 존재를 제보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ㅇ 전혀 사실이 아님.
ㅇ 최순실과 같이 있을 때 태블릿을 소지한 적이 있는지, 충전기 등을 주문한 사실이 있는지?	ㅇ 없음.
ㅇ 독일에 최순실을 만나러 간 사실이 있는지, 그게 언제쯤인지, 다른 돈 문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ㅇ 2015년 8월 달인가 9월 달 정도였고, 돈 문제로 얘기 나눈 적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로부터 혜택(집, 사무실 임대금 등)을 받았는지?	○ 집 관련 혜택 받은 것은 없고, 더블루K는 실소유주가 최순실이기 때문에 초기 자금 그것으로 계속 임대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음.
○ 하태경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 그 태블릿 PC를 받은 된 기자와 JTBC에서 진실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음.
○ 정부 고위직 인사 추천 등을 위해 수석이나 장관급이 최순실과 연락한 것을 본 적은 있는지?	○ 비서관들은 봤는데, 수석급, 장관・차관들하고 최순실이 연락하는 것은 못봤음.
○ 최순실이 문건 등을 검토하고 회의한다는 점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	○ 이영선 비서관에게 문건 등을 주고,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음.
○ 이영선 비서관이 최순실과 청와대 사이의 밀봉 봉투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는지?	○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장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에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 전혀 모름.
○ 대통령에게 제공한 가방과 옷의 구입비 출처는 최순실인지?	○ 그러함.
○ 대통령 사용 이후 해당 가방을 반납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협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도매가 기준 약 4천 5백만원 상당의 옷과 가방의 구입비를 최순실 개인 돈으로 지불했는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 지불했는지?	ㅇ개인비용으로 지불했음.
ㅇ최순실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면 뇌물 제공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명 요구	ㅇ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 없음.
ㅇTV조선에 제보한 자료가 어떤 형태의 자료인지?	ㅇ동영상, 국정농단에 쓰여진 자료 등을 제출했음.
ㅇ2014년 최순실이 집에 찾아와 물건과 돈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무슨 돈인지, 얼마인지?	ㅇ모아놓은 돈 1000만원을 가져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찾았음.
ㅇ최순실과 가까운 사이였는지에 대한 질의	ㅇ주위에서 그렇게 말함.
ㅇ최순실과 크게 싸운 시점이 언제였는지?	ㅇ2014년 9월 또는 10월 정도임.
ㅇ최순실과 어떤 문제로 싸웠는지?	ㅇ막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함.
ㅇ최순실 만나서 이득을 본 것이 있는지, 최순실 만난 것이 후회되는지?	ㅇ이익을 얻은 것은 없고, 후회도 많이 됨.
ㅇ고창수 제주지점장 관련 대한항공에 증인과 고창수가 친척이 아닌지?	ㅇ친척 아니고 추천한 일도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옷 납품시 납품금액이 낮다고 보이는데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은 어떻게 충당하였는지?	ㅇ급여받은 부분에서 임대료를 내고, 인건비 등은 최순실이 줬음.
ㅇ태블릿 PC가 본인 것이 아니고,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USB로 자료를 준 사실이 있는지?	ㅇ없음.
ㅇ최순실과 정윤회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알고 있는지 질의	ㅇ부부관계로 알고 있음.
ㅇ태블릿PC는 최순실 것이다라고 밝혀진 바 있는데, 고영태 증인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술함. 태블릿 PC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함.	ㅇ최순실이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음.
ㅇ독일에서 최순실 업무를 도왔던 박재희를 아는지, 박재희는 무슨 업무를 독일에서 하고 있는지?	ㅇ알고 있고, 독일에서 최순실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음.
ㅇ문형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ㅇ모름.
ㅇ최순실이 '해운대 쪽에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한 적은 없는지?	ㅇ없음.
ㅇ최순실로부터 2년안에 통일된다는 말을 들은 바 있는지, 통일대박,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말을 들은 바 있는지?	ㅇ통일이 된다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고요, '통일이 될 것도 같다'라는 말은 한 번 들은 적이 있음. '혼이 비정상'이란 말은 들은 적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기흥 골프장 골프 참석한 여자 교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 순천향대학병원 하정희 교수고,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음.

(다) 김기춘 증인(前 대통령비서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고 김영한 비망록 관련, 통진당 해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보도를 본 적 있는지?	○ 통진당 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소하여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전에 아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므로 완전한 루머라고 생각함.
○ 최순실이 시켜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난 것이라는 차은택의 진술은 대통령의 지시로 차은택을 만난 것이라는 증인의 답변과 엇갈리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 차은택을 약 10분간 만난 것 외에는 모름.
○ 증인이 우병우를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스카웃했는지, 최순실을 뒷배경으로 청와대에 들어온 건지?	○ 민정비서관 들어올 때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하고 한번 의사 확인하라 해서 제가 대면면담을 한 일이 있음.
○ 십상시 문건, 만만회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는지, 대통령께 그 내용을 보고했는지?	○ 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고요, 2014년 1월에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보고서를 갖고 왔음. 대통령께는 보고 안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문건은 조사 이후에 유출되었는지, 이러한 문건처리에 대해 우병우 수석을 대통령이 칭찬했는지?	○ 유출이 되어 가지고 그해 11월 하순에 세계일보에 보도가 되었고, 칭찬받은 것에 대해서는 모름.
○ 故 김영환 수석 비망록에 보면 헌재, 국정교과서, 문화계 네트워크 등 국정 각 분야에 대한 내용이 있고, 증인이 인사를 포함하여 많은 것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하는지?	○ 그렇지 않음.
○ 2014년 문체부 1급 6명의 일괄 사표와 관련해 증인이 '성분검사' 후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명단을 주며 자르라고 지시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인지, 여기 나오는 '성분검사'가 무엇인지?	○ 모름. 6명 중에 나이 많은 순서로 57세, 57세, 53세 세 분이 나가고 52세, 52세, 52세 세 분은 잔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음.
○ 미승빌딩을 아시는지, 이 빌딩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지?	○ 모르고, 임대해서 사용한 적 없음.
○ 일본 차병원 누구 소개로 갔는지?	○ 차병원의 소개로 갔음.
○ 최순실, 차은택이 대통령을 배경으로 사리사욕 채울 때 법적, 행정적 뒷받침 공식 실세가 증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는지?	○ 전혀 아님.
○ 1987년 육영재단 분규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	○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06년 독일 방문 당시 대통령 수행했는지, 당시 최순실 못봤는지에 대한 질의	○ 수행했는데, 못 봤음.
○ 2014년 송성각 원장 인사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의	○ 기억나지 않음.
○ 대통령이 공식조직보다는 비선을 활용하고 대면보고 안 받으시는 문제들을 비서실장이 바로 잡아주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 드릴 말씀이 없음.
○ 故 김영한 비망록 내용을 보면, 언론통제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비망록 내용이 거짓이란 말인지?	○ 비망록에 있는 것이 다 제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 정호성 녹음, 안종범 수첩 등을 다 남겼는데 박근혜 정부 관계자는 충성심도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한 견해 답변 요구	○ 알지 못함.
○ 최근에도 대통령에게 조언 또는 자문을 하는지?	○ 전혀 없음.
○ 최근 7인회 멤버로 청와대 다녀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 그 자리에 가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처신하시고 또 대국민 사과도 하시고,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음.
○ 오전질의 관련하여 박영선 의원이 '14년도 조윤선 정무수석과 이완구 원내대표가 김기춘에게	○ 지시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시신 인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전화를 걸었을 때 김영한 비망록에 나온 지시사항을 직접 들은 바, 거짓 진술 여부 질의	말씀드린 것임.
○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질의 -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누구 소개로 왔는지를 묻지 않은 이유 등	○ 대통령이 정성근을 만나보라고 해서 단독으로 만났음. 인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인사를 잘 보좌 못 한 책임은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함.
○ 대통령이 차은택을 소개한 이유에 대한 질의	○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문화융성에 관심이 많으니 만나보라고 함.
○ “국회가 대통령 잘못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비판받아야 한다”는 과거 발언에 따를 때,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 법사위원장으로서 앞장섰다기보다는 법률상 당연히 소추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국회에서 국회의 의사가 표출되면 된다고 생각함.
○ 김영한 민정수석 추천자가 누구인지?	○ 대통령임.
○ 증인이 영화 ‘광해’ 등을 보고 불쾌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이로 인해 문화계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 그런 적은 없음.
○ 현역 의원 시절 박근혜 전 대표와 독일에 함께 간 사실이 있는지, 무슨 자격으로 수행을 했는지, 최경환 의원도 동행했는지, 고 성완종 회장이 여비 명목으로 10만 불을 줬다고 메모를 남겼는데 인정하는지?	○ 간 사실이 있고, 수행하라고 하셔서 했음. 최경환 의원도 동행하였고, 여비는 인정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은 청와대 근무자의 업무일지로 보이는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닌지?	
○ 대통령을 위한 코디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누가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부	○ 모름.
○ 대통령의 코디를 위하여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임명자가 김기춘이라는 점에서, 정송주를 모르는 것은 허위 진술이 아닌지, 정송주 외 코디 담당자는 알고 있는지?	○ 모름.
○ 차움병원 최필립 이사장을 아는지?	○ 잘 알기보다는 그 분을 알고 있음.
○ 일본에 면역치료 당시 일본 차움병원은 누가 소개했는지, 차움병원 관련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은 사실이 있는지?	○ 차움병원 소개로 갔고, 그 외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은 사실은 없음.
○ 최순실을 언제 알았는지?	○ 태블릿 PC 노출로 이름이 나와서 알았음.
○ 정윤회 사건 당시 박관천 경정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고 한 기사를 본적이 있는지?	○ 잘 기억이 나지 않음.
○ 증인이 비서실장으로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어버이연합사건, 만만회 사건, 허수아비 그림 등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 무슨 말인지는 알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 감금 관련하여 모해위증죄로 고발당했는데 알고 있었는지, 자유청년연합에 의해 고발당했는데 이 단체를 아는지?	○ 모름.
○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7월 13일자에 '권은희 내일 고발'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떤 단체가 고발하는지 알고 있었는지?	○ 수석비서관의 노트에 있다고 해서 모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 만만회 사건으로 박지원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는데 언론을 통해 알았는지, 새마을포럼이란 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관여한 바가 없었는지?	○ 언론을 통해 알았고, 고발 관련하여 관여한 바 없음.
○ 홍성담 작가 허수아비 그림 알고 있는지, 홍성담 작가 명예훼손 고발, 보수국민연합이 고발했는데 청와대가 관여한 적은 없는지?	○ 관여한 적 없음.
○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한 인사가 잘못됐음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질의	○ 검증 후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고했는데 관철되지 않아 임명이 되었음.
○ 통진당 해산 심사 중임에도 통진당과 색깔이 구분되지 않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 김상률 전 수석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죄송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이른바 강남의 '최순실 빌딩'에 대해 아는 바 없는지?	ㅇ 모름.
ㅇ 김기춘 경질설에 대해 조사해 보라고 조응천 의원에게 지시한 적 있는지?	ㅇ 지시한 적 없음.
ㅇ 검찰 인사에 그간 계속 관여해 온 것에 대한 지적	ㅇ 그런 일 없음.
ㅇ 대포폰을 사용하였는지?	ㅇ 사용한 적 없음.
ㅇ 차은택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연락하였는지?	ㅇ 직원을 시켜 연락처를 알아 낸 후 연락함.
ㅇ 74년 육영수 여사 사망 시 문세광 수사에 참여한 적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당연히 최태민과 최순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ㅇ 문세광 수사에 참여한 적 있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할 때에 최태민 씨가 그 당시 최태민을 알고 있었음. 그러나 최순실 및 딸 정유라는 모름.
ㅇ 세계일보 문건유출사건 관련하여 조응천을 해임, 이후에 공직비서 조직을 우병우 수석 휘하로 이동한 것이 맞는지?	ㅇ 기억이 없음.
ㅇ 누가 김영한 수석이 병에 걸리도록 만든 것인지, 누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내보냈는지?	ㅇ 몹쓸 병에 걸려서 작고한 데 대해서 저는 애통하게 생각하고, 국회에서는 나오도록 했음.
ㅇ 대통령의 머리를 만지는 사람은 신분이 정확해야 함. 이 분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지?	ㅇ 기억이 안남.
ㅇ 1979년 중앙정보부의 '최태민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최	ㅇ 들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태민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 과거 기억을 되살려서 최순실을 제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알았는지, 체크해볼 생각이 없었는지?	○ 최태민은 이미 작고했고, 태통령과 최태민의 딸과의 관계를 몰랐음.
○ 김종 차관이 김기춘 실장이 만나 보라고 해서 갔더니 최순실씨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진위 여부 확인	○ 그런 적 없음.
○ 조리장이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점심식사를 안했다는 증언을 했는데, 당일 대통령을 못 만날 상황이 아니었는지?	○ 그렇지 않음.
○ 최순실이 일요일마다 문고리 3인방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닌지?	○ 꿈에도 생각지 못했음.
○ 2014년 정윤회 비선실세 사건시 문고리 3인방과 일종의 타협 또는 굴복을 한 것이 아닌지?	○ 그렇지 않음.
○ 최순실을 최근에 안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인지?	○ 그러함.
○ 오영호 코트라 사장을 아는지?	○ 잘 모름.
○ 최명주 사장을 만나 권오준 회장 언급한 적이 있는지?	○ 최명주 사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일도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영한 비망록 관련, 주요 부서 실국장 충성도 확인을 한 것이 아닌지, 문화예술계 개입 의혹이 사실인지?	○ 그런 적 없음.
○ 권영빈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을 알고 있는지?	○ 모름.
○ 녹취록에 의하면 블랙리스트에 따라 불이익을 준 것이 확인되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 없음.
○ 조원동, 김영한 등 전 수석들을 적합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챙겨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노력은 했으나 충분하지 못했음.
○ 각종 언론에서 제기한 최순실 관련 의혹을 정보기관들이 밝히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지적	○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나 그런 점이 아쉽고 통탄스러운 심정임.
○ 김종 차관은 언제 알았는지?	○ 차관 임용 직전에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음.
○ 새마음봉사단, 구국봉사단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추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서도 이사장이 되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 추측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움.
○ 정윤회 문건유출사건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는 아닌지?	○ 아쉽게 생각함. 그때 제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을 알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윤회 문건, 2007 대선당시 동영상 지적 이후에 변경한 태도에 대한 질타	○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지인이 아니라는 뜻임.
○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최태민 문제 등 대응하지 않았냐는 질의, 정윤회 문건사건 시 비서실장이었음에도 최순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발언해 온 점에 대한 지적.	○ 태블릿 PC 나왔을 때도 알았다고 말씀드렸음.
○ 정윤회를 몰랐다는 답변의 허위성 관련, 2007년 대선 후보 검증 토론회 당시 정윤회 관련 내용도 있었다는 점 지적	○ '만난 적이 없고, 통화한 일이 없다'고 말했음.

(라) 차은택 증인(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공소사실 내용 중에 포레카를 강제로 뺏으려다가 실패로 끝난 일이 있었는데, 인정하는지?	○ 공소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음.
○ KT의 인사와 광고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는지?	○ 부분적으로 인정함.
○ 대통령과 무슨 관계인지?	○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없음.
○ 본인의 최초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청와대에 일주일에 두세 번 늦	○ 그런 언론 인터뷰 한 적 없고, 청와대에 밤에 들어간 사실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은 시간에, 늦은 밤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인지, 보안손님은 아닌지?	없으며, 보안손님도 아님.
○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비서실장 공관에 간 적 있는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 공관에 간 적 있고, 최순실의 지시로 가게 되었으며, 단순히 인사하고 나오는 자리였음.
○ 최순실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걸 안 것은 언제인지, 최순실과 대통령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는지, 최순실이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구나 또는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지?	○ 2014년에 문체부장관님을 최순실에게 추천한 적 있었고, 그 이후 몇 분을 더 추천드렸는데 마지막에 김종덕 장관께서 되었음. 대통령과 최순실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었음.
○ 청와대에 몇 번 들어갔는지?	○ 밀라노엑스포 보고하고, 창조경제추진단 보고 외에는 대통령을 따로 뵌 적은 없음.
○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갔는지?	○ 검문검색 다 하고 들어갔음.
○ 관저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는지?	○ 관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의하는 자리에 갔었음.
○ 2014년도 4월에 고영태 소개로 최순실을 만난 이후 같은 해 8월에 문화융성위원장이 된 것이 사실인지?	○ 그러함.
○ 김종덕, 김상률, 송성각, 이성한 등을 공직에 추천했는지?	○ 그러함.
○ 플레이그라운드는 본인과 상관없는 회사로 최순실의 회사라고 진	○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술했는데, 대표인 김홍탁은 증인의 고등학교 동창이 아닌지?	
○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에 대한 질의	○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알고 있음.
○ 김기춘과 만났을 당시 김기춘이 인사위원장이었는지?	○ 그러함.
○ 김기춘 실장이 정성근 내정자에 대하여 누구 소개로 왔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 그냥 '어르신께 말씀을 들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음.
○ 청와대 방문 횟수, 그 중 안가 방문 횟수(10회 이상인지)는?	○ 십여 번 방문했음.
○ 대통령을 독대한 사실이 있는지, 대통령을 밤에 만난 사실이 있는지, 2014.12 이전 대통령을 만난 횟수는?	○ 독대한 적, 밤에 만난 적 없고, 행사 때도 한 번 뵈었고요, 2014년 12월 이전 엑스포 보고로 한 번 뵈었음.
○ 2014년 6월 7일경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공관으로 만나러 간 사실이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 이후에도 김기춘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 만나러 간 적 있고, 정 장관 후보분하고 김종 차관이 공관 밖에 계셨음. 독대하진 않았음.
○ 우병우 전 수석을 만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없음.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밝힌 논현동 비선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같이 모여서 연설문을 고친 사실이 있는지?	○ 전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특정 주제를 주고 연설문의 내용을 적어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한 적은 있었고, 그 내용 중에 몇 부분이 그 연설에 포함되어서 나온 적이 있음.
○ 본인의 추천을 통해 김상률, 김종덕, 송성각이 공직에 임명된 사실을 인정하는지?	○ 인정함.
○ 최순실을 만난지 얼마만에 장관감 등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는지?	○ 장관 요청은 만난 지 한두 달 정도 지나고서 바로 얘기가 나왔고, 수석은 그해 말, 한 10월경이었던 것 같음.
○ 세 사람 외에 다른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는지, 나머지는 최순실이 직접 알아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없었음.
○ 차움병원, 테스타로사 카페 등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누구를 추천했는지?	○ 카페에서 만난 사실은 없었고, 추천한 분들은 영화계와 연극계의 원로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성함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죄송스러움.
○ 대통령의 참석을 누구에게 부탁한 것인지, 그 사람이 최순실인지, 최순실의 개입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참석한 것인지?	○ 먼저 부탁드린 적은 없고, 최순실이 대통령께서 가실 것이라고 말했음.
○ 문체부 문화융합본부에 개방직위로 들어갔는데, 김종 차관보다 나중이고, 김종덕 장관보다는 먼저인지?	○ 김종덕 장관보다 나중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4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였는데 왜 갔는지?	○ UAE 지역에 한류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한류 쪽 대중문화 자문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같이 갔었음.
○ 아랍에미리트 방문 시 안종범 수석도 같이 갔는데 정부에서 계속 부인한 것에 대한 지적	○ 분명히 먼저 가셨고 거기에서 만났음.
○ 김종덕 전 장관, 송성각 콘텐츠원장, 김상률 전 교문수석, 이동수 KT 전 광고 책임자도 증인이 최순실 씨한테 부탁을 한 것인지?	○ 그러함.
○ 이성한 전 사무총장, 김형수 전 이사장 등은 모두 차은택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본인의 추천으로 모두 임명됐는지?	○ 그러함.
○ 2016년도 3월에서 8월까지 68억 정도의 광고 7건을 수주한 사실이 있는지?	○ 그것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서 수주를 했고, 언론에는 실소유주가 저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모든 투자와 모든 조직 구성 자체를 최순실 씨가 했기 때문에 제가 관여한 회사가 아님.
○ 아프리카픽쳐스가 본인 회사인지, 거기에서도 KT 광고 많이 수주했는지?	○ 저의 회사이고, 지금까지 제작한 광고 편수가 한 1000여 편 이상임.
○ 증인의 인생을 바꾼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공감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입장을 밝히려고 나왔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김기춘 증인은 계속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잘 모르는 관계로 알고 있음.
ㅇ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중 누구와 더 가까운지?	ㅇ최순실임.
ㅇ현대차 정의선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누구랑 더 친했는지,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아는지?	ㅇ두 분을 모름.
ㅇ현대차와 제일기획 중 어디와 일을 더 많이 했는지?	ㅇ둘 다 많이 했음.
ㅇ대통령 동반하여 해외 나간 적이 있는지?	ㅇ없음.
ㅇ대포폰을 사용하였는지, 몇 대를 사용하였는지?	ㅇ최순실 씨하고 통화할 때 이용했음.
ㅇ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보는지?	ㅇ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그냥 짐작하고 있었음.
ㅇ최순실을 만난 것이 언제였는지?	ㅇ2014년 6월경으로 기억함.
ㅇ최순실이 증인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긴 것인지, 본인이 권유를 해서 최순실이 개입을 하게 된 것인지?	ㅇ최초 모스코스 설립을 할 때는 저는 광고대행사 설립을 하고 싶었고 그것을 최순실 씨한테 얘기했더니 투자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직접 구조까지 만들었고 오히려 저보고는 빠져 있으라고 할 정도까지 실제 회사 운영을 본인의 팀들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들어와서, 관리 재무팀들까지 들어와서 운영을 했음.
○ 김기춘 실장 처음 만났을 때 김종 차관과 같이 만났는지?	○ 그러함.
○ 유진룡 장관이 “최경환 장관이 차은택이 하는 사업에 예산을 몰아줬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최경환 장관을 만난 적이 있었는지, 몇 번이나 만났는지?	○ 만난 적 없음.
○ 어떤 사람이 차은택 사업에 예산을 줘야 한다고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최순실 씨 사업이 아님.
○ 귀국이 늦었는데, 그 사이 최순실과 무슨 내용을 통화하였는지?	○ 일본에서 한 통화했음.
○ 귀국 전 최순실과의 전화를 주선하였다는 ‘최순실 일을 봐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일을 봐주고 있는 김성현, 장순호로 최순실 씨가 보낸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임.
○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지?	○ 고영태 씨 말대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었음.
○ 안정현씨와 함께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 같이 사업한 적은 없으나, 한·아세안 정상회담 관련하여 저녁식사 초대를 받았음.
○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 여명숙본부장을 사임시킨 것은 차은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	○ 그렇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우병우 장모 만난 적이 있는지, 당시의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 만난 적 있고, 고영태, 고영태씨 후배, 저, 최순실, 여자 교수, 기흥CC클럽 회장이 있었음.

(마) 여명숙 증인(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5월 31일 그만두셨는데 해임되신 건지, 해임통보는 누가, 해임사유는 무엇이었는지?	○ 형식적으로는 사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직명령이었으니까 해임이고, 표면적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폭증 때문에 되돌아가라는 거였지만 '정말 그것입니까?'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하셔서 내려 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셨음.
○ 대통령께서 해임을 지시하셨다는 것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해임사유는 무엇인지?	○ 그렇게 말씀하셨고, 콘텐츠진흥원장으로 부터의 저에 대한 불만제기, 절차 없이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저의 의견 제시 등으로 제가 반감을 갖거나 일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될까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함.
○ 문화창조융합본부의 핵심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박근혜, 최순실의 핵심 문제사업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견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 합법 또는 적절한 시스템인 것처럼 가장해서 구조적으로 국고가 새어 나가게 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을 합리화한 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6년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904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 904억이 아니고, 총 1300억임. 904억은 기금을 뺀 것으로 아는데 단장은 1300억을 총괄하였음.
○ 차은택 본부장 물러난 이후에도 모든 사업에 관여한 것이 특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 차은택 전임 단장을 한 번 미팅한 것 이외에 그 이후에는 융합벨트에서 본 적은 없었지만, 직원들은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었고 제가 나간 후에도 벨트에 와서 사업에 참석했었다고 들었었음. 차 감독 그다음에 전임 김 장관, 융합벨트 간부들, 송성각 원장, 청와대 수석실 수석님들 한 팀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함.
○ 증빙서류, 기획서 없이 일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 상상할 수 없는 일임.
○ 문화부판 4대강게이트 수준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 배경은?	○ 4대강 얘기를 꺼낸 것은 그 스케일과 앞으로 불어 닥칠 국가적인 문제 상황과 영향력, 규모 면에서, 이것은 문화융성 또 창조경제를 핵심으로 가시적으로 성과화하는 것이고 국가 브랜드가 걸린 국책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가면 그런 결과 또는 이런 청문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 여러 군데에 알리려고 애썼고 내부에서도 직원들 간에도 공유를 했고, 장관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음. 국정원 문화 분야, 저희 부산에 계셨던 IO에게 말씀을 드렸음.
○ 게임규제와 관련하여 게임사들이 최순실사단의 농단에 관여하였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는지?	○ 최근에 그 제보를 들었음. 전경련이 게임사에 무료회원가입 제의가 있었고, 게임사들은 이를 거부했다고 함. 규제 장소 관련 사항은 내사 중임.
○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에 취임하니 3개월간 1,200억원이 나갔고 97억만 남아 있었다는 보도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 사실임.
○ 50여일만에 사직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	○ 장관님 말씀으로는 '대통령님께서 전화하셔서 그만두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고, 그 이유는 '비상근을 상근으로 만들어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전해 주셨음.
○ 차은택과 업무상 어떤 관계였는지?	○ 업무상 표면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예단장으로 프레임이 너무 컸고 6개월 내에 성과를 내라고 했음.
○ 장관에게 왜 문화창조융합본부 감사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 여러 번 말씀 드렸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문화창조융합본부는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 질의	○ 그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해체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목욕물 버리면서 애까지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증거가 인멸되므로 반드시 고강도 회계감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함.
○ 문화창조융합본부의 기안, 결재 없는 프로젝트 실행의 문제점 지적. 본부의 한 국장이 스스로 "우리도 우리가 뭘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과 그 내용 질의.	○ 여러 번 물었을 때 '미래부 소속이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음.
○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관해서 차은택과 논의한 바 있는지?	○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음.
○ 차은택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질의	○ 재임기간 동안에는 몰랐으나 언론 뉴스와 제보, 또 제일 중요한 단서는 장관님께서 저에게 그 해임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대통령께서 사직시키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사실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으나 지금은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함.

(바) 장시호 증인(최순실의 조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더스포츠엠 대표인지 여부	ㅇ운영한 것은 맞는데 대표는 아님.
ㅇ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체부와 삼성그룹으로부터에서 받은 지원금은 얼마인지, 지원금 사용 출처는?	ㅇ문체부로부터 6억 정도, 삼성그룹으로부터 16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인재육성을 위해 사용했음.
ㅇ김종 차관이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는지?	ㅇ그 부분은 검찰조사에서 말했음.
ㅇ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지,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지?	ㅇ없음.
ㅇ출석한 증인들 중 아는 사람이 있는지?	ㅇ차은택 감독님하고 김종 차관님 알고 있음.
ㅇ동계스포츠센터는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ㅇ최순실 아이디어였고, 김종 차관 만났음.
ㅇ제일기획에서 16억원 지원받았는지, 지원받은 경위는 알고 있는지?	ㅇ지원받았고, 경위는 잘 모름.
ㅇ제일기획 김재열 대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 16억 지원에 대한 감사인사도 한 적이 없는지?	ㅇ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감사인사도 하지 않았음.
ㅇ검찰은 16억 중 11억에 대한 횡령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ㅇ그것은 잘못된 이야기 같음. 아직 영재센터에 남은 잔고가 많고, 제 혐의에 대해서는 액수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이 동계올림픽 대비하여 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것이 맞는지, 센터에서의 직위는 무엇이었는지, 직위도 없이 센터의 설립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업무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 센터에서 직위는 없었고, 최순실 이모가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음.
○ 박근혜 대통령 본적이 있는지, 최순실 통해 대통령 이야기 전해들은 적이 있는지?	○ 대통령 취임 전에 한번 뵌 적 있고, 취임 후에는 뵌 적 없음. 최순실로부터 대통령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은 없음.
○ 불출석사유로 제출한 통증과 관련하여 정확히 어디가 아픈 것인지?	○ 흉곽출구증후군이라고 6월에 수술했었음.
○ 최태민이나 최순득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 전혀 없음.
○ 결혼은 언제 했는지?	○ 2006년 6월에 했음.
○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제출한 서류에 보면 삼성으로부터 5억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나머지 11억은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 최순실이 기획서를 써오라고 해서 작성해 주었고, 1차 지원과 같은 경위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독일 비덱스포츠 2대 주주 아닌지?	○ 아님.
○ 개명을 언제, 왜 하였는지?	○ 작년 여름쯤 했음.
○ 대포폰을 평소 자주 사용하였는지?	○ 잘 사용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대포폰으로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는지?	ㅇ 없음.
ㅇ 최순실은 대포폰을 사용했는지?	ㅇ 여러가지 핸드폰을 들고 다님.
ㅇ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지?	ㅇ 태반주사, 마늘주사는 맞은 적이 있고, 감초주사는 무엇인지 잘 모르며, 백옥주사는 맞은 적 없음.
ㅇ 최순실과 대통령이 통화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지?	ㅇ 최순실은 통화를 할 때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거나 항상 차를 세워서 내려서 통화하기 때문에 누구랑 통화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음.
ㅇ 남양주 별내와 역삼동에 사무실이 있는지?	ㅇ 있었음.
ㅇ 베트남을 최순득과 여러 번 방문했는지?	ㅇ 간 적 없음.
ㅇ 장승호가 2008년에 베트남에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ㅇ 장승호가 원한 걸로 알고 있음.
ㅇ 2013년 5월 전에 전대주 베트남 대사를 만난 적 있는지?	ㅇ 없음.
ㅇ 고영태 증인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ㅇ 이 자리에서 처음 봤음.
ㅇ 하정희씨를 알고 있는지, 미국에 같이 갔는지?	ㅇ 알고 있고, 미국에 같이 가지는 않았음.
ㅇ 정유라 출산 시 대통령이 갔는지?	ㅇ 그렇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조윤선 장관을 아는지?	ㅇ모름.
ㅇ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	ㅇ6월 4일로 기억함.
ㅇ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삼성동에서 청와대로 이삿짐 챙겨준 적이 있는지?	ㅇ없음.
ㅇ동계올림픽을 망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지?	ㅇ잘못한 것은 알고 있음.
ㅇ공진단을 주변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모한테 받았다, 대통령이 준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ㅇ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귀한 것이라고 얘기했음.
ㅇ삼성으로부터 들어온 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닌지, 어떤 이유로 입금된 것인지를 알았는지?	ㅇ횡령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 그 이유를 알만한 위치가 아니었음.
ㅇ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아는지?	ㅇ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음. 사진 찍고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걸로 계정을 한다거나 메일을 열어 본다든가 그런 것은 아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음.
ㅇ왜 많은 국민들이 좌절감, 분노를 갖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람	ㅇ깊이 반성하고 있음.
ㅇ장시호, 정유라, 정윤회 등이 태블릿PC 등을 사용하는지?	ㅇ저는 할 줄 알고, 정유라, 정윤회는 모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최순득 집에 대통령이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지?	ㅇ없음.
ㅇ삼성에게 수수한 액수 질의	ㅇ15억 받았음.
ㅇ최순득의 해운대 투자에 대해 들은바 있는지?	ㅇ들은 적 없음.
ㅇ최순실 귀국을 증인이 기획하지 않았는지?	ㅇ그런 적 없음.
ㅇ어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부름 다닌 적 없는지?	ㅇ없음.
ㅇ박대통령 커터 피습 후 보름 후에 장시호 결혼식에 참여하였다는 지적	ㅇ제가 초대한 게 아님.
ㅇ최순득의 부동산 등 재산규모, 재산형성 과정 질의	ㅇ어머니 재산은 잘 모르나, 언론에 나온 것으로 보면 200억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아버지가 임대사업을 하셨음.
ㅇ삼성과의 수수 액수 재확인	ㅇ부가세 포함하여 16억 받았음.
ㅇ제주 중문에 사무실 임대한 사실 확인. 라임 프로덕션의 사업 성과는, 최순실로부터 빌린 현금으로 보증금 등 지급했는지?	ㅇ라임 프로덕션 사업은 실패했고, 최순실이 임대료 등을 지급했음.
ㅇ이규혁이 동계스포츠센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된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 있는지. 김종 차관보다 윗선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윗선은 누구인지?	ㅇ들은 적 있고, 윗선은 최순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포폰 2대 사용했는지. 대포폰으로 김종 차관과 전화했는지?	○ 저는 1개 사용했고, 김종 차관과 통화하지 않았음.
○ 가족들이 개명을 자주 한 이유는. 최순실이 소위 신기(神氣)가 있거나 예언을 잘 하는지?	○ 최순실이 최서원 씨로 개명한 것은 이번에 사건 터지고 알았고 유연이는 아기 문제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음.
○ 최순실이 시켜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및 누림기획 사업계획서 작성했는지, 누림기획은 누구의 소유인지, 영재센터 재정계획도 있었는지, 삼성이 후원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 최순실이 시켜서 작성했고, 누림기획은 최순실 소유임.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삼성이 후원할 것은 알고 있었음.

(사) 김재열 증인(제일기획 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동계스포츠센터 설립에 대하여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미래전략센터의 누구에게 오더를 받았는지?	○ 김종 전 차관에게 들었음.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6일 국정조사에서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을 문체부에서 파견된 국장이 평창올림픽조직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	○ 잘 모르는 내용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 만난 적이 있는지, 만난 적이 없는데 16억을 어떤 목적으로 지원했는지?	○ 최순실 만난 적 없고, 차관의 설명을 듣고 후원할 생각을 하게 되었음.
○ 증인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사위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삼성의 누구와 얘기했는지?	○ 이건희 회장 사위가 맞고, 얘기한 사람은 없음.
○ 삼성과 비선실세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지원한 것인지, 지원 이유는?	○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차관의 설명을 듣고 후원할 생각을 하였음.
○ 김종 차관, 삼성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그룹 미래전략실 멤버와 만나지는 않았는지?	○ 제일기획 사장과 만났음.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자녀가 제일기획의 카피라이터로 근무한 것이 맞는지?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음.
○ 당시 청와대비서실의 안종범 수석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는지?	○ 없음.
○ 김종 차관의 제안이 의미가 있어서 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 답변의 요지가 맞는지?	○ 김종 전 차관을 만날 때 제일기획 다른 사장분과 같이 만났고 차관의 설명을 듣고 후원을 생각했음.
○ 16억원 지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는지, 누구와 협의해서 결정했는지, 삼성그룹의 누구와 의논했는지?	○ 제일기획의 임원과 논의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증인이 전결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전결규정이 있는지, 스포츠총괄 사장이 맞는지?	ㅇ스포츠총괄 사장은 맞고, 후원은 제가 결정하지 않았음.
ㅇ16억 돈이 삼성그룹 기업 중 어떤 그룹에서 나왔는지?	ㅇ삼성전자에서 글로벌마케팅에서 지원했음.
ㅇ김종 차관을 만나서 16억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인지, 어디에서 만났는지?	ㅇ금액 제안은 전혀 듣지 못했고, 플라자호텔에서 만났음.
ㅇ동계스포츠영재센터같이 급조된 재단은 문화부나 삼성으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단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은지, 증인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었는지?	ㅇ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었음.
ㅇ국제빙상연맹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이 언제인지?	ㅇ2015년 가을이었음.
ㅇ조직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을 하고 싶었을텐데, 차관한테 그 얘기를 한 적 있는지?	ㅇ그런 기억이 없음.
ㅇ이영국 상무 소속이 삼성전자인지, 아니면 제일기획인지?	ㅇ제일기획 소속임.
ㅇ16억 금액을 누가 정했는지, 실무접촉을 누구와 했는지 및 김종 증인과 증언이 상충되는 부분 질의	ㅇ차후에 실무접촉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잘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평창조직위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600억원 규모의 개폐회식을 수주한 사실의 부당성,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한다는 점 지적	ㅇ 오해의 소지가 있음.
ㅇ 장시호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ㅇ 들은 적 없음.
ㅇ 장시호를 지원하면 목적하던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ㅇ 장시호를 몰랐음.

(아) 조원동 증인(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이 됐는데,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인정하는지?	ㅇ 직권남용이 아니라 강요미수였음.
ㅇ 포스코의 최명주 옥스퍼드 동기가 맞는지?	ㅇ 동기 뿐아니라 절친임.
ㅇ 포스코의 김응규 CEO 승계프로그램 사장 아시지요?	ㅇ 정확히는 모름.
ㅇ 김기춘 비서실장이 증인을 통해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세워라' 그런 지시받은 적 있는지?	ㅇ 그런 기억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을 누가 추진하라고 했는지?	○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임.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SK의 민원을 들어주는 수단이라는 지적	○ 당시에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기재부와 산자부에서 조사하였고, 이것을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올려서 결정된 것임.
○ 최명주 사장에게 권오준을 회장으로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대통령에게 권오준이 회장이 될 것 같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는지?	○ 그렇다면 최명주는 권오준의 일등공신일텐데, 최명주는 권오준 회장으로부터 내부감사를 받았고 결국 한직으로 밀려서 퇴사한 상태임. 권오준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없음.
○ 경제수석으로 들어가 CJ로부터 자금을 모금하였을 때 어떤 심경이 들었는지?	○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함. 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님의 뜻은 전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차라리 제가 하는 것이 CJ를 위해서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음.
○ 부적격한 권오준 포스코회장 취임의 과정 문제 지적, 조원동 증인이 최명주 사장이 한직으로 밀려 퇴사하였다고 답변한 것의 문제 지적	○ 포스코 부사장으로 갔을 적에 직위도 없었던 한직이었음.
○ CJ이미경 회장 퇴진에 대한 대통령 뜻에 관한 질의.	○ 잘 모르겠음.
○ 김영재 원장을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 지시받지 못했음.

(자) 노태강 증인(前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문체부 내에서 김종 차관의 발탁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님께서 발탁하셨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음.
○ 박근혜 대통령에게 왜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승마협회 관련 상황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박원오는 최순실의 측근인데, 그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이 당사자인 박원오에게 유출된 것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렇게 생각함.
○ 대통령 뒤에 최순실이 배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알았음.
○ 대통령의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언급 이후 퇴직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음.
○ 이번에 명예퇴직한 것이 자의인지 강요인지?	○ 사직을 강요받았음.
○ 어떤 점이 후회되는지?	○ 당시 잘못된 징계와 좌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함.

(차) 송성각 증인(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차은택과 20년 인연이 맞는지?	○ 그러함.
○ 포레카를 어떤 방식으로 강탈하려고 했는지?	○ 지금 재판 중인 내용이라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림.
○ 최순실을 콘텐츠진흥원장 되기 전에 만났는지, 당시 김기춘 증인을 만났는지?	○ 최순실은 본적 없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만났음.

(카) 전대주 증인(전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득, 장승호를 알았는지, 장승호와 대통령이 만난 사실을 아는지?	○ 최순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았고, 장승호는 2013년 3월경에 처음 봤음. 대통령을 만난 사실은 나중에 알았음.
○ 장승호를 아는지, 베트남 대사 임명과정 질의 및 외교행낭 이용한 재산유출 의혹 지적	○ 장승호는 잘 모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추천이 되었는지 모름. 재산유출에 대해서는 외교행낭은 엄격한 외교부 규정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음.

(타) 조인근 증인(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근무 기간 및 증인이 쓴 연설문을 누군가 고쳐서 가져온 사실이 있는지?	ㅇ고쳐서 가져오지는 않음. 중요한 연설문의 경우 방향이 아주 잘못되었으면 부속실,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지만, 대부분의 연설은 부분적인 수정이나 첨삭이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음.

(파) 이종욱 증인(KD코퍼레이션 대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박대통령 회동시 현대차에 정유라 친구 부모로부터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최순실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도 제공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ㅇ사실임.
ㅇ최순실 친구의 부모이기 때문에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와 납품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ㅇ인정함.
ㅇ최순실 때문에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인사를 했는데, 최순실을 통해 대통령께 고맙다는 표시를 하지는 않았는지?	ㅇ그런 적은 없음.

(하) 고영태, 차은택, 김종 증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박관천 경위가 이야기한 권력서열(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관련 그 사실이 맞다고 생각하였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ㅇ고영태-동의함, 차은태-대통령과 최순실 같은 급으로 생각했음. 김종-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음.

(4) 프로포폴 투약 등 불법진료 의혹 관련 사항

(가) 고영태 증인(前 더블루K 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증인이 차움병원 헬스장을 다닌 적이 있는지?	ㅇ있음.
ㅇ최순실이 각종 주사제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었는지, 최순실이 약물중독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ㅇ프로포폴을 직접 맞는 걸 본 적이 없고, 약물중독보다는 병원을 자주 다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경험한 적은 있음.
ㅇ차움병원 헬스장을 매일 이용했는지, 증인은 정회원이었는지, 최순실도 헬스장 같이 다녔는지?	ㅇ매일 가지 않았고, 정회원은 아니었음. 최순실 씨는 한 번 정도 가봤음.
ㅇ최순실이 차움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ㅇ들은 적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최순실이 김영재 성형외과 가는 걸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나 부인을 본 적이 있는지?	ㅇ 전혀 못 들었고, 언론을 통해 알았음.
ㅇ 최순실이 보톡스나 필러, 리프팅 같은 시술을 받은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ㅇ 항상 같은 얼굴이어서 느낀 바 없지만, 비타민 주사를 자주 맞는 것은 들었음.
ㅇ 최순실이 태반, 백옥, 감초주사를 맞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ㅇ 비타민 주사를 자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맞은 걸로 알고 있음.

(다) 장시호 증인(최순실의 조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대통령이 최순득과 같이 김영재의원에 자주 간 사실을 아는지, 최순실이 김영재의원에 간 사실을 아는지, 본인은 김영재의원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ㅇ 없음.
ㅇ 본인은 차움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ㅇ 간적이 있었음.

(5) 정유라, 정시호 부정입학 등 특혜의혹 관련 사항

(가) 김종 증인(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김기춘이 정유라를 잘 보살펴 달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ㅇ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릴 수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누구로부터 정유라를 잘 봐주도록 부탁 받았는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로, 왜, 어떤 이유로 정유라를 비호했는지, 정유라와 장시호를 비호하고 특혜를 준 것은 맞는지?	ㅇ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나올 문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람.
ㅇ 안민석의원의 정유라 관련 대정부질의 이후 문체부에게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ㅇ 국회의 몇몇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문체부에서 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남.
ㅇ 차관으로 발탁된 뒤에 김기춘 증인으로부터 정유라를 잘 보살펴주라는 당부가 있었는지?	ㅇ 정유라를 잘 봐 달라는 게 아니라 유망한 선수들을 잘 봐달라는 말이었음.

(나) 고영태 증인(前 더블루K 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정유라는 알고 있는지, 정유라 만난 적 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ㅇ 모르고, 가방을 전달해 주면서 승마장 데려다 주라고 해서 만났음.

(다) 장시호 증인(최순실 조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연세대는 어떻게 입학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ㅇ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했고, 도와준 사람은 없었음.
ㅇ 운전기사가 장시호 아버지가 연세대 높은 분을 만나 입학을 상의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았는지?	ㅇ 몰랐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연세대 승마 특기생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음. 이것이 실력으로 입학한 것인지, 별도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ㅇ 입학 시 다른 승마 특기생도 있었고, 당시에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입학한 것 같음.

(6)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의혹 관련 사항

(가) 김기춘 증인(前 대통령비서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하는 것은 알았는지?	ㅇ 듣지 못했음.

(나) 고영태 증인(前 더블루K 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2016년 3월 최순실로부터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면 돈을 줄 것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ㅇ 직접 지시하지 않음.
ㅇ 롯데그룹 관계자를 실제로 만났는지, 돈은 어떻게 받았는지?	ㅇ 직접 만나지 않았고, K스포츠재단의 계좌로 받았음.
ㅇ 미르재단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한씨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ㅇ 한 두 달 정도 매일 보면서 미르재단의 문제점 등을 얘기해 줬음.
ㅇ 미르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 이성한씨와 상의하였는지?	ㅇ 상의는 아니고, 일방적으로 미르재단에 관한 얘기를 해줬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춘천의 이성한 자택에 방문한적 있는지?	○ 자택은 아니고, 춘천에서 만남.
○ 이성한과 언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 차 감독님, 녹취록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차 감독과의 실제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들려 주었음.
○ 이성한을 만났을 때, 누구랑 갔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 혼자 갔고, 미르재단에서 본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 같이 기회를 보자는 얘기를 나누었음.

(다) 여명숙 증인(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기업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져서 실제로는 재단활동을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함.
○ 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미르재단이 표방하던 업무를 이미 하고 있지 않았는지?	○ 제가 미르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런 취지도 없이 그 다음에 목적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480억 정도가 모금되었더라 라는 제보 하나 받은 것 이외에는 저는 아는 게 없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주로 K스포츠재단에서 하겠다는 업무를 이미 담당하고 있지 않았는지?	○ 뉴스를 듣고 알았음.

(라) 정현식 증인(재단법인 K스포츠재단 前 사무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된 경위 질의	ㅇ최순실에게 면접을 보고, 감사를 처음에는 감사를 맡으라고 해서 수락했음. 이후 안종범 전 수석한테 전화가 와서 K스포츠재단의 처음에는 감사, 나중에는 재무를 제안 받았고,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을 겸직하게 되었음.
ㅇ최순실을 언제 처음 만났는지, 소개로 만났는지?	ㅇ2015년 12월 23일 논현동에서 처음 만났음.
ㅇ최순실이 태블릿PC를 소지하는 것을 본 적 있는지?	ㅇ기억이 나지 않음.
ㅇ최순실이 K스포츠재단에서의 직위가 없었으나, 직원 인사에 관여한 경위	ㅇ정확히는 모름.
ㅇ청와대가 정현식 증인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는지?	ㅇ은행 후배로부터 청와대에서 신원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ㅇ최순실이 포스트잇으로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었는지 질의	ㅇ그것은 검찰에 제출했음.
ㅇK스포츠재단에 노성일, 박헌영, 고영태가 근무하였는지, 박헌영이 최순실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	ㅇ고영태는 소속이 더블루K이고, 재단 소속으로는 노승일・박헌영 두 사람이 있었음. 박헌영은 최순실의 사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이 롯데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지,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외피 도구에 불과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동의함.
○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으로 들어간 돈은 최순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닌지?	○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님.

(7) 기타 사항

(가) 김기춘 증인(前 대통령비서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우병우 불출석에 대한 평가 요청	○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진술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 故 김영한 비망록 관련, 김기춘이 부적절한 지시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청와대 수석회의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회의가 아닌 소통의 장이므로 제가 다 지시했다고 볼 수 없음.
○ 김용환 전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최태민 그림자를 지우도록 하시는게 좋겠다고 진언을 했다는데 들은 적이 있는지?	○ 언론을 통해 보았음.

(나) 고영태 증인(前 더블루K 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이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라고 잘못 표기했는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 그런 적 없음.
○ 최순실이 자주 가는 미용실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지?	○ 전혀 모름.

[2016년 12월 14일 제3차 청문회]

(1)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 대응 미흡에 관한 사항

(가) 김장수 증인(前 국가안보실장, 現 주중국대한민국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세월호 사건 당일 오전 서면보고를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두 군데로 보냈는지	ㅇ그렇게 알고 있음
ㅇ관저와 집무실로부터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확인은 받았는지	ㅇ집무실에는 안 계신 것 같다는 말을 보좌관으로부터 들음
ㅇ관저에 보낸 서면보고는 누구를 통해 전달했는지, 직접 받았는지 확인했는지	ㅇ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달함
ㅇ대통령이 머리손질을 하느라고 중대본에 오후 5시 15분에 도착한 것에 대한 안보실장의 입장은	ㅇ오후 2시 50분경 구조자 수 관련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에 늦게 중대본에 가게 된 것임
ㅇ청와대에서 중대본이 있는 광화문 청사까지의 거리는 10분 거리인데도 2시간 이상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ㅇ중대본에서의 보고 준비나 의전 등의 절차 등 여건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
ㅇ4차 핵실험 당시에도 NSC가 소집되기까지 3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국가 안보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	
ㅇ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의 참석자와 대통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자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준비 등을 위해 대통령이 3시간 반이나 걸려서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	
○ 세월호 사건 당일 3번 서면보고하고 7번 유선으로 직접보고한 것이 사실인지	○ 일곱 차례의 유선 통화임
○ 보고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15분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나타나는데 맞는 내용인지	○ 맞는 것 같음
○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과의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과 4차례 유선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오전 통화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함
○ (확인 후) 오전 통화 내용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인터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 오전에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사실은 확실하나 정확한 시간이 헷갈려서 그런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음
○ 세월호 당일 통영함에 출동하라고 해군참모총장이 지시를 내렸는지	○ 해군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해군의 통영함 출동 지시를 철회한 사람은 누구인지	○ 모르겠음. 추측컨대 통영함이 전력화되기 전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발표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함
○ 해군이 지원본부장을 임명하고 황기철 총장이 통영함 출동을 명령했는데, 해군참모총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했다면 대통령 지시인 것인지	○ 그런 지시가 일체 없었음
○ 통영함이 출동준비를 하고 있으니 통영함을 보낼 것인지 여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 대통령에게 보고할 감이 아님. 해군참모총장이 알아서 출동시키면 됨
○ 해군참모총장이 구조에 참가한다고 출동 합의각서까지 썼는데 이를 누가 막은 것인지	○ 해군총장이 지시했을 거라고 생각함
○ 세월호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내의 재난에 대하여 안보적 상황에 입각하여 처리하지 못한 안보실장에게 있다고 생각함	
○ 해군은 해경이 보유하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인이 해군 투입을 이끌어냈어야 한다고 생각함. 해군 역량에 대핸 보고를 한 바 있는지	○ 해군 투입은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임. ○ 다만 통영함 자체가 최초 진수할 때부터 전력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생긴 배라서 출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통영함 출동을 막을 권한은 국방부장관 아니면 합참의장밖에 없는데 둘 중 누가 막은 것인지	○ 군령권 사항이 아니고 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장 아니면 장관일 것이라고 생각함
○ 해경 통제 때문에 해군이 12시에 출동했음에도 육지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지휘권이나 관할권 때문에 해군이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 해경에도 잠수사가 있고, 해경의 작전을 최대한 지원을 하라고 입장이었음
○ 2시 57분 중대본에 가서 현장을 보라고 건의한 것이 총 몇 번인지	○ 2시 57분 한번임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이 내린 통영함 투입 명령 및 미군의 도움을 막은 것이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라고 하는데	○ 막은 적 없음. 통영함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군에 아직 인계가 안된 상태로 알고 있었음
○ 대통령이 없을 때 해군출동명령을 철회의 주도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인지 김장수 전 안보실장인지	○ 상황보고가 끝나면 정무수석실에서 컨트롤함
○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없던 약 210분동안 어떻게 상황을 인식했는지, 중대본에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 304	○ 해경과 중대본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있었고,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중대본과 해경 및 청와대비서실의 정무수석실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명의 희생자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 구조활동 등을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서 안보실장은 안보에만 전념하고 더 이상 보고를 하지 않음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안보인데 안보실장이 손을 떼는 것은 잘못된 것임. 또한, 증인은 그 뒤에도 수차례 해경과 통화를 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위증을 한 것이 아닌지	○ 대통령에게 구조인원 관련 수정보고를 했고, 중대본에서 보고를 받는게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고, 그 이후로 대통령께 일체 상황보고를 하지 않았고, 17일과 18일만 1일 2회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 드림.
○ 직접 통화한 것이 사실인지, 통화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	○ 직접 통화했음. 다만 통화내역을 확인할 방안이 없음
○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전달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 10시 15분에 대통령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받아본 것으로 확신함
○ 세월호 사건 당일 오전 9시 24분에 안보실에서 문자로 상황전파와 관련, 대형 여객선이 침몰중이라는 내용으로 전파했는지, 구조중이라는 내용으로 전파했는지	○ 침몰 중이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함
○ 세월호 당일 오전에 대통령과 유선통화는 관저와 집무실 중 어디로 했는지	○ 대통령과 직통라인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통화함
○ 청와대 근무자들에 따르면 관저 집무실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집무실은 본관 집무실이 있고 비서동에 비서실장이 있는 공간 및 비서실 집무실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세월호 당일 급박한 상황 앞에서 대면보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지	○ 대면보고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았음. 안보실장이 상황실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대면보고를 위해 이석하는 것도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음
○ 증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창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지시는 몇 시에 어떻게 한 것인지	○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워딩에 대해 확정을 못하겠음.
○ 세월호 과적 관련, 278t의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용이라는 의혹을 들어본 바가 있는지	○ 언론을 통해 들은 바 있음. 여객선에 철근을 옮겨 싣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
○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있는지	○ 확인한 바는 없지만, 278t의 철근 때문에 건설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문서를 받는 것인지, 1부속실장이 받든지 관저 부속실에서 받아서 올리는지	○ 그러함
○ 대통령 지시사항을 해경청장에게 전달하지 못한 이유는	○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함
○ 세월호 참사 당일 첫 번째 상황보고 받은 후 어디에 있었는지	○ 상황실에 있었음
○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선실 내에 있다는 사실은 언제 보고받았는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 10시가 훨씬 넘은 시간으로 추정함. 11시 23분경에 대통령에게 유선보고를 드린 바 있고, ENG라는 위성영상시스템을 봤을 때 배가 좀 뒤집혀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미구조된 인원은 실종 또는 선체에 잔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했음
ㅇ 12시 48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오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 선체가 뒤집혔는데도 추가 구조된 것으로 생각했는지	ㅇ 보도 내용을 추적하고 따지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됨
ㅇ 오후 1시 13분경 190명을 추가 구조해서 370명을 구조했다고 보고했는데 어떤 근거로 보고한 것인지	ㅇ 오후 1시 7분에 정무수석실에서 올린 대통령 서면보고 내용이 370명이 구조되고 2명이 사망했다라고 되어있었기 때문임
ㅇ 오후 2시 50분경 수정보고를 했는데, 1시간 40분이나 걸려서 확인될 내용인지	ㅇ 해경과 상황실이 각각 파악했는데 상황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중복되는 상황이었음
ㅇ 11시 23분에 대통령에게 유선보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ㅇ 기억하지 못함.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음
ㅇ 11시 23분의 유선보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임	
ㅇ 대면보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구조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ㅇ 상황보고가 많은 상황이었음
ㅇ 세월호 사건은 국가안보실이 챙겨야 할 사안인지 여부	ㅇ 최초 상황보고를 접수하고 보고하는 것은 국가안보실의 소임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초 상황 접수 및 보고 이후의 상황은 국가안보실 소관이 아닌지	○ 그 다음부터는 해당 비서실에서 사고의 성격을 따져 조치를 하는 것임
○ 대통령이 없으면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은 중대본 지휘능력이 없는지	○ 안보실장은 중대본을 지휘할 권한이 없음
○ 세월호 정정 보고를 2시 57분경에 한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 오후 1시 4분에 위기관리센터로부터 진도행정선에 190명 승선중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190명을 추가 구조해서 구조인원이 368명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190명을 태웠다는 행정선이 입항하지 않아 해경에 재확인했고, 2시 23분에 구조인원에 착오가 있다는 최종 보고를 받아 대통령에게 2시 50분에 보고하고 2시 57분에 질책을 받은 것임
○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상황관리와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기대처능력이 없어 결국 혼란만 준 것이 아닌지	○ 드릴 말씀이 없음
○ 지금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 실정법상 안전행정부 또는 중대본이 컨트롤타워라고 한 것이고, 청와대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은 서로 자기 소관이 아	○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니라고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위기관리 매뉴얼에 국가안보실이 중대한 재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에 그렇게 국가안보실의 재난관리 역할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지적	○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은 구 버전이어서 중대본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임
○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 요망	○ 진심으로 죄송함

(나) 김석균 증인(前 해양경찰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세월호 사건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전화해서 인명구조 독려 지시를 한 것이 맞는지, 당시 증인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 그러함. 상황실을 나와 현장으로 가기 위해 이동 중이었음
○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 전국의 특공대를 다 동원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음
○ 수난구호법상 해난사고 시 중앙구조본부장이 누구인지, 사고 시 대통령이 누구에게 구조지시를 해야 하는지	○ 대형재난의 경우 해경청장이 중앙구조본부장임.
○ 여객선 사고 시 여객선 퇴선지시 권자는 누구인지	○ 현장 지휘관이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선원법상 퇴선명령 지시자는 선장밖에 없음	○ 그러함
○ 세월호 사건 당시 선장을 장악하여 명령을 내린 사람이 없다는 문제 지적	○ 1차 대응은 일단 선장이 하고 그 상황에서 해경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모든 가용치를 동원하여 구조했음
○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출동명령을 막은 사람이 누구인지	○ 모르겠음
○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대통령과 통화했는지	○ 그러함
○ 통화한 시간과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시간이 겹쳐 의혹을 사고 있는데, 통화시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청사출입기록이 10시 29분이었고, 이동 중 1km남짓 되었을 때 통화를 했으니 10시 30분정도로 추정함
○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 사고 해역에 약 12시 20분경 도착함
○ 10시 30분 이후 청와대의 어떤 라인을 통해 보고와 상황 지시를 받았는지	○ 해경의 상황 전파 라인을 통해 상황 전파가 됐고, 직접적 지시는 받지 않았음
○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 기억이 없음
○ 세월호 당시 해경이 현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현장보고의 혼선이 발생하고 대처에 미흡한 점 지적	
○ 세월호 사고 당일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 사무실에서 집무를 보다가 보고를 받았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해경청장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 사고 발생시 상황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함
○ 세월호 사건 당시 허위로 퇴선유도지시를 한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 경위가 기소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는데,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 당시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
○ 퇴선 지시는 하지 않을 것인지	○ 퇴선명령의 제1 권한자는 선장이고, 구조세력은 차후에 대응을 해야 함
○ 해경이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는지	○ 동의할 수 없음
○ 만약 일찍 퇴선 지시를 했으면 전원 구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 일찍 퇴선하여 갑판에 나와 있었으면 희생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 해양긴급전화 122운영규칙에 따르면 해경이 신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반복하여 신고자에게 질문하도록 한 것을 준수하지 않았고,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해양사고 초동조치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조난 선박과 교신을 설정하여 조난 선박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지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이 '13년 3월 취임해서 '14년 4월까지 대형 해상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	○ 훈련은 지속적으로 했었고 대형 여객선 사고는 퇴선조치에 관한 훈련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
○ 헬기 비행기록에는 10시 30분 이륙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인지, 운항기록을 다시 제출하기 바람	○ 10시 50분 이륙으로 알고 있음
○ 대통령 전화를 언제 받았는지, 헬기 탑승 전인지	○ 그러함. 10시 30분경에 받음.
○ 사고 당일 오전 대통령의 지시관련 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묵묵부답하다가 현재 골든타임에 지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안보실장과 해경청장은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항기록을 보면 의혹이 발생한다는 지적	
○ 미군 헬기가 구조하러 왔는데 돌려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 군 관련 상황은 파악하지 못함
○ 청와대 안보실 상황반장과 해경청 상황실장간 핫라인 기록을 살펴보면 10시 37분 해경청장은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있다고 기록됨. 이는 10시 37분에 관용차에 있다는 증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임	○ 잘못 보고된 것일 수 있음. 청사 출입기록을 확인하면 관용차에 있다는 내용이 사실임
○ 유선보고와 서면보고에 대한 증거가 없고, 안보실장이 해경청장과 직접 통화를 하지 못했고, 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경청장의 10시 37분의 행적 역시 불분명하여 거짓말이라고 생각함. 대통령은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은 것임	

(2) 대통령 비선진료에 관한 사항

(가) 김영재 증인(김영재의원 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대통령 얼굴 사진 상의 주삿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한 소견은	ㅇ필러일 것으로 보임
ㅇ대통령 안면시술을 한 사실이 있는지	ㅇ없음
ㅇ대통령 당선 전후로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ㅇ피부 트러블이나 순방 다녀와서 얼굴이 붓는 경우 갑자기 연락을 받고 몇 번 진료한 사실은 있음
ㅇ밤에 청와대 출입한 사실이 있는지	ㅇ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차량을 타고 들어간 사실이 있음
ㅇ청와대 출입 당시 경호실 검문 등을 거쳤는지, 왕진가방 등을 소지하고 출입하였는지	ㅇ사전에 주민번호 등을 알려주고 검문할 때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은 없음
ㅇ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최순실을 136차례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ㅇ그러함
ㅇ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쓴 최순실 진료횟수 중 박근혜 대통령 관련 대리진료횟수는 몇 번이었는지	ㅇ한 번도 없음
ㅇ필러시술은 간단한 시술인지	ㅇ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임
ㅇ증인과 부인, 처남, 처제 모두 2014년 4월에 개명한 것이 사실인지	ㅇ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개명 시기가 최순실은 2014년 2월 최서원으로 이름을 개명한 직후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ㅇ 전혀 상관 없는 일임
ㅇ 대통령 당선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이 김영재의원을 방문하거나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서 미용목적의 시술(주름, 필러, 보톡스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ㅇ 없음
ㅇ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지	ㅇ 없음
ㅇ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은, 객관적 증명자료가 있는지	ㅇ 오전에 장모님 고관절 수술로 PRP를 한 후 지인들과 골프장에 감. 국회에 톨게이트, 카드 사용내용, 동반자 진술, 골프장 확인서 등을 제출함
ㅇ 최순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ㅇ 환자로서 만났고, 2014년 4월쯤 처음 방문함
ㅇ 2006년 대통령이 커터칼 테러를 당했을 당시 상처를 치료한 사실이 있는지	ㅇ 세브란스에서 치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 청와대에서 한 번 봐준 사실이 있음
ㅇ 이임순 증인을 아는지	ㅇ 전혀 모름
ㅇ 입가 주름에 주사를 놓은 자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마리오네트 라인 시술을 했다면 주름살이 없어져야 하는데 선명한 것으로 봐서는 시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ㅇ 영스리프트(youngs lift) 시술을 직접 개발했는지	ㅇ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영스리프트의 실과 다른 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ㅇ7개국 특허를 받고 340개국 특허 출원 중인 실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00억 수출을 했고, 500만불 수출의 탑을 받은 실임
ㅇ정기양 증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ㅇ주치의인 내과 선생을 통해 알게 됨
ㅇ정기양 증인이 영스리프트를 대통령에게 시술하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는지	ㅇ문자로 보자는 얘기는 들었으나 제안한 사실은 없음
ㅇ청와대를 몇 차례 출입했는지	ㅇ확실히 기억나지 않음. 5번 전후일 것으로 생각함
ㅇ필러는 얼마나 지속되며 시술에 몇 시간이 소요되는지	ㅇ약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없어지는 시술로, 약 10분에서 15분정도 소요됨
ㅇ필러 자체에 국소마취제가 들어있는지	ㅇ레스틸렌이 들어간 제품은 국소 마취를 할 필요가 없음
ㅇ청와대에 출입하여 무엇을 했는지	ㅇ대통령의 피부 관련된 문진 등을 하였음
ㅇ청와대 출입 당시 동반한 사람이 있는지, 그 이유는	ㅇ부인을 동반함. 대통령에게 색조화장품 등을 가지고 가서 설명 드렸음
ㅇ조여옥 대위를 본 사실이 있는지	ㅇ없음
ㅇ세월호 당일(4월 16일 수요일) 휴진이었는지	ㅇ그러함
ㅇ장모 필러시술을 했다고 했는데 휴진에도 시술을 했는지	ㅇ병원 자체가 휴진이 없고, 개원의들은 주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골프를 치러 가는 경우가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처음부터 장모 얘기를 하지 않다가 프로포폴 사용 기록이 나오자 간단히 시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ㅇ 사실과 다름
ㅇ 장모의 나이에 비해 프로포폴 앰플(15ml) 투여량이 많은 것은 아닌지	ㅇ 보통임
ㅇ 세월호 당일 오전 장모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간 것이 아닌지	ㅇ 그렇지 않음
ㅇ 김영재의원 자료담당부장 이름이 무엇인지, 자료담당부장이 대통령진료 관련 부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진료한 적이 없다고 구두로 답변했는데, 증인의 진술과 배치됨	
ㅇ 대통령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	ㅇ 2014년 2월에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에게 연락이 옴
ㅇ 최순실의 소개로 대통령을 알게 되었는지	ㅇ 아님. 최순실은 2013년 11월에 왔음
ㅇ 가장 최근에 대통령을 진료한 것이 언제인지	ㅇ 8월임
ㅇ 올해 대통령 진료를 몇 번 했는지	ㅇ 기억이 나지 않음. 진료한 적은 없음
ㅇ 진료를 했다는 진술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ㅇ 기억이 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최순실 진료 시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생일(1956.2.2.)을 자신의 생일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최순실은 대통령을 무시하고 암묵적으로 권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지적	ㅇ 대통령의 생일인지 몰랐음
ㅇ 청와대 삼청동 근처에서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의 통화내역 및 통화위치 1년 치를 조회해서 제출 바람	
ㅇ 2014년 2월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관저에 들어갔을 때 왜 연락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ㅇ 최순실도 다녔고, 2013년 4월에 이병석 대통령 주치의 시절이 소개해줬기 때문에 알게된 것이 아닌가 생각함
ㅇ 최순실의 소개를 받고 연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ㅇ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ㅇ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전혀 몰랐는지, 처음 관계를 알게 된 것은 언제인지	ㅇ 처음 진료와 수술을 했던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정윤회 관련 문건이 나온 후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듬
ㅇ 정윤회 문건은 2014년 11월에 나왔는데, 증인이 청와대 들어가고 난 뒤 한참 뒤인데 최순실을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	
ㅇ 정호성 비서관을 만난 적이 있는지	ㅇ 본적이 없음
ㅇ 매선 방식의 실 리프팅은 주사	ㅇ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기를 이용하여 피부 속에 실을 심으면 그 실이 녹아 피부가 탱탱해지는 방식인지	
ㅇ 대통령 사진에 있는 주사자국은 매선방식의 실리프팅 시술로 보이는지	ㅇ 확실하지 않음
ㅇ 실리프팅 시술을 많이 하는지	ㅇ 매선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아 많이 하지 않음
ㅇ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실리프팅 시술을 배우면 쉽게 할 수 있는지	ㅇ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ㅇ 실리프팅 시술의 지속성은 얼마나 되는지	ㅇ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함
ㅇ 대통령 사진의 주사자국으로 추정하기에 반복적 시술의혹이 있는데 청와대 의무실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ㅇ 추측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움
ㅇ 최순실이 받은 136회의 진료는 모두 비급여 미용시술인지	ㅇ 그러함
ㅇ 가명과 허위생년월일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	ㅇ 의료법 위반임. 보건복지부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세월호 당일 오전 골프장에 가기 위해 지불한 톨게이트 비용 영수증을 보면, 금액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면 둘 중 하나가 가짜인 것으로 보임	ㅇ 영수증 발급처에서 그렇게 줬기 때문에 잘 모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경찰에 따르면 개인이 요청해서 톨게이트 현금영수증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 JTBC 기자가 가르쳐줘서 발급받음
○ 조윤선 수석을 잘 아는지	○ TV에서만 봤고 개인적으로는 모름
○ 김영재의원에서 가장 유명한 시술이 무엇인지	○ 엔도스코피(endoscopy), 리프팅, 지방흡입술 등을 주로 하고 있음
○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지	○ 흉터와 안면비대칭 등
○ 조여옥 대위에게 주사를 가르쳐준 사실이 있는지	○ 조여옥 대위를 전혀 모름
○ 청와대에 또 다른 비선의사가 필러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잘 모르겠음
○ 조여옥 대위가 필러 수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잘 모르겠음. 대통령이 비의료인에게 맞으실지 의문임
○ 청문회에 신보라 증인은 나왔는데 조여옥 대위는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잘 모르겠음
○ 대통령이 피부과 전문의를 놔두고 성형외과 전문의를 불러 피부 자문을 받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지적	
○ 청와대 출입시 어디로 갔는지	○ 파우더룸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청와대 관저와 의무동을 가본 적이 있는지	ㅇ없음
ㅇ증인의 기억 속에 관저와 의무동이 분명하게 구분되는지	ㅇ의무동은 많이 떨어진 곳이라고 들었음
ㅇ초진 받을 당시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지, 예약해준 환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ㅇ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례상 신분확인을 하지 않음.
ㅇ1년에 평균 50회 정도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의사와 친분관계가 형성 될 수 있다고 봄	ㅇ그럴 수도 있음
ㅇ최순실과 대통령이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몰랐는지	ㅇ대통령 주치의가 소개를 시켜줘서 예측은 했지만 본인에 대한 신분을 숨겼기 때문에 몰랐음
ㅇ세월호 사고일 하루 전날인 4월 15일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ㅇ기억이 나지 않음
ㅇ가명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제22조제3항 위반이라는 지적	
ㅇ김영재 실은 임상허가를 언제 받았는지	ㅇ2014년 9월 23일 무렵 허가받음
ㅇ김영재 실 임상시험 당시 정기양 교수가 참여했는지,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	ㅇ임상시험에 참가함. 주치의와 함께 만나 상의함
ㅇ김영재 실(영스리프트)을 최순실에게 시술한 사실이 있는지, 언제 시술했는지	ㅇ허가받은 이후 사용함. 2014년 9월 23일 정도인 것 같음
ㅇ최순실이 2013년 4월 김영재의	ㅇ처음에는 이병석 원장 소개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원에 처음 누구 소개로 방문했는지, 2013년 19월에는 어떻게 방문했는지	왔고, 이후에는 환자 중 한명의 소개를 받아 왔음
ㅇ이미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6개월 후에 다른 사람 소개로 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ㅇ허가 이전인 4월에는 영스리프트 시술을 해달라고 찾아왔으나 시술하지 못했고, 10월에는 절개 수술을 했고, 2014년에 허가받은 이후에는 영스리프트 시술을 받음
ㅇ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스리프트 시술을 권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ㅇ없음
ㅇ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전화가 왔다고 했는데 정호성 비서관인지, 어떻게 아는지	ㅇ전화는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데리러 온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이 아니었음
ㅇ세월호 당일 대통령 사진을 보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었는지	ㅇ자세히 본 적이 없음. 머리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 급하게 온 것 같음
ㅇ2014년 4월 매주 수요일마다 휴진이었는데 휴진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	ㅇ공식적인 휴진은 아니었음
ㅇ청와대에 몇 시에 출입해서 얼마나 머물렀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항상 부인과 동반했는지	ㅇ모두 부인과 동반해서, 약 4-5시 정도에 출입해서 한시간 반 전후로 피부 트러블과 색조화장품 관련 상담을 했음
ㅇ청와대 출입할 때 누가 전화를 걸어서 누가 받는지, 대포폰으로 전화가 왔는지	ㅇ이영선 비서관이 전화해서 와이프가 전화를 받고 전화번호는 잘 모르겠음
ㅇ골프 치러 가는 날 아침 장모	ㅇ미용시술이 아닌 척추디스크 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가 시술해달라고 하는 것도, 시술을 한 것도 정황상 이상함	술과 고관절 수술이라 통증 및 재생을 위해 주사를 한 것임
○ 수요일마다 프로포폴에 대한 처방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느닷없이 장모 시술 이야기를 하는데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함	○ 그렇지 않음
○ PRP시술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프로포폴을 투여했는지,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	○ 5분에서 10분 소요됨. 프로포폴을 투여함. 사실임
○ 중국에서 고위급이 치료받으러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 말씀드리기 곤란함. 화장품 중국수출을 진행 중인 처남이 에이전시로부터 들은 것 같음
○ 언제 개명을 했는지, 이영자 사건 나고 바꾼 것이 아닌지	○ 약 20년에서 15년 전후인 것 같음. 이영자 사건과 무관함
○ 당시 병원 이름이 무엇인지	○ 김영재의원 동일함
○ 청와대에서 피부 관련 상담을 한 후 의료비를 받았는지	○ 가끔 금일봉을 받음
○ 고관절 때문에 PRP시술을 하면서 다른 통증제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프로포폴 밖에 없어서 쓰고 있음
○ 파쇄기는 언제 구입했는지	○ 회사에서 산 것이라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음
○ 부인은 주사를 놓을 줄 아는지	○ 아님
○ PRP시술 관련 다른 전문가들	○ 9시에 시술해서 40분에 나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은 최소 3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5-10분이 소요된다는 진술과, 장모가 프로포폴에서 깨기 전에 골프 치러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	고, 보통 프로포폴의 경우 10cc 전후면 한 5-10분 정도 지나면 깸

(나) 이병석 증인(前 대통령주치의, 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 주치의로 근무하면서 김상만 증인이 진료할 때 배석한 적이 있는지	○ 없음
○ 대통령 주치의가 배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자문의가 단독으로 진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 안타깝게 생각함. 김상만 원장이 자문의에 포함된 사실을 8월에야 알았고, 밤에 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음
○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지	○ 그러함
○ 대통령의 건강검진시 혈액검사도 하는지	○ 그러함
○ 주치의로 있는 동안 대통령에 대한 혈액검사는 언제 실시했는지, 어디서 혈액검사를 했는지	○ 2013년 7-8월경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했음
○ 혈액검사 결과 이상이 있었는지	○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종합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호르몬 검사 항목이 있는지	ㅇ 보통 일반적인 검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 호르몬검사를 할 수 있겠지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그런 검사를 잘 하지 않음. 보통 특별한 검사는 이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함
ㅇ 청와대에서 조여옥 대위 이외에 대통령에게 주사한 사람이 있는지	ㅇ 없음
ㅇ 태반주사(120개), 감초주사(61개), 백옥주사(50개)를 대통령에게 모두 주사한 것인지	ㅇ 개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ㅇ 대통령 사진 중 멍 자국은 필러 시술로 생긴 멍 자국으로 추정되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시술을 누가 했는지	ㅇ 그런 사실 없음
ㅇ 청와대에 제3의 전문의가 있는지	ㅇ 제 자문의 중에는 없음
ㅇ 자문의를 최순실에게 추천했는지	ㅇ 직접 추천하지 않음
ㅇ 일반적 건강검진의 혈액조사에서 부신기능 저하증은 통상적 검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ㅇ 일반적으로는 시행하지 않음
ㅇ 2013년 7-8월경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대통령 혈액검사에서도 부신기능 저하증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ㅇ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ㅇ 만약 대통령이 부신기능 저하증에 걸렸다면 의식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ㅇ 정도에 따라 그럴 수는 있지만, 부신피질기능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저하되는 경향을 보임.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 상으로는 크지 않음
ㅇ 대통령의 의사결정타입, 행동타입,	ㅇ 일반 정상인과 크게 다르다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일련의 행적(인천시장 집무실 변기 교체, 영국 국빈 방문 시 호텔 집기 교체요구 등)을 볼 때, 대통령 정신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부분이 있는지	점을 느끼지 않음
○ 대통령의 독특한 행동은 통상적인 사람의 정신 상태에 비추어볼 때 별 문제가 없는지	○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음
○ 주치의나 자문의단에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되어있는지, 정신 상태에 대해 주목을 한 의사는 아무도 없는지	○ 정신의학과 교수는 없음. 주목한 의사도 없었을 것임
○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의 실에 대한 소개를 한 사실이 있는지	○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한 사실은 없음
○ 누구에게 김영재 원장의 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 최순실이 전화를 해서 피부미용이나 안면성형에 대한 문의를 해서, (김영재의 주치의였던 교수로부터 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김영재 원장에게 찾아가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음.
○ 김영재를 최순실에게 추천한 사람은 일단 이병석 증인인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	○ 그렇다고 볼 수 있음. 2013년 3-4월경임
○ 최순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 5-6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음
○ 어떻게 최순실에게 김영재 원장을	○ 대통령 주치의가 되고 나니 최순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추천할 수 있었는지	에게 전화가 왔음
○ 대통령의 피부트러블을 진료한 적이 있는지	○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 자문의를 동행해서 같이 들어갔음
○ 대통령의 피부트러블이 부작용이라고 보는지	○ 일반적인 증상이었음
○ 대통령 주치의를 사임한 이유가 태반주사 처치 거부 등과 관련이 있는지	○ 그렇지 않음
○ 대통령 주치의 사임 이후 반입된 미용주사가 약 360개로, 대부분 대통령에게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 같은데, 대통령의 미용주사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함. 제가 미용주사를 많이 써보지 않은 입장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음
○ 2013년 9월, 국가 2급 기밀인 대통령 혈액 채취 및 반출과 관련하여 알고 있었는지	○ 몰랐음
○ 청와대에 또 다른 비선 의사가 필러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제가 근무할 동안에는 제가 아는 한 없었다고 생각함
○ 조여옥 대위가 “야매”로 대통령 관저에서 시술을 했다는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지	○ 시술하지 않았다고 생각함
○ 조여옥 대위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 주사를 놓았을 가능성은 있는지	○ 주사는 놓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 밤늦게 누군가 청와대에 들어	○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오는 것은 알았다고 한 진술에 대한 재확인	
○ 청와대에 누군가 들어온 시점에 “밤”이라고 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김영재 증인과 김상만 증인이 위증한 것이라는 지적	
○ 태반주사의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데 동의하는지	○ 동의함. 태반의 경우 효과 면에서도 여러 제제가 있어 어느 것을 쓰느냐가 다를 수 있고, 태반주사는 치료제가 아닌 증상개선제임
○ 태반 주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청와대의 눈 밖에 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닌지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았음
○ 대통령이 평소 불면증이 있는지	○ 불면증이라기 보다는 피곤해함
○ 낮잠을 자주 주무시는 편인지	○ 잘 모르겠음
○ 관저에서 주사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그럴 수 있음
○ 주로 누가 주사를 놨는지, 조여옥 대위인지	○ 저도 놓은 적이 있고 조대위도 놓고 그랬던 것 같음. 조대위와 함께 들어간 것은 잘 기억나지 않음
○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의 주사제를 자주 맞으면 중독이나 의존성이 생기는지	○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다) 서창석 증인(前 대통령주치의, 現 서울대학교병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자문의가 와서 대통령을 진료할 때 주치의와 의무실장, 간호장교가 모두 배석하는 것인지	○ 간호장교는 배석하지 않고 주치의와 의무실장이 배석함
○ 이임순 교수가 증인을 주치의로 추천했는지	○ 이임순 교수가 추천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공관에서 면담을 한 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누가 추천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인지, 최순실인지, 최순실의 청탁을 받은 김기춘이 추천한 것인지	○ 알 수 없음
○ 대통령 주치의로 재직하던 시절, 태반주사가 세차례에 걸쳐 약 150개정도 구입되었고, 신보라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썼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대체로 3일에 한번 태반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태반주사의 종류는 2가지인데, 김상만 주치의가 쓴 것은 탯줄을 포함한 전체 태반으로 간 기능과 관련된 항염작용이 있는 것이고, 태반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는 것인데, 청와대 태반주사는 갱년기 치료제용이므로 제가 사용한 것은 아님.
○ 통계상 3일에 한번 태반주사를 맞은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보는데	○ 동의하지 않음. 청와대에 들어간 태반주사의 이름과 김상만 원장이 쓴 태반주사는 상이함. 태반주사를 본 사실이 없음
○ 정신건강의학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신상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 일반적인 대화에 있어 크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음
○ 김영재 증인을 서울대 강남병원	○ 강남센터에는 성형외과가 없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외래진료의사로 왜 추천했는지	때문에 외래진료의사는 강남센터 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구두로 합의를 보고 위원회를 거쳐 추천을 하게 되었음. 이는 당시 중국 최고위층이 오기로 했는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먼저 하고 바로 이어 김영재 원장에게 리프팅 시술 받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를 함. 병원 소속이 아닌 사람이 시술을 할 수 없어서 5년 이상 같은 직종에 근무한 의사의 경우 직책에 올릴 수 있는 외래진료의사로 위임하게 된 것임
○ 최순실을 아는지	○ 전혀 모름
○ 2009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태반 주사의 객관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인지	○ 사실임
○ 태반주사 대량반입을 용인한 이유는 무엇인지	○ 논문에 나온 태반주사와 성분이 다름.
○ 감초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김상만 자문의가 제 통제 하에 들어오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모든 사항은 주치의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 그러함
○ 청와대의 의약품 구입에 관여한	○ 그런 사실이 없음. 김상만 자문의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바가 없고 김상만 원장도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주치의를 한 이후부터 함께 들어갔고, 대통령이 쓰는 약물의 경우 자문의가 요청한 경우 알고 있지만, 의무실의 일반 직원이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 대통령을 직접 진료한 적이 있는지	○ 직접 진료한 적은 없음
○ 서창석 증인은 불임, 시험관아기, 가임력보전 등이 주 전공임. 이 때문에 직접 진료할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인지	○ 부전공으로 폐경을 하고 있음
○ 대통령에 해당없는 전공을 한 증인이 청와대의 대통령 주치의가 된 것은 의심스러운데,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직접 연락받고, 확인전화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가 왔음
○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의사 위촉 관련, 전문의 자격도 없고 절차와 과정을 생략했으며, 위촉장이나 발령장도 없다는 지적	○ 교수가 아닌 외래진료의사였고, 공문을 통해 행정통보를 했고, 이유가 없어져 2주만에 해촉을 했음
○ 김영재 증인 외래진료의사 위촉시 규정위반 사실을 인정하는지-소속진료과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과장이 위촉대상자로 추천해야되는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행정절차상 서류 미비는 인정함. 구두로만 승인을 받았음
○ 최근 5년간 외래진료의사로 위촉받은 8명 중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김영재가 유일한데 인정하는지	○ 인정함
○ 중국 VIP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도 불구, 불확실한 미래 이익	○ 성급했던 점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창출을 위해 임명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함	
○ 김영재 증인과 관련한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선실세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통령 주치의로 재직하는 동안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를 3번 방문한 적이 있는지, 직접 진료하였는지, 김상만 증인 등 외부인력이 참여했는지	○ 2번 방문했음. 직접 진료하지는 않았고, 두 번째 방문시에는 김상만 외부 진료인력이 참여함
○ 서창석 증인이 26일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이임순 교수와 통화 시 이임순 교수가 서창석 원장에게 박채윤을 모른다고 답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이 사실인지,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 사실임. 두 번 통화 중,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하면 안된다고 끊었고, 두 번째는 박채윤과 김영재를 전혀 모른다라고 해달라고 이야기함
○ 중국 고위층이 온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 박채윤 대표에게 들었음
○ 처음 인터뷰할 당시 박채윤이 산부인과 과장실로 찾아와서 알게되었고 누구에게 소개받은 일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왜 이임순교수의 소개였다고 진술을 바꿨는지	○ 잘 생각해보니 이임순 소개였던 것 같아 확인한 것임
○ 산자부 용역 관련해서 공동연구자인데, 이미 특허받은 사안임을	○ 확인하지 못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검토도 안했는지	

(라) 김상만 증인(前 대통령자문의, 前 녹십자에이드 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대통령을 환자로 처음 만난게 언제인지	ㅇ2012년도 초임
ㅇ최순실, 최순득 자매를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ㅇ그러함
ㅇ2013년 7월 25일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것이 맞는지	ㅇ임명장은 그때 받았음
ㅇ진료시 차명을 쓰는지, 대통령 당선 전에는 왜 차명을 사용했는지	ㅇ차명을 쓰지 않음. 간호사가 차명으로 기록하라고 해서 차명으로 씀.
ㅇ간호사에게 차명을 쓰도록 이야기한 사람이 최순실이나 최순득 둘 중 한명이라고 생각하는지	ㅇ아마 차움병원 측이라고 생각함
ㅇ대통령 취임 이후 자문위 위촉 이전 시점에서 대통령 진료를 한 사실이 있는지, 주로 어디에서 했는지, 자문의로 위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ㅇ2-3번 정도 있음. 주로 관저에서 했음. 자문의로 위촉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자문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진료를 했음
ㅇ진료 시 청와대 의무실장과 대통령 주치의 등이 배석한 상태에서 진료했다는 증언이 사실인지	ㅇ서창석 주치의가 온 이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했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음
ㅇ주치의 임명 전 관저에서 대통령	ㅇ라이넥이라는 태반주사를 피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게 피하주사를 놓은 것이 사실인지, 어떤 주사인지, 본인이 지참해서 놓은 것인지	주사한 사실이 있음. 청와대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가서 2-3차례 주사한 사실이 있음
○ 주사용구나 의료가방 등을 지참했는지	○ 가지고 들어갔음
○ 경호실 검색대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했는지, 보안손님으로 들어간 것이 맞는지	○ 경호실 검색대에서 검문검색은 했는데 인적사항을 다 기재했는지는 모르겠음. 보안손님 형태로 간 것 같음
○ 보안손님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을 놓을 때 청와대 의무실에 통보를 했는지	○ 서창석 주치의 때부터 규칙을 전달받았고, 그 전에는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서 연락을 받으면 들어가서 주사를 놓았음
○ 증인은 피하주사를 놨고 간호장교는 정맥주사를 놨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차움병원에 있을 때 주사 맞는 모습을 봤고, 부작용을 관찰한 적이 있었고, 취임 후 주사 맞는 모습을 본적이 없고 누가 놨는지 전혀 모름
○ 2013년 9월 2일, 청와대에서 간호장교가 대통령 혈액을 반출해서 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 보건소 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 그렇게 진술했는데, 혈액을 가져온 것을 보지는 못함. 행정관이 담당간호사에게 전달해 줬다고 했음
○ 대통령의 혈액검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 건강검진 시 몇 가지 좋지 않은 표지자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했고, 일반적 검사와 호르몬 균형검사가 필요해서 동의 하에 혈액검사를 했음
○ 안 좋은 징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 면역기능과 그 외 다른 것들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타겟으로 혈액검사를 한 것인지	있었음
○ 대통령 입 주위에 멍 사진 관련, 해당 시술은 간단한 시술인지	○ 모르겠음
○ 혈액검사량이 얼마나 되었는지	○ 10cc였음
○ 처음 언론에 NK세포 활성화 검사라고 했는데, 무슨 검사였는지	○ 착각이었음. 종합검진에서 빠진 호르몬 균형검사를 했음.
○ 공식라인을 통해 하지 못하는, 약물중독검사를 한 것이 아닌지	○ 그렇지 않음
○ 대통령 혈액이 국가 2급기밀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는지	○ 이번에 처음 알았음
○ NK 활성도 검사한다는 진술도 거짓말 한 것이 아닌지	○ 면역기능검사를 한다는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음
○ 대통령에게 백옥주사인 루치온주 주사를 한 적 있는지	○ 없음. 저는 처방만 했고 주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음
○ 이병석 전 주치의와 김원호 전 의무실장은 김상만의 치료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사를 할 수 있는지	○ 주사를 전달만 했고 주사한 적은 없음
○ 백옥주사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마약을 해독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약물중독 또는 의존성 때문에 처방하여 주사한 것이 아닌지	○ 전혀 미용목적이나 해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
○ 차움병원에 전화해서 JTBC를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은 사실이 있는지	○ 없음. 김영재 원장도 오늘 처음 봤음
○ 최순실이 10월 30일 독일에서	○ 최순실 비서(안씨)로부터 전화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귀국하기 전 차움에 전화해서 공황장애 진단서를 끊어주라고 한 사실이 없는지	받았고, 최순실의 변호사가 부탁을 한 것임
○ 최순실이 공황장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1월 1일 긴급체포된 이후 한달 가까이 약을 먹지 않고 있음. 왜 거짓으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했는지	○ 공황장애로 진단한 바 없음. 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만 했음
○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진료 장소로 의무실 또는 관저 파우더룸에서 진료했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 그러함
○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상 “청”과 “안가”가 구분되는데, 청은 청와대 의무실, 안가는 관저를 의미하는지	○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음
○ 언론에서는 “청”이 청와대 의무실이라고 하고, 청문회장에서는 자문의 위촉 전 관저에서 진료했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 “청”과 “안가”가 의무실 관저인 줄 알았는데 정확한 기록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음
○ 청와대 의무실에서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당시 의무실장이나 주치의가 배석을 했는지	○ 그러함. 당시 서창석 교수와 이선우 의무실장이 있었음.
○ 서창석 주치의 전에는 의무실장과 주치의 배석 없이 진료를 했는지	○ 그러함. 이병석 주치의 당시에는 오전, 오후 진료가 다 있어서 5시 반이 넘어야 했고 다들 퇴근해서 혼자 진료했음
○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불면증	○ 수면제는 오보였고, 그렇게 말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치료제는 대통령이 드셨다가 머리가 아파서 안드셨다, 대통령이 영양제나 약 같은 것을 잘 못 먹는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인지	바는 없음. 대통령이 수면제를 드시는 것을 본적도, 처방한 적도 없음
○ 불면증이 있는건 알고 있었는지	○ 알고 있었음
○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 같은 수면유도주사제를 처치한 사실이 있는지	○ 전혀 없음
○ 최순실 입국 사실을 사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 입국은 몰랐고, 수행 여비서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 뉴스를 통해 알았음
○ 최순실이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없었음
○ 우병우 수석이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없었음
○ 대통령을 진료만하고 태반주사 등은 간호장교가 처치했는지	○ 태반주사는 직접 놨고, 다른 혈관 주사는 집무 끝난 후에 놓기 때문에 전달만 하고 나옴. 간호장교가 놓았는지는 본적이 없음
○ 보건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차움병원 재직 시절 29회 대리처방 의혹이 있는데 인정하는지	○ 대면진료를 했으므로 대리처방은 인정하지 않고, 허위기재는 인정함
○ 주로 처방한 주사제가 무엇이었는지	○ 항산화제 종류인 글루타치온, 라이넥이라는 태반주사, 고용량의 비타민C, 비타민B, 마늘주사(비타민B1) 등을 처방함
○ 왜 그런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	○ 병에 걸리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는지	전공이라, 노화나 만성피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한 것임
○ 대통령이 피로를 자주 느끼는 체질이었다는 말인지	○ 말할 수 없음
○ 처방한 약품은 중독성이 있는지	○ 전혀 없음. 지용성 비타민B1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성이기 때문임
○ 일반인도 많이 쓰는 약품인지, 히시파겐씨라는 감초주사, 라이넥이라는 태반주사 등이 일반 의원에서 많이 쓰이는지	○ 많이 쓰이지는 않음
○ 녹십자에서 라이넥을 병원에 공급할 때 얼마인지	○ 앰플당 5,500원임
○ 루치온(백옥주사)은 얼마인지	○ 수입제품이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음
○ 주로 쓰는 주사는 무엇인지, 얼마인지	○ 주로 글루타치온을 쓰고, 한 바이알당 3,500원정도임
○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 없음. 오전 11시 48분까지 진료했음
○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최순실 자매가 차움병원에서 총 665회 진료를 받았고, 그 중 402회가 주사처방이었는데 이 중 증인이 진료한 건수는 몇번인지	○ 2014년까지 거의 제가 진료했음
○ 최순실 자매에게 주로 처방한 것은 주로 어떤 처방인지	○ 환자의 비밀유지상 병명은 밝힐 수 없고,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있어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약보다는 주사 처방을 함
○ 최순실이 주사 중독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 향정신성 약물 외에는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그런 말을 사용했다면 경솔했던 것 같음
○ 최순실이 처방받은 주사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는지	○ 향정신성 약물은 주사가 없음
○ 보건복지부 감사자료에 의하면 약물을 보통 처방에 비해 2-3배 많이 처방했는데 사실인지, 왜 그랬는지	○ 그러함. 일주일에 2-3번 주사할 때가 있는데, 올 때마다 진찰료를 내야해서 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한 번 처방하고 주사만 맞게 한 적이 있고, 자기에게 주사를 주면 근처 의원이나 가정간호사에게 맞겠다고 해서 포장해 준 사실이 있음
○ 진료기록부의 차명 기재와 관련, 누구로부터 오더를 받았는지	○ 차움 전 원장인 이정노 원장에게 처음 소개받아 진료를 했고, 차명 기재 부분은 간호부장으로부터 안내 받음
○ 청와대 의무실은 어디에 있는 의무실을 말하는 것인지	○ 관저 들어가기 전 2층에 있는 의무실임
○ 증인이 설명한 의무실은 사실 관저로부터 약 50m 거리인 “의무동”에 해당되는 곳이고, 파우더룸은 의료적 처치와 시술을 할 수 없는 곳임 인정하는지	○ 인정함. 주료 진료만 하고 문진 정도 하고 있음
○ 청와대 춘추관 뒤에 있는 안가에 가보았는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안가에서도 시술을 한 사실이 있는지	○ 파우더룸 같은 곳을 안가라고 알고 있는데..
○ 춘추관 뒤에 있는 안가와 의무동은 다른 것임. 안가를 알고 있는지	○ 안가는 모름. 안가에 가봤다고 진술한 것은 관저인줄 알고 있었기 때문임
○ 진료기록부에 "안가", "청", "VIP" 등의 표시 관련, 안가는 관저를 나타내는 말은 아닌데	○ 제가 잘못알고 있었음.
○ 사진에 신상만 확인했을 뿐 경호실 체크를 받지 않았다는 김영재 증인과 달리, 김상만 증인은 부속실에서 누가 나와서 데리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지	○ 그 전에 신원조회를 거쳤고, 경호실 직원에 의하여 관저 들어가기 전 소지품 등의 체크를 했음.
○ 자문의 추천을 최순실에게 했는지, 누가 했는지	○ 최근까지 이병석 교수님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
○ KBS 부산총국장을 역임한 최석태씨가 최근 언론에 대통령이 부신기능 저하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인지	○ 말할 수 없음
○ 김상만 증인이 대리처방을 통해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고, 국가 2급기밀인 대통령 혈액을 무단 외부 반출한 문제 지적	
○ 혼자 진료했을 때,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신보라 간호장교가 아닌지	○ 신보라 간호장교는 아닌 것 같음
○ 강남보건소 조사 당시 진료차트에 "청" 또는 "안가"라고 기재한	○ 그렇게 쓴 것은 맞는데, 피하주사를 직접 한 것은 맞는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것은 의무실에 약이 구비되지 않아 본인이 최순득 이름으로 처방하고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피하주사를 놓고,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놨다고 써있는데 맞는지	정맥주사를 맞는 것을 보지는 못했음
○ 대리처방 시점은 2013년 3월 25일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총 12번으로, 이 중 10번이 2014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되었는데, 조여옥대위가 청와대 근무한 시점 이전 청와대 관저를 출입한 사람은 신보라와 김상만임. 만약 김상만이 주사를 놓지 않았다면 제3자가 놓았다는 것인지	○ 피하주사는 제가 놓은 것이 사실임
○ 누구의 요청으로 대통령의 혈액을 검사했는지	○ 건강상태를 설명하면서, 검진에서 빠진 항목에 대한 검진을 건의하자 대통령이 동의하여 혈액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임
○ 대통령의 혈액은 누가 채취했는지	○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음
○ 대통령에 대한 주사제가 실제 주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 없음. 다만, 그 주사를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그 분” 손에 직접 쥐어드렸음
○ 주사제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분”이 누구인지	○ 대통령임
○ 전달한 주사제가 어떤 것인지	○ 상황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대부분 백옥주사나 태반주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등이었음
○ 전달한 주사제를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 맞는지	○ 아님
○ 청와대에서 주사제를 놔줄 수 있는 사람은 조여옥 대위나 신보라 대위인지	○ 그렇게 알고 있음
○ 2013년에 이영선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의 혈액을 전달받았는지, 대통령의 혈액인지 확인 했는지	○ 행정관이 전달한 것이니 대통령 혈액일거라고 생각함
○ 대통령에게 미용목적으로 주사를 처방한 사실이 있는지	○ 전혀 없음
○ 대통령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외부에서 가져온 사실이 있는지	○ 초기에는 가져왔고, 서창석 주치의 이후부터 의무실장에게 약의 구입을 자문했음
○ 증인은 의무동과 청와대 관저 및 안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VIP, 청, 안가” 등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지적	○ 저는 관저와 안가를 구분하지 못함
○ 대통령 태반주사 처방시 주치의, 의무실장 외에 배석자 1명이 최순실 아닌지	○ 아님. 최순실은 청와대 안에서 본 적이 없음
○ 김상만 증인의 권유로 2013년 9월 2일 대통령에 대한 혈액검사를 한 증언이 사실인지	○ 그러함
○ 왜 대통령의 호르몬 균형검사가 필요했는지	○ 환자의 비밀유지 하에, 면역기능 관련 지표 몇 개가 이상이 있어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추적검사가 필요했음
○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은 대통령의 호르몬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지	○ 그러함
○ 호르몬 불균형이 부신기능저하증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인지	○ 말씀드리기 곤란함
○ 처방한 주사제가 부신기능저하증을 예방하거나 해당 증상을 호전 시키는데 필요한 약물인지	○ 도움이 됨
○ 부신기능저하증이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한 지표에 이상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도 되는지	○ 그러함
○ 증인이 녹십자로 옮긴 후 최순실, 최순덕, 장시호를 진료한 적이 있는지	○ 있음
○ 왜 녹십자 원장직에서 사임했는지, 의사로는 계속 재직하고 있는지	○ 이번 의혹 제기로 인해 녹십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자진해서 사직함. 녹십자 원장 및 의사직에서 모두 사임함
○ 최순실 입국과정에서 증거인멸하고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과 관련,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공황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 차음병원에 최순실을 진단하거나 진료했던 정신과 선생님에게 갔던 기록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임
○ JTBC 보도와 관련하여 민정수석실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 의무실장과 대통령 건강문제로 통화하다가 제가 보던 의무기록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차트가 JTBC에 누출된 것 같다고 함.
○ 대통령에게 주사를 건네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의 성별이 무엇이었는지, 최순실인지, 조대위인지, 윤전추인지	○ 여자였음. 최순실과 조대위 윤전추 모두 아니었음. 초기 관저에 들어갔을 때 정식으로 소개받지 못하여 누군지 몰랐음

(마) 신보라 증인(前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청와대 근무기간동안 주사를 처치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 사실인지	○ 대통령에게 주사를 처치한 사실이 없음
○ 대통령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는 주사를 처치한 적이 있는지	○ 있음
○ 일반 직원에게 태반주사를 처치한 사실이 있는지	○ 없음
○ 마늘주사와 감초주사를 직원들에게 처치한 사실이 있는지	○ 다른 주사제를 본 적은 없고, 마늘주사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처치한 적이 있음
○ 청와대 직원 중 누구에게 마늘주사를 처치했는지	○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기록을 봐야 알 것 같음
○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주사를 처치한 사실이 있는지	○ 주사처치는 한 사실이 없음
○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다른 처치를 한 사실은 있는지	○ 물리치료는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세월호 참사 당일 가글액을 전달하러 관저에 간 사실이 있는지, 그 시간은	○ 있음. 점심식사 전 오전이었음
○ 조여옥 대위는 관저에 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진술이 엇갈린다는 지적	○ 제가 오전 중에 가글액을 갖다 주기 위하여 관저에 갔다 왔음
○ 세월호 참사 당일 가글액 전달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 대통령은 직접 보지 못했고 부속실 직원에게 전달했음
○ 가글액 말고 다른 것을 가져간 것은 무엇인지	○ 평소에는 안약 종류를 가져간 사실이 있음.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가글액만 전달함
○ 의무동 근무는 24시간 근무인지	○ 24시간 근무는 아님. 보통 8시쯤 출근해서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18시까지 근무함
○ 대통령 진료는 의무동에서 이루어지는지 관저에서도 이루어지는지	○ 제가 참석했던 진료는 의무동이었음. 관저 진료는 한 번 간 적 있음
○ 의무동에는 몇 명이 근무하는지	○ 저와 의무실장이 근무함. 운전병도 한 명 있음
○ 의무동 근무 시 최순실과 차은택을 본 사실이 있는지	○ 전혀 없음
○ 의무동 근무 시 최순실과 차은택에 대한 진료를 한 사실이 있는지	○ 없음
○ 언론에서 “조여옥 대위가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 조여옥 대위가 정맥 주사를 처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세월호 참사 당일 조여옥대위의 근무지는 어디인지	ㅇ 의무실임
ㅇ 세월호 참사 당일 다른 간호장교도 있었는지	ㅇ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의무실에는 간호장교가 두 명 근무하고 있음
ㅇ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진료가 없었는지	ㅇ 제가 알기로는 없음
ㅇ 간호장교가 진료를 하는 경우라면 의무실장의 허락 하에 이루어지는지	ㅇ 그러함. 간호장교의 명령권자는 의무실장이므로, 의무실장 오더 하에서만 처치를 할 수 있음
ㅇ 의무실에 있는 간호장교가 의무동으로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의혹은 가능한 것인지	ㅇ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음
ㅇ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 의료진이 방문해서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ㅇ 제가 아는 한 의무동에 외부 의료진이 오지 않았음
ㅇ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직접 본 사실이 있는지	ㅇ 없음
ㅇ 세월호 참사 당일 가글액을 전달한 이유는 무엇인지	ㅇ 갖다주라는 지시가 있어 전달한 것임
ㅇ 증인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가 맞는지	ㅇ 그러함
ㅇ 증인이 직접 정맥주사를 놓은 적이 없는지	ㅇ 전혀 없음
ㅇ 근무 당시 증인 외에 정맥주사를	ㅇ 당시 의무실 간호장교가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해당 장교의 이름과 연락처가 무엇인지	보통 대통령 처치는 의무동 간호장교가 하고 있고 제가 의무동 간호장교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임. 공개적으로 신상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함
ㅇ다른 간호장교가 정맥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지	ㅇ보통 대통령 처치는 필요시 의무실장의 지시 하에 의무동 간호장교가 하기 때문에 추측상 당시 의무실 간호장교가 굳이 대통령 처치를 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듬
ㅇ대통령의 혈액 채취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간호장교가 했는지	ㅇ안했음. 다른 간호장교가 했는지 여부는 모름
ㅇ가글을 전달한 직원이 윤전추 행정관인지	ㅇ아님. 남자 직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함. 부속실 직원 중 한명이었음
ㅇ가글을 전달한 직원이 정호성이었는지	ㅇ아님
ㅇ대통령이 평소에 가글을 자주 사용했는지, 어떤 시간대에 찾았는지	ㅇ몇 번 찾으셨음. 시간대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ㅇ왜 가글을 가지고 갔는지	ㅇ용도까지는 알지 못함
- 의료용 가글은 주로 필러 시술시 입이 마비되어 양치를 못하면 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심할 부분이라는 지적	
ㅇ신보라 증인과 조여옥 증인 중 누가 더 상관인지	ㅇ제가 더 선배임
ㅇ조여옥 증인이 주사를 잘 놓는지	ㅇ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 주사제를 외부에서 수령하거나, 외부에서 수령한 주사를 놓은 적이 있는지	○ 제가 대통령께 주사 처치한 사실이 없음
○ 대통령에게 가글을 전달한 시점에서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몰랐음. 점심시간에 알았음
○ 조여옥 대위 외에 다른 사람이 주사처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제가 판단하기 어려움
○ 조여옥 대위가 “대통령에게 자기가 주사를 놓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	○ “혈관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있음
○ 의무동에서 대통령에게 주로 어떤 진료를 했는지	○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진료 등을 했음
○ 조여옥 대위가 정맥주사를 대통령에게 놨다는 기사를 본 사실이 있는지	○ 있음
○ “안가”를 아는지	○ 모름
○ 청와대 의무약품 목록에 기재된 “엠라크림”은 어떤 용도인지	○ 피부 국소마취용임

(바) 이임순 증인(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의무실장이나 주치의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의가 단독으로 진료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 배석하여 의논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진료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청와대 의무실장에서 왜 10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는지	○ 의료인등록제 시행이 있었고, 국가공무원법 변경으로 겸임 범위가 확대되어서, 당시 청와대 전임 근무에서 겸임을 요청한 것임
○ 이선우가 의무실장이 되면서 김원호 증인이 아웃되는 것이 아닌지	○ 그렇긴 하지만 의무실장은 줄곧 육군 군의관이 해왔음
○ 대통령의 혈압과 체온을 매일 체크하는지	○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필요에 따라서 했음
○ 보통 몇 시에 대통령의 혈압과 체온 등을 체크했는지	○ 부르실 때 갔음.
○ 체온이나 혈압은 비교를 해야 하므로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그런 측면이 있으나, 혈압이 변화하는 병이 없는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어서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음
○ 2013년 9월, 대통령 혈액 채취 및 반출과 관련해서 알고 있었는지	○ 몰랐음
○ 의무실장 시절, 대통령과 미용주사와 관련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 그렇지 않음. 대통령과 의무실장이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비선진료를 묵인·방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비선진료라는 용어에 동의할 수 없음. 김상만 선생이 다녀갔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이미 자문의로 내정되어 있던 분이라면, 저희와 상의하지 않은 진료이지 비선진료는 아니라고 생각함
ㅇ 이 자리에 신보라 증인은 출석하고 조여옥 증인은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ㅇ 그 이유는 알지 못함
ㅇ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간호장교를 불러 “야매” 시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ㅇ 상상할 수 없음
ㅇ 대통령이 낮잠을 자주 주무시는지	ㅇ 모르겠음
ㅇ 마취주사를 대통령이 자주 맞았는지	ㅇ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음
ㅇ 2015년부터 구입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무엇인지	ㅇ 제가 드린 적은 없음

(사) 김원호 증인(前 대통령경호실 의무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분만을 한 사실이 있는지	ㅇ 있음
ㅇ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를 잘 알고 있는지	ㅇ 환자의 보호자로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정유라의 분만 당시 제주도에 간 사실이 있는지	ㅇ 있음. 어렸을 때 정유라를 치료했기 때문에 분만 과정에서 문제가 될 까봐 걱정이 돼서 제주도에 내려감
ㅇ 최순실 가족과 안지 얼마나 됐는지	ㅇ 약 10년 정도 됐음
ㅇ 우병우 가족과 안지는 얼마나 됐는지	ㅇ 약 25년 정도 됐음
ㅇ 김영재 원장은 잘 아는지	ㅇ 전혀 모름. 오늘 처음 만남
ㅇ 최순실이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른다고 진술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증인 역시 이런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ㅇ 없음
ㅇ 서창석 교수를 대통령 주치의로 추천한 사실이 있는지	ㅇ 없음
ㅇ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이임순 교수가 주치의로 갈 것이라는 소문을 접했는지	ㅇ 처음에 기사로 본 이후 다른 이야기는 없었음
ㅇ 서창석 증인은 이임순 증인이 자신을 주치의로 추천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왜 그런지 모르겠음
ㅇ 정유라가 어린 시절 무슨 치료를 했는지	ㅇ 개인정보보호상 말씀드릴 수 없음
ㅇ 우병우의 아들 분만 과정보다 훨씬 이전에 우병우의 장모와 알고 지냈다는 제보가 있는데	ㅇ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서창석을 알고 있는지	ㅇ 알고 있음
ㅇ 연합뉴스와 인터뷰당시 서창석을 모른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ㅇ 서창석은 잘 알고 지냄
ㅇ 서창석 증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는지	ㅇ 전화를 한 적이 없음
ㅇ 서창석 증인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서창석 증인이 위증하고 있는 것인지	ㅇ 제가 알 수 없음
ㅇ 서창석 증인은 “김영재 원장 부인이 실 문제로 찾아갈 테니 잘 봐달라”는 통화를 2015년 4월에 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ㅇ 그와 관련하여 통화한 사실이 없음
ㅇ 박채윤을 아는지	ㅇ 전혀 모름
ㅇ 정유라 분만 시 정유라가 전화해서 제주도에 간 것인지	ㅇ 직접 전화했음.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에는 이미 출산을 한 상태였음
ㅇ 이임순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지적	
ㅇ 최순실을 처음 만난 것이 언제인지	ㅇ 한 10여년 전 딸을 진료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음
ㅇ 장시호나 정유라에게 안정제 계열인 디아제팜을 처방한 사실이 있는지	ㅇ 정유라에 대해 아는바가 없고, 장시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처방여부 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음. 통상 산부인과 의사도 환자 증세에 따라 간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디아제팜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상태가 안좋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른 과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ㅇ 다이제팜이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지	ㅇ 프로포폴은 마취제이고 디아제팜은 안정제로 알고 있음
ㅇ 장시호가 당시 외래진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사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가능한 일인지	ㅇ 절대로 불가능함
ㅇ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ㅇ 직접 진료한 적은 없음
ㅇ 서창석 교수에게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 실 사업을 도와주라는 소개를 한 사실이 없는지	ㅇ 없음
ㅇ 정유라와 의사-환자 관계 그 이상과 이하도 아닌지	ㅇ 그러함
ㅇ 정유라의 아이 돌잔치에 간 이유는 무엇인지	ㅇ 정유라 아이 출산에 내려간 적이 있어서임
ㅇ 정유라가 독일에 갔을 때 약을 어떻게 먹으라고 편지를 쓴 사실이 있는지	ㅇ 메모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음
ㅇ 박채윤의 전화번호가 본인 핸드폰에 저장되어있는지	ㅇ 아님
ㅇ 오늘 출석한 증인 중 최순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는지	ㅇ 없음

(3) 의료농단 의혹에 관한 사항 - 서창석 증인(前 대통령 주치의, 現 서울대학교병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장이 박근혜 정부 실세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ㅇ 사실이 아님.
ㅇ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장이 최경환 의원과 가까운 친인척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지	ㅇ 친인척은 사실이 아니고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알고 있음
ㅇ 즉 의료농단의 중심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관여되어있다는 지적. 즉, 2013년 이후 최경환 의원이 실세가 되면서, 공교롭게 서울대분당병원 출신 3인방이 나란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 주치의가 되고, 타교 출신인 전상훈이 분당서울대병원장이 됨	
ㅇ 분당 서울대병원 3인방인 정진엽, 서창석, 전상훈이 부상하게 된 배경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지	ㅇ 내용을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 보니 부인과 초등학교 동창임
ㅇ 비선진료를 묵인·방조했다는 지적	ㅇ 제가 아는 한 비선진료는 없었음

(4) 김영재 관련 사업 중동 진출 특혜 등에 관한 사항

(가) 김영재 증인(김영재의원 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영스리프트(youngs lift) 시술을 직접 개발했는지	○ 그러함
○ 영스리프트의 실과 다른 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 7개국 특허를 받고 340개국 특허 출원 중인 실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00억 수출을 했고, 500만불 수출의 탑을 받은 실임
○ 정기양 증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주치의인 내과 선생을 통해 알게 됨
○ 정기양 증인이 영스리프트를 대통령에게 시술하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는지	○ 문자로 보자는 얘기는 들었으나 제안한 사실은 없음
○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관저에 방문하고, 해외순방에 동행했고, 부인이 만든 화장품을 사용하고, 봉합실 사업을 도와주도록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조원동 수석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함
○ 부인은 화장품사업과 봉합실 회사 대표를 하고 있는지	○ 그러함
○ 청와대에 진료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사업에 관련한 소개와 상의를 했는지	○ 대통령이 이미 봉합실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었음. 이병석 원장이 봉합실을 사용하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UAE 한인 의료인과의 대화에 참석 했는지, 부인 박채윤씨는 참석 했는지	○ 참석하지 않음
○ 2015년 3월 중동에 갔는지	○ 갔음
○ 서창석 증인이 먼저 전화해서 좋은 기술을 설명해달라는 전화를 언제 받았는지	○ 2015년 4월
○ 서창석 증인이 전화해서 “금실”에 관심이 있으니 좋은 재료, 좋은 아이디어를 설명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 금실은 아님
○ 정호성 비서관과 만난 바가 없다고 했는데 검찰 자료에 따르면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왜 그런지 잘 모르겠음
○ 와이제이콥스메디컬 해외진출건으로 조원동 경제수석이 경질된 것으로 보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을 특수관계로 인정하고 지원한 것 같다는 지적	
○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서울대 외래교수 위촉,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봉합사 관련 산자부 15억 연구대상 지정, 존제이콥스 화장품 청와대 납품 등 특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지	○ 특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 특혜 지원에 있어 최순실과의 관계가 작용을 했다고 봄	○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일이라 의혹이 많이 제기된 것이라 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조윤선 수석을 잘 아는지	○ TV에서만 봤고 개인적으로는 모름
○ 최순실과 대통령이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몰랐는지	○ 대통령 주치의가 소개를 시켜줘서 예측은 했지만 본인에 대한 신분을 숨겼기 때문에 몰랐음
○ 증인은 최순실과의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생기며, 이 과정에서 15억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	
○ 2014년 6월 이전에 중동 사업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 2014년 4월 서울대에서 중동 보건청 차관급이 와서 기술을 소개한 사실은 있음
○ 2014년 4월은 대원컨설팅과 협의 이후 시점인지	○ 그러함
○ 2014년 2월 이전에는 중동에 나가본 사실이 있는지	○ 없음
○ 대통령과 2015년 3월 중동, 2015년 4월 중남미, 2015년 9월 중국, 2016년 5월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 동행했는지	○ 중동에는 가지 않음
○ 순방에 무슨 자격으로 동행했는지	○ 코트라에 공모해서 동행함
○ 와이제이콥스에 대한 산업부 R&D 예산 지원은 청와대 안종범 수석의 부탁으로 한 것이라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진술함	○ 직원에 따르면 공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화장품 존제이콥스가 청와대 설 선물세트로 선정되고, 신라면세점에 입점된 것은 최순실과의 커넥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 우수업체로 뽑혀서 선물로 선정되었고, 처남이 하는 화장품 회사는 2004년부터 신세계와 , 함께 행사를 해서 선정이 되고 면세점은 정식 계약이 아닌 임시 6개월 매장임
○ 산자부로부터 용역을 받을 때 기술 개발해서 만들려고 했던 봉합실은 이미 2012년에 특허를 받은 실과 동일함	○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음
○ 중동에서 대통령 행사 당시 가족이 동행하였는지	○ 그러함
○ 영스리프트 임상허가를 언제 받았는지	○ 2014년 9월 23일 무렵 허가받음
○ 영스리프트 임상시험 당시 정기양 교수가 참여했는지,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	○ 임상시험에 참가함. 주치의와 함께 만나 상의함
○ 영스리프트를 최순실에게 시술한 사실이 있는지, 언제 시술했는지	○ 허가받은 이후 사용함. 2014년 9월 23일 정도인 것 같음
○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전화가 왔다고 했는데 정호성 비서관인지, 어떻게 아는지	○ 전화는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데리러 온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이 아니었음
○ 조원동 경제수석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해외 진출을 돕는데 실패해서 경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본인이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 신문에서 들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안종범 수석이 김영재 원장을 많이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지	○ 전화 및 직접 만나서 중동진출 관련한 이야기를 했음
○ 경쟁 의료기기업체등이 국세청 세무조사, 특허권 침해, 탈세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 처음 듣는 이야기임. 이현주씨가 홈페이지에 권력적인 이야기를 올려놓음
○ 산자부 용역 총괄 책임자가 김영재 증인이고, 주관기관이 박채윤으로 되어있어 국가보조금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지적	

(나) 서창석 증인(前 대통령주치의, 現 서울대학교병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영재와 박채윤 부부를 이임순 교수 소개로 알게 됐는지	○ 그러함
○ 이임순 교수는 서창석 증인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지적	
○ 26일 기자회견 당시 “박채윤이 찾아와서 금실 관련 중동 진출을 문의하자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켜준 것이 전부다”라고 밝혔는데 맞는지	○ (성형외과는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병원의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시켜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와이제이콥스가 조원동 경제수석을 앞세워 서울대병원을 통해 중동 진출을 시도하자, 증인은 방영주 서울대 부원장에게 소개시켜준 것이 사실인지	○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성형외과 교수를 통하여 이야기함
○ 2015년 8월 11일 인사동 송암 한식당에서 누구와 만찬을 하였는지	○ 당시 오병희 병원장의 요청으로 제가 중간 교수를 통해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연락을 해서 안종범 수석비서관과 만찬을 했음
○ 오병희 병원장과 안종범 경제수석,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을 대동하여 박채윤과 박휘준(박채윤의 동생)을 만난 것이 사실인지	○ 사실임
○ 금실을 성형외과에 소개시켜줬을 뿐이라고 했는데, 8월 11일에 안종범 수석을 대동하여 박채윤을 만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 당시 오병희 원장이 요청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연락을 한 것임
○ 안종범 수석이 서창석 증인과 같이 가자고 한 것인지, 서창석 증인이 안종범 수석을 모시고 간 것인지	○ 둘 다 아님
○ 오병희 병원장이 증인에게 안종범 경제수석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소개시켜 준 것인지	○ 그러함
○ 박채윤이 청와대의 의중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안종범 수석을 데리고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닌지	○ 당시에 관심이 없어서 단순히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선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서창석 증인이 대통령 주치의 시절 안종범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을 대동하고 박채윤에게 중동 성형클리닉센터 추진 관련 특혜를 주도록 오병희 병원장에게 저녁 자리를 주선하고, 실제 3일 만에 서울대병원과 와이제이콥스가 중동 진출을 도모하고 공모하였으나 방영주 부원장의 거부로 무산이 됨. 이후 오병희 병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임에 실패하고, 조원동 경제수석도 경질되었으며, 서창석 주치의가 서울대병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	○ 당시 대통령 주치의인 것은 사실이나, 병원장의 지시를 받는 서울대학교 교수이기도 한데, 병원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음. 제가 소개를 시켜준 것이 아니라 오병희 병원장이 요청한 것임
○ 2015년 3월 대통령 중동방문 당시 박채윤, 김영재, 서창석이 모두 UAE에 동행을 했는데도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 동선이 달랐음
○ 금실에 관심이 없다고 진술했는데도, 김영재 원장에게 좋은 기술을 설명해달라고 하고, 오병희 병원장이 박채윤 사업이 청와대 뜻임을 확인하고자 안종범, 김진수, 박채윤, 박휘준과의 만찬자리에 동석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지	○ 2015년 4월, 이임순 교수로부터 박채윤이 찾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만찬자리에는 상사인 병원장이 함께 가자고 해서 간 것일 뿐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오병희 병원장은 서창석 증인이 안종범 수석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병희 병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고, 당시 안종범 수석과 박채윤, 서창석이 가까운 사이로 보였다고 증언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오병희 병원장이 잘못 말한 것이라고 생각함
ㅇ 기능성 봉합사 개발연구용역에 서창석 증인은 분당병원 측근과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는데도 금실에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ㅇ 그 실은 성형 실이 아니고 복강경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실임
ㅇ 이임순 교수는 증인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임순 교수로부터 실 관련해서 박채윤 대표가 갈 테니 잘 듣고 조치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내용이 엇갈린다는 지적	ㅇ 2015년 4월 분명히 박채윤대표가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음
ㅇ 기능성 봉합사 제품이 복강경 수술 관련된 것으로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와이제이콥스메디칼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왜 상관없는 프로젝트라고 이야기 했는지	ㅇ 관련된 것이 맞음.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음
ㅇ 왜 박채윤과 관련 있는 사업에 관심 없는 증인의 측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왜 관심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하는지 지적	ㅇ 원래 교수는 R&D에 관심이 많고, 이미 연세대에서 그 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으므로 바늘이 다르면 복강경용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영재 봉합사 관련, 박채윤이 대통령 주치의인 것을 알고 왔다면서 서울대병원의 성형외과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에 소개해준 사실이 있는지	○ 그러함
○ 병원장 취임 이후 2월, 봉합사 실 등록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권한남용이 아닌지	○ 요청한 사실이 있음. 행정절차상 등록재료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것임. 권한남용은 인정하지 않음
○ 김영재와 공동으로 산자부 연구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 인정함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증인이 정부와 병원으로부터 수주한 10건의 연구과제 모두 전공과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지적	○ 전공과 관련 있음. 자궁근종수술과 관련 있음
○ 서창석 증인이 26일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이임순 교수와 통화 시 이임순 교수가 서창석 원장에게 박채윤을 모른다고 답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이 사실인지,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 사실임. 두 번 통화 중,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두 번째는 박채윤과 김영재를 전혀 모른다고 말해달라고 이야기함
○ 김영재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박채윤을 만난 지 2-3달 후에 본 것으로 기억함. 당시 실 관련 프로젝트를 이끌던 방 교수의 소개로 알게 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오병희의 진술에 따르면 “서창석 증인이 윗선의 뜻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임	○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름.
○ 성형외과 김석화 교수에게 금실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고, 방영주 교수한테 보고된 부분은 알고 있지 않았는지	○ 당일 날은 몰랐음.
○ 안종범 경제수석과 김진수 복지비서관이 만찬자리에 오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 방영주 교수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오병희 원장이 방 교수를 통해 안종범 수석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보건복지비서관을 통해 안수석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오게 된 것임
○ 실 관련해서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 박채윤 대표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음
○ 처음 인터뷰할 당시 박채윤이 산부인과 과장실로 찾아와서 알게 되었고 누구에게 소개받은 일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왜 이임순 교수의 소개였다고 진술을 바꿨는지	○ 잘 생각해보니 이임순 소개였던 것 같아 확인한 것임
○ 산자부 용역 관련해서 공동연구자인데, 이미 특허 받은 사안임을 검토도 안했는지	○ 확인하지 못했음

(다) 이병석 증인(前 대통령주치의, 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에서 서창석과 이임순 증인과 잘 알고 지냈는지, 막역한 사이인지	○ 그러함
○ 서창석 증인과 이임순 증인과 막역한 사이라면, 박채윤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지	○ 두 사람 모두 제 동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라) 이임순 증인(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서창석 증인은 이임순 증인이 자신을 주치의로 추천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왜 그런지 모르겠음
○ 서창석 증인은 "김영재 원장 부인이 실 문제로 찾아갈 테니 잘 봐달라"는 통화를 2015년 4월에 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 그와 관련하여 통화한 사실이 없음
○ 서창석 교수에게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실 사업을 도와주라는 소개를 한 사실이 없는지	○ 없음
○ 박채윤을 아는지	○ 전혀 모름

(마) 정기택 증인(前 보건산업진흥원장, 現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보건산업진흥원은 국고로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 그러함
○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재직 당시 김영재 아내 박채윤의 회사를 중동에 진출시키도록 압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직접 들은 바는 없으나, 압박에 대한 인식은 했음
○ 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 바이어 면담 및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한 회사에 대해 평가기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함
○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박채윤의 회사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지	○ 그러함
○ 박채윤의 회사는 매출액이 미미하고 손실이 매우 큰 회사로, 국가예산으로 추천하고 지원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은 부당함. 또한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특혜이며, 무리한 지원을 종용하고 이를 거절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인사보복을 했다는 지적	
○ 증인은 2015년 중동 순방 멤버로 정해졌다가 마지막으로 배제된 사실이 있는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중동 순방 멤버에서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들었는지	○ 청와대 지시라고 들었음
○ 증인이 배제되었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의 실무담당자, 중동센터장은 중동순방에 동행 했으나, 현장에서 부당한 압력에 시달린 나머지 이메일로 사표를 낸 사실이 있는지	○ 있음
○ 보건산업진흥원에게 예산을 출연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한직으로 좌천되고, 중동순방 이후 보건산업진흥원이 5개월에 거쳐 대규모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그러함
○ 증인에게 사퇴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 권고사직을 받음. 복지부 인사담당자가 청와대 뜻이니 거취를 정리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음
○ 소회를 말해줄 수 있는지	○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아쉽지만 최선을 다해 후회는 없음. 다만, 16개월간 아부다비 보건청장과 신뢰를 쌓아 우리 대사가 체결한 계약을 마무리짓지 못한 점이 아쉬움

(바) 이현주 증인(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해외진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사실인지	○ 2014년 2월 26일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받고, 다음날 김영재 원장 측과 1시간 정도 미팅을 했는데, 영문 준비자료나 자체적으로 영어 해외홍보가 가능한 직원이 있는지 문의했을 때 없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해외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를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보고 했음
○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 김영재 병원에 한번 가보고, 중동에서 이쪽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일지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음
○ 청와대와의 통화 이후 어떻게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 청와대 조원동 수석의 연락을 받고 왔다는 인사를 했는데, 김영재의원은 조원동 수석을 잘 모르는 듯했음. 미팅에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는 했지만, 실제 영어 브로슈어 등 비즈니스를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음
○ 조원동 수석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했는지	○ 이후에 들었는데, 조원동 수석은 정호성 비서관에 김영재의원의 중동진출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아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영재 본인 또는 김영재의 부인 또는 처남이 정호성 비서관과 긴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거나, 혹은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대통령 또는 최순실과 긴밀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정호성을 통해 조원동 수석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 그러함
○ 김영재의원 측의 준비 부족으로 중동진출을 위한 컨설팅이 성공하지 못했는지	○ 그러함
○ 이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했는지	○ 2014년 9월, 10월에 국정원에서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시기에 조원동 수석도 국정원의 사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국정원 사찰 관련, 국정원 직원 4명이 동시에 사찰을 하여 1명은 기재부에 있는 증인의 동생인 서기관을, 1명은 쿠웨이트 대사관을 상대로, 또 1명은 우리투자증권에 찾아와서 사찰을 한 것이 맞는지	○ 그러함
○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 2015년 4월부터 시작됐고, 세무조사가 있기 한 달 전, 2015년 3월에 안종범 수석이 저와 조원동 수석은 VIP의 중동사업을 망치는 나쁜 사람이라고 모함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후 4월부터 저희 가족은 저와 아버지, 할아버지 사업체까지 3대에 걸쳐 압수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4월에 시작한 세무조사가 10월까지 진행됐으나 추징금은 0원이었음
○ 중동진출 관련 모함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음
○ 관계자가 강남센터에 근무하는 병원관계자였는지	○ 그러함
○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누구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 한 사람은 안종범 수석, 다른 한 사람은 조윤선 수석이라고 들었음
○ 조윤선 수석이 왜 서울대병원 관계자에게 모함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 들은 바에 의하면 조윤선 수석이 VIP 강남센터 검진 때 동행을 했고, 당시 이현주와 조원동이 VIP 중동사업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자 VIP가 대노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음
○ 카자흐스탄 문화원장을 하는 증인의 동생도 갑자기 한국으로 소환명령을 받았는지	○ 그러함. 감사원 감사 결과 회계 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강압적인 감사를 하고 협박성 감사를 받고 외교부에서 본국 소환조치를 했다고 함
○ 컨설팅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없음
○ 세무조사, 인사조치, 국정원 직원에 의한 탐문이 집요하게 반복된 것인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의 송영길 인천시장 집무실 변기 교체 등은 편집증적이고 독특한 행태라고 보이는데 이와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많은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민간인에게 무차별적 보복을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3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김영재 중동진출 실패가 VIP 중동사업 방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없음
○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대통령의 개인일정에 수행한 사실이 없고, 김영재의원의 중동사업 관련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증인의 기억이 사실인지	○ 2015년 3월 강남검진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있고, 거기서 조원동수석과 이현주가 VIP의 중동사업을 망치는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임
○ 김영재 증인의 경쟁업체들이 탈세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 없음

(사) 오병희 증인(前 서울대학교병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서창석 증인은 “오병희 병원장의 요구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사항에 대해 안종범 수석 등과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 하실 말씀이 있는지	○ 이 건을 관장하는 연구부원장 방영주 교수가 ‘연구 개발 가능성이 있고 중동진출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고 했고, 서창석 주치의는 ‘청와대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진행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병원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창석 주치의에게 모임을 주선하여 의견을 확인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 있음
○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달을 받아 실제 내용과 다르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지	○ 주로 총괄했던 분은 연구부원장인 방영주교수이고,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와이제이콥스가 중동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말은 들은 바 있음
○ 중동진출 무산 이후 오병희원장이 연임에 실패했는데 보복성 인사라는 느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음
○ 오병희 병원장이 연임된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서창석 주치의가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온 것이 이상하여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 주치의가 병원장으로 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음
○ 2015년 8월에 마련된 한정식집 만찬 자리에 방영주교수, 서창석 원장, 박채윤, 박휘준, 안종범 경제수석, 김진수 복지비서관이 있었는지	○ 그러함

(아) 정기양 증인(前 대통령자문의, 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2013년 11월부터 4월까지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성형용 실 임상시험의 임상시험책임자로 참가하였는지	ㅇ 그러함
ㅇ 와이제이콥스가 유일하게 임상시험을 거쳐 판매한 제품이 정기양 증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제품임	ㅇ 그러함
ㅇ 왜 와이제이콥스의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ㅇ 김영재 원장의 주치의를 통해 김영재 원장을 소개받았기 때문임
ㅇ 세월호 사고 당일 지방에 있었는데 다른 의사가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시술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는 되었는지	ㅇ 제 기억에는 없음. 언론에 보도된 것은 봤음
ㅇ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영스리프트(youngs lift) 시술을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	ㅇ 없음
ㅇ 제이플러스라는 화장품을 아는지	ㅇ 알고 있음
ㅇ 제이플러스 화장품이 면세점에 입점한 사실은 아는지	ㅇ 모름
ㅇ 제이플러스 화장품의 면세점 입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음	ㅇ 전혀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에게 제이플러스 화장품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 없음
○ 대통령이 제이플러스 화장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인지	○ 김영재 원장이 선물로 주셔서 제가 주치의로 있을 때 대통령에게 한 번 전달해 드린 적은 있음. 그러나 전혀 설명 드리거나 한 바는 없음
○ 청와대가 제이플러스 화장품을 설 선물세트로 돌린 사실은 알고 있는지	○ 전혀 모름

(5) 차병원 특혜 의혹에 관한 사항

(가) 차광렬 증인(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김상만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진료기록에 차명 기록한 이유를 병원 측 오더라고 하는데, 누가 오더를 내렸는지	ㅇ모르는 사항임
ㅇ국정농단의 중심에는 차병원이 있다는 지적 - 권력과 결탁하여 온갖 혜택을 받았고, 대통령을 앞세워 마케팅을 했으며, 줄기세포 관련 규제를 풀면서 본인 사업에 연결하려고 했다는 지적	
ㅇ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차움병원이 문전성시라는데 어떠한지	ㅇ매출이 20% 줄었음
ㅇ차움병원에서 의료보험이 되는 서비스, 예를 들어 감기 환자도 방문하는지	ㅇ감기 환자도 방문하고, 저희 매출의 95%가 일반 환자에게서 발생함
ㅇ차움병원 멤버가 아니라도 갈 수 있는 것인지	ㅇ물론임
ㅇ줄기세포에 필요한 비동결 난자 사용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줄기세포 주사나 화장품 등으로 영리사업을 하려는 프로젝트일 것이라는 의혹 제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차움병원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회원권은 얼마인지	ㅇ그러함. 여러 종류가 있음 (1억 5천만원, 1억 7천만원 등)
ㅇ최순실이 차움병원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지	ㅇ아님
ㅇ박근혜대통령은 회원권을 갖고 있는지	ㅇ아님
ㅇ최순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ㅇ잘 모름.
ㅇ최순실이 최근까지 청담동 피엔폴루스에 입주했던 것이 맞는지	ㅇ신문으로 봤음
ㅇ증인의 부인이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사는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는지	ㅇ이번에 알았음. 외국에 절반 이상 나가있고,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몰랐음
ㅇ최순실이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차움병원에 507회 방문, 293회 처방을 받고, 최순득은 158회 방문, 109회 주사제 처방을 받았는데, 회원보다 더 자주 온 것인데 왜 비회원을 유지했다고 생각하는지, VIP대우를 해주니 자주 온 것이 아닌지	ㅇ모르겠음
ㅇ회원과 비회원의 금액 차이는	ㅇ비회원은 일반 환자로 병원과 동일함
ㅇ올해 초 차병원그룹 계열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문체부 등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ㅇ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업무보고를 한 이유는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임. 장소만 빌려준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확대를 내용으로 한 업무계획을 밝힘. 이는 차병원이 최근 언론에 밝힌 의료관광수입 확대를 위한 카자흐스탄, 몽골 등 원격진료진출사업과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2016년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

(1) 청와대 비선실세 및 정윤회 문건 관련 사항

(가) 조한규 증인(전 세계일보 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세계일보에서 2년 전 청와대의 비선실세 의혹 관련 보도를 했었고, 최근 들어 다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는데, 관련하여 간단한 소회 질의	○ 2년 전 저희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에 3인방을 비롯해서 비선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 국가기강을 바로잡았다면 오늘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통탄스러움.
○ 2014년 11월 24일경에 세계일보에서 청와대의 정윤회 감찰이 돌연 중단되었다는 의혹을 보도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청와대에서는 '단순한 지라시에 불과하다'라는 반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 개입은 사실이다. 청와대의 공식 문건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 맞는지 질의	○ 맞음.
○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해서 최경락·한일 경위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이후 최경락 경위가 영장이 기각된 후 사망하게 되었는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1월 26일 이후로 세계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언론 보도를 좀 자제해 달라든지 그런 회유·압력 등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 있었음. 28일 날 보도가 나간 직후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바로 그날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 황정미 편집국장, 한용걸 사회부장, 김준모·조현일·박현준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함.
○ 김영한 민정수석의 11월 26일자 비망록에 '박관천에 대해 회유하라'고 나와 있는지?	○ 그러함.
○ 김영한 민정수석의 11월 26일자 비망록에 '세계일보에 대해서 세무조사 중' 그리고 '적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자' '세계일보에 대한 공격방안을 만들어라'라고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지?	○ 맞음.
○ 김영한 민정수석의 12월 1일자 회의 비망록에 '비선실세 보도도 그 자체가 문제다. 외부유출 혼란, 갈등 그리고 국기문란행위이고 공직기강 문란 적폐 중 하나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는지?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영한 민정수석의 2015년 1월경 비망록에는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현재 사장 지지세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증인은 언제쯤 해임되었는지?	○ 2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됨.
○ 증인이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해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때는 청와대 요구가 없었음. 처음부터 저를 해임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됨.
○ 증인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관련 특급정보가 8개 있다. 이 중에는 헌정질서를 뒤흔들 만한 사안도 있다. 이 부분은 사장, 편집국장, 소수 기자들만 갖고 있고 정윤회 문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 것처럼,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 맞다고 생각하며, 공개하겠음.
○ 임시주주총회에서 증인에 대한 공식 해임사유를 뭐라고 밝혔는지?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사내이사 조한규가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사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뜻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도 인지할 수 있는 여러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 우선 고소·고발이 있었음.
○ 하와이에 체류 중인 한학자 총재에게 듣기로는, '조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 라는 압력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압력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질의	○ 한학자 총재와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 31일 오후 5시에 인천공항의 스위스 그랜드힐튼호텔 커피숍에서 저를 만나자고 했고, 만나서 '청와대에서 그런 전화가 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통보하고 '앞으로 해임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들은 바 있음. 이 사실은 저만 들은 게 아니고 현재 워싱턴 특파원 박종현 차장, 전임 지회장이었던 신진호 차장이 김만호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함. 김만호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려줬고, 그래서 세계일보 지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한학자 총재한테 탄원서를 제출했음.
○ 해임 통보를 받은 게 언제인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 1월 말이고, 통일교 총재인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음.
○ 사장 자리는 누가 어떤 절차로 임명하는지?	○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권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이 이야기하는 17개 파일 중 남아 있는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날 파일이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8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말해 줄 수 없는지?	○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임.
○ 청와대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닌지?	○ 그러함.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명백한 국헌문란임.
○ 사법부 사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 줄 것을 요청	○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건의 문건이 사찰문건이 된 것임. 이것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이며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영한 비망록 보면 11월 25일에 세계일보 정정보도 청구 검토하고 11월 26일 날 세무조사 얘기가 나옴. 11월 28일 날 세계일보 공격방안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6명 고발하는 게 나옴. 12월 1일 날 세계일보사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고, 12월 9일 날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밝혀 주는 방안이 좋다 이런 게 나오고, 12월 10일 날 세계일보 보도 파문이 고비를 지나고 있다고 나오고, 12월 31일 날 조응천 영장 기각되고, 1월 2일 날 세계일보 사장 교체 얘기가 나오는데, 비망록대로 됐다고 생각하는지 질의	○ 그렇게 생각함.
○ 세계일보에서 8개월 동안 박관천 경정하고 500회를 통화하고 또 강남에 십상시들이 모였다는 일식당이나 중식당을 확인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 맞음.
○ 조응천 비서관이 '그 문건이 한 60% 이상이 사실'이라고 그랬음. 그런데 최순실하고 정윤회가 비선실세로 드러난 지금, 그 문건이 몇 %의 진실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90% 이상이라고 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 문건에 보면 최순실 내용이 정윤회 문건에 들어가 있음. '3번, 시중 여론에는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이러면서 나오고, 그런데 이 모든 문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보고되고 비서실장한테도 보고가 됐음을 지적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음.
○김기춘 실장이 지난번에 우리 청문회에 나오셔 가지고 '정윤회,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증한 것이라고 봄.
○'정윤회가 누구야?' 그렇게 자기가 물었지 정윤회, 최순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증했다고 보는지?	○100% 위증임.
○조한규 증인이 기고한 내용을 보면 문건 파동의 원인 제공자였던 정윤회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오는 내용인지?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저도 정치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문건 파동이 났을 때 저도 많은 내용을 취재했었음. 모 취재원으로부터 2014년 1월달에, 1월 6일 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3월에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 가지고 한 사람이 떨려나가니까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것인지?	○ 그런 셈임.
○ 최순실이 비선실세로서 모든 전권을 휘두르게 된 것인지?	○ 그렇게 봄.
○ 정윤회 문건의 입수경위에 대해서 세계일보나 이런 데서 안 밝히고 있는데, 아직도 밝히지 못하는지?	○ 제가 입수한 건 아니고 조현일 기자가 2014년 3월 경찰 측으로부터 입수한 것은 맞음. 그러나 저희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입수경위를 저도 알 수는 없음.
○ 지난 10월 말인가 최순실이 독일에 있을 때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독점 인터뷰를 했는데, 세계일보와 최순실 간에 어떤 특수한 커넥션이 있는 것인지?	○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음. 제가 재직할 당시에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해서 세계일보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최순실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음.
○ 조현일 기자가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문건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 사실임. 2014년 3월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문건 유출 경로에 보면 그때 검찰의 수사 결과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한일 경위가 박관천 증인이 갖고 나온 문건을 복사하고 그 문건을 최경락 경위한테 넘기고 그것이 조현일 기자한테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저희 쪽에서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음.
○ 한용걸 당시 논설위원이 마찬가지로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한일 경위가 복사를 해서 최경락 경위한테 넘겨준 그런 내용들은 허위진술이었다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옴. 그러면 경찰청 관계자 같으면 적어도 최경락 경위는 아니다 이 말인지?	○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음. 왜냐하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것 물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임.
○ 검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게 된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	○ 제가 그때 기자들과 한용걸 사회부장, 황정미 편집국장한테 들은 이야기는 '최경락 경위가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게 죽었다. 자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본 것임.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최경락 경위에 대한 명예는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박관천 경정과 한일 경위도 복직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 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아직까지 미공개 된 8건의 문건을 갖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맞다면 그 8건의 문건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질의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건임. 1건은 제출하겠음.
○ 부장판사급 이상 사찰 내용인지 질의	○ 그러함. 양승태 대법원장과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은 제출하겠음.
○ 그 문건들은 모두 14년 3월 이전에 전부 작성이 된 것인지?	○ 그러함.
○ 그런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지금은 의원님입니다마는—그때 그분이, 그 야당 의원분이 지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작성된 것인지 질의	○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을 했지만 수집한 문건일 수도 있음.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는 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파견 직원이 있기 때문임.
○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고 바로 이재만 등 8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함. 12월 3일에는 정윤회도 고소를 함. 이후 2015년 1월 5일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박관천 등을 기소하게 됨. 최순실이 이 수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이런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증인의 의견은 어떠한지?	○ 검찰 수사결과를 저희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금 정윤회 문건은 문건 작성자가 '공직기강비서관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문건의 작성자는 혹시 누구로 되어 있는지?	○ 공직비서관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괄해서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사법부 사찰 이외에 다른 것 하나 정도 더 소개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는지 질의	○ 박지만 회장의 가족에 관한 비리 사실이랄지 이런 내용이 몇 건 있고, 그 밖에 대기업의 비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스포츠·미르 재단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제가 판단할 때 '아, 대기업 비리들을 저렇게 청와대가 입수한 것은, 이때 활용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음.
○ 박지만 가족 비위사실이라는 것이 박지만의 처, 서향희 변호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제보된 것이 맞는지?	○ 그러함.
○ 당시 갖고 있던 문건 중에 국정원 고 국장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 그 부분은 좀 기억나지 않음.
○ 이 건과 관련해서 남재준 국정원장도 사표를 냈고, 그 이후에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사표 냈다 이런 말은 들어 보셨는지?	○ 오늘 아침 세계일보에 보도가 되었음. 오늘 아침에 보고 알았음.
○ 증인이 나누어준 호소문의 4페이지를 보면 '이 여파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2015년 1월 21일 통일교 계열의 청심, 진흥레저파인리즈 등에 세무조사 착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 사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5년 1월 달에 통일교 계열의 두 회사에 대해서 시작되었던 세무조사는 이와 같은 언론에 대한 탄압 차원에서 시작된 부당한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 동의함.
○ 2014년 11월 24일 세계일보는 정윤회 문건 11월 28일 자 보도 이전에 맛보기로 11월 24일 날 '정윤회가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된 수억의 수수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맞는지?	○ 맞음.
○ 정윤회 문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전인 11월 24일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하에 김영한 고 민정수석 이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함. 이는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기 전임에도 정윤회 문건의 존재를 청와대에서 알고 있었다는 지적	○ 그러함.
○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 국기문란 행위이며, 삼권분립 침해 및 헌정질서 유린 행위라고 보는지?	○ 그러함.
○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문건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맞는지?	○ 맞음. 가지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최성준 관련 문건은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별개의 문건인지, 그 내용 중에는 관용차의 사적 이용 내용과 이외수 작가 내용도 들어있는지?	ㅇ그러함. 맞음.
ㅇ두 문건이 왜 사찰문건이라고 판단하는지?	ㅇ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한 것은 상시적으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 때문임.
ㅇ두 문건이 생산된 시점은 언제인지?	ㅇ2014년 1월 6일 날 같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음.
ㅇ전체적으로 100여 건의 문건이 BH에서 청와대 문건이 송두리째 유출됐는데, 세계일보에 네 차례에 걸쳐서 유출됐는지?	ㅇ맞음.
ㅇ1년 동안 내내 유출이 되는동안 청와대에서 방치 했는지?	ㅇ그러함.
ㅇ대법원장 사찰 문건하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을 보셨고 제출하셨다는 것인지?	ㅇ제출할 예정임.
ㅇ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과 동일인인지?	ㅇ동일인임.
ㅇ최성준 위원장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서 인사운동을 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ㅇ그러함.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문건 보시면 아실 수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법관 승진을 위한 인사운동 그다음에 관용차의 사적 이용 그다음에 이외수 작가와 어딘가를 같이 다녔다 이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	○ 그게 주된 내용임.
○ 이 문건은 지금 어디서 작성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지?	○ 대외비라고 되어 있고, 제가 정부문서 작성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보시면 어디서 작성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임.
○ 최소한 민정에서 직접 작성했을 수도 있고 또는 국정원이나 경찰 등등 어디선가 작성을 해서 민정에서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뜻인지?	○ 그때 민정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께 보고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고 생각하는지?	○ 필요시 사법부를 컨트롤 하기 위해서라고 봄.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가 2개월 정직을 당하고 등등 일련의 사태가 다 이런 내용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임. 평상시에 모든 부장판사급 이상 또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한 때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다고 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윤회 씨가 지금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서 수억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 그 내용은 사실은 제가 문건을 가장 센 것을 가져와라, 하나만 가져와라 해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한 문건을 제가 직접 봤고.. 다른 문건들은 구두로 보고 받았음.
○ 금액이 7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지?	○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움.
○ 어느 급 공직자인지, 장관급 공직자인지 어떤 레벨의 공직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공직자가 있다고 봄.
○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는지?	○ 그렇게 전해 들었음.
○ 어느 부총리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 현직에 계시는 분이라 말하기 곤란함.
○ 증인이 말한 부총리급이라는 것은 황찬현 감사원장이 아닌 것은 맞는지?	○ 전혀 아님.
○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에 입수된 문건의 일부 내용 중에서 부총리급 공직자 임명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7억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런 문건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제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요청	○ 저는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았음. 11월 28일 자 보도할 당시에 정윤회 씨가 국정 개입을 하고 공직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은 보도가 되었음. 그 당시 제가 기자들과 함께 취재를 했을 때 말하자면 부총리급 인사를 정윤회 씨가 추천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취재를 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본인의 해임이 2014년 11월 28일 보도에 따라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나 통일교재단의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받아서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 그러함.
○ 12월 9일 자 세계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면, 탄핵소추안 및 국정조사 쟁점에 대한 본지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조한규 전 사장의 해임은 정윤회 문건보도 시점 이전에 실시한 세계일보의 감사에 따라 가지고 세계일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적법하게 해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계일보의 입장하고 조한규 증인의 입장하고는 명백하게 다른 것 아닌지?	○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조한규가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에 해임한다라고 적시해야 한다고 봄. 그리고 3월 2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음.
○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과 관련하여 특정 기관에서 사찰을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다는 말씀이신지?	○ 그러함.
○ 국정원 없이는 사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	○ 동의함.
○ 권력자 서열(1. 최순실, 2. 정윤회, 3. 박근혜)을 언급하고 있는 정윤회 문건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되었는데, 만약 본인이 비서실장이라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보는지?	○ 100% 기억한다고 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문회에 나와 정윤회 문건을 보고받은 뒤에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다는 지적	○ 저도 그 증언을 방송으로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음.
○ 2014년 11월 28일 그 이전에 정윤회 문건 본 것 또 정윤회 국정농단에 관해서 취재하며 들은 것들, 이 보도 이전에 들었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 청와대 행정관들이 비리가 있어 가지고 원대 복귀를 했는데, 거의 다 원대 복귀해 가지고 말하자면 징계를 받지 않았음.
○ 특조에 제출한 서류 국정원에서 만든 것 맞는지?	○ 문서 형식이나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어 국정원 문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 박범계 위원께서 국정원 문서라고 하셔서 그때 처음 들음.
○ 사실이라면 국정원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 헌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나) 김환균 참고인(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세계일보 외에 청와대와 최순실 일가가 언론에 개입한 사례나 정황이 대단히 많고 광범위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줄 것을 요청	○ 최순실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모 방송사에 전화해서 '그 국장 잘라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음. 저희 언론노조가 공영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청와대가 개입을 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김영한 비망록을 분석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기춘 비서실장의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쫙 퍼져 있는지 질의	○ 그러함.
○ 언론노조가 11월 21일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개입한, 비망록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비서관,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을 언론 통제,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고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 2014년 KBS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KBS를 감시, '사찰' 이라는 기록을 해 옴. 그러다가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조대현 사장이 선임되자 우파 이사들의 성향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기록돼 있음. 그다음에 결국 이길영 사장을 사퇴시킴. 거기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동원됨.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한 것임.
○ 2015년 12월 고대영 사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음.
○ 지난 11월 7일 MBC 보도국 게시판에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의 퇴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알고 있는지?	○ 그 이후에도 여러 건이 올라왔고, 지금까지 한 30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촛불광장에서 MBC는 쫓겨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MBC가 이렇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 청와대가 임명한 사장, 경영진들이 언론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언론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 기자·PD들을 전부 다 내쫓았음. 그리고 정부 비판 기자들을 전부 다 막았고, 그런 것이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졌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근혜정부의 다른 언론 장악·탄압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 비망록에 나오는 이야기로, 세계일보뿐만 아니라 시사저널, 일요신문 본때 보여야 된다,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음.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함. 최근 들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방송하기 직전 허원제 정무수석이 SBS에 집요하게 접촉하려 했는데, SBS에서는 그것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막으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음.
○ MBC의 모 계열사 사장이 정윤회 씨와 자주 골프장에 가고, 특히 평창 가까이에 있는 웰리힐리 골프장인가 거기를 자주 들락날락거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왔는데,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윤회와 함께 자주 다녔다는 그 계열사 사장이 안광한 사장이나 아니면 여기에 등장하는 장근수 본부장을 통해서 아들을 출연시켜 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저도 그렇게 생각함.

(2) 특별감찰관 관련 사항

(가) 이석수 증인(전 특별감찰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특별감찰관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질의	○ 대통령의 사촌 이내의 친족하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서실 비서관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했음.
○ 올해 4~5월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내사를 했다고 하는데, 내사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질의	○ 금년 한 4~5월경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첩보 보고가 있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바가 있음.
○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내사과정에서 해명된 비위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질의	○ 들어온 첩보의 내용은 '전경련 소속의 재벌기업들로부터 모금해서, 한 몇백억씩 모금해서 재단 두 개를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형태로 돼 있고, 그 모금과정에 청와대의 안종범 수석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었음.
○ 안종범 수석의 혐의가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내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 내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당시 그 첩보만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재벌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안종범 수석의 영달이나 노후를 위해서 만든 것도 절대로 아닐 것이다', '도대체 이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었음. '재단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놓으면 다시 없애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권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음. 직원들한테는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지시해서 확인작업을 진행한 바는 있었음.
○ 7~8월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는지 질의	○ 7월경에 시작했음.
○ 우병우 전 수석의 비위사실은 무엇이었는지 질의	○ 저희가 감찰했던 내용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비위였기 때문에 아들의 병역특혜 부분 및 가족기업이라고 하는 정강에서의 횡령 2건임.
○ 이석수 증인은 특별감찰관으로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셨는데, 감찰하시다가 조선일보 이 모 기자한테 '감찰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고발되어 가지고 사표를 낸 사실이 있는지 질의	○ 그런 기사가 나서 그 기사를 이유로 고발이 돼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
○ 특별감찰관은 수석비서관 이상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되신 거 알고 있는지 질의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특별감찰관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성역 없이 감찰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외압이 있어서 제대로 감찰을 못 했다고 생각하는지 질의	○ 특별한 성역은 갖지 않고 다만 법에 저희의 감찰대상자와 대상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고 생각함.
○ 최순실도 감찰대상이 되는지 질의	○ 아님.
○ 최순실을 보시거나 전화하거나 통화한 적은 없는지 질의	○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접촉한 적이 없음.
○ 최순실은 왜 감찰대상이 안 됐는지 질의	○ 대상자가 사촌 이내의 친족인데 최순실 씨는 친족도 아니고 수석비서관도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님이 법률상 명백함.
○ 이석수 증인께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내사를 한 적 있는지 질의	○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검토를 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실이 있음.
○ K스포츠재단과 미르 관련해서 내사하면서 왜 재단에다가 출연을 했는지 경위, 사정 이런 것들을, 증언을 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찰하시면서 들은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해주기를 요청	○ 지금의 시점에 와서 보면 그 당시에 했던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얘기였음.
○ A 기업이라는 곳이 아주 상세한 얘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제보를 받았음.	○ 불러서 누구를 조사한 적은 없음. 다만 직원들이 다니면서 관계자들을 접촉함. 막상 네가 나와서 여기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내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비상식적인 개입이나 견제는 없었는지?	○ 처음 정보 입수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근령 씨하고 우병우 수석 사건의 본격적인 감찰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은 K스포츠나 미르에 대해서 살펴볼 만한 영일이 없었음. 그러다가 우병우 수석 감찰이 종결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한편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전후 관계가 되어 있음.
○ K스포츠재단 등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돈을 출연한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 있는지 질의	○ 직접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외근 요원들이 관련된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정보를 수집하고 한 적은 있음.
○ 기업들 반응은 대체로 어땠는지 질의	○ 직접 당사자들은 얘기를 안 하고, 그 옆에 있었던 분들 얘기를, 탐문을 해 보니까 '자발적으로 낸 것은 아니다. 할당이 돼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냈다' 이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
○ 최순실 관련 얘기는 안 나왔는지 질의	○ 금년 7월 이전에는 최순실 얘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음.
○ 이석수 증인께서는 최순실의 존재를 언제쯤 알았는지 질의	○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저희 업무가 친인척 문제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담당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가족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스터디는 되어 있는 상태였음.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렇게 국정에 관해서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금년 이 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음.
○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비서관 중에 어느 정도까지 알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	○ 그것까지 추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 비서관 세 분은 정확하게 아셨던 것 같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추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음.
○ 금년 8월 17일경 MBC에서 이석수 특감께서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 그러면서 이석수 증인과 조선일보 기자 간의 카카오톡을 입수했다고 밝힌 사실이 있는지 질의	○ 그런 기사가 있었음.
○ 카카오톡 내용은 우 수석 '정강'에 대해서, 우 수석 가족 회사 '정강'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계속 버티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겠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질의	○ 그 건으로 조사도 받았는데, 제가 지적된 언론사 기자 분하고 통화를 한 적은 있음. 그런데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적은 없음.
○ 지금까지 감찰관으로 계시면서 박근령 사건 검찰 고발한 적 있는지, 이외에 다른 내사한 사건은 없었는지 질의	○ 정식 감찰에 들어갔던 사건은 박근령 씨 사건하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건 2건이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엘시티 관련 현기환 수석에 관한 정보는 없었는지 질의	○ 엘시티 관련해서는 현기환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현기환 수석은 그 전에도 공천 헌금 사건으로 문제가 한 번 됐던 적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 있게 봤었음. 그런데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엘시티라는 큰 사업을 부산에서 하는데 엘시티가 만약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사단이 나고 현기환 수석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보고를 받았음. 그런데 그 당시는 엘시티가 분양 전이어서 한번 상황을 보자, 그리고 아마 부산 검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해서 검찰 쪽에도 조금 알아본 적이 있음.
○ 엘시티와 관련하여 내사까지는 안 갔는지 질의	○ 내사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관심 있게 보긴 봤습니다마는 결국 그 부분은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부분임.
○ 박영수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김상만·김영재 증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한 것을 알고 있는지 질의	○ 알고 있음.
○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당시 현직에 있던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신 적 있는지 질의	○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는 개인 비리, 강남 땅 거래 그리고 정강 횡령 그리고 화성 땅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들 꽃보직 등등의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 내사한 적 있는지 질의	○ 그 혐의 중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정식 감찰을 진행했었음.
○ 수사 의뢰한 내용은 무엇인지?	○ 수사 의뢰한 내용은 정강 건하고 아들 병역 특혜 의혹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됐음.
○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소위 입증,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 정도는 했다고 봐도 되는지?	○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
○ 조선일보 기자와 나눈 SNS 내용을 MBC가 입수한 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랑 SNS를 한 것은 아님. 통화한 내용 중에서 일부가, MBC에 어떻게 입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경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취득이라고 생각함.
○ 감청 혹은 도청 혹은 사찰이라고 봐도 되는지?	○ 적어도 적법한 방법으로는 MBC가 취득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함. 그렇다고 봄.
○ SNS가 아니고, 단순 전화통화 내용이라는 것인지?	○ 기자분들하고 SNS나 카카오톡을 한 적은 없음.
○ 일부에서는 마치 그 카카오톡 내용이 된 것처럼 스크린샷이 돌아다닌 부분이 있었는데, 스크린샷이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들은 조작된 샷인지?	○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만약에 그런 스크린샷이 돌아다녔다면?	○ 적어도 저와 한 내용은 아님.
○ 이게 청와대에서 증인에 대해서 그 부분 MBC 보도가 나가고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 그러함.
○ 그래서 증인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사표를 냈고, 그런데 증인이 사표를 내고 사표 수리가 한동안 안 됐었는지?	○ 그러함.
○ 그랬는데 법사위 국정감사 직전에 곧바로 사표 수리가 됐는지?	○ 그러함.
○ 증인의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됐으면 특별감찰관보가 직무대행을 해야 맞는지?	○ 그러함.
○ 그런데 '특별감찰관보도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라는 통보와 유권해석을 법무부로부터 받은 았는지?	○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가 그러한 유권해석을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
○ 특별감찰관보에 대해서도 임기가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별감찰관보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지?	○ 그렇게 생각함.
○ 특별감찰관보 밑에 과장인지?	○ 감찰관보와 감찰관, 과장, 담당관들은 다 같은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을 잃는다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해석을 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논리로 신분을 잃는다 그렇게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에서 해석을 하는 것 같음.
○ 억지 법리 해석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실의 그 어느 누구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버린 것인지?	○ 법사위 증언도 못 하게 할 뿐더러 혹시라도 그 이후에 K스포츠나 미르에 관해서 특별감찰관실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음.
○ '안종범 수석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그 재단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승인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대통령이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닌지?	○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의 제 생각은 이게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하고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었음.
○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실 전체를 날려 버린다라는 것은 대통령에 의해서 이 사태가, 이 증언을 못 하게 한 것이 전반적으로 지시되고 기획된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 제가 생각할 때는 법무부나 인사혁신처는 그런 억지 해석을 할 아무런 유인이 없음.
○ 결국은 대통령인지?	○ 그 뒤에 다른 의사결정을 한 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 미르·K스포츠 두 재단에 대한 내사의 전 단계, 정보 수집 단계에서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당시 특별감찰관실의 어떤 역량이나 그것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서 이 재단을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감찰을 중단한 것인지?	로는 당장 지금 감찰을 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음.
○ 설령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증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했어야 하지 않았는지?	○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진행하던 중에 박근령씨 사건하고 우병우 수석 사건이 시작되는 바람에 잠정, 조금 보류된 상태였음.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들어온 돈 자체는 결국 대통령이 받은 걸로 봐야 되지 않는지?	○ 궁극적으로는 누군가가 이 재단의 소유관계를 가지고 분규가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음.
○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정상적인 퇴임 이후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볼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인지?	○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음.
○ 만약에 이 재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내세워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재단이라고 한다면 전경련을 통해서 돈을 걷은, 모금한 이 돈은 구체적인 대가 관계라든지 청탁과 무관하게 법률상 뇌물죄를 구성하는 것 아닌지?	○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이 '예전의 육영재단 그리고 일해재단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유신시대에는 이게 용납이 되겠지만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육영재단도 나중에 소유관계를 가지고 오랜 송사가 있었음. 박근령 씨가 지금 빚이 많은 것도 다 그 송사에 따른 비용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음. 그래서 이 재단도 나중에 필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됐었음.
○ 사직서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 7월 18일 날 우 수석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주에 서울지검에서 저희 자택하고 사무실에 대해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음. 휴대폰과 업무일지를 다 뺏기고 나면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계속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더 고집을 피우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생각했음.
○ 특별감찰관제도, 법적 제도조차도 없애는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제가 사임한 것은 저의 자의에 의한 것이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 감찰관보를 비롯해서 저희 과장, 담당관들, 직원이 저의 사임과 동시에 지위를 잃는다는 이런 억지해석은 납득하기 어려움. 그 당시에 한겨레에서 최순실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의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까지 무리한 해석을 해서 조직을 해체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탄압이라고 생각하는지?	○ 역할을 무력화시킬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함.
○ 검찰에서 여러 곳을 압수수색 한지 4개월 됐는데 혐의가 입증 된 것이 있는지?	○ 8월 29일 날 처음 수사가 착수돼서 압수수색이 있었음. 그리고 10월 28일 날 제가 서울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음. 지금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음.
○ 두 분이 통화만 하신 것을 어떻게 전혀 상관도 없는 다른 방송사인 모 방송사가 그것도 우병우 수석의 친구가 담당자로 있는 방송사가 이 내용을 방송했는지, 이것은 두 분의 통화를 도청이나 감청하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일반인의 상식적인 추론인데 동의하시는지?	○ 구체적인 보도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함.
○ 급하게 증인을 찍어낸 것은 이 감찰께서 진행하고 있던 내사나 수사를 다급하게 중단시켜야만 했던 뭔가 시급한 사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당시 무슨 조사를 하고 있었는지?	○ 미르나 K스포츠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좀 우려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음.

(3) 정유라 입시부정 및 학점 의혹 관련 사항

(가) 최경희 증인(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도의적인 책임만 지고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인지 질의	○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것이라도 책임지겠지만, 정유라 건으로 인해 130년 동안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 온 교직원 선생님들이 모두 같이 인식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었는지, 있다면 언제 만났는지 질의	○ 있음. 입학 때는 전혀 없었고, 입학 한지 1년 쯤 후인 2015년 가을 쯤에 최순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잠시 들러 얼굴 정도 인사함.
○ 최순실이 방문 당시에 정유라한테 학점을 잘 안 주는 교수에게 '교수 같지도 않고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느냐'라고 한 적 있었는지 질의	○ 아님. 그때는 2015년이니까 그 학생이 휴학을 하고 있었던 중이고, 그래서 아마 학교에 학사 의논으로 잠시 왔다가 인사를 하러 온 것으로 보임.
○ 2015년 가을 최순실의 방문 당시 최순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무슨 말을 했는지 질의	○ 두 번째는 올해 4월인데, 딸 정유라와 잠시 같이 와서 그때도 거의 이렇게 선 채로 이제 열심히 훈련하고 다니겠다고 이렇게 잠시 인사를 하고 갔음.
○ 최순실이 이대의 함 모 교수 만나서 '정윤회 부인이다. 교수 같지도 않고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느냐' 이런 말 한 것을 확인했는지 질의	○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남궁곤 증인으로부터 정유라 관련하여 뭐라고 보고받았는지 질의	○ 아주 정확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정윤회의 딸 누가 입학을 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정윤회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음.
○ 남궁곤 증인의 보고 당시 정윤회가 최태민 사위라는 말도 했는지, 최태민 사위라는 것을 그 때 알았는지 질의	○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하셨다고 했음. 그때 알았음.
○ 권력실세라는 것 알았는지 질의	○ 제 전공이 이공계라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음. 그 때 처음 들었음.
○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는지 질의	○ 전혀 그런 일 없었고, 그럴 수도 없었음.
○ 정유라의 입학과 관련하여 당시 함께 있던 보직자들과 회의한 적 있는지 질의	○ 아님.
○ 정유라 입학 건은 그 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증언한 것도 있고, 특검에 가서도 조사받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사실대로 말할 것을 당부	○ 입학에 관련되어서 아주 조금 특이한 사항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처장님께서 구두나 가끔 전화로 잠시 말씀드리지, 입학에 관해서는 회의를 하고 그러지 않음.
○ 교육부 감사 자료에도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이 나오는데도 부인하는지 질의	○ 그것이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일도 없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명이 참석한 보직자 회의에서도 논의한 적 없는지 질의	○ 처장회의에서 아마 입학처장님께서 간단하게 특이사항으로 보고를 했을 것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한 적은 없음.
○ 이렇게 특별한 학생인 경우에는 이렇게 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그전에도 있었는지 질의	○ 그때 총장이 된 지 막 한 달 정도였기 때문에 그전에는 몰랐음.
○ 면접고사장에 금메달을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질의	○ 없음. 사실 저는 입학절차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음. 총장이 거기에 관여할 수 없음.
○ 면접고사장에 들어갈 때는 수험표하고 신분증만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금메달을 갖고 들어가도록 방조했음. 정유라가 '금메달을 보여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하게 그냥 두었던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지 질의	○ 그것은 다 사건 후에, 나중에 들은 얘기임.
○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관복을 가장 최근에 만난 게 언제인지, 무슨 일로 만났는지 질의	○ 제 기억으로 아마 올해 7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음. 김관복 비서관은 제가 그때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선임행정관이어서 그 이후로도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비서관실 식구들끼리 모인 적이 있었음.
○ 단둘이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질의	○ 우리 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분 한 분이 더 있었음. 만날 때 안부 묻고 그런 어떤 사적인 자리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작년에도 단둘이 만난 적이 있는지 질의	ㅇ 기억이 없음.
ㅇ 가장 최근에 통화한 것이 언제인지 질의	ㅇ 언론에 나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딱 한 번 했음. 그때가 아마 언론에서 '김관복 비서관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다' 이렇게 나온 이후일 것임.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음.
ㅇ 적어도 작년 및 올해 한 차례씩은 김관복과 만난 것으로 봐도 되는지 질의	ㅇ 네
ㅇ 작년에 두 분이 따로 만났는지 질의	ㅇ 아님. 남자를 둘이 만나지 않음.
ㅇ 김관복이 그러면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왜 만났다고 하는지 질의	ㅇ 아마 그러면 그 식구들끼리 같이 만난 것일 것임. 둘이 만난 것은 정말 기억에 없음.
ㅇ 어떤 연유로 총장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옆에서 많이 권했는지 질의	ㅇ 저의 의지가 많았고 또 주위의 몇 분들이 제가 학교에서 보직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권유하시는 분도 계셨음.
ㅇ 최순실을 정유라 입학 후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부정입학 당시에는 전혀 만난 적이 없었는지 질의	ㅇ 전혀 몰랐음.
ㅇ 그러면 정유라 부정입학 건은 체육대학, 입학처장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질의	ㅇ 그러함. 기본적으로 그 부처의 일은 부처 중심으로 하고, 실기는 해당 단과대학이 입학처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유라의 입학 당시에는 증인은 정유라 이름조차도 몰랐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총장으로서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 질의	○ 전혀 몰랐음. 결과론적 책임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전혀 몰랐음.
○ 교육부 감사 결과 보면 남궁 처장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질의	○ 그런 적이 없음. 왜 그렇게 적혀있는지는 알 수 없음.
○ 지금 이 자리가 130년 이대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 들지 않는지?	○ 그러함.
○ 2015년 가을에 최순실 증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최순실 씨가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것인지, 아니면 누굴 통해서 연락을 부탁을 받은 것인지?	○ 그때 아마 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저를 잠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음.
○ 최순실 씨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 누굴 통해서 했는지?	○ 비서실에서 바꾸어 주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는 모름.
○ 대학총장이 학교에 온 학부모가 만나자고 그러면 다 만나는지?	○ 대학에 오셔서, 손님이라고 들어서.. (답변 흐림)
○ 총장 되고 나서 두 번 이상 만난 학부형 있는지?	○ 아마 있을 거고, 또 굉장히 많음.
○ 도의적 책임이라도 있다면 이대를 떠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 저는 이때까지 이화가 제 모든 것이었음. 위원님의 말씀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음.
○ 어떻게 대학총장이 강남 아줌마 한 명 왔다고 그렇게 만나주냐는 지적	○ (답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어떤 스타나 또 금메달리스트나 또 어떤 국가의 명망 있는 분들이 대학입시에 들어온다, 사사건건 보고받는 게 지금 대학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총장이 보고를 안 받았다면 무능 아니면 직무유기라는 지적	○ 물론 그런 대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학처장이 처리함.
○ 미래라이프대학 때문에 학생들이 연좌농성 하는데 집에서 있었는지?	○ 학교에 있었음.
○ 최순실 왜 만나 줬는지?	○ 굉장히 이때까지 비교적 젊은 총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2년간 참 많은 분들을 뵈었음.
○ 이화여대 총장에 2014년 8월 취임한 이래 일반 학부모 몇 분이나 만나 보셨는지? 최순실 말고는 한 명도 없는 것 아닌지?	○ 아님.
○ 이화여대 학생들은, 학부모들은 총장님 면담하면 그때그때 만나 주는지?	○ 저는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많아서 제 메일로도 어려운 일이 오면 제가 많이 해결을 해 주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학생이 수상하면 또 축하의 꽃도 보내고 저는 나름 그렇게 하고 있음.
○ 2016년 4월 정유라 학생하고 같이 최순실을 만났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만났는지?	○ 학교에 왔다가 가는 길에 만났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최순실 씨는 이대를 오면 항상 총장 면담을 하고 가는 것인지?	○잠깐 두 차례 들렀음.
○최순실의 배경에 대해서 그때도 잘 몰랐는지?	○정유라 학생 어머니로 사실은 알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은 제가 상상도 못했음.
○정유라 학생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정유라 학생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승마를 하고 그런 정도로 알았음.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것은 처음 서류 낸 다음에 입학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알았음.
○입학서류 냈을 때 정유라에 대해서 누가 말했는지?	○서류 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 전 입학처장님이 말했음.
○2015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이화여대는 6명을 체육특기자로 선발한 것 알고 있는지?	○네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졌는데 사후라도 그것 확인 안 해 보셨는지?	○6명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음.
○1차 서류전형 111명 중에 정유라 학생은 9등을 했고, 3000점 만점에 정유라는 1600점 받았음. 1등과 1000점 차이고 6, 7등과 50점 차이가 있었음. 앞에 3명이 떨어져야 자기가 합격이 되나, 기이하게도 최종 면접에서 정유라는 최고점을 받았음. 앞의 1명은 스스로 면접을 포	○제가 오히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6명 특기자인데 탈락한 학생도 2명이 수영이었고 그다음에 합격한 학생도 2명 수영이었는데 그러면 6명 중에 4명이 수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교육부 감사관에도 좀 물어본 적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기해서 2명이 남았는데 2명은 면접에서 탈락해서 합격했음.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지?	
○ 김장자 여사를 아는지? 골프도 쳤는지?	○ 네, 그러나 골프는 같이 친 적 없음.
○ 차은택 씨는 검찰에서 2014년 6월 우병우 씨 장모인 김장자, 최순실 그리고 이화여대 고위급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했는데 그때 총장은 안 계셨는지?	○ 예, 그때 제 임기 전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름.
○ 미르재단의 차은택과 이화여대 총장 및 간부들과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관련 사업으로 회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도 차은택 만난 적 없다고 부인하는지?	○ 처음에는 그 분이 차은택인지도 몰랐음.
○ 최순실과 차은택과 총장님이 130주년 기념 사업 관련해서 만났다면 이 사업 자체는 미래라이프대학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지적	○ 그 부분은 정말 아님.
○ 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최경희 총장과 차은택과 최순실이 이 일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정유라에 대한 얘기도 오갔을 거라고 추측된다는 지적	○ 그것은 정말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미르재단의 사업을 이화여대가 깊숙이 개입을 하고, 차은택과 만나 회의까지 했으면서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	○ (답변 흐림)
○ 스포츠·예술 콤플렉스 이게 4500평 규모에서 1만 2000평 규모로 커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정유라 입학 이후임.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하기로 생각했는지?	○ 대학에 일단 건축기금이 있고 그리고 보통 그런 건축을 하면 펀드레이징을 하게 되어 있음. 그래서 일단은 취지에 맞아야만 함.
○ 펀드레이징 속에서 미르재단의 개입이 농후해지는 의혹이 있음. 해명 요청	○ 스포츠 콤플렉스는 사실 전임, 제가 총장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임.
○ 이화아너스클럽 알고 있는지? 거기에 우병우 장모인 김장자씨는 얼마를 냈는지?	○ 아너스클럽일 때는 제가 보직하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알프스 여성 최고위 과정의 회장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을 기부하는 편임.
○ 알프스 과정,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힐튼호텔 7층에서 조찬하는지?	○ 세부적인 것은 모름.
○ 제보에 따르면 조찬때마다 김장자 옆에 앉아서 담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두 번밖에 안만났고 마치 친분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	○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사에 두 차례 정도이고, 보통 헤드 테이블에 당시 회장님과 총장을 옆에 앉혀서 아마 이야기 한 것으로 여겨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그 뒤로 김장자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는지?	○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음. 두 차례 정도, 최고위 과정에서 제가 항상 축사를 하게 되어 있어 그때 같이 뵌 적은 있음.
○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 9개 주요 재정 지원 사업 중에서 8개를 이대가 가져감. 이 중에 6개 항목은 박근혜정부가 새로 만든 사업들인데 알고 있는지?	○ 고교정상화라든지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이 절대 아니고, BK21 플러스도 그러함. 언론에서 9개 중에 저희가 8개라는데 저는 그게 뭐가 8개인가 오히려 궁금했을 정도임. 저희 대학이 종합일간지나 외국의 QS 평가에서 종합대학 한 6위 정도 평가되는데 그 연구비가 한 17위 정도뿐이 되지 않는, 저희는 정말로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함.
○ 이대 대학 비리에 대해 최소한 방관·묵인한 잘못은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는지?	○ 몰랐던 부분도 기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 이대는 부속유치원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스포츠·예술 복합단지 및 연구·강의 시설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었는지?	○ 학교 부모에 비해 부지가 굉장히 작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연구·강의 콤플렉스(complex)로 다시 보완하려고 한 것임.
○ 이화학당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대는 정유라가 입학한 후 2015년 11월부터 해당 부지에 300억을 투입해서 스포츠·예술	○ 그것은 사실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콤플렉스를 건립할 사업을 진행했고 그 건물의 48%, 약 반 정도를 신산업융합대학이 차지하는 공간인데 김경숙 체육과학부 교수가 이 대학 학장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것 자체도 최순실의 입김 아닌지?	
○ 이대 입시 비리가 구조적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적 일탈인지?	○ (답변 흐림)
○ 개인적 일탈이면 누가 책임자인지?	○ 그건 법에서 잘 판단하리라 믿음.
○ 여전히 조직적 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함.
○ 경찰 투입은 누가 요청했는지?	○ 서대문경찰서장님께서 판단하신 것임.
○ 공문을 보면 총장이 경찰서에 요청한 것인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 그 당시에 제가 출장을 가있었음.
○ 지난 몇 달 동안 불의에 맞서서 투쟁했던 이대 학생들에게 사과할 의사는 있는지?	○ 학생들에게는 제가 정말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라도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음.
○ 총장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쇠몽둥이, 해머 들고 들어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지적	○ 총장은 그럴 힘이 없음.
○ 경찰 무장병력들이 해머를 들고 나타났는데, 학생들이 받았을 배신감과 충격을 생각해 보셨는지?	○ 처음의 공문은 시설물 보호였고, 나중에는 교직원 구출 차원이었음. 서대문경찰서장께서 본인의 판단으로 들어왔다고 한 바 있음. 그러나 결과적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로 학생들이 큰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픔.
○경찰 투입 요청한 적 정말 없는지? 조율한 적도 없는지?	○경찰병력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물이 파손될 것 같으니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것임.
○7월 26일 자로 총장께서 경찰 투입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소통을 강조하는 총장의 모습인지?	○정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음.
○평화적으로 총장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학생들과 동문이 반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밤을 새워서 토론하는 것이 총장의 모습이라는 지적	○(답변 흐림)
○최순실이 지시해서 경찰이 이대에 투입됐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임.
○정유라 부정입학 누가 그러면 지시했는지? 누가 주동자인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특혜가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사임했음.
○2016년 6월 16일에 있었던 학칙 개정으로 정유라가 학점 변동을 적용받게 된 것 아닌지?	○정유라는 그 개정이 아니어도 내규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음. 9학점까지 출석이나 시험 없이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도전학기제는 학교 차원의 에이스(ACE)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5년 봄, 작년 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말에 이화여대에 왔었던 것 기억하는지?	○ 오전에 학교를 한번 둘러보고 점심 때 간단히 티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남.
○ 김기춘 방문 당시 같이 화기애애하게 일행이 에스코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증인께서 같이 함께하셨는지?	○ 아님. 저는 그때가 점심시간 때여서 티 미팅하는 데만 잠시 갔었고, 제가 듣기로는 사모님께서 옛날에 다니셨기 때문에 그냥 학교 캠퍼스를 두 분께서 좀 둘러보신다 그렇게 들었음.

(나) 남궁곤 증인(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경희 총장이 정유라를 뽑아 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질의	○ 결코 사실이 아님. 지시한 적 없음.
○ 최경희 총장으로부터 누구를 뽑아 주라고 지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 질의	○ 한 번도 없음.
○ 증인의 말이 교육부 감사자료와 다름. 위증으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지적	○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진술한 바 없음.
○ 정유라가 면접에서 금지돼 있는 '금메달을 보여 드려도 되나요?' 해서 금메달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 맞는지 질의	○ 면접장 안에서 있었던 상황이라 확실히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유라나 최순실하고 통화하거나 만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 질의	○ 결코 없음.
○ 2014년 당시 입학처장이셨는데, 정유라가 이대 입시 지원했다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질의	○ 김경숙 학장에게 들었음.
○ 김경숙 학장에게 들은 뒤에 어떻게 하였는지 질의	○ 입학처장실로 가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정윤회 씨 딸 이름이 정유연이라는 것을 확인함.
○ 총장에게 보고하였는지 질의	○ 월요일 날, 9월 22일 오전에 보고드렸음.
○ 김경숙 증인에게 정유라가 수시모집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질의	○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승마 얘기하고 유망주 얘기하고 아시안게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정윤회 씨 딸이 저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넌지시 말했음.
○ 김경숙 증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총장에게 보고했는지 질의	○ 처장실로 가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정윤회 씨 딸 이름이 정유연이고 그다음에 청담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리고 금메달을 아시안게임에서 수상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고했음.
○ 보고했더니 총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질의	○ 첫마디가 '정윤회 씨가 누구냐'고 저한테 되물었음.
○ 의견서를 교육부가 주라고 지시했는지 질의	○ 교육부에서 저희 입학처로 요청했던 여러 자료 내용 중에 그게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교육부가 이 해명서, 의견서를 첨부하라는 의견을 줬는지 질의	○ 국회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 이외에 몇 가지 리스트 안에 그런 경위서를 첨부하라고 했음.
○ 정유라 지원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했는지, 보고할 때 총장이 '정유라 뽑아라' 라고 말했는지 질의	○ 보고했고, 그런 이야기는 없었음.
○ 실제로 정유라를 뽑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인지 질의	○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음.
○ 면접위원들 간에 정유라를 뽑아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는지 질의	○ 면접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알 수 없지만 아마 면접위원들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함.
○ 정유라도 보통 지원자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총장에게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 입시에서 의례적인 총장보고 이외에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항상 보고를 드렸음. 정유라 이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 현직 교무처장 딸도 지원을 해서 그 사실도 따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음. 어떤 학생은 또 학교폭력 연루자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서 그것도 따로 보고 드린 적이 있음.
○ 정유라라는 사람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소개를 받았는지 질의	○ 정유라라는 사람을 소개받은 건 아님. 그 당시 이름이 정유연인데, 정유연이라는 이름은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임.
○ 누가 소개를 했으니까 총장한	○ 김경숙 학장이 정윤회 씨 딸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테 보고하고, 인터넷 검색한 것 아닌지 질의	라고, 정유연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안 하셨고 승마 얘기를 했고, '정윤회 씨 딸이 지원했는지 모르... 이렇게 넌지시 말을 하셔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 검색을 했고 직원을 통해서 확인한 것임.
○ 정유라 입학 당시에 김경숙 증인으로부터 정윤회 씨 딸 정유라에 대해 들은 적 있는지?	○ 원서가 9월 15일 날 마감됐고, 제가 총장께 보고 들어간 게 9월 22일 월요일 오전임. 그러니까 그 전, 그 사이 기간에 학장님을 뵌 것임. 김경숙이 말하는 9월 23일 날은 아마 다른 행사 때문에 또 다르게 만난 것을 그렇게 기억하는 것 같음.
○ 이화여대를 떠나라는 지적	○ 전국의 수험생하고 학부모님을 직접 만나 본 입학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큰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너무나 죄송스러움.
○ 정유라 입학 당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 게 없는지?	○ 입학처장으로서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처음 처장을 맡아서 운영상에 미숙한 점은 충분히 책임감을 느끼고 또 여러 수험생에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유라를 유리하게 할 만한 취지의 발언 하신 것 있었는지?	○ 결과론적으로는 정유라 양한테 유리하게 작동됐는지 모르지만 정유라 양 혼자만 특정화시켰었던 것은 아니었음.
○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본인이 기회주의자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는지? 왜 그 말 했는지?	○ 옛날에 학부시간에 제가 한 적이 있음. 제자들 중에는 약간 보수적인 학생들도 있고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학생도 있어서 제가 선생으로서는 어떤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색깔을 학생들한테 폭넓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그렇게 표현한 적은 있음.
○ 특수층 자녀가 수시입학원서 내면 총장에게 보고를 하는지?	○ 통상 그렇지는 않음.
○ 정유라 원서 접수를 총장에게 보고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 처장으로서 적절했다고 생각함.
○ 정유라 외에도 다른 학생들도 단복이나 메달을 들고 들어가게 다 허용한 것인지?	○ 정유라 혼자만 그런 것임.
○ 정유라에게 단복 및 메달을 지시한 것은 남궁곤 증인인지?	○ 그런 일은 전혀 없었음. 면접위원들한테는 '수험생 중에서 국가대표 단복 입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메달리스트들이 있으니까 면접평가에 반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면접 위원으로 보낸 사람은 몇 명인지? 그 중에 친한 사람이 몇 명인지?	○ 다섯 명임. 친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음.
○ 최근에 한 5~10년 사이에 정유라 말고 또 다른 부정입학이 있는지?	○ 모름.
○ 답변하실 때 '김경숙 증인이 명시적으로 정유라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승마 관련된 선수를 한번 고려해 보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 고려하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그냥……(답변 흐림) 이런 훌륭한, 승마 종목하고 아시안게임하고 그리고 정윤회 씨 딸 이렇게...(답변 흐림) 정윤회 씨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학교에 지원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셨음.
○ 그러면 그것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 제가 그때가 입학처장 되고서 한 달 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체육특기자의 문제니까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하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음.
○ '수험생 중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아 달라'라고 처장께서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맞는지?	○ '면접 대기 장소에 가 보니 국가대표 단복을 입은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아시안게임 입상자들이 있으면 이 아시안게임 입상 실적이 서류평가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면접평가에는 반영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면접위원들한테 상당히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아주 공정해야 될 입시처장으로서	○ 지금 생각하면 그 부분이 아쉽고 후회가 됨.
○ 서류점수에서 정유라가 가장 낮았음에도 면접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조작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입학처장의 역할은 전형에 대한 안내만 하고, 면접장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음.
○ 수시모집 마감이 9월 15일이었는데, 아시안게임 수상을 정유라가 9월 20일에 한 점은 풀리지 않은 숙제라는 지적	○ (답변 없음)

(다) 김경숙 증인(전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학사관리에 관해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제일 많았고 검찰 고발사항도 제일 많았는지 질의	○ 그러함.
○ 최순실의 요청으로 보직교수가 아니라 해당 학과교수 4명과 강사들에게 정유라 출석 및 학점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지 질의	○ 없음. 학과장과 저희가 보직교수로서 거론한 적은 있음. 그런 사실을 교육부와 학교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5년 1학기에 결석이 많았기 때문에 여덟 과목 중 일곱 과목이 F학점으로 처리되었는데 2016년 1학기에는 여섯 과목이 학점이 부여되었음. 출석도 안하고 시험도 안보고 리포트도 안냈는데 어떻게 학점이 부여되었는지 질의	○ 사실 학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교수 개인의 고유권한임.
○ '김경숙 학장의 지시를 받고 정유라 학생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간강사들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라고 증언한 교수가 있는 것 아는지 질의	○ 그것은 그렇지만 사실과 다름.
○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검찰에서 가서 조사받을 것이며, 이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에 김경숙 학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의	○ 유감스럽지만 알고 있음.
○ 정유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정유라가 이대 입시 응시했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김종 차관에게 들었는지 질의	○ 아님.
○ 김종 차관한테서 정유라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 듣지 않았는지 질의	○ 못 들었음.
○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음을 지적	○ 거짓말 아님. 입학처장에게 한 말이 왜 자꾸 언론상에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저도 조사를 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K-MOOC :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은 시험도 안 봤는데 답안지가 제출된 것도 아는지 질의	○그것은 추후에 알았음.
○K-MOOC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대리시험, 온라인 강의 대리수강에 증인도 관련이 되는지?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학장이 그것을 요청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요즘 학교의 분위기임.
○증인이 볼 때 여기에 이인성 교수, 이경옥 교수, 류철균 교수가 관련이 돼 있다고 보는지?	○그 교수님들 개인이, 본인이 판단하에 학점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음.
○이렇게 문제가 됐으면 왜 학장으로서 확인을 해 보셨지 않았는지?	○교육부 감사 자료를 내는 과정 중에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서 확인을 했음.
○교수들이 이런 비리가 있었다는 것 학장으로서 확인한 것인지?	○국회 국정감사 하실 때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면서 저도 그것을 확인을 했음.
○증인이 남궁곤 증인에게 정유라의 원서 지원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남궁 증인의 증언은 위증인 것인지 질의	○물어는 봤음. 그런데 어떤 식으로 물어봤느냐 하면 저희가 12개 종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러이런 몇 개 종목을 나열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승마였음.
○정윤회 딸 이야기도 했는지 질의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정유라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문하지는 않았음.
○남궁 증인은 왜 김경숙 증인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질의	○그 당시 학장님하고 제가 처장 보직을 시작한 게 같은 시기였고, 8월 달에. 그리고 잘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저한테 승마 얘기를 꺼내시는 게 좀 의아스러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남편 김천제 교수께서 1980년부터 1984년까지 독일 유학했는데 혹시 같이 갔는지?	ㅇ그러함. 82년부터 88년까지 공부했음.
ㅇ민병동 씨나 안영국 전 회장을 알고 있는지?	ㅇ알고 있음. 독일에서 같이 친하게 지냄.
ㅇ윤남수, 윤영식을 아는지?	ㅇ익숙하지 않음.
ㅇ남편 김천제 교수께서 공부하신 1980년부터 1984년까지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가셨던 그 기간 동안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었다는 지적	ㅇ전혀 몰랐음.
ㅇ김천제 교수가 윤남수로부터 당시 독일을 왔다 갔다 하던 최순실을 소개받았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다는 지적	ㅇ그런 이야기는 못 들음.
ㅇ이런 인연으로 최순실과 정유라를 알게 되고, 김경숙 증인도 정유라의 이대 특혜를 본격적으로 도운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다는 지적	ㅇ사실 무근임.
ㅇ남편 김천제와 박원오가 서로 아는 사이인지 질의	ㅇ예전에 말 탈 때 조금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음.
ㅇ박원오와 만난 사실이 있는지 질의	ㅇ한 6~8년 전 쯤 만난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함.
ㅇ박원오와 2013년에 만나지 않았는지 질의	ㅇ그런 기억이 없음.
ㅇ남궁곤 처장에게 정유라 입학 관련하여 지시한 적 없는지 질의	ㅇ학장이 입학 관련해서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승마 하는 학생이라면서 이야기 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ㅇ몇 개 종목만 이야기 했을 뿐임.
ㅇ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유라 얘기를 단연 들은 적이 없는지 질의	ㅇ듣지 않았음. 몇 개 종목들이 새로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임.
ㅇ최순실 씨 언제부터 알았는지?	ㅇ2015년 9월 학교에 방문하러 왔을 때 그때 처음 봤음.
ㅇ최순실과 김경숙 증인은 80년대부터 알았다는 지적	ㅇ그렇지 않음.
ㅇ김종 차관 언제부터 알았는지?	ㅇ김종 차관하고는 오래전서부터 같은 대학의 교수로 있기 때문에 체육학 쪽으로는 알고 있음.
ㅇ남편 김천제의 종교가 무엇인지?	ㅇ가톨릭임.
ㅇ80년대에 남편의 종교는 무엇이었는지?	ㅇ독일에서 영세를 받음.
ㅇ남편의 대학교 때 종교는 뭐였는지?	ㅇ대학교 때는 제가 만나기 전이니까 잘 모름.
ㅇ독일에서 남편의 종교는 무엇이었는지?	ㅇ쾰른 성당에서 결혼하기 전에 세례를 받음.
ㅇ신랑 되시는 부군께서 지금 가톨릭 신도로서 대한민국 어느 성당에 나가는지?	ㅇ우장산성당에 나가고 있음.
ㅇ데이비드 윤 아는지?	ㅇ모름.
ㅇ지금 독일의 정유라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허구한 날 언론에 나왔던 데이비드 윤을 김경숙 학장이 모른다고 하면, 지	ㅇ모르기 때문에 진짜 모른다고 하는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난 가을에 김경숙 학장은 어디 달나라 가 계셨는지? 왜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지?	
○ 데이비드 윤은 독일의 정유라를 돌보고 있는 사람임. 데이비드 윤 아버지가 윤남수임. 윤남수 씨하고 남편인 김천제 두 분은 80년대에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지적	○ 제가 아까 그래서 저녁 먹을 때 한번 물어봤는데, 본인도 모른다고 하심.
○ 윤남수와 최순실은 80년대부터 아는 사이임. 심지어 그 아들인 데이비드 윤과 최순실은 같은 회사까지 독일에서 운영을 함. 그러면 당연히 윤남수하고 김천제하고 알면 당연히 최순실하고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지적	○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임.
○ 이화여대 입시부정의 이 퍼즐은 김경숙 남편인 김천제로 시작이 되는 것임. 그리고 최순실, 김천제, 부인인 김경숙 학장 이렇게 13년도에 시작이 된다고 봄. 그리고 지금 현재 최순실 게이트 독일 쪽의 몸통인 데이비드 윤과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인 윤남수와 김천제는 80년대부터 독일에서 알던 사이였음. 같은 교회였음.	○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교육부 감사 두 가지 입시부정, 학칙 개정 중 학칙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가 부실하게 됐다는 지적. 해당 학칙은 정유라가 4년 내내 독일에 있더라도 4년 동안 학점 주면서 졸업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지적	○ (답변 없음)
○ 학칙 개정은 청와대 김관복 교육비서관이 최경희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이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감사를 부실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	○ (답변 없음)
○ 문제의 근본인 이 학칙 개정을 누가 주도했고 왜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빠졌으므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	○ (답변 없음)
○ 남편과 김종차관이 친분이 있는게 분명한지?	○ 없음.
○ 김종 차관으로부터 최순실 씨, 정유라 이야기 들은 적 있는지?	○ 전혀 없음.
○ 최순실이 김종 차관을 임명하고, 김종 차관은 최순실의 은덕을 갚기 위해서 그 딸을 이대에 입학시킬 계획으로 김경숙 증인에게 부탁을 했다는 지적	○ 그런 부탁한 적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4년도에 김종 차관으로부터 부탁받고 학칙 개정했는지?	○ 2014년에 학칙 개정은 안 했음.
○ 승마 포함시키라는 개정 안했는지?	○ 그것은 학칙과는 관련이 없음. 2013년 5월 달쯤에 저희 체육학과 교수들이 같이 모여서, 그것은 회의를 하면서 정해진 내용임.
○ 단과대학 학장이 이런 국제경기나 훈련에 참가한 학생 선수가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 단과대학 학장의 자문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	○ 자문을...(답변 흐림)
○ 신산업융합대학이 신설되고, 증인은 학장이 됨. 정유라는 두 학과를 넘나들며 특혜 학점을 받음. 이인성 교수는 정유라에게 과제 서비스까지 하는 굴욕적 교수임. 그런데 이분이 55억의 연구비, 이화여대 총 연구비 중에 3분의 1을 차지함. 또한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을 함.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증인이 최소한 정유라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지적	○ (답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증인은 함정혜 교수에게, 학사경고를 맞은 학생에게 함정혜 교수가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함. 이후 최순실이 학교를 방문해서 김경숙 증인이 함정혜 교수에게 '최순실 내려간다, 잘 대하라, 정윤회 부인이다'라는 얘기를 함. 최순실은 내려가서 함 교수에게 막말을 하고 결국은 이 함정혜 교수는 정유라의 지도교수에서 교체되었는데 맞는지?	ㅇ교체되지는 않았음.
ㅇ최순실 정유라 부정 입학의 중심은 바로 김경숙이라는 지적	ㅇ절대 그렇지 않음.
ㅇ유독 정윤회 씨 딸이라는 것을 남궁곤 처장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지적	ㅇ맹세코 정유라니 그 당시에 그 학생 이름조차도 저는 생소했음. 그래서 말씀 드린 적이 없음.
ㅇ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듣지 않은 얘기도 만들어 가면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할 사람 없다는 지적	ㅇ진짜임.
ㅇ수많은 입학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특정인을 거명해서 할 정도라면 이것은 특수관계인 것이라는 지적	ㅇ거짓말이 아님.
ㅇ남편분이 승마를 하시고 박원오와 함께 만난 것이 맞는지?	ㅇ박원오 씨와 만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년, 10년 전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출석하시기 전에 이경재 변호사랑 통화하신 적 있는지?	○ 이경재 변호사님은 저는 잘 모름.
○ 김경숙 학장 남편께서 창의재단 이사장에 신청하신 것 맞는지?	○ 했다가 그것을 다시 거둔 것으로 알고 있음.
○ 고영태 씨가 여기 나와서 김종 차관은 최순실의 수행비서 정도라고 했음. 최순실 씨가 김종 차관한테 오더를 줘서 김종 차관이 김경숙 증인한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는 지적	○ 그것은 일반적인 상상임. 저하고 김종 차관은 그런 얘기를 나눌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님. 사무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는 관계임.
○ 2016년 6월에 학칙을 개정해서 결석해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예외규정을 두고 소급 시행 하였는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정유라 말고 또 있는지?	○ 학칙규정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
○ 올해 체육과학부하고 의류학과하고 합쳐서 신산업융합대학이 되고 증인이 학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이것도 뭔가 대가 아닌지?	○ 그렇지 않음. 6개 학과 중에 3개 학과가 이미 건강과학대학이라고 이름이 있었음.
○ 김경숙 증인이 연구한 'K스포츠클럽 운영 개선방안 연구'에 보면 '전국에 거점 K스포츠클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거점 K스포츠클럽은 증인의 아이디어인지?	○ 공동연구원이 7명 있는데, 함께 의논하여 방향을 잡은 연구임.
○ 김장자를 아는지?	○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기흥컨트리클럽에 이화여대 교수님 한 분이 골프 치러 가셨다고 그랬는데, 증인 아닌지?	○ 골프를 못 침.
○ 김장자 씨가 하는 알프스(ALPS)에 한광옥 비서실장 부인도, 그리고 얼마 전에 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내정자의 부인도 다 다녔다는 것은 총장님하고 다 아는 사실임. 청와대의 중요한 인사, 비서실장·총리내정자 이게 다 김장자 씨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화여대도 김장자 씨하고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	○ 개인적으로 김장자를 모름.
○ 김기춘 전 실장의 이대 방문 시 함께 있었는지?	○ 아님.
○ 정동구 K스포츠 이사장 아는지?	○ 알고 있음.

(라) 김혜숙 증인(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부 교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유라가 부정입학 했다는 이야기를 확인하였는지, 언제 알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질의	○ 정유라 학생에 관한 이야기는 학생들이 농성을 하는 중에 나중에 정유라 입학에 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알게 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유라 문제로 학교에 항의했는지 질의 ○ 이화여대가 비리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소회를 말씀해 줄 것을 요청	○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했음. ○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한 좌절감과 학생들의 농성과 그리고 그들의 대학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보면서 동시에 또 희망을 느꼈음. 이화여대의 한 일원으로서 입시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나 교육적 정의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는 차원에서 이런 물의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함.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이화여대의 어떤 입시관리체계나 학사관리체계의 부정이라고 보지 않고 인간의 실패라고 보고 있음. 이화여대가 엉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것이 비쳐져서는 안 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의도를 가진 분들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을 함.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교수협의회 차원에서도 의혹을 제기해 왔었고, 또 저희도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같은 의혹과 의아함을 가지고 접근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가지 검찰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어떤 차원에서 인적 매개들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임.

(마) 김청현 참고인(교육부 감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남궁곤 처장은 정윤회 딸 지원 사실을 김경숙 학장이 미리 알았고 남궁 처장과 만나서 의논했다 하는 것도 확인이 된 것인지?	○ 감사 전 과정을 통해서 최경희 총장님이고 김경숙 학장님이고 입시 학사 양쪽을 통틀어서 본인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 저희가 감사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은 나머지 우리 교수님들 학생들 직원들,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청취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림.
○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원준 교수가 정유라 학생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체육과학부 소속 시간강사들에게 연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에서 확인한 바 있는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감사자료 6쪽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김경숙 학장이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 그러함.
○ 김경숙 학장과 입학처장, 교무처장 명의로 '다수의 입상실적으로 서류평가를 통과하고 면접 통과했습니다. 특기자 선발 공지된 입시요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최종합격하였습니다'라고 브리핑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대 발표가 맞는지 아니면 특혜였는지?	○ 입시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음.
○ 정유라 부정입학 때문에 두 명의 학생이 선의로 불합격이 됐는데, 두 학생이 원하면 3학년 학사편입을 시켜주고 대학원까지 이대에서 무상교육을 시켜주도록 교육부에서 이대에 권고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감사관 입장에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음. 교육부 주무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에 따른 조치할 것으로 기대됨.
○ 감사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입학처장인 남궁 증인이 정유라의 입학 지원 사실을 최 총장에게 보고했고 그래서 총장이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총장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확인한 것인지?	○ 그것은 총장님이나 남궁 처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남궁 처장께서 총장실에 보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보고 갔다 왔는데 총장께서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라고 자기한테 말했다는 교수님 진술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대에 대한 3주 간의 감사 결과 이대 입시 비리는 최경희 총장이 지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지?	○ 그런 결론은 낸 바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음.
○ 감사보고서에서 이대 입시를, '최경희 총장이 정유라를 뽑아주라고 했다' 그걸 밝혀냈는지?	○ 그것은 한 분의 진술임.
○ 최경희 증인은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각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는가는 본인이 결정할 일임.
○ 관련 교수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 감사에서 본인들 각각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었고 그 확인된 결과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징계도 하고 고발도 하고 수사 의뢰도 했음.
○ 최순실 씨 부탁으로 이화여대 총장과 그다음에 학장 또 입학처장 등 보직교수들이 같이 연합해서 정유라 씨에게 입시와 관련된 특혜를 준 것은 확인된 사실인지?	○ 감사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음.
○ 입시 과정에서 어쨌든 입시요강하고 다르게 금메달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승마복장을 하고 들어가고 이런 특혜를 준 정황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 그것은 교수님들의 진술도 있고 우리가 받은 자료들도 있고 그런 점들을 종합하면 그런 정황들은 분명히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학생으로서 신분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교 학칙이나 이렇게 내부규정이 변화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은 또 확인된 내용인지?	○ 거기도 학칙을 개정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크다 그런 판단을 했음.
○ 총장이나 학장이라든지 상당히 학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닌지?	○ 몇 사람이 연루됐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음.
○ 최순실 부분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최경희 총장에게 정유라 관련해서 어떤 부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점이 있는지?	○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는 없고 저희는 일단 조사할 사람들도 많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지금 기본적으로 감사는 피감기관 구성원들이 입시, 학사, 연구비 집행 관련해서 어떤 행동들이 적정했느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뒀음.
○ 김경숙 증인이 함정혜 교수에게 학사경고 관련하여 이야기한 것에 대해 확인하였는지?	○ 김경숙 학장이 어떤 톤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내밀하게 확인이 안 되지만 함정혜 교수 상대로 확인한 내용임.
○ '최순실 내려간다. 잘 대해라. 정윤회 부인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확인하였는지?	○ 그것은 맞음.

(바) 김태현 참고인(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유라 입학 당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남궁곤 증인의 발언이 교육부 감사와 일치하는지?	○ 면접위원 5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면접위원들은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 김경숙 학장이 이원준 학부장님 및 강사 포함 4명의 교수에게 정유라 출석 및 학점을 관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인지?	○ 김경숙 학장께서는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고 부인하셨고, 나머지 담당과목 교수들께서는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음.
○ 2015년 1학기 정유라가 학사경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결석을 해서 지도교수 함정혜 교수가 2016년 4월 17일 전화해 가지고 '또 그러면 학사경고 또 나온다'라고 하자 최순실이 다음날 학교에 찾아와서 함정혜 교수에게 폭언을 했음. 그런데 폭언 내용이 '우리 학장이 내려가니까 잘해라. 정윤회 부인이다. 교수 같지도 않고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 이렇게 폭언을 했는데 특이한 것이 '우리 학장이 내려가니까 잘해라'라고 했는데, 그 우리 학장이 이 자리에 있는지?	○ 감사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를 못했지만 말씀주신 취지로 보면 아마 김경숙 학장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됨.
○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입시부정 고발수사	○ 진술받은 내용에 다수의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한 경우에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뢰 부분을 보면 입학처장, 건강과학대학장, 면접위원 5명은 고발을 하고 총장, 최순실, 정유라는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지?	저희가 혐의점을 확정을 하고 고발을 했음. 그러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특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임.
○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불법행위가 나온 적이 있는지?	○ 제가 알기로는 없음.

(4) K스포츠재단 관련 사항

(가) 정동춘 증인(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특검 및 국정조사 재단 대응방침', 이 문건 정동춘 이사장이 직원들한테 나눠준 것 맞는지, 타이핑도 직접 했는지 질의	○ 맞음.
○ 해당 문건을 어디서 받았는지 질의	○ 제가 직접 작성함.
○ 점심 때 이 문건을 직접 만들 수 있는지 본인이 직접 한번 시연해 줄 수 있는지 질의	○ 있음.
○ 첫 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특검에 준하여 대응한다' 이런 어떤 직원들마다 지	○ 제가 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침이 쓰여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특검 및 국정조사 목적 및 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 성분을 분석해 놨음.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새누리당의 도와줄 수 있는 위원 세 명 해 가지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 놨고, 야당 위원들 중에 저하고 안민석 위원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놨음. 또 특검에서 두 재단 설립에 돈을 낸 기업들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임. 이것은 정동춘 이사장이 스스로 했다고 믿겨지지 않는 문서라는 지적	
○ 세 번째는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절차까지 나오는데, 재단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절차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 보면 특이한 사항이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절차 가운데 '공소장에 거명된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동춘 이사장이 만들었	○ 제가 이사장이 되고부터, 사실은 저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문외한임.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됐던 부분이 정무적인 일이었음. K스포츠재단 자체가 국정농단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 이런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최대의 관심사였음.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언론 보도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다고 보기 힘든 부분임. 이 서류를 누가 줬는지 질의	든지 이런 국회에서의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음.
ㅇ최순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ㅇ저랑 같이 동업했던 후배를 통해서 알았음. 고객으로 왔음.
ㅇ뭐를 하셨는데 고객인지? 마사지클럽 했다는 것인지?	ㅇ마사지클럽이 아니고요, 언론에서는 마사지센터 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정식 명칭이 CRC(운동기능회복센터)임. 근육이 짧아진다든지 약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교정하는 곳임.
ㅇK스포츠재단 이사장직은 어떻게 제의받게 됐는지?	ㅇ처음에는 비상근으로 한 3월 말인가 4월 초에 제의받았음.
ㅇ언제 이사장으로 취임했는지? 지금도 이사장 직책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ㅇ5월 13일에 했음. 가지고 있음.
ㅇ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증인과 통화한 녹취록으로 봐서는 정동춘 이사장은 지금까지 뭔가를 감추려고 했던 사람 아닌지에 대한 질의	ㅇ아님.
ㅇ어떻게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질의	ㅇ그분이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본인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정현식 사무총장이 한겨레신문에 인터뷰를 하기 전 한 2주 전인가요? 한 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인은 자기한테 그런 어떤 청문 요청이 오면 자기는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얘기를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러면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을 드린 바가 있음.
ㅇ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대통령의 임기 후에도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이라고 보는지? 실질적으로 이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ㅇ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움.
ㅇ핸드폰을 몇 개 쓰고 있는지? 검찰에 다 제출했는지?	ㅇ두 개 쓰고 있고, 다 제출했음.
ㅇ안종범 수석과 통화를 자주 했는지?	ㅇ전부 합쳐 한 다섯 번 전후 정도임.
ㅇ통화 내용이 어땠는지?	ㅇ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재가가 났다고 들음. 이후 관련건으로 다섯 번 정도 통화함.
ㅇ남궁곤 처장에게 정유라가 지원한 사실을 말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ㅇ아예 그런 사실이 없음.
ㅇ입사 할 때 최순실 면접하고 들어갔는지?	ㅇ추천만 하심. 2010년부터 알던 사이임.
ㅇ안종범 만나거나 통화했을 때 어떤 이야기 주고 받았는지?	ㅇ대통령 재가에 의해서 이사장이 되셨으니 이사장 역할을 잘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 밖에 재단 내부의 결정적인 결정사항이 있을 때 전화를 주셨음.
○ 예를 들어서 재단 내부의 핵심적인 결정사항은 무엇인지?	○ 전경련이 두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재단을 만든다는 발표를 했을 때 등임. 또 정현식 사무총장이 6월 말로 퇴직할 때 언론보도가 전경련 쪽으로 향할 때에 한두 가지 조정 때문에 통화를 한 적 있음.
○ 롯데에 관련해서 돈 돌려주라는 얘기는 최순실이 했는지?	○ 최순실, 안종범 두 분 다 함.
○ 안종범 씨는 뭐라고 하면서 돌려주라고 그랬는지?	○ 대한체육회 장기임대 부지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대한체육회, 통합체육회 작업 관계 때문에 상당히 세부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 자금 자체가 하남 부지 1500평에 인재양성을 위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설립 목적,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이 돈이 쓰여지지 못하니 돌려주는 게 옳지 않나라고 하심.
○ 안종범 씨가 다른 데서 한 300억 가까이 모금을 하면서도 목적성을 이유로 돌려주라는 등 관여하지 않았다는 지적	○ 그 부분은 모름.
○ 돌려주는 시점이 딱 완결된 다음에 안종범 수석하고 민정수	○ (답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석실이 협의를 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조율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는 지적	
○ 연봉이 얼마인지?	○ 1억 2,000만원임.
○ 이사장을 사퇴할 생각 없는지?	○ 충고 달게 받고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음.
○ 최순실이 재벌들을 겁박해서 거둬들인 K스포츠재단의 이 돈, 미르재단의 이 돈 이것은 국고에 환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음.
○ 지난 일요일 날 새누리당 국조위원과 접촉한 적 있는지?	○ 있음.
○ 삼성생명에 150억 상당의 저축성 생명보험 든 것 있는지?	○ 157억이라고 알고 있음.
○ 보통 재단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형식으로 드는데, 생명사에 저축보험 형식으로 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것을 드셨는지?	○ 일단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57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재단의 기본재산이 보험 형태로 해서 박헌영 과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수익자는 재단이고 또 박헌영 과장한테는 단 한 푼도 수익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 재단에 어떤 재무 관련되는 사람 빼고 최하급 직원의 이름으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돼서 진행이 되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나머지 100억은 정동춘 이사장 이름으로 됐는지?	○ 그러함. 당시 재무부장에게 '당분간은 큰 지출이 없을 것이니 가장 높은 수익의 금융상품을 알아봐라' 해 가지고 한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단기간 동안의 가장 최고 수익의 상품이었음.
○ 정동춘 증인 그리고 박헌영 증인, 재벌 기업으로부터 각출받은 이 기금으로 정동춘 증인 앞으로 100억 그리고 박헌영 증인 앞으로 57억 이렇게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	○ K스포츠임.
○ 이 저축성보험 가입 관련해서 리베이트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 우리 경영지원본부의 부장이 일괄 처리했음.
○ 본인이 재단 이사장인데 그러면 그것을 부장이 일괄 처리했으면 결론은 그 부장은 일괄 처리한 내용을 최순실 증인에게 그 리베이트 비용을 다 전달했다는 것인지?	○ 그 사실은 제가 모르겠음. 전혀 모르겠음.
○ 보험 가입 절차와 또 보험 가입을 통한 계약 주체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 그렇게 하겠음.
○ 데이비드 윤, 윤영식 모르는지?	○ 모름.

(나) 박헌영 증인(전 K스포츠재단 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동춘 이사장이 '특검 및 국정조사 재단 대응방침' 문건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이야기 했는지 질의	○ 국조나 특검이 있으니까 재단 차원에서 직원들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것 보고 좀 참고를 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함.
○ 정현식 사무총장이 SK와 관련된 기금 모금 부분을 박헌영 증인이 기획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는지에 대한 질의	○ 제가 한 것 맞음.
○ 증인의 원래 소속은 K스포츠임에도 더블루K에 가서도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질의	○ 맞음.
○ K스포츠재단 직원인데 더블루K의 고영태가 부르면 가고 그랬는지?	○ 그러함.
○ 더블루K에서 기획안 만들라고 하면 만든 적도 있는지? 기획안을 밤까지 기다렸다가 최순실에게 보고한 적도 있는지?	○ 그러함.
○ 더블루K의 직원이기도 한 것인지?	○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그렇지 않음. 실질적으로는..(답변 흐림)
○ 그렇게 일을 한 것은 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가 역시 최순실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 실소유주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제가 처음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관여를 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신 분이고..(답변 흐림)
○ 어떤 경로로 K스포츠에 입사하게 되었는지 질의	○ 올 1월 초에 고영태 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러한 재단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이력서를 들고 한번 와라' 그랬음.
○ 금년 1월 초에 K스포츠에 입사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과장으로 직책을 가지게 됐고, 보통 더블루K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질의	○ 최순실 씨가 지시하는 기획안들을 많이 만들었음. 주로 그런 서류를 만드는 일이었음.
○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을 날짜별로 아니면 케이스별로 얘기하면 롯데와 관련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관련된 기획안도 박헌영 증인이 작성하였는지 질의	○ 맞음.
○ SK와 관련된 펜싱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20년 도쿄올림픽 비인기종목 유망주 해외 진출 관련도 본인이 작성하였는지 질의	○ 맞음.
○ 포스코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관련, 통합 스포츠팀 창단 관련 문건도 본인이 작성하였는지 질의	○ 그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님. 제가 GKL 펜싱팀 창단에 대한 기획안을 처음에 최초 만들었음.
○ GKL 장애인 펜싱 실업팀 창단 관련 문건도 본인이 만든 것인지 질의	○ 맞음.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기획안을 토대로 해서 다른 분이 만든 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로 알고 있음.
○최순실 씨와의 접촉이 많았는지 질의	○일주일에 한 3회 이상은 본 것 같음.
○근 1년 7~8개월 텀을 두고 그 사이에 계속 만났다는 이야기인지 질의	○1월부터 5월까지는 굉장히 그렇게 빈도가 잦게 뵈었고, 6월 정도 돼서부터는 거의, 더블루K를 제가 그때부터는 거의 왔다 갔다를 많이 안 했음.
○본인 명의나 가족 명의로 핸드폰을 몇 개 만들었는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한 대가 있고, 최순실 및 고영태가 요청해서 제 이름으로 두 대, 어머니 이름으로 한 대 이렇게 세 대를 만들어서 그 중의 한 대는 제가 쓰고 한 대는 고영태가 쓰고 한 대는 다른 분이 썼는데 나중에 검찰조사에서 알고 보니 장순호 라는 사람이 그걸 쓴 것으로 알게 됨.
○장순호가 지금 독일 검찰이 돈세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사람 아닌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음.
○장순호는 독일 검찰이 삼성 돈세탁 수사를 받고 있는 장남수의 부친이 맞다는 지적, 장순호를 만난 적이 있는지?	○SK에 제안을 하러 들어갈 때 같이 만난 적이 있음.
○장순호라는 분은 무슨 역할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저도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왜 핸드폰을 많이 만들었는지?	ㅇ 더블루K에서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임.
ㅇ 업무용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막 만드는지?	ㅇ 그건 저도 잘 모르겠음.
ㅇ 최근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태블릿 PC를 본 적이 있는지	ㅇ 문제가 됐던 태블릿 PC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영태가 들고 다니던 태블릿이 있었고, 그것에 맞는 충전기를 사오라고 지시받은 적이 있었음. 구형 핀의 충전기를 사와서 고영태로부터 핀잔을 들은 일이 있음.
ㅇ 고영태가 청문회에 나와 문제의 태블릿을 본인은 모른다면서,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안들어 있는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는데, 왜 그렇게 진술했다고 생각하는지?	ㅇ 잘 모르겠음. 그런데 청문회 증언을 보고는 제가 본 것이 그 공태블릿인가보다 생각했었음. 그런데 또 검찰에서는 확보된 태블릿이 1대라고 해서 의아했음.
ㅇ 태블릿 PC 고영태 씨가 쓴 걸 봤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기종이 뭔지 기억하는지?	ㅇ 기종은 삼성이었던 걸로 기억함.
ㅇ 기종이 삼성 갤럭시탭인지?	ㅇ 정확한 모델명은 모르겠음. 충전기 사 오라고 했을 때 얼핏 봤을 때는 삼성 것이었음.
ㅇ 전화통화도 할 수 있는 기종인지?	ㅇ 잘 모르겠음.
ㅇ 문자메시지 받을 수 있는 기종인지?	ㅇ 제가 알기로는 탭 그런 류의 기기들이 다 그런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안종범 수석 한 번 보셨다고 그랬는데 올해 2월 26일 날 부영 관계자들 만날 때 증인이 같이 있지 않았는지? 그 자리에 안종범 수석이 있었는지?	○ 그 미팅에 제가 갔는데, 저희 전 사무총장님이신 정현식 사무총장님 모시고 같이 갔는데 그 호텔에 도착을 해서 저보고는 로비에 있으라고 그랬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들어오라고 했음. 안종범 수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음.
○ 정현식하고 안종범이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인이 조우한 적은 없다는 뜻인지?	○ 그러함. 다만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저보고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하셔서 그 내용을 얘기했음.
○ 책상을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 책상을 놔두고 나온 이유는 최순실 씨 지시였음. 그 당시에 이미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영태 씨는 그 당시에 이미 사무실을 나오지 않고 있었던 시기였음. 그래서 사무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책상을 저희가 임의대로 치울 수가 없으니까 최순실 씨한테 물어본 것임. ‘그것은 고 상무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 지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 괜히 건드려서 그걸로 또 무슨 법적인 걸로 걸고넘어질 수 있으니까’ 라고 지시함. 최종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으로 나오면서 당연히 남의 책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고 나와야 되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책상 서랍을 열어 봤던 거고, 그때 제가 태블릿 PC가 거기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임.
○ 최순실이 태블릿 PC나 아니면 PC를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 태블릿 쓰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봄.
○ 그러면 일반 PC는 잘 활용하던지?	○ 컴퓨터는 어느 정도 쓰는 것 같았음.
○ 처음 입사할 때 최순실 면접보고 입사 했는지?	○ 맞음.
○ 업무 지시도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 최순실 씨가 한 것인지?	○ 전부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음.
○ 안종범 수석 만난 적 있는지? 무슨 이야기 했는지?	○ 누슬리라고 하는 스위스 스포츠시설 가설 전문업체의 설명회 같은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한 번 오셨음.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
○ 연풍문 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증인도 거기에 자주 참석했는지?	○ 가본 적 없음.
○ 차은택 만난 적 있는지?	○ 없음.
○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들은 적 있는지?	○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독일 몇 번이나 갔는지? 최순실 씨 요구로 해서 가게 된 것인지? 거기서 최순실, 정유라 만났는지?	○ 4월 3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한 번 갔다 왔음. 재단의 출장으로 간 것임. 정유라는 만난 적 없고 최순실만 만남.
○ 독일에서 정유라 씨 말이라든지 마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 있는지?	○ 전혀 없음.
○ 독일 출장 갔을 때 삼성 쪽 사람들 만난 적 있는지?	○ 없음.
○ 독일에서 뭐 했는지?	○ 몇 군데 스포츠 센터들 답사를 하고 시설들 둘러보고 그 매니저분들 만나서 저희 K스포츠재단의 향후 인재 육성 사업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간략한 협약서 같은 것을 쓰고 왔음.
○ 독일에서 승마 전지훈련 관련 협의를 하고 온 것 아닌지?	○ 아님.
○ 독일에서 최순실을 만나서 승마 관련 협의 한 것 아닌지?	○ 승마 관련은 전혀 한 적이 없음.
○ 롯데에서 70억 받았다가 돌려줬는데, 최순실의 지시였는지?	○ 경위는 알지 못함. 정동춘 이사장 통해 듣기만 함.
○ ‘전국 5개 정도의 거점 체육센터 건립 기획안을 만들어라’ 지시한 적 있는지?	○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연봉이 얼마인지?	○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음.
○ 정동춘 증인이나 아니면 새누리당 모 위원님과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는데 접촉한 적 있는지?	○ 없음.
○ 오늘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음. 태블릿 PC 소유는 최순실 것이다라는 증언을 한 점임.	○ 그런 증언을 드리려고 나오지 않았음.
○ 본인 앞으로 저축성보험 57억 가입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가서 사인도 제가 했음.
○ 거기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비용 누가 처리했는지?	○ 리베이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음.

(5) 문체부 농단 관련 사항 - 김종덕 증인(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장관직을 언제 사임하였는지, 재임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질의	ㅇ9월 4일 사임하였고, 2년 조금 넘게 있었음.
ㅇ사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질의	ㅇ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음.
ㅇ들어가신 이유도 알 수 없는지 질의	ㅇ들어간 것은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차은택이 추천해 갖고 들어간 걸로 되어 있음.
ㅇ증인이 아는 한 차은택이 증인을 장관에 추전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차은택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지 않았는지?	ㅇ청와대에 제 지인들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 지인들 중에 누가 저를 추천했나 그렇게 생각했음. 나중에 알고 보니 차은택이 추천했던 것임.
ㅇ차은택 뒤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지?	ㅇ전혀 몰랐음.
ㅇ차은택이 추천해서 된 것은 알았을 텐데, 차은택이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되니까 배후에 있는 사람을 또 주위에, 청와대에 아는 사람들 있으면 알아봤을 것 같은데, 안 알아봤다는 게 이상하다는 지적	ㅇ작년에 정윤회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차은택으로부터 자기 뒤에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음. 그래서 제가 보좌관한테도 물어봤고, 또 언론에도 한참 보도가 나오면서 최순실 씨 이름이 나와서.. 차은택 씨가 최 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음.
○차은택의 도움으로 장관이 됐는데 누가 정말 결정적으로 도와줬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는지?	○그때까지 차은택한테 물어봤는데 말을 잘 안해줬음.
○차은택이 김종덕 장관한테는 주로 어떤 걸 부탁했는지?	○전혀 부탁 안 함. 특혜도 준 적 없음. 지금 와서 돌이켜서 보니까 굳이 저한테 부탁 안 해도 사실은 다 해결했던 것 같음.
○아리랑 방석호 전 사장하고 같이 차은택 씨나 최순실 씨 만난 적 있는지?	○없음.
○방석호 전 사장이 국민 세금으로 해외 가족 여행 다니고 사적 유용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이런 것은 아는지?	○기사도 읽었고 감사도 시켰는데 다 무죄 난 것으로 알고 있음.
○방석호 전 사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법인카드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이 다 최순실 씨 사무실이나 카페 인근 지역이었다는 지적	○(답변 없음)
○장관 내정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받았는지 질의	○김기춘 실장께서 후보자로 내정됐다고 통보했음.
○그만두시는 것은 누가 얘기를 해 주었는지 질의	○그만둔 것은 사실은 제가 올초에 사임 의사를 여기 계신 수석께도 전달했고 또 부속실에도 전달을 했음. 몸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건너뛰어서 결정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기다리라고 그랬음. 장관들 교체할 때 함께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음.
○ 본인이 운이 좋아서 장관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렀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본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질의	○ 어느 쪽도 아니라고 봄. 제가 전임 장관으로서 하여튼 제 재임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리고 걱정을 끼쳐 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함. 장관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음.
○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감독과 관련, 정구호 연출감독을 장관이 골라서 추천했는데 그 분이 8월 30일 그만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	○ 그만두게 된 게 총감독하고 연출감독 사이에 불화가 좀 있었고, 정구호 감독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보니까 후임 조직위원장이신 이희범 위원장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음. 그래서 아마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정구호 감독만 빼 놓고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사임한 걸로 알고 있음.
○ 김종덕 증인께서 추천을 했던 연출감독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을 커버해 줄 능력이 장관으로서 없었는지 질의	○ 그것은 그야말로 조직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문체부장관으로서 개·폐막식의 연출감독 하나 마음대로 하실 수 없었는지 질의	○ 그 문제는 제가 개입하고 말고의 문제가 사실은 아님. 조직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조직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한 일임.
○ 감독선정 자문위원회의 선정 결과에서도 처음에는 감독이 선정되지 않았음. 그 뒤에 송승환 감독이 우선 대상으로 후보자 추대가 되었는데, 이 것은 누가 한 것인지 질의	○ 처음에 송승환 감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음. 프레젠테이션에 송승환 감독이 아예 대상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있었다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음.
○ 마지막에는 어떻게 송승환 감독이 다시 됐는지 질의	○ 자문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랬음. 5인 자문위원회에서 추천된 분들 중에 한 분이었음.
○ 누가 특별히 송승환 감독을 추천한 건 아닌지 질의	○ 한 두 분 정도가 특별히 좀 추천을 하였음. 그분이 특별히 차은택이라든지 최순실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을 밝히기는 어려움.
○ 송승환 감독에 대해서 차은택 감독이 했을 수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는지 질의	○ 제가 알기로 그렇지는 않음. 송승환 감독의 연출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걱정을 하셨음.
○ 김종덕 증인께서 정구호 감독한테 했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	○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여러 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마치 위에서 잘라라 지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감독이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해 가지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조직위원회가 해야지 되는 일임.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이거 이러시오, 저러시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알고 있는지?	○ 모름.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는 압니다만 본 적도 없음.
○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담당 국장 또 차관이 장관하고 여러 차례 의논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음.	○ 차관이나 국장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있는데 그것 구해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기에 '그것을 내가 왜 보느냐, 그것을 가지고 적용했느냐' 그랬더니 '보조금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보조금 관리 잘 해야 된다' 한 적은 있음.
○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는 알고 있던 것인지?	○ 그것 자체를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런 차원의 인지임. 직접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런 걸 관리해라라고 지시하신 적도 없음.
○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그다음에 모철민 수석을 거쳐서 김희범 차관에게 내려오고	○ 저한테 누구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리고 이것 장관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문화부에 파다한데 모르는지?	
○ 문화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이 이 블랙리스트를 직접 관리했다고 하는데 어떠한지?	○ 그건 잘 모르겠음.
○ 얼마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 할 때 문화예술정책과 사무관 컴퓨터를 검찰이 정확히 초점을 못 맞춰서 놓치고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두 군데만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사무관 컴퓨터는 놓치고 지나가서 곧바로 그냥 포맷을 해 버렸다는 정보가 있음.	○ 전혀 모르는 내용임.
○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을 보면 최소한 김기춘 실장 지시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장판사에 대해서까지도 여러 가지 응징 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다는 지적	○ (답변 없음)
○ 2014년 10월 1일 1급 공무원 여섯이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3명이 옷을 벗은 것과 관련하여 김희범 차관이 주로 그 일을 하였는지?	○ 김희범 차관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1급 정도의 자리는 사실은 정무적으로 판단되는 자리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희범 차관이 '위의 지시다.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위가 김종덕 증인인지? 아니면 김기춘 비서실장인지?	○ 저는 그때 막 왔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 아시다시피 1급 자리 정도 이상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함. 김기춘 비서실장인지는 알 수 없음.
○ 엠티시스템코리아라는 박물관, 미술관에 버튼식 음성안내기를 납품하는 회사의 ALTO5 모델에 대한 일괄구매를 지시한 적 있는지	○ 지시한 적 없음.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한 적은 있음.
○ 공문에 보면 '2015년 7월 2일 장관 지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지적	○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그랬지, 무엇을 구입하고 그러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다 하지 제가 결정하지 않음.
○ 특정업체에 지시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해당 업체는 독점업체라는 지적	○ 처음 들었음.
○ 이런 단종되는 모델을 구입하라고 공문 내려 보내고,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는지?	○ 활용도를 좀 높이고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라고, 고려해 보라고 그런것임.
○ ALTO5 말고 ALTO6 새 기종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었는지?	○ 장관에 앉아서 '이 업체 하십시오' 그러지 않았음.
○ ALTO5가 단종되는 모델인데, 단종되는 것을 10월까지 구입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는 특정업체 제품 재고 처리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지적	○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 독점업체인 엠티시스템코리아가 증인 또는 차은택 씨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	○근거 주시면 수용하겠음.
○증인이 여명숙에게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아달라고 했는지?	○아님. 잘못 알고 계심. 청와대에서 결정한 것임.
○한 달 반 뒤에 여명숙 해임도 위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인지? 왜 해임이 된 것인지?	○여명숙 해임시에는 김상률 수석과 상의했음. 업무가 제대로 안될 정도로 전 직원과 불화가 심했음. 여명숙 위원장이 심지어는 수백만 원을 들여 갖고 자기 사무실을 도청 장치를 찾으라고 그런 지시까지 할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았음.
○여명숙 본부장 해임 관련해서 증인이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내려보내라 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렇지 않음. 전화하신 적 없음.
○여명숙 위원장이 이 청문회장에서 위증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함. 이유는 짐작할 수 없음.
○조양호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청문회에 나와 VIP 뜻이라고 하면서 김종덕 장관이 사표내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부인하실 것인지?	○대통령께서 조양호 위원장이 겸직하는 것 때문에 한진해운 문제에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 같다는 우려를 한다고 전달했고, 그래서 조양호 전 위원장이 관둔다고 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조양호 전 위원장의 사임과 관련하여 조양호 회장은 정확한 설명 없이 사임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만 듣고 사임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냐고 해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 드림.
○조양호 조직위원장 사표, 위원장 사퇴한 것을 두고 증인은 조양호 위원장이 증인의 말 한마디에 그냥 사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사퇴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위원장님 입장에서 담당 부의,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관이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하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위원장 자리는 장관이 뭐 마음대로 해임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님.
○증인의 말에 따르면 한진해운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문체부장관이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전했어야 맞지 않은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한진해운 문제에 좀 더 전념하시고, 이 겸직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임.
○한진해운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문체부장관을 통해서 조양호 위원장한테 전달될 것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전달해야 될 사항이라는 지적	○그러함.
○증인을 건너뛰고 결정되는 것이 많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너뛰고 무엇이 결정되었는지?	○눈치 채기 시작한 것은 작년 중반, 여름 조금 지나서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화여대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 드는지?	○ 사실이라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봄.
○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이나 독일로 돈 빼돌린 것 등은 모두 김종이 한 일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근 언론을 보면 상당부분 그렇게 나와 있음.
○ 증인이 문체부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고 아는 사람들 추천할 때마다 그런 것 신경쓰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음.
○ 본인이 임명한 여명숙을 한 달 만에 자르지 않았는지?	○ 제가 임명하지 않았음. 그 사람이 거기 가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했음.
○ 조양호, 변추석, 여명숙 모두 임명 안했다고 하면서도 해임할 때는 꼭 갔음.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변추석 사장의 경우에는 관광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처가 충실치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임.
○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전시·영상감독이 차은택으로 바뀌고, 주무 부처도 문체부로 바뀌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산업 중심의 전시에서 문화 중심의 전시로 바뀌면서 기존의 전시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전시가 필요했음.
○ 밀라노엑스포 전시 영상감독 법무법인의 부정적인 법률 해석에도 불구하고 차은택으로 교체했는데, 장관 권한으로 한 것인지?	○ 법무법인의 부정적인 해석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음. 시행사 교체는 자문을 받았음. 사실은 전시 자체를 시공 테크가 다 책임지고 있었기 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문에 감독을 임명한 것도 시공테크에서 임명을 하는 것임.
○증인이 차은택 씨의 추천을 통해서 장관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바꾼 것 아닌지?	○그렇지 않음. 감독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님. 총감독은 시행사에서 결정하는 것임. 전시회 관련되어서 자문위원들을 좀 소개해 달라해서 자문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차은택이 추천됐었던 것임.
○CJ가 1조 4000억 정도 투자한 케이컬처밸리(K-Culture Valley) 사업과 관련해서 차은택이 일정한 자리 달라고 했는지?	○케이컬처밸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창조융합센터로 알고 있음.
○문화창조융합 센터장으로 누가 임명되었는지 아는지? 차은택의 지인 아닌지?	○모름. 지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문화창조융합센터장도 우연히 그냥 임명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CJ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님.
○증인이 문체부장관이었던 2014년 김종 차관이 송강영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에게 사무총장 경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지?	○모름.
○‘20대 시도 클럽 지원 기획안’이라는 내부 문건을 보면 문체부 지원 6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상정하고 전국 20개 도시에	○우선은 체육인재재단 통합과 관련된 것은 아시다시피 문체부가 진행하기는 했지만 기재부에서 지시한 것임. 기재부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스포츠클럽을 만들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음.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직개편을 먼저 단행한 것임. 알고 있었는지?	서 각 부처의 통폐합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해 가지고 통폐합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임.
○ 장관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 방침에 의해서 문체부에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부분의 뒤에는 김종 차관이 있는데 김종 차관의 전횡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 첫째로는 체육 분야에 대한 제 지식이 짧았던 것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체육 분야, 2차관이 맡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은 지금처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랬으면 아마 제가 문제를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랬을 것임.
○ 국회 상임위라든지 국감 과정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이 재단의 문제 충분히 정확하게 미리미리 말씀도 드리고 지적을 했는데, 돌아가서 그것 한번 제대로 뒤쳐 보고 점검해 보고 할 생각이 안 들었는지?	○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아예 질의도 사실은 제가 못 받았던 것 같고, 미르재단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프랑스 순방하실 때 에꼴 페랑디하고 한식 관련된 프로그램을 미르가 한다고 그러기에 거기는 뭐하는 덴데 한식재단이 안 하고 거기가 하느냐고 그랬더니 담당하는 국장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알아보고 그다음 날 교문수석실에서 '그거 전경련에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렇게 확인해 줘 가지고 알게 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술 분야에 의견을 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 한 적 있는지?	○ 미술분과 전문위원께서 사사건건 간섭을 해 갖고 힘들다 그러니까 좀 한번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전화한 거였음. 전화를 드렸던 분은 지역분과 전문위원이었음. 지역분과 전문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미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자꾸 미술분과에 대해서 간섭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술분과 전문위원이 있는데 그분의 의견을 좀 존중해 달라 그렇게 전화를 드렸음.
○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이것 최순실이 고치고 있는 사진이 나오던데, 이것 이렇게 가자고 누가 먼저 꺼냈는지?	○ 거기에 그 슬로건은 국민들한테 모은 그대로 쓸 수가 없음. 어차피 영어로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었음. 자문위원회를 열어서..(답변 흐림)
○ 윗선에서 내부 클라이언트가 패션 코리아로 밀었다고 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지적	○ 패션 코리아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뭔가 정보를 잘못 받으신 것 같음.
○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 원더랜드 코리아라는 게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문회의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해 가지고, 그때 김상률 수석도 같이 계셨음.
○ 왜 디자인을 2월 29일 날 완성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 그게 아니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잘못하면 다음 정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서는 못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원더랜드 코리아로 가자'고 했었음. 그런데 전체 운율로 봤을 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원더랜드 코리아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은 그래도 대통령께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김상률 수석께서 두 가지를 결재를 올렸음. 그중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임.
○ 12월 말에서부터 2월 29일 날 계약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문위원은 4월 달임.	○ 그 전서부터, 자문위원회는 오래 전서부터 했음.

(6) 최순실 등의 부정 인사 의혹 관련 사항

(가) 김상률 증인(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 등이 관저와 이 2층에서 집무 아닌 집무를 보면서 각종 비서관들을 불러내고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지?	○ 없음.
○ 김상률 증인도 수석 되고 나서 차은택 추천인 것 알았는지?	○ 그러함.
○ 조카한테 '야, 네가 어떻게 누구 백 있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석이 됐느냐?' 궁금하지 않았는지?	○ 궁금은 했지만, 제가 대학교 행정을 한 8년 하면서 인사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보안사항이라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차은택 감독도 저한테 언급하지 않았음.
○ 차은택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최 회장이라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안했는지?	○ 그런 언급도 없었음.
○ 최순실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 없음.
○ 김상률 증인은 본인의 저서에서 북핵을 옹호했고 노골적인 반미주의 이념을 보였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 내가 공직에, 수석이나 장관 이런 데 임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 상상 못했음. 미숙한 표현에 대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함. 그러나 저는 북핵을 옹호한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저는 반미주의자도 아님.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상률 수석 저서 '차이를 넘어서' 보면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 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 이러한 내용 있음. '미국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북핵을 위험요소로 규정한 것은 자국 중심 발상이다' 이러한 내용도 있음. 민정실에서 이 책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지?	○ 답변을 다 했음.
○ 왜 이 책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안 했는지?	○ 그때 조선일보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공개적 입장을 표명하기를, 저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음. 그리고 '차이를 넘어서' 서문에 보면 제가 한미 관계가 대단히 우리나라에 중요하다고 역설을 했음.
○ 당시에 민정수석실의 누구한테 해명했는지?	○ 권오창 비서관이었음.
○ 김기춘 실장은 지난 며칠 전에 나와서 '공직기강에서 검증을 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고도 되고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임명이 되었다'. 문제가 있었는데 임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했다고 보는지?	○ 그때 제 저서에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제가 친북이나 반미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해명을 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한 번이라도 새누리당 혹은 한나라당 찍어 본 적 있는지?	○ 있음.
○ 본인이 교문수석에 추천된 것은 조카를 잘 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지?	○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음.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검증절차를 거쳐서 면접을 통해서 교문수석에 부임된 것으로 이해했음.
○ 증인의 부인이 시간강사로 있다가 가야금 전공 겸임교수이자 무형문화재인 양승희 교수의 후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압력을 행사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	○ 압력 행사한 적 없음.
○ 송혜진 교수 또 차은택 또 증인 등이 서로 잘 아는 사람으로서, 사실 시간강사가 교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	○ 시간강사가 1년 초빙교수로 된 것이지 정규교수가 된 것은 아님. 1년 계약직임.
○ 차은택 씨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 임원을 찾아가서 올림픽 시설 관련 사업을 따려고 했던 사실이 있는지?	○ 없음.
○ 금년 11월 12일 자 조선비즈에 보면 차은택 씨와 같이 가서 사업권 관련 청탁을 했다고 한 이 기사 내용을 아는지?	○ 허위 오보 기사임.
○ 충남대학교 총장 임명과 관련	○ 모르고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해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가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알고 있는지?	
○ 충남대학교 총장선거에 한양대학교 인맥의 중개하에 이재만·최순실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지적	○ (답변 없음)

(7)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사항

(가) 박기범 증인(대한승마협회 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승마협회에서 특정 선수를 위해 말 구입 등 지원한 적이 있는지?	○ 협회에서 특별히 말을 지원한 적은 없음.
○ 삼성과의 계약서 상의 컨설팅 비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 잘 모르겠음.
○ '2018년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해외전지훈련' 이라는 문건을 보면 결국은 정유연을 위해서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를 승마협회가 준비하는 것이라는 지적	○ 승마협회는 그런 준비를 한 적이 없음.
○ 그러면 문건을 모두 삼성에서 만든 것인지?	○ 잘 모르겠음.

(8) 동계스포츠재단 관련 사항

(가) 이규혁 증인(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장시호를 아는지? 어떤 관계인지?	○중학교 후배임. 사실 중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는 그렇게 왕래가 자주 있지 않았고, 한 10여 년 정도 그냥 안부만 아는 정도였는데 이번 영재센터 일 1년, 201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죽 연락한 그런 사이임.
○누림기획이라고 아는지? 이규혁 증인하고 장시호 증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가 맞는지?	○명의만 빌려줌. 내용도 사실 저는 잘 몰랐고, 당시에 영재센터를 설립할 때 인감 찍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장을 한번은 맡긴 일이 있음.
○누림기획은 어떤 회사인지?	○누림기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름. 그래서 명의만 빌려갔다는 표현을 한 것임.
○누림기획은 K스포츠재단의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고영태의 더블루K를 만든 것과 똑같이 영재센터의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음.
○이규혁 증인의 지분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저도 이번에 그 기사를 보면서 알았음.
○장시호 씨도 자기 지분을 모른다고 그러던데 제가 가르쳐 주니까 시인했음. 이규혁 전무는 30%로 되어있는지?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처음에는 장시호를 잘 모른다고 하다가 장시호와 20년 우정 운운하는 사진을 들켜서 그때서야 마지못해 안다고 했고 동계스포츠재단 설립에 깊숙이 개입하고 거기에 누림기획 지분까지 갖고 있으면서 '잘 모른다. 난 단순히 재능기부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인감을 도용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	ㅇ 당시에 장시호가 그렇게 이름을 빌려가거나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얘기들도 많았고 당시에는 장시호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음.
ㅇ 결국 증인도 장시호와 함께 최순실 일당에 기대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부역자 중의 한 사람임.	ㅇ (묵묵부답)
ㅇ 영재센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문체부로부터 좀 구분해서 오기는 했지만 6억 7000가량이 지원이 되고 또 삼성으로부터 16억가량의 자금들이 지원이 되고, 처음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센터에 국가와 대기업이 그렇게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ㅇ 처음에는 사단법인이라는 것 자체를 저희도 처음 접해 보는 거여서 그게 진행이 그렇게 빠르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었음. 삼성에서 10억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음.
ㅇ 장시호가 최순실의 조카라는 사실은 몰랐는지?	ㅇ 전혀 몰랐음.
ㅇ 지금 스포츠토토 빙상팀 감독인지? 근무는 어떻게 하는지? 상근인지?	ㅇ 상근 감독이고,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거기의 감독직 제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선임됐다는 것도 알고 있는지?	○ 처음에는 장시호가 빙상..(답변 흐림) 동계 종목 실업팀 얘기가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니었고, 하계 종목 그리고 동계 종목 중에 실업팀이 창단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고, 당시에 제가 실업팀 코치를 맡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한테 물었고 그 부분을 김종 차관한테 전달해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전달한 기억이 있음.
○ 증인은 2대부터 4대 회장인 아버지 그리고 5대에서 9대 회장인 어머니에 이어서 2015년 10대 전국빙상연합회의 회장이 되는데 맞는지?	○ 맞음.
○ 2016년 1월에는 특별한 공모절차 없이 일반 팀의 10배에 가까운 39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이 되는데, 이것도 맞는지?	○ 맞음.
○ 그 전 2015년 7월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 함께 동계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전무이사로 취임함. 이때 장시호와 함께 센터 설립과정부터 개입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 처음에 3월 달에 장시호가 찾아와서 저한테 빙상 부분에서 재능기부 차원으로 맡아 달라고 얘기해서 시작하게 되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5년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을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 만났음. 영재센터 얘기도 드렸고 그다음에 김재열 회장님이 당시에 연맹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음.
○ 누가 삼성과 만나라고 했는지? 후원 이야기 안했는지?	○ 장시호가 만나라고 했음. 후원 이야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말씀드렸음.
○ 김종 차관이 만나 보라는 이야기는 전혀 모르는지?	○ 모름.
○ 동계스포츠재단에 누림기획을 통해 삼성에서 돈 들어온 것 다 아는지?	○ 나중에 알게 되었음.

(9)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미수 관련 사항

(가) 한상규 증인(컴투게더 대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오늘 왜 여기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저는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미수사건의 피해자로서 피해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로 나와 있음.
○포레카 회사는 경영이 잘돼 가고 있는지?	○쉽지 않음.
○컴투게더도 큰 피해를 본 게 있는지?	○컴투게더는 큰 피해는 없음. 작년에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정권 실세,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음. 그러다가 그 후에 저희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회사를 인수했더니 계속되는 보복에 좀 시달려 왔었음.
○모스코스라는 회사를 아는지? 모스코스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라고 들었음.
○포레카는 어떤 회사인지?	○포레카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임.
○한상규 씨가 대표로 있는 컴투게더는 포레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지?	○그러함. 상당한 방해와 협박이 있었음.
○어떤 쪽으로부터 협박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통령까지 배후에 있었음. 그들의 밑에 있는 포레카의 김영수 대표와 모스코스의 김홍탁 대표, 모스코스의 김경태 이사, 이 3명이 초기에 저를 협박했음.
○ 구체적인 협박 내용을 좀 소개해 줄 수 있는지?	○ 포레카를 인수하고 지분을 80%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음.
○ 누가 그랬는지?	○ 김영수와 김경태가 했음.
○ 2015년 6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지?	○ 그러함.
○ 송성각 원장으로부터 또 위협을 받았는지?	○ 그러함. 그 3명으로부터 3개월 동안 협박을 받다가 말을 안 듣고 제가 10% 계약금을 내고 단독으로 인수할 준비를 하니까 그때 협박을 바통 터치를 하고,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나서서 저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갈 거니까 항복하라고 협박을 시작했음.
○ 심지어 최순실 쪽에서 '가만 안 둔다', 막말로 '묻어 버린다 하더라', '다치니까 회사 인수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왔었는지?	○ 그러함.
○ 이외의 추가적 외압은 없었는지?	○ 저희가 9월 1일 날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인수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약 1년 넘게 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러 가지 보복이 있었음. 금융위원회 광고 CF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임종룡 장관께서 기립박수까지 치시고 잘 만들었노라고 '청와대에 빨리 보고하고 온 에어를 시키자'고 했는데, 그 CF를 보지도 않으신 그런 안종범 수석께서 '광고회사 중에 컴투게더라고 있지, 거기랑은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온 에어를 못 한 경우가 있음.

[2016년 12월 22일. 제5차 청문회]

(1) 우병우 증인, 광주지검의 해경 서버 압수수색 방해 직권 남용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4년 6월 광주지검에 압수수색 하지 말도록 전화한 적 있는지	○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한 적은 없음.
○ 청와대와 해경 간 통신자료 확보를 위한 광주지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장소가 거기가 아니니까 압수수색 영장 다시 끊으라고 하면서 지체되도록 함으로써 기소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그렇지 않음.
○ 변찬우 지검장의 수사와 기소 의견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적 없는지	○ 압력 넣은 적 없음.
○ 변찬우 지검장이 2015년 1월 인사 때 결국 옷을 벗었는데, 변 지검장을 개념 없는 지검장이라 말한 적 있는지	○ 인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음.
○ 우병우 증인이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결단코 막았던 것은 민감한 사항, 즉 대통령은 결코 해경청장 김석균에게 특공	○ 그 부분은 저는 모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함. 세월호 사고 당시는 저는 청와대 들어가기 전이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를 투입해서 아이들을 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질의	
○ 2014년 6월 5일 날 해경 압수수색 할 때 당시 수사팀장이 던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 혹은 압수수색을 위해서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증인이 통화한 사실 있는지, 윤대진, 이두식, 안상돈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 예,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수사팀의 누군가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 셋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음.
○ 그 당시에 '해경 별관에 있는 해경 서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 저희가 해경에서 직접 뭘 한 게 아니라 해경 쪽에서 아마 그쪽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 해당 비서관이나 그쪽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서 압수장소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곳에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것 갖고 현장에서 지금 검찰과 해경, 두 국가기관이 서로 갈등 내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음. 처음에는 두 기관 간의 대치상태를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한쪽은 영장이 없이 내주기가 어렵다, 한쪽은 수사상 필요하니까 가져가야겠다,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돼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청와대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조정할 문제는 아니어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더 이상 다른 조치는 안 했음.
○ ‘청와대와 해경 간에 통화내역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서버를 떼어가면 어떡하냐. 그것은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니 압수수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증인이 한 사실이 있는지	○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해경 쪽에서 컴플레인 하니까 상황이 뭐냐, 해경 쪽 얘기가 맞냐 틀리냐 이런 상황 파악만 했음.
○ 압수수색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사법작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일차 판단권한은 검찰에 있는 것이지 민정수석인 증인이 중간에서 두 기관 간의 싸움이라고 조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질의	○ 민정수석실이든 청와대가 국가기관 간에 서로 갈등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그것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 편들어서 압수수색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상태에서 손을 뗀 것임.
○ 압수수색 이후 결과로서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는데 대한 반대의견을 법무부나 광주지검 수사팀 또는 광주지검장 등에 피력한 사실이 있는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말한 부분이 있는지	○ 그렇지는 않음. 전체적으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치밀하고 원칙적으로 또 법리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에 했는지, 법무부인지, 법무부 검찰국의 누구인지 등 질의	○ 법무부 검찰국 쪽에 얘기를 했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음.
○ 만약 6월 5일에 그 통화를 했다면 이미 상황이 끝났으니 구조를 방해하려는 의도보다는 검찰의 수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지적	○ 검찰에서 다시 해당 서버가 있는 장소에 영장을 집행해서 가지고 갔음. 결과적으로 보면 증거능력이라든지 적법절차의 면에서는 오히려 임의 제출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함.
○ 청와대는 10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없는 거짓말임. 김석균 청장의 휴대폰 내역을 보면 12시 35분에 유일하게 통화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 대통령의 10시 30분 통화는 거짓말임.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못 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닌지	○ 저는 그런 내용은 몰랐음. 단지 현장에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만 알았을 뿐임.
○ 세월호 수사 압수수색 관련 청와대 상황실과 해경 간에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청와대상황실이 아니고 해경과 그것을 압수수색하려는 검찰 간에 갈등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청와대에 보고가 왔었는지	○ 저희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청와대 어디인가 보고가 와서 저희가 패스를 받았음.
○ 압수수색의 집행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외에 민정수석실에서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지	○ 더 이상 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중간에 그냥 빠지고, 검찰이 영장을 다시 받아 와서 집행해 간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그날 하루에 다 종료된 사건으로 알고 있음.
○ 당시 세월호 해경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광주지검 검사장, 손영재 부장검사 등은 이후 좌천되었음. 또한, 세월호 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막은 점 등으로 유추해볼 때 증인이 말한 두 기관간의 조정 또는 압수수색 영장 새로 받으라는 이야기만 했다는 부분도 물론 부적절하지만, 그랬다고만 하는 증인의 주장은 거짓말로 판단된다는 지적	○ 아까 다 설명드린 그대로임.
○ 통상적으로 해경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에게 직접 전화할 일 없는 것 아닌지	○ 해경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보고계통을 밟아서 청와대 내 어딘가에 비서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통상 검찰에서 압수수색 할 때는 영장 받아가서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집행하던가, 영장 필요 없이 기관 간 연락해서 임의 제출하기도 하는데, 게다가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차후 영장 받아서 정상 집행 할수 있는 내역이면 두 기관간에 임의제출로 협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었는지	○ 만약에 그냥 임의제출 하기로 서로 협조해 버리면 애초에 영장도 필요 없었음.
○ 그 당시 압수수색이 자정에 이르러서야 영장 받느라 늦었는데. 누군가 청와대 부적절한 지시를 삭제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런 절차 밟은거라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	○ 그렇지 않음.

(2) 우병우 증인, 정윤회 문건 사건 관련 은폐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윤회 국정농단 관련 자료, 2014년에 있었던 것 거기에 비선실세 정윤회,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서열 1·2·3위 언급하는 것 그 자료에 나오는데 봤는지	○ 예. 그런 자료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 민정비서실에 박 모 행정관이 문건을 최 경위에 넘겼다고 하라고 회유했다는 한일 전 경위의 구체적 증언이 최근 나왔음. 이 회유하라는 지시, 증인이 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하지도 않고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인지	○ 회유 지시한 바 없음. 회유한 바도 없다고 알고 있음.
○ 최 경위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	○ 최 경위의 죽음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민정비서관실 때문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음.
○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것을 문건유출 의혹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그래서 잘 해결했다고 나중에 민정수석으로 초고속 승진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라는 지적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	○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정도로 알고 있었음. 개인적으로는 모름.
○ 정윤회 문건을 보시고 정윤회와 최순실이 국정농단에서 뭔가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위중하게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는지	○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비서관이나 행정관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한다 그런 사건이었음.
○ 최순실을 조사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	○ 없음.
○ 2014년 12월에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지라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지라시라는 규정은 누가 만들었는지, 대통령은 어떻게 지라시인줄 알았는지	○ 저희가 한 것은 아님. 저희가 직접 지라시라는 표현이라든지 그 연설문이라든지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름.
○ 정윤회 문건 당시에 정윤회 집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 왜 막았는지, 검찰의 김주현 차장, 법무부의 안태근 검찰국장에게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통화를 했는지	○ 그런 적 없음. 저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함.
○ 우병우 증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 당시에 민정비서관으로서 통상적인 민정수석실 업무를 수행했음.
○ 정윤회 일가의 국정농단 사건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변질시켰는지	○ 그렇지 않음. 그것은 검찰에서 문건의 진정성 여부, 진실 여부와 유출 여부 그렇게 수사를 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윤회 문건 사건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의 존재는 사건의 핵심이 아닌지	○ 그 수사는 검찰에서 했음.
○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대처 업무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했는지	○ 그냥 대처업무라기보다 그 당시 민정비서관의 업무를 했음.
○ 정윤회 문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을 강남의 어디 식당에서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국정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국정에 개입을 한다, 그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음.
○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 권력 관련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는지	○ 그 문건에 같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남.
○ 대통령을 제대로 모셨다면,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력 1,2위가 따로 있다면 그때 감찰을 실시하던지 바로잡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은폐하려던 것은 아닌지	○ 제일 핵심적인 것은 정윤회 씨가 무슨 식당에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그것인데, 그것에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그 작성자가 쓴 내용이 허위문건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게 허위면 관련돼서도 나머지 부분도 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이 위험인물이라는 것은 언제 알았는지	○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확히 알았음. 수사가 7번 이후 정도가 아닐까 싶음.
○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때, 최순실 사건을 예고하는 기사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본적이 있는지	○ 잘 기억이 나지 않음.
○ 정윤회 문건 관련, 사건 개요 관련해서 故 김영한 수석에게 보고한 적 있는지 김영한 민정수석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혔다는 지적 적어도 김기춘 실장에게는 직접 보고했을 것 이라는 지적	○ 통상적으로 업무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고했음. 그런 인터뷰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없음.
○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검찰의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서의 타당성 질의	○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함.
○ 김진모, 김주현, 윤각근 등 검찰관계자들과의 연락 여부 및 검찰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들고 우병우수석을 찾아갔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	○ 전혀 사실이 아님.

(3) 우병우 중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여부

(가) 재단 출연 강요 및 불법 모금 관여 여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롯데 75억을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날 돌려줬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롯데에 알려 줬다'는 검찰의 의심에 대한 답변 질의	○ 70억인지 75억인지를 받은지도 모름.
○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및 대통령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지금도 대통령이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는지	○ 저는 비서로서 대통령님을 모신 경험상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음.
○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 등 여러 사람들이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되어 있음.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거나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는지	○ 뭐 그런 얘기는 아님.
○ 안종범이 전경련 통해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돈을 모금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그 당시로서는 전혀 몰랐음.
○ 대통령의 입에서 최순실, 최선생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지	○ 없음.
○ 김영한 비망록에 첨부되어 있는 재벌총수들의 사면 검토 관련 자료 대해서 민정수석실의 관여 여부 질의	○ 잘 모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과의 대가성 의혹 질의	○ 지금 사면 관련해서 김영한 수석님 업무일지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알 수가 없음. 2015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 것은 사실이고 그 사면은 정상적인 사면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면세점 추가 허가 검토 관련 대통령 말씀자료 작성 여부 질의	○ 저희는 모름.
○ 재단 출연과 사면, 면세점 추가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성 의혹 질의	○ 그 말씀자료를 제가 본 적도 없음. 나머지 상황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 10.20. 대통령이 두 재단 관련 논란을 최초 언급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전에 이 문제로 대통령과 얘기한적 있는지	○ 수석들이 주도한 회의에 간 적은 있음.

(나) 김종, 차은택 등 문화계 국정농단 사건 관여 여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차은택을 모르는지, 차은택이 어떻게 우병우 명함을 갖고 있었는지	○ 모름.
○ 민정수석실 특감반에서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는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내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지	○ 조사한 적 없음. 보고받은 적도 없음.
○ 우병우 증인은 김종 차관 내사 이후에 김종 차관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지, 경고했는지	○ 경고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 교문수석이 직접 실제로 김종 차관한테 경고 했는지까지는 민정비서관으로서 확인하지 않았음.
○ KT와 현대, 포스코의 증언에 의하면 민정수석실은 이미 문체부 산하 고위직 인사에 입김을 차은택이 행사한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문체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는데 내사나 감찰을 한 적이 없는지	○ 저는 내사나 감찰 한 적 없음.
○ 12월 7일 자 우리 청문회에 여명숙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와서 내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증언을 했음. 그리고 2016년	○ 여명숙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음. 언론에서는 봤는데, 여명숙이라는 분이 계속 국정원을 통해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4월경에 다시 한번 민정비서관실에서 창조경제추진단이 자꾸 시끄러우니까 또 내사했고 2016년 10월에도 차은택을 직접 조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민정수석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인지	민정에 보냈다는데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음.

(다) 국정농단 사건 대응문건 작성 등 은폐, 증거인멸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게이트 대응문건은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확실함. 대통령 지시로 이것을 만들었는지 질의	○ 대응문건이 무엇인지 모름.
○ 대응문건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 전면 부인하라는 지시 등 위증교사, 사실은폐 조작을 하도록 한 내용이 사실인지 질의	○ 수사대비 문건으로, '부인해라' 이런 것은 저희가 만든 적이 없음.
○ 대통령 보고된 문건을 민정수석실이 모르고 있었는지	○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첫 번째 문건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사진파일 형태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나왔고, 두 번째 문건은 10월 22일에 작성된 수사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받으시면서 세세히 대응상황을 지시하고 있는 이 문건, 두 가지 문건이 검찰 특별감찰반에서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지	○ 이 두 가지 문건을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필승 이사라는 사람이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건넨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어제 조사 상황'에 대한 집중 질문 관련 내용이 있는데, 검찰 수사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지, 롯데 75억 기부금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당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당시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서 되돌려 준 것으로 기억함' 이렇게 답변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쓰여 있어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	○ 그 문건은 저는 모르는 문건임. 그런 것 작성한 적 없음.
○ 안종범이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 검찰 조사대비 문건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한 질의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이 맞는지, 청와대 문건이 아니라는 것인지 민정수석실 문건이 아니라는 것인지 김필승이 검찰에 불려 가는데 민정수석실 검토도 받지 않고 해당 문건이 나갈 수 있는지	○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적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가 반납하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롯데든 또는 안종범 수석이든 검찰의 수사계획을 알려 준 적은 절대로 없음.
○ 최근에 집에 출장을 간 컴퓨터 수리업체 출장서비스 한 사람이 '집에 가서 컴퓨터 하나에 있는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 가 봤더니 우병우 집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 없음.
○ 업무일지를 썼다면 그 자료 지금도 갖고 있는지, 업무일지 폐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안종범 수석 등이 업무일지 가지고 있다가 적은 내용 때문에 실제로 진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우려해서 업무일지 폐기한 것 아닌지	○ 청와대에서 제가 직접 수기로 쓴 업무일지든 아니면 생산한 문건이든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저는 업무일지 처음 한 권 쓰면 파쇄하고 다음 권 쓰고 그렇게 했음.
○ 휴대폰 바꾼 것도 증거 인멸을 위해 바꾼 것 아닌지	○ 핸드폰은 제가 민정수석을 나오고 나서 개인 폰이 있었는데 오래된 것이었음.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서 새 기계로 바꿨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르는지	○ (노승일 참고인)차은택의 법조 조력자가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음.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켜 줬느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 줬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음.
○ 노승일 증인께서 우병우 증인이 직접 소개한 차은택의 법률 조력인은 김기동 씨라고 얘기 했는지 법률 조력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국정농단의 주역을 돕고 있었던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	○ (노승일 증인) 예.
○ 태블릿 pc의 소유자가 최순실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 (노승일 증인) 태블릿 PC 안에는 청와대 자료나 그다음에 유출이 되지 말아야 될 기밀문서나 그다음에 대통령 연설문 등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가장 중요함. 지금 태블릿 PC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증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분위기라고 생각함.
○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 관련되어서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자료들이 그 안에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인지	○ (노승일 증인) 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이 싸울 사이입니까?	○ (노승일 증인) 싸운다기보다는 의견 다툼임.
○ 노승일 증인이 오늘 중대한 증언을 했는데 법률 조력자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고영태가 노승일에게 표현한 원 표현은 무엇이었는지	○ (노승일 증인) 법률 조력자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빠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것을 저는 속된 표현으로 법률 조력자라고 표현함. 고영태는 법률 조력이라는 표현을 씀.
○ 종합해보면 법률용어로 치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의	○ (노승일 증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함.

(4) 우병우 증인, 청와대 민정비서관 낙하산 임명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을 아는지	○ 최순실은 지금도 모름.
○ 차은택 증인이 지난번에 청문회 때 나와서 차은택, 김장자, 최순실, 이대 교수 한 분 그리고 고영태, 고영태 친구, 여섯 분이 기흥 CC에서 골프치고 난 다음에 우병우 증인이 민정비서관이 됐다고 했음.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대정부질문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은 최순실과의 인연이 작용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민정비서관에 발탁되었는지	○ 근거없는 의혹이고,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비서관 제안을 했음.
○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르는지	○ 그렇지 않음.
○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청문회에 나와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하고 한번 의사 확인하라 해서 제가 대면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함.	○ 차은택을 모름. 장모로부터 차은택 씨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김기춘비서실장이 이렇게 답변한 사람의 특징은 모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람임. 결과적으로 우병우 민정비서관도 최순실의 부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	
차은택 증인이 나와서 최순실 씨가 우병우 장모에게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장모로부터 차은택 씨에 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 차은택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를 아는지, 김종민변호사도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모 김장자,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등이 골프를 쳤다고 증언했다는 질의	○ 그 얘기는 김종민 변호사는 차은택 씨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차은택 씨의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있음. 저는 차은택 씨를 모르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장모님밖에 없고 장모님이 아니라고 함.
○ 골프장에 간 사람이 장모님 대신 부인인지	○ 집사람은 아님.
○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지	○ 전혀 없음.
○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갈 때 인사검증절차를 밟았는지	○ 예.
○ 민정수석이 될 때 인사검증 절차를 밟았는지	○ 수석으로 갈 때는 따로 안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선례가 있는지	○ 예전 정부에서 있었다고 생각함.
○ 민정수석으로 영전한 것은 정윤회 문건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	○ (답변없음)
○ 김장자, 최순실, 이임순이 잘 아는 사이가 아닌지	○ 전혀 사실이 아님.
○ 김장자 소유 기흥CC와 최순실의 차명회사 티알씨가 커피 원두 거래를 했었는데, 김장자가 최순실을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지	○ 물어봤는데 전혀 모른다고 함
○ 골프도 안 쳤다는 건지	○ 골프도 안 쳤다고 함.
○ 대통령에게 우병우 증인을 소개하거나 이야기 한 사람은 누군지, 최순실인지	○ 대통령께서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거라 생각함.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 증인의 장모가 기흥CC를 운영하는데, 거기 종업원 등을 접촉해서 음성 녹음한 것에 따르면, 증인의 장모인 김장자 회장은 최순실만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즐겁게 맞이한다고 함. 그런 인연으로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정비서관으로 추천되었고, 결국 증인, 최순실, 문고리3인방	○ 저는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음. 음성변조가 되어 있고, 2주에 한 번씩 와서 버선발로, 그런 얘기는 저는 납득할 수 없음. 김기춘 실장님이 저한테 민정비서관 제안을 해서 워낙 어려운 분이라서 승낙을 했지만 돌아와서 4년 내지 5년 후배 뒷자리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패거리를 이루어서 이번 최순실 사태 농단의 주범이라고 추정된다는 지적 증인이 검사장 승진 실패하고 변호사 1년 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복귀하고 싶은 욕구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정수석 자리에도 고맙게 들어간 것 아닌지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동기들이 검사장이 된 지 벌써 1년 내지 1년 반이 됐는데 1급 비서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 사실 나름대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음.
○ 장모인 김장자씨에게 최순실과 관련된 관계를 물어본 것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한 질의 현재 정황상으로 볼 때 장모 김장자는 최순실과 아주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 장모와 최순실의 관계, 친분관계 속에서 우병우는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이 되고, 차은택이 있고, 결국은 이런 고리가 국정농단의 핵심 고리로서 작용했다는 지적	○ 그게 11월인가 기사 나서 물어봤음.

(5) 우병우 증인, 직무유기 여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게 하고 비선실세라든지 또 잘못된 국정 운영이 개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민정수석의 역할인데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고 또 예방하고 조치를 취하고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사전에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것인지, 사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은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비서관에서 수석 되고, 권력 농단의 실세가 되어 버렸음을 지적	○ 그렇지 않음. 저는 그냥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 업무를 했음.
○ 대한민국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을 몰랐다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맞는지	○ 몰랐던 점에 대해서는 제 업무가 미흡했다고 생각함.
○ 2014년4월 정진민 행정관으로부터 김종 차관에 대한 비리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2008년도부터 미국 테네시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김종 차관의	○ 14년 4월은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임. 특별감찰반장으로부터 보고받았음. 그 보고받고 나서 당시에 홍경식 수석께 그대로 보고를 드렸음. 홍경식 수석께서 그것을 보고받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 교문수석한테 '김종 차관을 경고하라' 이렇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인이 있는 조지아대학으로 이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과정에서 김종 차관이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사였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정진민 씨가 우병우 비서관한테 연락하니 우병우 비서관은 홍경식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고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돼서 이것이 무마됐다는 증언이 있다는 질의	○ 아님. 보고도 정진민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정진민이 소속돼 있는 특별감찰 반장으로부터 받았음.
○ 차은택·이성한 문제, 최순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내사한 적 있는지,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 내사한 적 없음. 거짓말임.
○ 투기자본센터에서 안종범·차은택이 고발돼서 형사8부로 배정된 것은 알았는지, 법무부로부터 경위를 보고 받았는지	○ 예. 통상적인 보고를 받았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움.
○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 보고 사건을 조사도 안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안 했다는 것은 민정수석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형법 122조(직무유기) 위반이라는 지적	○ 동의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탄핵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민정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좀 더 세밀히 살펴서 미리 알고 막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함. 그런 점에서 제가 미흡했다고 생각함.
○ 당시 최순실을 증언한, 정윤회 문건을 증언한 밍크 장사하는 김 씨 아줌마 아는지	○ 저는 모름.
○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주역에 대하여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민정수석실에서 직접적으로 감찰을 하고 외부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인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 저희가 주되게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관련 기관의 보고에 의하는데, 그런 보고가 사실 없었음.
○ 민정수석 임무 중 하나가 공직감찰이라면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에 대해서는 왜 복무감찰하지 않았는지, 직무유기가 아닌지 질의	○ 관저에 그렇게 출입하는지를 알았더라면 모르지만 그 자체를 몰랐음. 경호실에서 적절하게 통제하는지는 저희 관할, 업무 담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림.
○ 최순실이 청와대에 왔다 간 사실은 알고 있는지	○ 모름.
○ 문고리3인방과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 미팅을 얼마나 했는지	○ 그냥 직장 동료로서 업무상 보고 그랬음. 업무상 필요하면 전화하고 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직무유기를 한 것 인정을 하는지	○ 그 부분은 미흡하다고,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림.
○ 현기환 정무수석은 왜 감찰하지 않았는지	○ 그것은 나중에 강제수사를 통해서 나타난 일임.
○ 김영한 비망록 12월 12일에 보면, 첫 페이지 '박동열, 김00 54~55세 밍크 장사' 김영한 수석과 회의 때 언급이 됐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불려가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했음. 알면서도 안 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저기를 파헤치기 싫어한다는 신호를 받은 것 같다는 지적	○ 저는 못 들었음. 검찰에서 김 모 여인을 조사했다는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음.
○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실 직제로 해서 그 대상에 친인척이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친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하느냐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친인척이라고 되어 있음. 통상적으로 그러면 한 8촌 정도로 봄.
○ 친인척 개념 속에는 통상 호적 개념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것 아닌지	○ 그렇게 볼 수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07년 한나라당 대표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간의 복잡한 의혹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 저는 무슨 경선캠프나 대선 캠프나 그런 데에 근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름.
○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주변을 관리해야 할 수석 비서관이었는데, 최태민 일가에 대한 사항을 모르고 있었는지	○ 그렇게까지 정확히 모름. 그렇게까지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특감반에다 관리하라는 정도로 지시했었음. 특별감찰관실이 별도로 생긴 이후에는 그 감찰 범위를 빼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을 조금 더 본 면이 있음.
○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지	○ 예, 전혀 들은 적이 없음.
○ 최순실이가 92년부터 2016년까지 25년동안 최종적으로 비덱스포츠 등 10개의 회사를 독일에 세웠다는 것을 알았는지	○ 몰랐음.
○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조폭적인 강탈이 있었는데 인지여부 질의	○ 몰랐음.
○ 차은택 관련 내사 및 최순실 관련하여 김기춘실장에 대해 보고 여부 질의	○ 김기춘 실장님 계실 때 저는 거의 비서관이었는데, 따로 들은 적이 없음.
○ 차은택, 송성각의 문화정책 국정농단에 대한 내사가 없었다면 직무유기라는 지적	○ 어쨌건 저희가 내사나 감찰을 한 적이 없음.

(6) 우병우 증인, 박근혜 정부 '알자회' 세력화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알자회'에 대하여 아는지	○ 예. 들어봤음.
○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알자회가 살아났다, 박근혜정부에서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거나,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는 질의	○ 그런 것은 아님
○ 2016년 7월 군 인사에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오더를 내려서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씨에게 권 모 대령, 신 모 대령을 장성으로 진급하도록 말한 적이 있는지	○ 장성 진급 같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음.
○ 권 모 대령 이름을 아는지, 뇌종양으로 전역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신체검사를 통해서 2주 전 합격 통보를 받고 장성으로 진급했음	○ 모름.
○ 신 모 대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 이 사람도 장성으로 진급해 달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장성 진급이 되지 않았더니만 야단을 쳤다는 의혹이 있음.	○ 전혀 모르는 얘기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육참총장에게 얘기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사과 전화까지 했다는 제보에 대한 질의	
○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과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군 내 인사정보를 받으면서 군 인사에 개입해서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경석, 조종설, 장경수 등의 '알자회'를 전면적으로 배치했다는 증언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음.
○ 추명호는 알자회 출신으로 육사 41기, 중위 때 국정원으로 갔음. 2014년 8월에 추 국장은 이 6국, 8국의 최대 정보수집 부서에 승진함. 그 때 우병우 증인이 이 민정비서관이었음. 알고 있는지	○ 예, 그때 승진한 걸로 알고 있음.
○ 우병우, 안봉근이 '알자회'를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닌지	○ 민정수석실은 군 인사에 관해서 인사검증을 했음.
○ '알자회' 관련 인물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군대 내에 사조직이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 안됨.
○ '알자회'를 알게 된 경위 질의	○ 이런저런 보고서 보다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았음.
○ 증인과 '알자회'와 연계는 없는지	○ 거론된 군인들은 전혀 모름.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
○ 우병우 수석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추명호가 국정원을 장악하고 이재수·박지만 라인을 날리고 조현천을 등장시킨 것이 '알자회'임. 조현천을 통해서, 임00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최00 소장으로 가고, 장00 특전사령관, 장00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00 특전사령관, 김00 청와대 위기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알자회'로 채워짐 이렇게 우병우팀이 국정원 장악을 통해서 군까지 장악하는 이야기가 지금 월간지·일간지에서 나오는데 읽어 본적 없는지	○ 그 얘기는 읽어 본 적 없음.

(7) 우병우 증인, 김영한 비망록의 우병우팀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입니다. 우병우 팀에 홍성담 화백, 박창신 신부, 가토 지국장 등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과 국정원이 정보수집팀을 만들어서 처단하고 응징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 우병우 팀이라고 전에 청문회도 해서 봤는데 저는 민정비서관이었지 우병우 팀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 우병우팀은 특감반임. 특감반은 공식 조직인지	○ 특감반은 공식 직제에 있음.
○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정보보고 받았는지	○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음.
○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정보는 추명호 8국장이 수집·분석한 정보인지	○ 그것도 포함돼 있음.
○ 청와대 재직시 검찰, 경찰, 국정원으로부터 각종 보고 받는지	○ 검찰은 정보보고 안 받고 국정원이나 경찰보고 받음.
○ 홍성담 화백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에 대하여 비망록에 따르면 '애국단체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하겠다-우병우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보수국민연합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는데 무관한 것인지	○ 우병우팀이라는 게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 나온다 그래서 처음 안 거지 제가 5월 달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관이 됐는데 저 때가 3개월도 채 안 된 상태임. 우병우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우병우팀이 무엇인지, 해당 팀은 경찰과 국정원으로 구성된 팀인지	○ 그런 건 없었음.
○ 신부 뒷조사, 산케이국장 법적 조치 같은 응징 등의 강한 주문이 기록되어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민정수석실인지 김기춘실장인지, 직접 관여한 적은 있는지	○ 예, 저는 모르겠음.
○ 추명호 국장이 국정원 국장으로 근무했을 때, 보고서를 어떤 루트로 받았는지. 보고서에 최순실 관련 내용이 없었는지	○ 추명호 국장이 아니라 추명호 국장이 만든 보고서를 국정원 보고로서 정상적으로 받았음. 전혀 없었음.
○ 국정원 추명호 국장하고 얼마나 만났는지, 전화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 직접 만난 건 올해초 한 번임. 전화는 가끔씩 함.
○ 우병우팀이라는 것은 국정원 추명호 6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갖다 쓴다는 지적.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우병우 수석이 롯데 잠실에서 보고를 따로 받았는지	○ 전혀 그렇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정원 2차장, 최윤수 2차장, 김기동 검사까지 대표적인 우병우사단이라는 지적	○ 우병우 사단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붙인 얘기임. 무슨 사조직도 아니고 정기모임을 갖는 것도 아님.
○ 추명호 국장이 민정수석한테 비선 내지는 국정원으로서 국내 정치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보 보고를 직접 한 적이 있는지, 비선보고 질의	○ 따로 원장을 거치지 않고, 보고가 되지 않고 별도로 하는 그런 것은 전혀 받아 본 적이 없음.
○ 국정원 장악 의혹 관련하여 추명호 국장과의 만남, 도진호(삼성 출입 IO)와의 관계, 연락 과정 및 사유, 소개받은 사람 등 질의	○ 도진호 직원은 제가 청와대 들어갔을 때 이미 전 정부 때부터 근무하던 직원이었음. 제가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으로서 같이 일을 했음.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떠났음. 떠난 후에 삼성 어쩌고 한 것임.
○ 남재준 원장을 추명호 국장이 치고 그 라인에서 우병우팀을 만들어서 우병우에게 보고가 되고 또 안봉근을 통해서 최순실로 연결되는 이것을 우병우팀'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질의	○ 비서관 막 들어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임.

(8) 우병우 증인,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 부실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검증 관련,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하는데 이것이 검증에서 통과되는지	○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1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일반공무원들도 그것 몇 년 지나면 가능함.
○ 진경준, 넥슨 재팬 주식 88억으로 이미 신고되어 있는 상태임. 증인하고 진경준하고 특수관계이고 땅 파는 문제로 걸려서 이것 봐준 것인지	○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임. 특수관계는 아님. 다만 청와대 인사 자체에서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공짜로 받았는지 제대로 산 건지 이런 것은 검증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 강남역 부동산을 넥슨에 1173억에 매각 희망을 했는데 넥슨의 매수 희망가는 1020억이었고 실제로는 1326억에 매도가 됐고 몇 개월 후에 넥슨이 매각할 때 전체 비용을 하면 도리어 손해를 봤는데, 이런 거래를 넥슨이 왜 했는지	○ 저는 김정주 회장 모름. 그 사람한테 이것 사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음.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생각함.
○ 진경준 검사장 검증을 하지 못한 사유(차명계좌였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었다, 계좌추적권이 없었다는 답변 관련) 질의	○ 제가 알기로는 1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활용을 했음. 검찰 수사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진경준 계좌로 들어온 것이 차명계좌였는지	○ 그 당시 차명계좌를 통해서 세탁을 했다고 들었음.
○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 총괄하는 자리인데, 이 정부 들어 국립대 총장이 몇 년째 비임용 상태로 지속된 것 알고 있었는지 증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에도 여러 대학들이 소송 제기했고 교육부가 패소하기도 하였음.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미임용 사례가 한 두건 있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9건임. 인사검증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에 대한 질의	○ 시간이 걸린다기보다 저희는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검증이 접수가 되면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처나 해당 수석실에 통보해 줌. 대학총장 임명을 하거나, 임명을 지연한다 하는 것은 저희하고 직접 관련은 없음.
○ 경북대 총장의 경우 왜 2년이나 걸렸는지	○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음.
○ 9월 2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 회의에서 우병우 증인이 경북대 총장 후보자 1순위자가 아닌 2순위자를 낙점했다는 주장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하고, 교육부도 합의 끝났는데 우병우 증인이 반대해서 결국 2순위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아닌지	○ 인사검증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도 안 나지만 그것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는 얘기임. 그것은 사실이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상률 수석의 저서 분석 등 인사검증 과정 및 경위 질의	○ 당시 김상률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했음.
○ 김영한 비망록에서 인사검증 관련 민정 세평팀의 존재 여부 질의	○ 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궁금하면 좀 알아봐라 하는 정도임.

(9) 우병우 증인에 대한 개인 및 친인척 비리 등 기타 의혹

(가) 우병우 개인비리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넥슨 관련해서 문제됐던 강남 부동산 그 제보 내용이 '더라움의 박성찬 회장한테 먼저 매입 제의가 들어와서 갔는데, 너무 비싸다고 해서 주저하고 있는데, 증인이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는지	○ 저는 그런 적 없음.
○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라는 기업에 떠넘기고, 변호사 수임료 제대로 신고 안 해서 탈루 문제 본인이 인정한 것 아닌지	○ 아님. 그것은 세금 탈루 인정한 건 아님.

(나) 우병우, 장차관, 사법부, 검찰 사찰 및 압력행사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1월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증인이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했다는 보도 있는데, 이 사람들 좌천하거나 승진 누락 시킨 건 없는지	○ 그런 적 없음. 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총장과 협의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임.
○ 44명의 검사 블랙리스트 모른다고 했는데.. 이름, 기수, 보직 적혀있고 국정원 댓글, 채동욱 등등으로 분류해서 불이익 주고 했다는데 이것도 우병우 증인이 관여한 것 아닌지	○ 그런 일 없음.
○ 장차관 사생활 조사 했는지	○ 사생활 조사는 안 함.
○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에 적힌 내용인데, 부장판사들의 발언내용, 비망록에 적혀 있으면 바로 조치 됐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가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한 것 아닌지 지난번 청문회에서 대법원장 사찰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정권이 이런 식으로 사법부 사찰하고 길들이고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	○ 사법부를 길들인다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법원 내부에 대한 감찰 및 대법원장 법원 판사에 대한 동향 사찰 관여 여부 질의	○ 전혀 없었음.
○ 김영한 비망록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 방안 강구 필요라고 적혀있고 중징계가 내려졌음. 군산 이형주 판사 관련해서 탄원서 제출되는 등 누군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병우 증인이 한 것은 아닌지	○ 제가 한 것은 없음. 저는 비서관 입장에서 수석님이 업무일지에다가 뭘 적어 놓았는지 왜 적어 놓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음.
○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착수한 것을 듣고 증인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형, 왜 이래? 어디 아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사실인지	○ 제가 그 당시 갑자기, 저도 특별감찰관이 저에 대해서 감찰 착수한다는 것은 몰랐음.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그렇게 했는데 '어디 아파'는 아니고, 이것을 왜 갑자기 하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음.
○ 11월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증인이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했다는 보도 있는데, 이 사람들 좌천하거나 승진 누락 시킨 건 없는지	○ 그런 적 없음. 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총장과 협의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임.

(다) 가족회사 “정강” 자금유용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을 인정하는지	○ 인정하지 않음.
○ 가족회사의 자금을 활용해서 외제차를 네 대 굴렸는지	○ 아님, 법인용 차량 한 대, 개인용 차량은 국산차, 그 두 대임. 계속 다섯 대로 나오는데, 근거가 없는 것임.
○ 회사 비용으로 다, 차량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다 털고 영업비용이 임대료 수입을 오버하니까 세금 안내려고 가족들이 다 쓴 것 아닌지	○ 저는 구체적으로 세금을 얼마 낸지를 모르겠지만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법인 용도로 사용하고 자금 유용이 아닌 것이라고 이해했음.

(라) 우병우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우병우 본인의 군면제 여부 질의	○ 면제받음. 시력이 극도로 나쁨.
○ 우병우 아들을 운전병으로 쓴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과의 연관성 질의	○ 경찰 인사 보직 경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 그리고 제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해서 특별히 뭘 한 건 없음.
○ 아들이 운전병으로 있던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경우 승진에도 불구하고 지방근무를 하지 않고 서울근무하고 있는 것 등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	○ 아님.

(마) 우병우 장모 김장자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장자씨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 질의	○ 본인이 건강이 안 좋고 청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귀에 바짝 대고 큰소리로 얘기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 본인이 그런 상황을 공개석상에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음.
○ 김장자 증인은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 논현동 빌라 집에 있음.
○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권유할 생각은 없는지	○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임.
○ 김장자와 함께 걸어 나가는 모습이 TV에 보도된 것을 봤는지, 장모가 청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지, TV에서 장모가 달아나면서 기자의 질문에도 대답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청력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인지, 증인출석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청력에 대해서는 병원의 진단서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이임순 씨가 증인이나 증인 배우자 또 김장자, 장모님에게 최순실씨를 소개한 적 있는지	○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장자의 이대 고액기부자 모임 가입 여부, 성정문화재단 등 이대 교수등 관계자와의 관계 질의	○ 기수는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에 다녔음.
○ 수원대학교 교수 간사 등 관계자들과의 관계 질의	○ 그것은 모르겠음.
○ 김장자와 현정은 회장과의 관계 질의	○ 장모님하고 현정은 회장이 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음.

(바) 우병우 본인 변호사 수임료 세금 탈루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현대그룹 비자금형성,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황두연을 '13.11.에 변호한 사실이 있는지	○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변론한 것은 맞음.
○ 황두연을 '13.11 전에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변호하였는지, 수임료는 얼마였는지, 변협에 신고 했는지, 소득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수임료 액수가 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 변호 전 그냥 사건으로 알던 사이임. 장모님, 현정은 회장과 관계없이 직접 변호하게 된 것임. 수임료를 밝히지 않겠음. 소득신고는 제대로 했음.
○ 변호 중이던 사건이 종결되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가게 되었는데, 황두연이 100억여원을 횡령했음에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	○ 법원이 알아서 적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함.
○ 사건을 잘 막은 대가로 민정수석실에 내정되고 내정되자마자 해당 사건의 추가수사를 무마시킨 것이 아닌지	○ 다 적법하게 처리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변호사 수임료나 소득을 부실하게 신고하였다면 각각 변호사법위반 및 조세포탈이며, 민정수석실 내정 이후 사건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등이 의심된다는 지적	○ 다 적법하게 처리했음.
○ 현대그룹의 불법행위를 박근혜정권 차원에서 비호하는데 증인이 앞장서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	○ 그렇지 않음. 그리고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냈고 또 국세청에도 세무신고 다 했음.
○ 효성사건을 맡았었는데 수임료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2억 수임료가 맞는지, 효성사건 수사가 우병우 민정수석 취임 이후 특수부로 배당된 것이 우병우 증인에 의한 것이 아닌지	○ 수임료는 말씀드리지 않겠음. 신고는 정확히 다 했음. 변협에 신고는 안했음. 특수부 배당은 제가 한 것이 아님.

(사) 박지원 의원 사건 개입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아는지, 청와대 시절 공석 및 사석 등에서 만남을 가진 사실 여부 질의	○ 한두 번 장소에서 만났을 수는 있음. 더 이상 밝히지 않겠음.
○ 박병대 행정처장에게 박지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유죄판결 요구 또는 언급을 하였는지, 거절 후 관계 등에 관한 의혹 질의	○ 그렇지 않음.
○ 대법원장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박병대 처장이 청와대로부터 후보군에서 제외됐다는 의혹 질의	○ 그런 것도 처음 들어봄.

(아) 김영재의원 특혜 관련 청와대 파견직원 인사 여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태현서기관, 최우석서기관 등 산자부 출신 공무원을 민정수석실에서 받은 것과 관련하여 김장자, 최순실, 김영재의원 등과의 관계 및 산자부로부터 특혜와의 관련성 질의	○ 일단 저희 장모님하고, 김영재 의원하고는 관계가 없음. 그 다음에 지금 민정수석실에 산업부 출신이 와 있는 것도 관계없음. 다양한 부처에서 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고 생각함.
○ 증인이 민정비서관에 보임된 직후에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직원들이 다 바뀌었는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 교체를 상당히 많이 한 적이 있음. 스물 몇 명인지는 몰라도 그때 상당히 많이 바꾼 거는 맞음. 위에서 인사정책이었음.

(자) 방사청 인사 개입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인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방위사업청 인사에 개입한 의혹 지적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자 했는데 묵살하고 그냥 잘라라 했는지	○ 인사 개입은 안 했음. 저희는 방위사업감독관제도를 만들려고 해서 총리실에다가 뜻을 전달을 했고 총리실이 방사청이나 국방부나 또 기재부에서 서로 직제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것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방위사업청 인사개입에 대한 제보 (방사청 법률소송담당관인 나욱진검사가 당시 2순위였으나 민정수석실 압력으로 선발되었다는 제보) 관련 질의	○ 손을 댄 게 아님.
○ 조상준 검사가 방산감독관으로 갔는데, 방사청에 인사 개입을 한 것이 아닌지	○ 조상준이 감독관으로 간 것은 사실임.

(차) 검찰 압수수색 정보 비밀 유출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독일에서 최순실이 10.25.압수수색 직전에 한국에 증거인멸 관련 연락한 사실을 알았는지 질의	○ (노승일 증인) 예, 저한테 준 정보는 아님.
○ 최순실의 증거인멸 전에 누가 압수수색 사전정보 제공했는지 질의	○ (우병우 증인) 저는 알지 못함.

(카) JTBC 보도 대응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0.24 최초로 JTBC에서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다음날 대통령이 사과한 것과 관련, 신속하게 사과성명하도록 조언한 사실이 있는지	○ 제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한 건 아님. 그 당시에 비서실에서 여러 수석들이 그런 의견들을 냈음.

(타) LCT사건 대응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다음날, 대통령의 엘시티 고강도 조사 지시는 어떤 의미인지, 검찰에 대한 경고 의미인지	○ 그것은 제가 물러난 다음임.
○ 민정수석 당시 엘시티 사건과 현기환이 관계된 사실을 몰랐는지	○ 예.

(10) 우병우 증인, 개인 신상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1월 6일 검찰출두하면서 질문하는 기자 노려본 이유 질의	○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이렇게 내려본 것임.
○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팔짱 끼고, 웃는 등 자세 취하는 사람 본적 있는지 질의	○ 그날 15시간 이상을 앉아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일어서 있었음. 일어서서 쉬면서 추웠기 때문에 파카를 입고 팔짱을 끼고 했던 것임. 분명히 그때는 수사 중은 아니고 휴식 중이었음.
○ 검사장 2번 탈락되었는데 검사장이 못된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중수1과장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 그것은 인사권자의 결정이라고 생각함. 그런 부분은 제가 인사대상자로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함.
○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그동안 왜 도망다녔는지, 피해 다니면서 그 서류를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 도망다닌 적 없음. 민정수석을 10월 말에 그만두었고, 11월 초부터 이미 집을 나가 있었음. 언론 취재를 피해 간 것이고 그때는 증인 채택도 되기 전임.
○ 청문회에 왜 안나왔는지	○ 그동안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관행이었음. 민정수석으로서 재임 중의 일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2000만 원 현상금이 무서워서 나온 것인지	○국회에서 두 번째 오라고 해서 그동안 못 나왔던 이유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답변을 하기 위해 나왔음.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집을 얼마동안 떠나 있었고 어디에 있었는지	○11월 초부터 떠나 있었고 여기저기 서울과 지방에 있었음.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음.
○국민들이 현상금을 걸었는데 그에 대한 생각 질의	○별 신경 안 썼음.
○도피생활 어디서 뭘했는지	○밝히고 싶지 않음.
○2009년 4월 30일 노무현대통령 수사 당시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오'라는 말을 했다는 데 알고 있는지	○조사하는데 입회한 변호인도 계시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음.
○김장자 여사와의 어느 정도 만나는지	○처갓집에 1년에 서너번 정도 감. 개인적으로는 잘 안만남.
○박근혜를 존경하는지, 왜 존경하는지	○존경함.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식의 말씀하시고 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함.
○김기춘을 존경하는지, 왜 존경하는지	○존경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죽음에 대하여 어떤 느낌인지, 책임을 느끼지는 않는지 질의	○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걸 듣고 정말 매우 안타깝고 놀랐음. 김영한 수석과는 아주 잘, 가깝게 지냈음.
○ 현재 탄핵사유로 제시된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질의	○ 현재 상태에서 옳다 그르다 보다도 지금 헌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함.
○ 촛불민심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 증인으로서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관련 지원을 중소기업지원의 일환이라고 강변한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질의	○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함.
○ 대통령 독대를 한 적이 있는지, 몇 번 했는지	○ 예. 몇 번 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증인의 집이 어디인지	○ 압구정동 아파트임.

(11) 조여옥 증인, 14.4.16.세월호 사건 당시 진료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4.16 당시 어디서 근무했는지, 의무동은 대통령 전담 의무지원으로 관저 옆 2층 건물에 있고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이 모두 이용하도록 많이 떨어져 있음.	○의무실에서 근무했음.
○지난 1월 SBS와 기자회견 당시에는 의무동 근무라고 대답했는데 왜 진술이 다른지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오래된 기억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음. 차근히 기억을 되짚어 보니 14년 4월 16일에는 의무실 근무가 맞음.
○신대위가 가글을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한 것을 기억하는지, 누구에게 전해들었는지, 전달한 남자가 이영선 행정관인지	○저는 의무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음. 대통령님의 진료에 관한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제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저는 답변드리기 어려움. 제가 알지 못함.
○4.16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증언이 엇갈렸는데, 의무동을 의무실이라고 번복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당시에 4월 22일부터 의무동 인수인계가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4.16 의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세월호 사건을 TV로 봤는지, 세월호 사건을 TV로 본 사실을 기억할 정도면 의무실 근무 역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봤음. 제가 그 당시에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임.
○4월 16일 관저 방문한 적이 있는지, 당일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지	○없음. 2014년 4월 16일은 의무실 근무였기 때문에 의무동 간호장교가 하는 대통령 진료·처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지 않았음.
○4월 16일 날 이 대통령의 얼굴이 정상 얼굴인지, 아니면 좀 부스스한 얼굴인지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는 걸로 보임.
○16일 날 대통령 본 적 있는지	○없음.
○16일 당일 의무동 아닌 의무실 근무했다면, 당일 대통령 수행은 의무동 근무한 신보라 대위가 수행했는지	○의무실장이 동행하고 간호장교는 동행하지 않음.
○세월호 당일 사고 소식 언제쯤 들었는지	○그때 거의 점심시간 때쯤이었던 것 같음.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청와대 근무시 신대위와 근무했냐는 질문에 신대위와 본인이 업무 인수인계 중이라고	○제가 그 당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했고, 의무동에서 근무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 언론 인터뷰 당시에는 명확한 기억으로 답변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본인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 언론 인터뷰 당시 착각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지적	
○ 무슨 근거로 지난번에 인터뷰를 하실 때 보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 이렇게 본인이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무동은 대통령을 치료하는 전용 공간이라고 구분해서 진술한바 있음에도 이제 와서 의무동과 의무실을 혼용하기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 조대위에게 의무동에게 있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뷰를 통해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는 점이라는 지적 그 인터뷰 자체가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추론할 수 없다는 지적	○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무실에서 대통령의 진료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TV보고 세월호 참사 알았다고 했는데, 의무동과 의무실에 TV 위치 정확히 기억하는지	○ 예.
○ 마취제가 들어 있는 가글이 왜 감기용인지 질의	○ 인후통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임

(12) 조여옥 증인,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일반 진료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신 대위가 말하기를 '조 대위가 주사는 다 놓았다' 맞는지	○처방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처치를 했었음.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에 주사 처치를 한 적이 있는지	○얼굴에 주사 처치한 적은 없음.
○목에 혈관주사 놓은 적 있는지	○목에도 놓은 적이 없음.
○대통령이 불면 증세가 있는지, 수면제 주사를 놓거나 수면제 약을 준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료진료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움. 수면제 주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음.
○대통령에게 탄룸가글을 준 적이 있는지, 얼마나 자주 줬는지, 용도는 무었인지	○한달에 한번 정도 줬음. 용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처방이 있으면 전달해 줬음.
○주사를 잘 놓는다는 것이 사실인지, 조여옥이 주사를 놓으면 대통령이 안심한다는 말들이 사실인지	○그렇게 말씀하셨음. 안심한다는 그런 말씀을 직접 하지는 않으셨음.
○이선우 의무실장이 태반주사, 감초주사 등을 대통령에게 처방했다고 했는데 증인이 직접 주사를 놓았는지	○예, 처방이 있는 한 제가 처치를 했음.
○경호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태반주사 200개 중 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처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고 80개, 백옥주사 60개 중 재고 10개, 감초주사 100개 중 재고 39개로 파악되는 바, 모두 대통령이 맞은것인지 질의	를 했었음.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음.
○ 의무실장은 주사를 맞은 직원이 10명 미만이라고 했는데 사실인지, 대부분은 대통령이 맞은 것인지	○ 저도 그렇게 생각함. 10명 이내로 기억함. 대통령에게도 놓고 직원에게도 처치를 했었음.
○ 16.4.10 태반주사 5병, 감초주사 2병, 백옥주사 2병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주사를 하는지 질의	○ 2016년 4월이면 제가 의무동에서 근무를 안 할 때임.
○ 4월 16일 전에 대통령에 대한 주사제는 언제 처치했는지	○ 저는 의무실 근무자였기 때문에 대통령 진료・처치에 그전에는 참석하지 않았음.
○ 얼마 만에 한 번씩 관저에 가서 주사를 놓았는지	○ 많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도 있었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경우도 있었음.
○ 대통령 외부일정 시 의무실장 동행하는지	○ 예, 의무실장이 동행함
○ 대통령 진료에 대한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는지	○ 의무실장이 지시함.
○ 안봉근이 지시한 적 한 번도 없는지	○ 한번도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청와대 의무동 아닌 외부 병원에서 대통령 약 몇 번이나 타왔는지(처방),약이든 주사 제든 타온 적이 전혀 없는지, SBS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자문의 했던 분 중 한명에 따르면 청와대 간호장교가 약을 여러 번 타갔다고 진술한바 있다는 지적	○ 처방이 내려진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음. 서울대병원이나 자문의님을 통해서 보조기구나 아대 같은 것을 받아 온 적은 있어도 약 같은 경우는 제가 타 오지는 않고 가져 오신 적은 있었음.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음.
○ 주사 종류가 피하지방주사, 동맥주사, 수액주사 등이 있는데 수액 맞고 그러면 한두시간 걸리지 않는지. 그때 간호장교 옆에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한두시간 있다가 오는지	○ 주사 처치를 한 뒤에 20분 정도 뒤에 다시 수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들어감. 계속 같이 있는 건 아님.
○ 저녁에 주로 어떤 주사를 놓았는지	○ 수액을 놓을 때도 있고 해열진통제를 놓을 때도 있고 영양제를 놓을 때도 있었음. 태반주사도 포함임.
○ 어느 의사에게 주사를 처방받았는지	○ 의무실장님과 주치의님, 자문의님 말씀대로 처치를 했음,
○ 프로포폴을 한 번도 투여하지 않았는지	○ 예, 청와대에서는 본 적도 없고 투여한 적도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울대병원 등 외부의 병원에 대해서 약을 가져온 횟수, 병원명, 약의 종류, 의무실장으로부터의 지시 등 경위 질의	○의무실장의 지시나 보통 서울대병원이나 김상만 자문의의 지시로 가져옴. 개인적인 처방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무슨 주사제, 성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움.

(13) 조여옥 증인, 청와대 비선의료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4년 4월 15일, 16일 전후해서 김상만을 본 적이 있는지	○ 없음.
○ 김영재를 본 적이 있는지	○ 없음.
○ 김영재, 박채윤이 관저에 들어온 것 알고 있었는지	○ 몰랐음.
○ 대통령의 성형시술, 필러시술, 리프팅실 시술한 적이 있는지, 증인이 이런 시술을 도운 적이 있는지	○ 없음.
○ 인퓨션 펌프를 청와대에서 본적이 있는지	○ 청와대에서는 본 적이 없음. 구비하고 있지도 않음.
○ 프로포폴을 본적이 있는지, 단 한 차례도 주사를 놓은적이 없는지	○ 청와대 내에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음. 본 적도 없음. 청와대에서 놓은 적이 없음.
○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김영재의원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처방량이 나옴. 이 모든 약을 한사람에게 처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다른 사람 처방약과 최순실의 약을 모두 타간 것 아닌지	○ 김영재의원은 가 본 적도 없고 거기서 받아 온 적도 없음.
○ 최근 보도내용 보면 대통령 얼굴에 의문의 주사자국 시	○ 저는 인지하지 못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술흔적 나타나고 있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멍자국 자주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자국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 못 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	
○ 대통령의 주사시술을 알았는지, 대통령에게 아티반주사 시술했었는지	○ 의무실에 아티반 주사는 가지고 있지 않음.
○ 김상만 주치의가 대통령에게 전달한 주사제는 누가 주사했는지 질의.	○ 김상만 자문의 진료 시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어떤 처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음.
○ 청와대 외부의 안가에서 대통령에게 처치한적 있는지 질의	○ 없음.
○ 김상만 주치의가 보안손님으로 왔을때 채혈을 한 것은 누구인지 질의	○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2013년 9월로 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일하지 않았던 때임.

(14) 조여옥 증인, 언론추적 회피 관련 국방부, 기무사 등 정부의 지원 여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귀국 후 기무사요원 등 군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적 있는지	○ 어머니, 아버지 외에는 없었음.
○ 미국 갔을 때 어느 장소에서 묵었는지	○ 처음에 갔을 때는 홈스테이에 먼저 묵었음. 홈스테이에서 한 4, 5일 정도 묵은 뒤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영외 호텔로 옮겼음. 드루리 호텔에서 주로 묵었고 8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묵었음.
○ 적어도 드루리 호텔하고 홈스테이하고 영내하고 지금 다섯 달 동안에 세 번을 옮겼는지	○ 이사를 두 번 했음. 묵었던 곳이 세 곳임.
○ 조대위랑 최근까지 같이 있었던 한국 남자 장교는 누구인지	○ 그 당시에 병원에 연수를 짧게 나온 군의관이었음. 이름을 밝힐 수는 없음.
○ 지난 일요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어디로 갔는지 등 일정 문의	○ 집으로 갔음. 17시 30분경임. 집에는 거의 8시~9시경에 도착함.
○ 연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 올해 8월 24일부터 내년 1월 24일임. 선발은 작년 2015년 여름에 되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도피용으로 연수보냈다거나 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지	○ 사실이 아님.
○ 3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 질의	○ 교육일정에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3차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당시에 5차 청문회에는 참석할 수 있음을 밝혔음.
○ 기무사령부나 국방부나 다른 외부 국가기관이 청문회 출석을 방해한 적이 있는지	○ 없음.
○ 제보에 의하면 입국하자마자 기무사와 동행해서 입국했음에도 증인은 강하게 부정, 위증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18일 오후 동선 여부 파악을 위한 CCTV 사본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필요	○ 예
○ 기무사에 가서 기억 조작하고 나온 것 아닌지	○ 아님.
○ 입국 직후 아니더라도, 기무사 청와대 등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는지, 회유 압박, 증언 등에 대한 압박 전혀 없었는지	○ 전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동기들 등 외부 인사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오전에는 가족 외에 만난 사람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12월 19일 동기 3명이라고 자술서에 적힌 3명에 대해 같이 만난 세 사람의 이름을 밝힐 것을 요청 어제 5시부터 자정까지 동기 1명과 저녁식사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1명 역시도 누구였는지 밝힐 것을 요청	ㅇ당시에는 청와대 직원이나 국방부 직원과 따로 연락한 것이 있는지 여쭤 봤었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음. 간호장교임.
ㅇ미국 연수 관련 6개월의 정상적인 루트인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누군가가 숨으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닌지	ㅇ첫 번째 이사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했고, 두 번째는 기자들의 접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이동하게 되었음.
ㅇ귀국후 취침시간(제출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한 의혹 지적.	ㅇ집에서 휴식을 취한 것은 모두 사실임.
ㅇ오늘 국군병원 중환자실로 인사명령 받은 사실여부 질의.	ㅇ제가 아직 통보받은 바는 없음.
ㅇ이슬비 대위의 동행관련 허가를 누구에게 요청했는지 질의	ㅇ제가 부탁했고, 국방부에 동행이 가능한지 확인했음.

(15) 위증교사 의혹 관련

(가) 정동춘 참고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태블릿 PC 충전기 연결 잭을 사오라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라고 이완영이 얘기한 적 있는지(이완영위원)	○ 없음.
○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닌 걸 봤다라고 이완영이 일부러 증언하라고 한 적 있는지(이완영위원)	○ 없음.
○ 태블릿 PC를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라고 제가 사주한 적 있는지(이완영위원)	○ 없음.
○ 12월 9일 이완영 위원 사무실에서 저를 본 것을 제외하고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이만희위원)	○ 없음.
○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이만희가 정동춘 참고인한테 박헌영이한테 전달하라고 하면서 위증을 공모하거나 교사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이만희위원)	○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모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이완영 의원 사무실에 12월 9일 아침에 가보니 의원 셋이 먼저 와서 태블릿 pc 대책회의 하는 것 같더라 하는 인터뷰 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만희위원)	○ 있음.
○ 그 자리의 대화에서 위증을 모의하거나 이렇게 물을 것이니까 이렇게 답변하라는 지시나 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이만희위원)	○ 없음. 저도 사실은 거기에 왜 갔는지 모르고 있었음. 단지 와 달라 해서 갔고, 갔는데 태블릿 PC에 대해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아까 영상으로 보던 똑같은 그런 장면이 그 자리에서도 일어났음.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음.
○ 동료 의원이었던 이완영, 최교일 의원이 제가 정동춘 참고인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화를 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날 당일 탄핵 당일이었고 마음이 무거웠던 상황. 그 자리가 결코 위증 모의 교사 지시한 자리는 아니었는데 동의하는지(이만희위원)	○ 동의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문체부가 재단 설립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간사로 활동하는 위원도 만나서 재단 문제 구명을 좀 부탁했습니다.’ 라고 한 사실 있는지	○구명,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말은 아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완영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음.

(나) 박헌영 참고인, 증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태블릿 PC 충전기 연결 잭을 사오라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라고 이완영이 얘기한 적 있는지(이완영 위원)	○못들었음.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닌 걸 봤다라고 이완영이 일부러 증언하라고 한 적 있는지(이완영 위원)	○들은 바 없음.
○태블릿 PC를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라고 제가 사주한 적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언론 인터뷰 얘기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절도한 것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라라든지 그런 말은 없었음.
○고영태가 중앙일보의 언론 인터뷰 보도 이후에 노승일 부장과 통화한 적 있는지, 그	○18일 일요일 저녁에 통화를 하게 됐음. 노승일 부장 말로는 본인은 그런 식으로 얘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내용은 무엇인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 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뭐를 어떻게 얘기했길래 고영태 씨가 월간중앙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냐, 나를 위증범으로 만들고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만드냐 얘기를 하니까 네가 위증을 하라고 누군가한테 지시받고 네가 위증했다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정동춘 이사장님께서 이완영 위원 만나고 돌아오셔서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노승일 부장한테 담배 피우면서 테라스에서 전달했던 얘기를 본인이 고영태 씨한테 한 거라고 그랬음. ○ 위원님께서 본인은 '국회의원이고 청문회 간사니까 이런 것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너희 재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면서 정동춘 이사장님께서 저보고 '그러면 네가 이것 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거절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노승일 부장하고 통화한 내역도 녹취되어 있는지	○ 네.
○ 본 위원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이만희 위원)	○ 없음.
○ 제가 정동춘 참고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물을 테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시를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이만희 위원)	○ 없음.
○ 시사IN에 오늘 보도된 내용이 진실인지	○ 진실임.
○ 박헌영 증인은 고영태가 위증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인지	○ 저는 고영태 씨의 모든 증언들이 위증이었다 이런 뜻은 없었음.
○ 고영태가 위증했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인 신변관리 차원입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함.
○ 고영태 증인이 평소 만나는 정치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 그런 얘기 못 들었음.
○ 고영태 청문회 출석 당시 고민우라는 이름 쓴 적 있냐는 질의에 대해 고영태가 안 썼다고 했는데 위증인지	○ 사실상 그것은 위증이라고 말씀드린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고영태가 청문회 출석해서 사실을 이야기 한 것 같은지	○ 핵심적인 사항이라든지 이 사안의 본질에 가까운 것들은 저는 고영태씨가 100%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해 왔다고 생각함.
○ 정동춘 이사장이 '문체부가 재단 설립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간사로 활동하는 위원도 만나서 재단 문제 구명을 좀 부탁했습니다.' 라고 한 얘기를 들은 적 있는지	○ 예. 들은 적있음.

(다) 노승일 참고인, 증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제가 제보자를 만난 것은 고영태 증인이 이미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였음. 어떻게 제가 그것을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의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지(이만희위원)	○ 박헌영 과장이 2층 테라스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함. '정동춘 이사장 왈 이완영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태블릿 PC는 절도로, 그다음에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녔다로 인터뷰를 좀 해 달라' 그 내용의 부탁을 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고, 박헌영 과장이 '미쳤어요, 제가 하게요?' 이렇게 얘기했음. 그다음에 직원들과 밥 먹으러 가는 이동 중에 박헌영 과장이 청문회에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이 올 건데, 나는 최순실의 지시로 더블루K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고영태 책상이 남아 있어서 최순실한테 전화를 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것은 고영태 것이니까 놔둬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다음에 박헌영 과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책상에 보니까 태블릿 PC와 카메라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음.
○ 우리 국조 동료 위원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 12월 8일하고 12일 2회에 걸쳐서 만났음.
○ 박영선의원을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 제 자료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박영선 위원님을 택할 수밖에 없었음. 고영태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연락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처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 왔고 제가 고영태한테 위원님께 좀 연락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위원님을 콘택트하게 되었음. 위원님하고 상당한 많은 시간을 나누어서 위원님이 정말 진실성 있게 이것을 밝혀 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저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음. 그리고 제가 자료를 드렸고 자료가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삼성 자료도 들어가 있었음. 상당한 많은 분량의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을 박영선 위원님과 함께해야 될 것 같음.
○ 12월 12일 당일 고영태, 박영선 의원과 나눈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인지	○ 예, 녹취록하고 녹취 파일하고 그다음에 삼성 파일 다 드렸음. 그리고 삼성 파일에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독일 생활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많이 길어졌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고영태와 증인의 관계는 어떠한지	○ 한국체육대학교 95학번 동기이고, 20년 지기임.
○ 증언 과정에서 증인이 최순실 노트북에서 중요한 자료 카피했다고 증언했는데, 최순실 동의 안 받고 카피했는지, 카피한 파일의 개수 등 질의	○ 처벌받겠음. 세상에 밝히고 싶었음. 1개 카피함.
○ 최순실 쓰던 노트북 관련, 친구인 고영태는 최순실이 사용을 못한다고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사실과 다른지	○ 노트북은 사용함.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분간해서 좀 이해해 주기 바람.
○ 고영태가 평소에 진실하다고 생각하는지	○ 영태는 진실함.
○ 정동춘 이사장이 '문체부가 재단 설립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간사로 활동하는 위원도 만나서 재단 문제 구명을 좀 부탁했습니다.' 라고 한 얘기를 들은적 있는지	○ 예. 들은적있음.

(16) 노승일 증인, 코레스포츠와 삼성 계약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5년 8월 26일 날 독일에서 코레스포츠와 삼성과의 계약에 참여하였는지	○ 예
○ 그때 참석한 삼성 관계자가 누구누구였는지	○ 박상진 사장님하고 황성수 전무님하고 그다음에 삼성 법무팀에서 한 명 왔음. 그다음에 코어스포츠 쪽에서는 저하고 박원오 원장, 독일에 있는 박승관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헤센 주(말 끊김)
○ 거기서 어떤 계약을 했는지	○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음. 186억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임.
○ 당시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삼성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느낌 받았는지	○ 예, 삼성에서 빨리 계약을 원했음. 저도 잘 몰랐었고 그때 당시에 코어스포츠는 사무실도 없었음. 그런데 삼성 측이 박원오 원장님 말씀은 '최순실 씨에게 삼성에서 계약을 좀 서둘러 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음.

[2017년 1월 9일 제7차 청문회]

(1)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가) 조윤선 증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문화부 내부 대외비 문서인 '정무리스트'를 본 적이 있는지	○ 없음.
○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정무리스트 아닌지	○ 왜 그렇게 명명이 됐는지 아는 바가 없음.
○ 정무리스트는 청와대에서 국정원의 자료를 받아서 만들어 정무수석실을 통해 문화부로 내려보낸 것 아닌지	○ 거기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음.
○ 문화예술위원회의 2015년 5월 29일 회의록을 보면 '문화예술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당 기관이 국정원인지	○ 내용을 잘 모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공모사업별로 검토내용을 정리한 내부 대외비 문건에 나오는 K는 국정원, B는 BH 아닌지	○ 문건을 본 적이 없음. 언론보도만 접한 적이 있음.
○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이라고 아는지	○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
○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1만명에 가까운 예술인들을 배제하고 불이익 주는 문화 공안통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 이해가 되지 않음.
○ 장관도 이해가 안되면, 불이익을 당한 예술가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 고통과 상처를 입으셨을 예술인들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올림.
○ 국회 문건이 아니라 문화부 문건임에도 문화부장관이 모른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	○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모든 문건을 검토하지는 못했음.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전모를 국민들께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 블랙리스트에 대해 증인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실행은 되고 있었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도리 아닌지	○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블랙리스트에 대해 책임질 부분 및 존재에 대한 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는 지적	○ 장관으로 온 다음에 이런 리스트가 있고 현재도 작동을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음. 2015년 가을 국감 당시 지적됐던 문제에 대해 국감에서도 재차 질문을 받았음.
○ 장관 취임당시 블랙리스트에 대해 업무보고 받았는지	○ 개괄적으로 실장급이 보고는 했으나, 실장도 리스트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음.
○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 및 진행 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말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음.
○ 해당 문건이 교문수석실과 청와대와의 협의된 문건이었다라고 보고 받았는지	○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적은 없음.
○ 블랙리스트에 대해 문체부 직원들이 인정하자고 했는데 거절한 사실이 있는지	○ 그렇지 않음.
○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잡아뗐던 것 아닌지	○ 그렇지 않음.
○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장관이 그 동안 블랙리스트	○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개괄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를 인지했느냐의 여부, 보고받았는지 여부, 보고받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지적	으로 말씀하시면 답변할 수가 없음.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시기가 언제인지	○올 초에 확정적으로 보고를 받았음.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1월 초에 예술국장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들음.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시점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는지	○한국일보에서 표제가 나온 이후부터 직원들이 신문에 제기되는 의혹에 관해 파악하고 보고를 함.
○최철 보좌관이 고영태와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기사에서 읽은 적 있는지	○최근에 알게 됐음.
○최철 보좌관 불러서 진상 파악 했는지?	○고영태와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직접 물어본 적이 있음.
○최철 보좌관이 뭐라고 했는지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
○그런 적 없다고 해서 그냥 믿고 끝났는지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이상 제 선에서 어떤 질문을 한다 한들 다른 답변을..(답변 흐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고영태와 친분이 있다고 하면 정책보좌관에서 해촉을 하든지 하는 식의 전보 조치를 하여 이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는 지적	○ 최 보좌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기조실에 최 보좌관이 직을 정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이야기 했음.
○ 2014년 10월 2일자 다이어리 있는지	○ 없음.
○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나오는데, 증인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지시 들은 적 없는지	○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음.
○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 파기 지시한 적 있는지?	○ 없음.
○ 하드디스크 교체 사유 질의	○ 이유를 모르겠음.
○ 하드디스크 파기 관련된 내용을 기사로 본 적이 있는지, 진상파악을 안했는지	○ 있음. 교문위에서도 질문했었음. 교문위에서 질문했을 때 파악을 했는데 그 때 보고를 했음.
○ 보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교체했는지	○ 하드디스크를 뺐다가 다시 끼워넣고 OS를 다시 깔았다는 보고를 받았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누가 지시한 것인지 질의	○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할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누가 지시했는지 모름.
○ 블랙리스트를 본적이 있는지	○ 그런 기억 없음.
○ 적군파 리스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 모름.
○ 정무수석 재직 시절 정무수석 산하 비서관 및 교육문화수석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실행에 관여한 적이 없는지	○ 없음.
○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삭제 지시한 적이 있는지 질의.	○ 전혀 없음.
○ 블랙리스트 관련 9000여명 중 7700여명이 지원 받았다면 어떻게 블랙리스트냐는 내용으로 발언한적 있는지, 그와 관련하여 조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 교문위에서 질문을 주셨던 그 리스트에 대해서 답변을 했음. 그게 있는지 가져오라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받은 그런 리스트는 없다고 했음.
○ 김기춘이 유진룡 장관에게 우상일 데리고 와라 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우상일은 김종의 부역자로 지금도 우상일 예술국장으로부터 보고를	○ 저는 못들었음. 우 국장이 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받고 있다는 것은 조윤선 장관이 예술국장과 함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왜곡,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	
○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민주주의에 맞는지, 아닌지	○ 헌법상 우리 국민들에게 허락되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운용 방법에 있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 대통령 비판 그림 올린다고 사법처리 하는 것이 민주주의 맞는지, 아닌지	○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음.
○ 국민들이 조윤선 증인 화형식을 했다고 해서 박근혜, 김기춘이 사법처리를 한다면 민주주의 맞는지, 아닌지	○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음.
○ 김기춘 실장이 재임시 블랙리스트 만들고 사법처리 했었는데, 민정수석에 맡길때 유진룡 장관처럼 제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 수석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움.
○ 2015년 국정감사 때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그 당시 박근혜대통령에 의한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	○ 2015년 5월에 정무수석을 그만둬서 쉬고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근혜대통령의 민주주의의 대한 의식은 문제가 있고, 증인은 당선시키는데 일조하였고, 장관으로 재직중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제대로 조사조치 등을 하지 못하고, 민정수석 당시 담당자들도 수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답변없음)
○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문도 모르고 지원받지 못하고 피해 본 사람들을 공표할 생각은 없는지	○ 예기치 않은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던 예술인들과 더불어 함께 아파하셨던 국민들께 사과드림. 여하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숙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음.
○ 송수근 기조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한 이유는 블랙리스트를 시행한 책임자이기 때문이 아닌지, 송수근 차관은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없다고 보는지	○ 송차관이 기조실장 때 담당한 업무는 그런 업무가 아니었고, 언론보도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임. 그렇게 알고 있고 조사결과로도 그렇게 밝혀졌다고 알고 있음.
○ 제1차 기관보고 때 '권영빈 당시 문예위원장의 발언근거를 직접 물어보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 고의로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	○ 직접 연락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지 않았음.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 이상의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블랙리스트 9473명 중 600명에게 지원이 있었으나 이는 7%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리스트가 작동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	○ 지원받은 인원은 770명이고, 나머지 인원들도 다 지원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음.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림.
○ 블랙리스트 선정의 부당성 지적(강은교 시인, 정호승 시인, 박영택 평론가 등의 선정 사유 예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 시낭송, 노무현 시민학교 강좌, 경향미디어오늘 등 필진활동, 박정희 시대 비판 등) 문화체육계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었다는 지적	○
○ 송수근 차관이 건전콘텐츠TF팀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보고한 대상은 누구인지, 증인은 보고받은 적 없는지	○ 아직 확인하지 못함. 없음.
○ 신문의 만평은 정치를 풍자하는 내용이며,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은 것이 맞는지	○ 그렇게 알고 있음.
○ 미디어와 예술은 속성상 정부에 비판적이며, 이런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 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6월 초에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이 A4 두장짜리 명단을 문체부차관에게 전달했고, 차관이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이 무시하라고 했음.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요청이 오면 거절하자고 이야기했음. 6월 말에 명단을 전달한 김소영 비서관이 리스트를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폐기를 했고, 수시로 리스트가 내려오고 폐기하라고 했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소상히 들었음.
○조속히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떤지	○부처 차원에서 사과의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함.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대통령 풍자 세월호 화가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아는 게 있는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음.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인지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특검에서 증인을 소환해서 물어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을 자료와 함께 밝힐 수가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블랙리스트는 헌법 제22조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을 위배했다고 하면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	○ 위반한 점이 있다면 사퇴하겠음.
○ 정무수석으로 근무한 기간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임. 같이 근무한 정무비서관이 신동철인지, 국민소통비서관이 정관주인지	○ 예. 맞음.
○ 정무수석비서관, 국민소통비서관이 블랙리스트 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당시 정무수석이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지	○ 블랙리스트 작성을 전혀 몰랐음.
○ 정무수석으로 1년 동안 근무했는데 1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명단에 있는 블랙리스트를 몰랐다고 특검에서 주장할 것인지	○ 언론 보도를 보고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운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게 되었음.
○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덕, 김상률, 신동철, 정관주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하고, 다 지시받아서 실행한 일이다'라는 진술이 있다면 인정할 건지	○ 특검에서 지금 여러 관여된 분들의 진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특검은 진술을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함.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없고, 실장이나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음.
○ 정무수석 때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몰랐는지	○ 맞음.
○ 문체부장관 시절에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알았는지	○ 장관으로 와서 블랙리스트를 직원이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으며, 그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모른다고 들었음.
○ 2017년 1월 첫째 주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로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인지	○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600명의 리스트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1월 첫째 주에 보고를 받았음.
○ 블랙리스트에 대하여 누구한테 어느 시점에, 언제 들었는지	○ 국정감사 이후임.
○ 부처에서 불법적인 블랙리스트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느냐, 누가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 본인이 작성의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은폐할 일도 전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유진룡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배후는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정무수석이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유진룡 전 장관의 '조윤선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내 알 바 아니고 당사자들 간의 문제다'라는 발언을 확인함. 본인이 작성하고 관여했다고 확신한다거나 확인했다는 발언은 유진룡 전 장관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770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분석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교문위에서는 이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됐음.
○ 1월 초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보고한 예술국장의 이름은	○ 우상일 국장임.
○ 우상일 국장이 김종 전 차관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맞는지와 이 점을 아는지 질의	○ 그렇게 들었음.
○ 우상일 국장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김종 전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는 쪽지를 넘기다가 정직의 징계를 받음.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 지금 그게 무슨 상관 인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한국일보 10월 12일 보도 이후에 계속 보도가 나오고 국정감사, 국회에서 질의가 있을 때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시하고 진상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 청와대에서 보낸 9000여 명의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음.
○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누구에게 지시를 해서 이 사건을 알아보라고 했는지, 10월 12일 이후에 장관은 누구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는지	○ 업무가 어떤 국과 과의 소관인지 알지 못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음.
○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위원, 도정환 위원 등이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했음. 국정감사 이후에 누구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는지	○ 예술국의 소관이었었기 때문에 예술국에서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보냈다는 9000명의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음.
○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1월 달에 보고를 받을 때 리스트를 봤는지	○ 못봤음.
○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구속영장 청구된 김종덕, 김상률, 정관주, 신동철 등이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김기춘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 왕따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진술함.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4인이 '조윤선 장관이 관련 있었다.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했고 정무수석실에서 이것 만들어졌다'고 했음. 어떻게 혼자 모를수가 있는지	
○ 리스트에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을 기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는지,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빼면 없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이 어려움.
○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 몰래,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이런 리스트 만들라고 할 수 있겠는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님.
○ 공직자들이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판적인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왜 가만 둬요?' 하면 움직이는 것 아닌지? 장관도 그런 부분에서 이게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이런 엄청난 사태가 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지? 문화부 공직자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 직원들이 그동안에 겪었을 마음의 부담과 상처에 대하여 이해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자와 불편한 사항에 대한 보복과 앙갚음이 이렇게 나타남.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지 않았는지	○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

(나) 노승일 증인(K스포츠재단 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철 보좌관과 고영태가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고영태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지	○ 있음. 저도 최철 보좌관을 두 번 본 적이 있음. 2015년 12월에 고영태 사무실에서 봄.
○ 조윤선 장관과 최철 보좌관과의 보고 관련해서 들은 적이 있는지, 조윤선장관이 취임하고는 최철과 만난 적이 없는지	○ 그 때는 조윤선 장관이 문체부 장관이 아니었고, 장관 취임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음.
○ 고영태로부터 최철 보좌관이 조윤선 장관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없는지	○ 그 부분은 없음.

(2) 청와대 보안손님 출입 통제 관련 - 구순성 증인(청와대 행정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세월호사건 당일날 뭐했는지, 세월호참사를 언제 알았는지, 알려준 사람은 없는지	○ 전날 야간 당직을 해서 집에서 쉬었음. 16일날 저녁에 알았음. 따로 알려준 사람은 없었음.
○ 보안손님 차에서 내려서 관저로 들어가는지, 얼굴은 못 봤는지	○ 네. 감상만 자문의만 2번 봤음.
○ 보안손님으로 최순실이 온 것을 한번도 못봤는지	○ 제 근무시간에는 못봤음.
○ 김상만을 보안손님으로 온 것을 기억하는 사유 질의	○ 그때 제 근무시간에 의무실장하고 동행을 했기 때문에 기억함.
○ 4.16. 근무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날 8시반까지는 근무한 것이라는 지적	○ (답변없음)
○ 보안손님은 경호실에서만 쓰이는 전문 용어라는 경호차장의 증언과 언론을 보고 보안손님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는 증인의 발언 관련 질의	○ 제 위치에서는 사실상 보안손님이라고 전달받지 않음.
○ 보안손님이라는 단어가 직급에 따라 공유가 안되는 것인지	○ 부속실 직원으로부터 '손님 들어오신다'는 얘기만 들음.
○ 김상만을 2015년에 2번 봤다고 했는데 증인의 근무패턴	○ 횟수는 잘 모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비추어 자주 출입한 것은 아닌지, 김상만 의사가 19번 무단출입했다는 지적	
○ 김상만 자문의가 녹십자병원의 윤 모 여자간호사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봤는지	○ 의무실장하고 들어오는 것 봤고, 윤 모 간호사는 잘 알지 못함.
○ 관저동에서 근무한 경호관으로서 대통령 얼굴의 멍자국을 본 적이 있는지, 못봤다면 경호관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지적	○ 없음.
○ 3년 3개월 동안 청와대 근무하면서 관저팀으로만 근무했는지	○ 그러함.
○ 4조4교대 근무하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 최순실이 관저로 와서 문고리3인방 비서관들과 회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을 본적이 있는지	○ 본 적 없음. 분위기 자체도 몰랐음.
○ 제보에 따르면, 경호실에서 보안손님에 대하여 남녀 구분, 인원수를 꼭 확인한다고 함. 보안손님에 대한 증인의 위증 지적.	○ (답변없음)
○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근접경호를 담당 했는지, 그 후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 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경호실에서 별정직으로 특채되어 근무 했는지	
○ 다른 위원님께서 증인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지	○ 양심선언 한다는 말은 한적이 없으며, 그날 휴무였으며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음.
○ 그 동안 왜 청문회에 안 나왔는지, 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나왔는지	○ 청와대를 방문하셨을 때 대기하고 있었음. 세월호 당일 근무도 아니었으며, 청문회에 출석하게 되면 본인 때문에 조직에 누가 될 수 있어 나오지 않았음.
○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오면 아는지, 4월 16일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몇 번 나왔는지	○ 예. 그날 휴무였음.
○ 학생이 300명이 죽은 날에 대통령이 뭐 했는지를 경호원들끼리 '대통령 뭐하셨냐?' 서로 물어보는게 동료들 간의 상식이고 정보 공유하는 것이 아닌지	○ 그런 적 없음.
○ 국가적인 참사로 학생 300명이 죽었는데 궁금하지 않았는지	○ 그런 적 없음.
○ 안봉근 비서관 때문에 별정직으로 특채되어서 경호실에 들어간 것인지	○ 그렇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영선 행정관 잘 아는지	○ 예.
○ 세월호 참사일에 근무를 안 했으면, 전날과 뒷날은 근무 했는지	○ 전날 근무했음.
○ 이영선 행정관이 은색 카니발 공용차량을 운행하는지, 은색 카니발을 본적이 있는지	○ 예. 본적 있음.
○ 보안손님이라고 아는지	○ 언론을 통해서 알게됨.
○ 보안손님 데리고 올 때 커튼으로 칸막이 쳐 놓는지	○ 본인이 근무할 때 보안손님이 카니발로 들어오는 것을 본적이 없음.
○ 보안손님을 어떻게 아는지	○ 언론을 통해서 김상만 자문의를 보안손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됨.
○ 최순실, 차은택, 김상만, 김영재 등이 보안손님인지	○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음.
○ 관저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 관저 경비 업무를 하고 있음.
○ 정송주와 정매주를 본 적이 없는지, 이 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적이 있는지	○ 본적 있음.
○ 관저에서 본관으로 출퇴근할 때 수행하는지	○ 수행하지 않고 관저에 계속 있음.
○ 대통령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관저에서 근무하는지?	○ 관저는 대통령님의 사택이기 때문에 몇 번 근무하고 이런 것이 없음.

(3)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관련

(가) 남궁곤 증인(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아직 이화여대 교수로 계시는지	○ 현재는 그러함.
○ 국회에서 위증하면 최소 징역 1년 이상인 것을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 교육부 감사를 보면 증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면접하신 분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를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옳은 것 아닌지	○ 학교도 생각하고, 학생들도 많이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음. 다만 미숙해서 여러 실수나 신중하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해를 주는 것 같은데, 면접위원들 모아놓고 특정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할 상황도 아니었음. 나름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함.
○ 최순실이나 김종 전 차관을 만나본적이 있는지	○ 전혀 없음.
○ 정유라를 챙겨주라는 김경숙 학장 및 최경희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면접관인 교수들에 전달한 것이 아닌지	○ 입학처장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기는 어려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을 면접관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 면접관 일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함.
○ 정유라 측에 면접 당일 단복을 입고 금메달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는지	○ 아님. 입학처장이 특정 수험생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없음.
○ 이화여대 학사 비리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우리나라 대학 사회의 학사 관리의 어떤 근본적인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함.
○ 학사비리에 대하여 입학처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닌지	○ 책임을 통감함.
○ 체육특기생 입시생 중에 메달리스트가 정유라가 유일한 것을 알고 면접관 앞에서 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입학처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 정상인지	○ 그 당시에는 메달리스트가 3명이 있었고 또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학생들을 반영해 달라고 한 것임.
○ 정유라가 면접관 앞에서 메달을 보여 준 사실이 있는지, 왜 제재하지 않았는지	○ 추후에 들어서 알았음. 입시본부가 지하에 있었고 면접대기장이 1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입시관리요원이 질문이 와서, 어떤 학생이 메달을 가지고 들어가도 좋으냐고 질문이 와서 처장으로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것은 소명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락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특별한 목적은 없었지만 잘못된 행위였다고 인정함.
○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해임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에 업무방해로 고발당한 것이 사실인지	○ 그러함.
○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강조하고, 면접고사장에 반입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험생이 소지하고 입실하도록 허용한 것이 고발내용이 맞는지	○ 그러함.
○ 특검에서 증인을 위증혐의로 고발 요청 한 내용 중 우선 최경희 총장으로부터 정유라를 뽑으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최경희 총장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경희 총장은 저한테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
○ 김경숙 학장이 '정윤회 딸이 저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라고만 넌지시 말했다'고 증언한 부분을 보면 김경숙 학장이 정유라를 뽑으라고 얘기한 것은 아닌지	○ 학장이 저한테 정유연을 뽑아라, 말아라할 상황은 절대 아니었고, 실제 지시한 사실도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경숙 학장은 증인이 다른 평가위원에게 정유라를 뽑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공식적인 오픈 장소에서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음.
○ 본인의 이전 증언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지	○ 그러함.
○ 지난 번 청문회 마친 이후 김경숙 학장, 최경희 총장 따로 만난 적 있는지	○ 없음.
○ 당시 청문회에서 증인은 특혜를 준 적 없다고 증언했는데 청문회, 특검수사 통해서 정유라 특혜입학 관련된 사실들이 밝혀졌음. 지금 증인의 입장은 어떤지	○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유라가 자기 나름의 실적을 가지고 입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남궁곤 증인도 위증 혐의 때문에 오늘 다시 재출석 했는데 무엇을 위증했는지	○ 최경희 총장이 정유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임.
○ 정유라가 응시한 사실을 왜 총장한테 보고했는지	○ 정윤회의 딸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보고했음.
○ 최태민, 최순실,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려 가면서 '이런 관계입니다'라고 보고했는지	○ 당시에는 최순실은 그렇게 부각이 안 될 때라 그렇게 보고함.
○ 학생이 지원했는데 총장한테 그 정도로 보고한다 그러면 특별한 것 아닌지	○ 최태민하고 정윤회는 독특한 이력을 가졌고, 정윤회가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이사항이라고 판단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위증 혐의는 교육부 감사에서는 총장이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증인은 총장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증 혐의라는 지적.	○ 총장하고 본인이 임명받은 지 한 달 반밖에 안되어서, 총장이 그 당시에 저한테 뽑아라, 마라 이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음.
○ 최순실이나 김종 전 차관을 만난적이 있는지	○ 전혀 없음.
○ 특검조사를 받았는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맞는지	○ 예.
○ 특혜 입학과 비상식적 학사관리에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수사나 구속에 빠져있고, 남궁곤 증인이나 류철균 교수는 한 분은 구속되어 있고 한 사람은 구속될 처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입학처장이 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고, 일반 국민들은 입학처장이 마음먹으면 학생들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학처장은 2년마다 교대로 하는 것임. 입학에 관한 모든 19개 전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증인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다' 이런 내용을 면접관들한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 예. 면접관들이 아니고 옆에 계시던 면접관의 일부한테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있음.
○ 증인이 정유라에 연락해서 '면접 당일 날 단복도 입고 오고 금메달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지	○ 전혀 사실이 아님. 입학처장이 특정한 수험생한테 연락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음.

(나) 노승일 참고인(재단법인 K스포츠 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독일에서 최순실이 김경숙 학장과 자주 통화하는 걸 들었는지	○블루K 사무실에서 여러 번 들었음.
○그게 2015년 2월 또는 3월이었는지	○1월, 2월경이었음.
○최순실과 최경희가 여러 번 통화한 거 알고 있는지	○전혀 모름.
○최순실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과 자주 통화하는 걸 들었는지	○듣지 못했음.

(4) 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및 독일에서의 사업 관련

(가) 노승일 참고인(재단법인 K스포츠 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이 대통령과 통화한다는 느낌 받은 적이 있는지	○ 독일에 있을 때 한차례 있었음.
○ 김기춘과 통화한 적은 있는지	○ 없었음.
○ 우병우와 통화한 적은 있는지	○ 우병우 수석이 독일에서 이번 사태로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시는 걸 보고 최순실이 '우병우 수석은 또 왜 그래?' 라고 언급한 것이 다임.
○ 우병우와 최순실은 아는 관계라고 보는지	○ 그렇게 느꼈음.
○ 방송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통합된 다음에 박 대통령 퇴임 후에 통합재단 이사장을 맡을 계획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 그러함. 2015년 미르가 비슷한 성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스스로 감지했음.
○ 2015년에 최순실의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에서 일할 때 최순실이 외무부 관계자와 통화하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는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 당시 최순실이 언급한 대사의 이름을 밝혀줄 수 있는지, 당시 독일대사였는지	○독일대사였음.
○차은택은 최순실과 대통령은 동급이라고 했고, 고영태는 권력순위 1위는 최순실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함.
○최근 보도된 내용,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운영진의 전화번호, 이름까지 알려주고 재무이사 선임을 지시했던 거 알고 있는지	○잘 모름.
○롯데에서 70억 받을 때 재단에서 누가 들어갔는지	○박헌영 과장하고 정현식 사무총장이 들어갔음.
○롯데가 돈을 다시 돌려준 이유가 당시 검찰이 강도 높은 내사와 압수수색 준비 중이었기 때문인 것이 맞는지	○그러함.
○70억을 어떻게 돌려주었는지, 압수수색 당일도 30억 내지 35억을 돌려준 것이 맞는지	○그러함.
○내사 및 압수수색 정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누군가 알	○당시 월요일 날 주간회의 때 정현식 사무총장이 이철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려주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알고 있는지	재무부장에게 롯데에서 들어온 후원금을 순차적으로 되돌려 주라고 했음. 안종범 수석이 정현식 사무총장한테 돌려주라고 전화를 했고, 저는 고영태한테 연락했으며, 고영태는 최순실한테 연락하였음.
○ 내사, 압수수색 정보를 안종범 수석이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알려주고 정현식 사무총장은 누구한테 알려주었는지	○ 직접 최순실에게 알려주었음.
○ 최순실의 명령 하에 돈을 돌려준 것 아닌지	○ 그러함.
○ 안종범 수석이 압수수색 정보, 내사 정보를 누구로부터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 민정이라고 생각함.
○ 최순실이 청와대의 어떤 루트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는지	○ 전적으로 안종범 수석과 대응방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음.
○ 최순실은 안종범과 계속 통화했는지	○ 아님.
○ 최순실이 안종범과 직접 통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분리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통합되어 박대통령 퇴임 후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한 근거는 무엇인지	○ 미르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최순실 회사가 지배하고 있었고, K스포츠는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K가 지배하고 있었음. 두 재단이 2016년도에 합병해서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어진다고 감지를 했고, 미르와 K스포츠가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을 때 전경련에 의해 두 재단을 없애고 하나의 재단으로 만든다고 기사가 나왔음.
○ 두 재단은 설립 기획 단계부터 최순실이 주도했고, 쌍둥이 재단 아닌지, 정동춘 이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러함.
○ 대통령 퇴임 이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통합되고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가실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 전경련이 운영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이었음. 최순실이 더블루K를 통해서 K스포츠는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미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통합이 된다는 것과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오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 아닌지	○ 미르재단, K스포츠를 모두 전경련이 만들어 줬고, 미르도 K스포츠의 직원 이력서가 모두 한곳으로 감.
○ 최순실이 이력서를 통제했는데, 최순실이 이사장으로 올 수 있는 건 아닌지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음.
○ 왜 그렇게 확신을 했는지?	○ 이력서를 가져갔을 때 최순실이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문제가 없어야 이 재단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퇴임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에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민정 쪽에서 걸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음.
○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직원 채용 때마다 대통령이 미리 확인했기 때문인지	○ 그러함.
○ 재단이 이름을 변경하여 박근혜 재단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적 있는지	○ 없음.
○ 고영태를 만나서 독일에 가겠냐는 질문을 받은 것이 7월 30일이 맞는지. 독일에 가서 했던 일에 대하여 질의	○ 맞음. 삼성과 계약을 위하여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신규 법인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음. 독일에 가서 회사로 사용할 장소를 알아보고, 박승관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8월 14일 입국을 하고 독일에서 박승관 변호사하고 최순실이 이야기해서 설립함.
○ 독일에 가서 일을 한 것이 국민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와 삼성이 독일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쉬운지에 대한 질의	○ 맞음.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승마협회 회장을 시키고, 독일에 보내서 회사를 차리는데 도움을 주게함. 위원은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승마협회로 지원하려던 삼성의 자금이 최순실이나 정유라에게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독일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의견 질의	○ 맞음.
○ 독일에서 돌아오는 과정과 독일에서 왜 나가라고 했는지 질의함	○ 독일에서 최순실이 나가라고 그래서 버티다가 나왔음. 급여 조건이 맞지 않으며, 원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음. 독일에서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부식을 끊고 본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통째로 이사를 갔음.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고영태가 체육재단이 만들어 지니까 이력서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체육재단이 정상적으로 전경련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재단으로 알고 있었으나 2달을 같이 일하고 보니까 최순실이 주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블루K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했음.
○ 대한체육회의 K스포츠클럽 사업에 K스포츠재단이 개입하여 운영권을 장악하려고 한 의혹이 있음. K스포츠재단 직원들이 K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서 대한체육회, 남양주시청, 당진, 고창 등지를 방문한 사실을 아는지	○ 그 의혹은 사실임. 알고 있음. 추가적으로 무주태권도원과 올림픽공원까지 있었음.
○ KEB하나은행 독일지점장 이상화와 주로 어떤 일로 연락	○ 주로 은행업무 볼 때 연락하고, 부동산 물건지도 몇건 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했는지, 이상화와 최순실의 관계 질의	천받았음. 직통으로 연락하는 사이었고, 최순실은 부동산 의뢰를 이상화, 박승관변호사, 타부동산업자에게 부탁함.
○최순실 독일 재산 관련 조사해야 할 대상 질의	○박승관, 이상화, 데이비드윤 그리고 삼성자금관리를 한 장남수 대리 4인.

(나) 정동춘 증인(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박 대통령이 퇴임 후 통합된 재단 이사장에 취임할 거라는 노승일 참고인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동의 못함.
○최순실이 지원하여 재단 이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장 직위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지적함.	○충고 감사함.
○해임 결의안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발언이 사퇴하겠다는 뜻지	○권고니까 심각하게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임.
○월급 및 자동차 제공여부 질의, 미르, K스포츠재단의 재산에 대한 처분 동결, 압류가 필요하다는 지적	○770정도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요청할 것을 의결할 필요 지적	○ (답변없음)
○ 아직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	○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함.
○ 불법적으로 모금된 재단의 이사장, 최순실에 의해 임명된 이사장 자리 빨리 벗어던지고 싶지 않은지	○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음.

(다) 조윤선 증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재단의 설립인가를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대기업들을 사실상 겁박하여 출연시킨 이 재단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 법률상 할 수 있는 자산동결과 활동 최소화는 이미 조치를 취했고, 전면 활동할 수 없도록 행위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방법이 적절한 것 같음.

(5) K스포츠재단 직원 징계 및 이사회 회의록 관련

(가) 정동춘 증인(K스포츠재단 이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노승일 부장 징계 관련 회의록을 보면 정동춘 증인 외 나머지 두 사람은 중징계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증인은 위증을 하였다는 지적	○ (답변없음)
○ 12월 9일 이완영 사무실 간 적 있는지, 누가 있었는지, 그 이후 누가 왔는지, 누가 먼저 왔는지?	○ 이완영 의원 사무실 간 일이 있고, 자리에는 이완영 의원이 있었음. 이후 이만희 의원과 최교일 의원이 왔는데, 이만희 의원이 조금 먼저 왔음.
○ 세 사람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인지	○ 아님.
○ 증인이 제일 먼저 도착했는지	○ 아님. 이완영 의원이 먼저 와 있었음.
○ 이사회 소집 이유가 노승일 징계위해 이사회 소집한 것은 아니었는지	○ 사실과 다름.
○ 박헌영 과장이 현재까지 K스포츠재단에 근무하고 있는지	○ 그러함.
○ 박헌영 과장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한 적이 있는지	○ 많은 경고를 했음.
○ 노승일 부장 해고를 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한 적이 있지 않은지	○ '해고를 목적으로'라는 말은 빼주길 바람. 결과는 경고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덱스포츠와 K스포츠재단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 (답변없음)
○ K스포츠재단과 전혀 관계없는 비덱스포츠 일을 보느라 독일까지 가는 등 관계없는 일을 한 박헌영 과장을 징계하려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독일 관계되는 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이므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반면 노승일 부장 징계사유는 무엇이었는지	○ 최순실국정조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과 무관하게 내부 문건 , 내부에서 진행된 상황 관련 정보 유출 때문이었음.
○ 박영선 위원이 요구한 K스포츠재단 징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5일 날 회의를 하고 6일 날 박영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미처 정리되지 않은 회의록을 보낼 수가 없어서 제출을 못했음. 마무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음.
○ 이사회에서 사퇴를 거부하며 '나는 위에서 뽑은 사람이다' 발언한 적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을 대통령이 임용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지	○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음. 초기에 이 청문회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종범 수석을 만났을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이사장으로 가는 만큼 열심히 해 달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했던 부분임.
○ 오늘 내놓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의 회의록이 두 가지인데 맞는지? 하나는 증인이 인정하고 싶은 회의	○ 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록이고 하나는 증인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회의록인데 맞는지	
○ 두 가지 회의록의 가장 큰 차이는 이사회의에서 정동춘 이사장을 1월 12일 임기로 이사직과 이사장직에서 해임 결정하는 안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맞는지, 이 부분을 증인이 조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는지	○ 예.
○ 회의록 첫 번째 것은 인정하고 두 번째는 조작이라고 주장하는게 맞는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 예. 통상 이사회는 이사장의 필요에 의해서 발의하고 개최를 통지함.
○ 최순실이 회장으로 있을 때는 최순실이 지시하는 대로 K스포츠재단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 증인은 최순실이 임명했음.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당연히 사퇴하고, 이사회에서 연임 결정을 안한 것은 조작됐으며, 분풀이로 노승일 참고인을 해고한 것이 아닌지	○ 아님.

(나) 노승일 참고인(K스포츠재단 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이 독일에서도 연설문을 고쳤는지, 포항연설문은 어디서 고친 것인지	○ 연설문이 아니고 방미 관련 자료였음. 포항연설문은 고친 것이 아니고, 최순실이 쓰던 노트북에서 휴지통에 있던 것을 제가 가지고 왔음.
○ 증인은 삼성 관련 사실이 가장 밝히기 힘든 것이라고 한다고 말한 바 있음. 삼성과 관련된 박원오, 박상진, 박재홍 증인이 불출석한 것에도 '작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박원오, 박재홍의 경우 그런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음.
○ 이사회 소집 관련 답변 요구	○ 정동춘 증인이 계속 남아 있겠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 이사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들어봤는지 여부와 회의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들어봤음. 주종미 이사하고 김필승 이사하고 회의해서 연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해임을 결정함. 정동춘 이사장이 '나는 위에서 내려 준 사람이다. 당신들이 결정한 것은 다 무효다'라고 함. 이철영 부장이 문체부 의견을 이야기 했더니, '문체부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월권행위다'라고 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사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들어봤는지 여부와 회의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들어봤음. 주종미 이사하고 김필승 이사하고 회의해서 연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해임을 결정함. 정동춘 이사장이 '나는 위에서 내려 준 사람이다. 당신들이 결정한 것은 다 무효다'라고 함. 이철영 부장이 문체부 의견을 이야기 했더니, '문체부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월권행위다'라고 함.

(6) 최순실 및 박근혜대통령 관련 질의

(가) 정동춘 증인(K스포츠재단 이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왜 추천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고등학교까지 육상·투창 특기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함.
○ 최순실과 인연이 없었으면 이사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 추천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나) 조윤선 증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무수석 재임 시절에 최순실과 김장자 등과 함께 근무시간에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 숍에 간 것이 적발되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가 무마되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전 회의에서 증인을 이를 부인하였음. 공직자로서 공무시간에 부적절한 일을 해서 문제된 적이 없는지	○ 없음.
○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는지	○ 그러함.

(다) 노승일 참고인(K스포츠재단 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이 김영재병원장 부인 박채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거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없음.
○ 최순실이 김영재 사업 많이 챙긴 거 같은데 아는 내용이 있는지	○ 독일에 갈 당시 한국에서 준 화장품이 다 그 곳 제품이었음.
○ 최순실이 김영재부인이 하는 화장품을 독일에서 받았다는 건지, 독일에 이 제품이 납품되었다는 건지	○ 나눠 쓰라고 가지고 간 것임.
○ 최순실이 평소 약물중독 될 정도로 자주 주사제를 맞았는지	○ 독일에 들어갈 때 가지고 온 물건 중에 수면제가 다량 있었음.
○ 수면제 등 약품을 청와대에 가지고 간 것을 아는 게 있는지?	○ 없음.
○ K스포츠재단에서 최순실이 김영재부인 박채윤과 가깝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지?	○ 해외에다 병원을 건립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음.
○ 대통령과 최순실이 통화한게 언제인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내용은 모르는지?	○ 2015년 8월 중순경임. '예, 예, 예' 이런 식이었으며, 내용은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이 대포폰을 주로 사용했는지? 그날 대통령과 통화했던 전화기가 대포폰인지 기억 나는지? 대통령도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의.	○ 상당히 많이 사용함. 대포폰이 확실함.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여부는 잘 모름.
○ 최순실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과 연결하거나 통화한 거 본적 있는지	○ 없음.
○ 최순실이 국정원 직원 또는 간부와 접촉하거나 통화한 내용 알고 있는 게 있는지	○ 없음.
○ 최순실이 무기중개상 등 독특한 외국인들과 접촉하거나 만나는 거 알고 있는 게 있는지?	○ 없음.
○ 대통령과 최순실이 통화한게 언제인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내용은 모르는지	○ 2015년 8월 중순경임. ‘예, 예, 예’ 이런 식이었으며, 내용은 모름.
○ 최순실이 대포폰을 주로 사용했는지? 그날 대통령과 통화했던 전화기가 대포폰인지 기억 나는지? 대통령도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의	○ 상당히 많이 사용함. 대포폰이 확실함.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여부는 잘 모름.

(7) 최순실과 그 측근에 대한 삼성의 지원 의혹

(가) 노승일 증인(재단법인 K스포츠 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 계약 당시 최순실이 갑이라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지	○ 일단은 계약서와 초안이 먼저 들어왔다는 점, 일사분란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 박원오 원장님도 최순실한테 얘기하기를 '삼성에서 계약을 좀 서두른다, 서두르자고 한다' 했던 부분 등 때문임.
○ 삼성은 지원대가로 최순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 잘 모름.
○ 최순실이 삼성 지원과 관련하여 박대통령과 상의를 했는지, 박대통령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 언급한 적 없음.
○ 최순실이 삼성 박상진, 장충기 사장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거 목격한 적 있는지	○ 없음.
○ 최순실이 박원오를 통해 삼성과의 진행상황 보고 받는 거 목격한 적 있는지	○ 그러함. 박원오 원장도 '삼성 측에서 빨리 계약을 서두른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음.
○ 그게 2015년도 7, 8월이 맞는지, 계약을 급히 서둘러서 된 건지	○ 2015년 8월이고, 서둘러서 이루어진 것이 맞음.
○ 2016년 8월 26일 독일 계약 건에 배석했는지, 삼성이 그 계약 건에 왜 그렇게 안달했는지	○ 배석했음. 삼성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상진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정유라 지원하는 계약 성사 잘 됐다' 문자로 보냈다는 사실에 관해 이후 알게 된 것 있는지	○ 처음 듣는 얘기임.
○ 당시 정유라 측 배후에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박상진 사장이 알았는지?	○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가늠함.
○ 삼성이 그 프로젝트를 박상진 사장한테 맡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박상진 사장은 대외협력사장,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맞고, 삼성은 회장사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왔다고 생각함.
○ 삼성이 정유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승마협회를 통해서 승마 유망주 6명을 발굴하려고 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다른 6명이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 박재홍 감독이 비블리스에서 11월과 12월 두 달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나머지 다른 사람들 선발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지	○ 박원오 원장이 선발을 하려고 했지만, 최순실이 못마땅해 했음.
○ 최순실이 '이 계약이 누구 덕분에 생긴 건데 선수를 선발한다고 꼴값을 떠냐?'라고 박원오 원장을 질책하고 선수 선발을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 있는지	○ 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이 삼성한테 승마 유망주를 육성한다고 220억을 받아서 정유라 이외에 누구도 지원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처럼 보는 것이 상식적인지	○ 예.
○ 삼성이 합병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국민연금의 합병 결정이 있었던 7월 17일이고, 계약이 시작되는 날은 8월 26일로 되어있지만 계약서에 사인한 날짜는 7월 15일,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하는 직전에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들어 본적 있는지	○ 7월 15일은 최순실이 비블리스, 마장 계약서를 사인한 날임.
○ 계약의 시작은 8월 26일 이지만, 5월부터 최순실이 쓴 돈을 청구한 것으로 보도됨. 이런 계통의 일을 평생 해 보시고 옆에서도 보신, 전문가이신 노승일 참고인이 보시기에는 상식적으로 보이는지	○ 비상식적임.
○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서는 모양새이고, 돈을 그냥 마음대로, '220억을 그냥 정유라 씨가 쓰세요'라고 준	○ 그게 정답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뇌물에 불과하다고 보는게 상식적인 추론 아닌지	
○ 삼성이 지원한 돈을 관리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 예.
○ 성과를 내지도 않고, 성과를 제출하지도 않았지만, 돈은 계속 지원되었음. 이것은 누가 봐도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 예.
○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정유라가 처음에 삼성이 섭외한 승마장에 갔는데 너무 적적하고 북쪽이어서 크게 불만을 표시함.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옮겼는데 처음에 섭외한 곳이 뮌스터가 맞는지	○ 처음에 빈터 목장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삼성이 독일에 승마장을 차리고, 승마협회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회사로 지원하는 협상 등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정경유착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함
○ 삼성과 최순실이 “은밀하게” 거래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보는 눈이 많으므로, 제3의 지역으로서 독일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독일에서 계약 당시 참관을 했는지	○ 8월 26일 참석했음
○ 삼성과의 계약과정이 어땠는지	○ 삼성에서 계약서 초안이 들어오고, 2015년 8월 25일 상업등기를 했고(코어스포츠가 마인제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사면서 상업등기가 약간 늦어짐), 8월 26일 계약이 완료됨
○ 삼성과 최순실의 관계에서 계약은 누가 갑(甲)이라고 생각하는지	○ 전적으로 최순실이 갑이었음. 삼성의 모델은 마장마술 3명가 장애물 3명 선수를 선발해서 독일에서 해외전지훈련을 시켜 유망한 선수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선수선발에 최순실이 모두 관여했음

(8) 기타

(가) 노승일 참고인(K스포츠재단 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고영태의 제안을 받고 독일을 간 것이 사실인지	○ 그러함
○ 정유라는 어떤 선수였는지	○ 운동선수로서의 자질은 전혀 없었음
○ 마장마술 기술은 말의 기량과 사람의 기량 중 무엇에 더 영향을 받는지	○ 객관적으로 볼 때, 선수가 20%, 말이 80% 차지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함
○ 최순실이 박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적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때 처음 두사람의 관계를 알았는지	○ 굉장히 오래된 언니 동생이라고 표현했음. 그 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날 최순실한테 얘기 들은 것은 처음임.
○ 고영태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PC의 제조사 애플인지, JTBC의 태블릿PC의 제조사가 삼성인지	○ 고영태의 태블릿PC는 애플이고, JTBC 태블릿PC는 삼성임.
○ 고영태로부터 자기 책상에 디지털 카메라만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 예.
○ 최순실이 증인에게 '내가 노부장을 믿어도 돼?' '태블릿을 훔친 것으로 몰아가야 돼'라는 전화통화를 한 것이 맞는지	○ 예.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청문회에서 진실되게 증언한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지	○ 예.
○ 정동춘 증인이 위증하고 있는 것인지, 정동춘 증인과 새누리당의원 중 누가 먼저 위증을 제의하였는지 선후의 문제이고, 노승일과 박헌영과 장과의 통화 내역이 특검에 제출되면 누가 위증하고 있는지 밝혀질 것이라는 지적	○ 예. 동의함.
○ 최순실 일당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 (답변없음)
○ 최근에 신변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요구	○ 있음. 서울지검 녹취파일 관련 조사받은 후 서초동 편의점에서 만난 사람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충정로에서 지인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봤음.
○ 그 사람이 남자였는지, 체격은 어땠는지	○ 남자였고, 체격은 나와 비슷했으며, 짧은 머리에 안경을 끼고 검정색 코트를 입고 있었음.
○ 미행하는 느낌을 받았는지	○ 그러함.
○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 잘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이 김종 전 차관, 김종덕, 김상률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내용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 김종 전 차관은 더블루K가 운영되면서 GKL 장애인펜싱팀 창단 문제 때문에 김종 차관을 한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음.
○ 조윤선 장관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지	○ 잘 모름.
○ 최순실이 평소에 조윤선 장관이나 당시 수석 언급을 했는지	○ 당시에는 김종 전 차관만 언급했음.
○ 개성공단 폐쇄 결정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그런 사실은 없음.
○ 미얀마나 이란의 K타워 프로젝트에 최순실이 참여하려 했다는데 알고 있는지	○ 모름.
○ 정유라가 할아버지인 최태민이 하남시에 땅이 많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한 적 있는지, 언제 들었는지	○ 2015년 9월 경 독일 비블리스에 있는 마장에서 들었음.
○ 그 땅을 그 때 팔았는지, 땅을 팔아서 청담동에 땅을 산 건지	○ 그러함.
○ 땅 판 돈이 청담동으로 갔다는 건 돈이 최순실에게 갔다는 건지	○ 하남시 땅 매각대금이 다시 청담동 땅으로 갔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2013년 평창올림픽 준비를 위해 복합체육센터시설 검토를 서승환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하는데 그 땅이 미사리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들은 적 있는지	○ 미사리 땅이라고는 안 그랬고,하남시 땅에서 상당 부분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음.
○ 본인 증언 중에 하남시 땅이 환금성을 보여서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환금인지, 황금(gold)을 말하는 건지?	○ 황(黃)임.
○ 최순실이 그 땅이 개발이 안 될 거란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 최순실이 갖고 있는 실소유의 토지보다는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토지가 일부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음.
○ 미사리 땅보다 훨씬 많은 땅을 최순실이 하남시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유라가 한 것이라고 보는지	○ 그러함.
○ 독일에 있을 때 정유라가 할아버지 최태민이 하남시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 있는지	○ 저녁식사 자리에서 얘기했음.
○ 독일 현지 재산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 있는지	○ 들은 바 없음.

(나) 조윤선 증인(문화체육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장관직에 미련이 있는지	○ 그렇지 않음.
○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 계획이 있는지	○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지?
○ 국회에서 고발되었으니까 피의자 신분이 맞는지, 피의자 신분으로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는지	○ 피고발인은 맞음. 부끄럽지 않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오전에 뭐 했는지, TV 보면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는지	○ 사무실에 있었음. 예, 다른 업무도 보고를 받았음.
○ 장관직 계속하고 싶은지	○ 장관직을 계속하고 싶다, 아니다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문화예술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증인은 지금까지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그렇게 하고 발언함. 그 역할 할 수 있다고 보는지	○ 특검이나 검찰에서 저에 관한 의혹 부분을 밝혀 주시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함.
○ 2016년 12월 18일 이혜훈 의원이 라디오에서 '조윤선이 최순실을 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다는 국회에서 답변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가고 난 후 전화를 좀 받았다. 재벌 사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최순실	○ 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을 여왕님 모시듯 한 사람이 조윤선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이런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발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고, 고소할 것이라고 했음. 고소했는지	
○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하실 분인지	○ 잘 모르겠음.
○ 84학번 맞는지,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를 기억하는지	○ 예.
○ 김기춘 실장이 이런 그림들을 보고 응징·보복·제재·고발 등 사법의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했음. 증인이 정무수석일 때 2014년 8월 7일 수석회의에서 이것을 고발해야 된다고 민정에 지시하고, 실제로 고발함. 이것을 기억하는지	○ 기억 안남.
○ 김기춘 실장이 민정수석에게 고발을 지시했지만, 민정수석이 사법 철퇴를 내릴 일이 아니라 정무수석이 풀어야 되는 문제임. 이러한 이야기 한 적이 있는지	○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적힌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수석회의에서 다 논의된 게 아님. 그림에 대해서 계속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논의됐었다는 기억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지	○ 그렇게 생각함.
○ 대선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서 대화할 기회가 많았을 것임.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 대통령의 수행은 언론에 공개되는 행사거나 현장의 유세장이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지지했음.
○ 정무수석 재직 중에 세월호 사고 등 어려운 시절에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는지	○ 예전과 다르지 않음.
○ 대통령이 불쾌한 일이 생기고 할 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이런 반응이 없었는지	○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제가 특별히 어떤 일의 처리를 잘못해서 질책하실 때 이외에는 제3자에 관해서 안 좋게 평가하시는 말씀을 한 적이 없음.
○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 대통령의 심기에 대해서 전달이 올 것임. 김기춘 실장의 역할이 그것이 아닌지?	○ 실장님은 소관 수석실이나 소관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음. 대통령의 심기에 관해서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 적은 없음.
○ 노태강 체육국장은 대통령이 '나쁜 사람들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라고 해서 쫓겨난 이야기를 아는지	○ 명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업무수첩이 있었는지	○ 공직에서 가지고 있었던 업무수첩은 폐기했음.
○ 업무수첩에 회의할 때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는지	○ 생각나거나 말을 해야 되거나 하는 내용도 쓰지, 항상 듣는 것만 쓰지는 않음.

(다) 정동춘 증인(K스포츠재단 이사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무슨 위증 혐의로 청문회에 출석했으며, 다른 증인들은 다 안 나오는데 무엇을 해명할 게 있어서 나왔는지	○ 태블릿 PC 관련 위증이라고 알고있음.
○ 체육학 박사고 국가대표 선수들 회복훈련도 지원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곳의 정식 이름은	○ CRC 운동기능회복센터임.
○ 조윤선 장관은 오늘 처음 봤는지	○ 오늘 처음 봤음.
○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정유라, 김장자, 박채윤 중에서 고객이 아닌 사람은 최순실만 왔는지	○ 최순실 제외하고는 다 고객이 아님. 최순실만 왔음.
○ CRC 맛사지숍 운영한 적 있는지	○ 마사지숍이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이 일주일에 평균 몇 번 왔는지	○ 기간마다 다름.
○ 조윤선은 몇 번 정도 왔는지?	○ 전혀 오지 않았음.
○ 김필승 이사의 말에 따르면 조윤선이 맛사지숍에 온 것을 증인이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고, 맛사지숍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증인이 위증하고 있는 건 아닌지?	○ 그 증인과 대질시켜 주길 바람.

3. 현장조사

[12월 16일]

(1) 김영재의원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개요

○ 일시 : 2016년 12월 16일 12:05~13:18

○ 장소 : 김영재의원

○ 참석자 : 국정조사특위 위원 16인, 김영재의원 관계자 4인(김영재 원장, 상담실장, 경영지원부장, 간호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 4인(보건소장, 의약과장, 의무팀장, 약무팀장)

○ 현장조사 실시내용: 김영재의원 현황보고, 특위 위원 질의·답변, 자료 열람 등 현장조사

(나) 현장조사 주요 질의·답변내용

1) 김영재 증인(김영재의원 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세월호 참사 당일 톨게이트에 들어간 시간이 언제인지 ㅇ수술과 리프팅을 전문으로 하는데, 왜 청와대에서는 10번 방문해서 상담만 하고 왔는지	ㅇ기록에는 10시 40분으로 나타남 ㅇ흉터와 마비, 얼굴 비대칭 등 때문에 들어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청와대에 출입해서 치료를 했는지	○ 수술을 하면 전후가 확실해서 수술을 하지 못함
○ 청와대 출입시 항상 존제이콥스 화장품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 갖고 갈 때가 있었음
○ 청와대 출입은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와서 간 것인지	○ 그러함
○ 정호성비서관으로부터는 연락받지 않았는지	○ 아님
○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 이영선 비서관임
○ 2015년 서울대병원장이 먼저 연락했을 때 직접 받았는지, 아니라면 누가 받았는지	○ 직접 받지는 않았음. 와이프(박채윤)가 받았다고 얘기 들었음
○ PRP 고관절 치료를 하면서 초음파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	○ 고관절을 꼭 고관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조직, 통증이 잇는 부위에 놓기 때문에 뭉툭한 침으로 시술하는 것이 가능함. 정형외과 같이 뼈나 근막에 놓는 개념은 아님
○ 프로포폴 할 때 펜타민을 같이 사용하는지	○ 펜타민을 사용하지 않음
○ 이 병원에 CCTV가 있는지, 2014년 당시 CCTV기록도 보관되어 있는지	○ 건물에 2대 있음. 보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피부 시술 중 정확히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 피부 시술 중에 스킨케어 프로그램, 보톡스 시술, 레이저와 PRP 등 종류가 상당히 많음
○ 2014년 4월 15일에 김영재원장을 청와대에서 봤다는 제보가 있는데	○ 골프 가기 전에 집에 일찍 들어간 것 같음
○ 대통령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이 있는지, 실제로 피부에 감각이 없고 비대칭으로 되고 그런 것인지	○ 피부의 감각이 없는 경우, 조이는 경우,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음
○ 실제로 대통령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 비대칭이 심해지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음. 수술은 전후 차이가 많이 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청와대 안가에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사실이 있는지	○ 없음
○ 부인 박채윤이 피부마사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지	○ 마사지를 할 필요가 없음.
○ 청와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 상담을 했음

2) 박채희 증인(김영재의원 상담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보정으로 등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최순실인지	○ 최보정임
○ 최보정의 실체가 최순실인지 박근혜 대통령인지	○ 최보정으로 알고 있음
○ 최보정이 136회 진료받았는지	○ 그러함
○ 136회나 진료를 받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지, TV에서 최순실을 본 적이 있지 않은지	○ 환자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고, 병원에 왔을 때 동네 아줌마로 알고 있었고, 문건 관련 사건이 터진 후에 최순실이 누군지 알게 되었음
○ 증인의 직책이 무엇인지, 최보정의 등록을 본인이 했는지	○ 병원의 상담 일정을 잡고 있음. 처음 10월에 최순실이 방문했을 때 저희 병원에서 수술했고, 봄에 한 번 온 적 있음
○ 최보정이 무슨 수술을 했는지	○ 리프팅 수술을 했음
○ 136회 전체가 최보정에 대한 시술이었는지	○ 그러함
○ 최보정이 136회 리프팅 시술을 한 것인지	○ 환자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밝힐 수 없음
○ 주로 최보정이 리프팅 시술을 한 것인지	○ 아님. 피부 시술 등을 많이 했음
○ 총 136회의 진료는 2013년 10월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는지	○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약 3년간 136회의 진료를 받았다면, 연 평균 45회정도 다녀간 것인지	○ 횟수로는 거의 그러함
○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시술받는 환자가 있는지	○ 그런 고객이 있음
○ 파쇄기는 언제 구입했는지	○ 사무실에서 산 것이라 언제 샀는지 알지 못함
○ 최보정이라는 이름은 최순실이 직접 이야기 한 것인지, 상담자가 그렇게 적은 것인지	○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상담의뢰 및 시술 당시에 최보정이라고 말했음
○ 최보정의 생년월일도 직접 최보장이 이야기한 것인지	○ 그러함. 대통령 생일인지 몰랐음
○ 고가의 시술을 하므로 진료비 등 확인을 위해서라도 본인여부를 일반적으로 확인하지 않는지	○ 대부분 불러주는 대로 적음
○ 프로포폴 시술을 하는데 본인확인을 왜 허술하게 하는지, 주민등록증을 보지 않고 프로포폴을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	○ 죄송함
○ 2014년 4월 16일 당일 김영재원장을 병원에서 보았는지	○ 그러함
○ 세월호 당일 김영재원장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 시간은 모르겠고 9시 반 넘어 나간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세월호 당일 김영재원장의 장모가 방문했는지, 잘 알고 있는지	○ 그러함
○ 세월호 당일 김영재원장의 장모가 어떤 시술을 했는지	○ PRP 허리와 무릎쪽 시술을 한 것 같음
○ 김영재의원은 수요일마다 휴진하는지	○ 아님. 간호사들은 정상출근함
○ 수요일에 휴진하는 경우 원장은 골프를 치는지	○ 골프 치실 때도 있고, 환자 진료 보실 때도 있고, 개인적 일이 있으면 병원에 나오기도 함
○ 김영재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수요일에 나는 휴진을 한다”고 밝혔고, “나는 골프를 치던지 하는데 간호사들은 있기 때문에 휴진은 아니다”라고 밝혔음. 사실인지	○ 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휴진이지만, 수요일에 원장이 다른 볼일이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꼭 휴진인 것은 아님
○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각 수요일에 26회, 27회, 22회 프로포폴 시술을 했는데, 원장이 안계셨다면 프로포폴 시술을 할 수 없는게 아닌지	○ 절대 시술을 하지 않았음
○ 프로포폴을 시술한 날은 원장이 출근한 날이고, (언론보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요일에 휴진을 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 아닌지	○ 수요일은 휴진이 아님.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을지 모르지만 휴진이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왜 진료기록을 파기했는지	○ 고의가 아니고 지난 서류들에 대해서 파기한 것임
○ 언제 진료기록을 파기했는지	○ 10월 말에서 11월 초였던 것 같음
○ 며칠 동안 진료기록을 파기했는지	○ 이틀 정도였음
○ 진료기록 파기는 원장이 지시했는지	○ 원장의 허락은 받았지만 파기하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음
○ 원장의 지시 없이 진료기록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아님. 원장의 허락은 받았고, 10년, 15년 된 차트가 많이 있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차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었더니 파쇄업체에 차트를 드리라고 했음
○ 보건소에서 진료기록 파기를 허락했는지	○ 그러함. 파기업체에 의뢰하라고 들었음. 그러나 개인 정보 등이 있어서 업체에 맡기지 못했음
○ 최순실과 박채윤이 동행한 적이 자주 있었는지	○ 그러함. 최순실은 시간 약속이 불확실해서 박채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음
○ 박채윤이 평상시에 자주 오는지	○ 많이 안오심
○ 박채윤이 최순실을 뭐라고 호칭하는지	○ 사모님이라고 호칭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박채윤 회사 위치가 어디인지	ㅇ사무실은 이 건물의 아래층임
ㅇ김영재 원장이 왕진도 하는지	ㅇ왕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현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이 언제까지 보관되어 있는지	ㅇ2016년 12월 오늘자까지 보관되어 있는 것 같음
ㅇ지난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 파쇄분은 2013년 이전 것을 파쇄했는지	ㅇ그러함
ㅇ2014년, 2015년 장부는 그대로 남아있는지	ㅇ그러함
ㅇ보건서 보고용 장부와 환자관리용 장부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	ㅇ이중장부는 아님
ㅇ최순실을 진료할 때마다 항상 의료기록을 작성했는지	ㅇ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함
ㅇ처방전 발급 내용도 다 작성되어 있는지	ㅇ아님. 최순실에게는 처방전이 나간 적이 거의 없음
ㅇ박근혜 대통령이 온 사실이 있는지	ㅇ한번도 안왔음
ㅇ상담실장이고, 최순실의 진료 횟수가 많다는 점에서 친하다고 볼 수 있는지	ㅇ최순실의 성격이 독특해서 가깝게 지내기 어려움
ㅇ최순실이 처음 찾아왔을 때 상담하고 진료를 했는지	ㅇ상담만 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최순실이 10월에 한 리프팅 시술은 영스리프트인지	ㅇ절개수술이므로, 영스리프트는 아님
ㅇ최순실이 4월에 오고 6개월 동안 한번도 안온 후 10월에 왔는지	ㅇ그러함
ㅇ진료 계산은 현금으로 하는지 키드로 하는지	ㅇ항상 현금으로 함
ㅇ언제부터 근무했는지	ㅇ2000년부터 근무했음. 대략 10년정도 근무했음
ㅇ원장과 친인척관계인지	ㅇ그러함. 처제임.
ㅇ이름이 무엇인지	ㅇ말씀드리기 곤란함
ㅇ하루에 환자가 몇 명이나 오는지	ㅇ환자 수가 많지는 않음
ㅇ오전에는 환자가 몇 명이나 오는지	ㅇ보통 한 명이 오거나 아무도 안올때도 있음
ㅇ진료는 예약제인지	ㅇ거의 예약자 위주로 진료하고 있음
ㅇ회사에 법인이 2개인데, 모두 이 건물 안에 있는지	ㅇ사무실(아래 층) 따로, 공장(성남) 따로임.
ㅇ박채윤은 이 건물에 자주 오는지, 상근하는지	ㅇ공장에 가있는 적이 ㅁ낳음
ㅇ최보정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가명을 쓴 사례가 있는지	ㅇ모르겠음
ㅇ한 사람에게 프로포폴 앰플을 한 개 이상 쓸 수 있는지	ㅇ체질과 몸무게 등에 따라 다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한 사람에게 프로포폴 최대량을 우여하는 경우 보통 앰플을 몇 개까지 쓰는지	○ 젊고 덩치가 큰 남자의 경우, 15cc부터 시작함
○ 세월호 참사 당일 몇 시쯤 출근했는지	○ 9시 조금 넘어서 왔음
○ 김영재 원장이 제일 잘하는 시술이 무엇인지	○ 엔더스코프(endoscope)를 이용한 페이스 리프팅을 많이 했음
○ 김영재 원장이 제일 잘 하는 것은 수술인지	○ 수술과 피부를 잘 함
○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말씀하지 않으셨음
○ 김영재 원장의 사모님도 같이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음
○ 김영재원장 부부가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는지	○ 전혀 없음
○ 김영재원장 부부의 청와대 출입 횟수가 몇 번인지 아는지	○ 잘 모르겠으나 약 5-6번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음. 나중에 알았음
○ 최순실이 김영재원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 최순실의 성격이 무뚝뚝하여 인사만 하는 정도임
○ 김영재의원의 행정업무, 즉 재정이나 환자기록관리는 누가 담당하고 있음	○ 제가 담당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환자 방문시 프로그램을 통해 다 기록을 하는지	○ 그러함
○ 환자 진료 기록 프로그램이 의료보험공단과 연결되어 있는지	○ 저희는 수기로 기록함. 프로그램 자체가 없음
○ 최순실이 136회 진료를 현금으로 했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음
○ 136회 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기록이 있는지	○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음. 1년에 한번씩 등록하기 때문에..
○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 현금영수증 자진신고번호로 등록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음
○ 김영재원장의 해외순방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최순실과의 상당한 친분이 확인되고 있는데, 처제인 상담실장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	
○ 세월호 당일 장모의 시술 후 김영재원장이 나간 시간이 몇시인지	○ 대략 9시 35분쯤임. 정신이 드시는 것을 보고 바로 나가셨음
○ 김영재원장이 4월 16일에 골프치러 간다는 사실은 언제 알았는지	○ 그 전날 저녁에 들었음. 언니가 아침 일찍 나와서 바로 치료하고 어머니 영양제를 맞고 하라고 이야기 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영재원장의 4월 16일 오전 진료 당시 복장이 어땠는지	○ 골프가는 복장, 캐주얼한 복장이었음
○ 평소 김영재원장의 복장은 어떠한지	○ 캐주얼한 복장임. 4월 16일과 복장 차이는 없었음
○ 최순실은 방문 할때마다 계산을 했는지	○ 1년 단위로 계산했음. 저희는 패키지로 들어가기 때문임
○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한 사용내역 액수는 어느정도인지, 대충 약 5천 8백만원정도로 보이는데 맞는지	○ 나중에 설명드리겠음. 약 8천만원이 넘는 것 같음
○ 현금영수증을 1년 단위로 세 차례 처리했는지	○ 그러함. 8천만원을 좀 넘는 정도임
○ 김영재의원은 토요일에 휴진하는지	○ 토요일도 원장님이 휴무하는데, 가끔 환자가 급하게 봐달라고 하는 경우는 나오심
○ 일요일 외에는 정기휴진 개념이 없는 것인지	○ 그러함
○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같이 나간 사실이 있는지, 사업을 위해 함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번 5월에 파리에 함께 갔음. 갑작스럽게 가게 됨. 화장품 부스가 있었음.
○ 진료기록 파쇄는 이번에 처음 한 것인지	○ 1996년 원장님 오픈할 때도 있었고, 2004년 이후로는 처음 했음
○ 프로포폴 납품하는 제약사 이름, 수량, 해당 직원의 전화번호를 달라는 요청	○ 알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왜 상담을 하는지, 상담을 잘 해야 시술로 이어지는 것인지	○ 환자가 오면 상담을 해야하고, 시술로 이어지는 부분은 환자가 선택하기 나름임
○ 김영재 원장이 박채윤과 함께 대통령을 만나러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을 아는지	○ 지금 알게 됨
○ 김영재부부가 이 병원에 있다가 들어갔는지, 외부에 있다가 호출을 받고 들어갔는지	○ 잘 모름
○ 김영재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말을 안하고 가시는지	○ 자세한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님. 일반적 처제-형부랑 다르게 형부가 가장 어려움
○ 형제가 다 같이 개명했는지, 왜 개명한 것인지	○ 그러함. 개인적인 일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음
○ 간호사자격증이나 간호조무사자격증이 있는지	○ 없음
○ 진료비용 약 8천만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프로포폴인지	○ 수술비용임. 프로포폴은 수술에 들어가는 재료비임
○ 시술 외에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 프로포폴만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음

3) 황은희 증인(김영재의원 간호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최보정이라는 환자가 최초로 등록한 시점이 언제인지	ㅇ2013년 10월로 알고있음
ㅇ등록을 하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지	ㅇ그러함
ㅇ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년월일과 최순실을 조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ㅇ그와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더 오래 근무했음
ㅇ최보정의 리프팅 시술 때 들어간 사람인지	ㅇ그러함
ㅇ136회 진료 중 리프팅 시술의 포함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ㅇ주로 많이 포함됨
ㅇ최보정이 TV로 인식할 수 있는 최순실이 맞는지	ㅇ그러함
ㅇ최보정이 최순실인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ㅇ이번에 알게 됨
ㅇ최순실 진료 시 항상 간호사가 옆에 있는지	ㅇ그러함
ㅇ최순실이 항상 프로포폴을 맞았는지	ㅇ거의 사용했음
ㅇ어느 정도 주기로 최순실이 프로포폴을 맞았는지	ㅇ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도 왔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세월호 당일에 김영재원장의 장모를 봤는지	ㅇ봤음
ㅇ수요일에 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간호사들만 나와서 무엇을 하는지	ㅇ잔무를 함
ㅇ수요일에 원장이 계시지 않은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ㅇ잘 기억하지 못함
ㅇ세월호 참사 이후 원장이 항상 수요일에 병원에 나왔는지	ㅇ스케쥴에 따라 변동사항은 있었음
ㅇ최순실과 박채윤 사장이 주로 함께 왔는지	ㅇ함께 오실 때도 있었음
ㅇ최순실이 오면 박채윤 사장이 주로 따라왔는지	ㅇ잘 모르겠음.
ㅇ언제부터 근무했는지	ㅇ2001년으로 기억함
ㅇ원장과 친인척 관계인지	ㅇ아님
ㅇ이름이 무엇인지, 결혼은 했는지	ㅇ결혼 했음
ㅇ세월호 참사 당일 몇 시에 출근했는지	ㅇ약 8시 40분쯤 출근했음
ㅇ김영재원장의 장모 채혈은 누가 했는지	ㅇ제가 채혈했음
ㅇ김영재원장은 몇 시쯤 왔는지	ㅇ약 9시, 8시 50분 쯤이었음
ㅇPRP를 하려면 피를 뽑아야 하는지	ㅇ그러함. 원장이 워낙 바쁘기 때문임
ㅇ원심분리는 누가 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ㅇ제가 기계에 넣었음. 보통 5분에서 10분정도 걸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김영재 원장은 몇시에 왔는지	ㅇ9시 정도에 오신 것 같음
ㅇ김영재 원장의 장모는 언제쯤 왔는지	ㅇ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음. 대략 8시 55분에서 9시 정도로 기억함
ㅇ프로포폴은 언제 놨는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ㅇ원장님 오시면 프로포폴을 시술함. 제 기억으로는 9시 10분.. 5분 쯤임
ㅇ원장이 장모를 시술하기 위한 준비시간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ㅇ약 10분에서 15분 정도임
ㅇ장모에 대한 시술시간이 얼마정도였는지	ㅇ약 10분 안팎이고, 깨는 것까지 합하면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임
ㅇ김영재원장이 장모가 깨는 것을 보고 갔는지 중간에 나갔는지	ㅇ완전히 다 깬 상태에서 보고 나가셨음
ㅇ김영재원장이 장모 시술 후 나간 시간이 몇시인지	ㅇ9시 30분에서 40분정도임
ㅇ최순실의 평균 진료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ㅇ약 1시간정도임
ㅇ대부분의 환자들의 평균 진료시간도 약 1시간 정도인지	ㅇ그러함
ㅇ김영재원장이 진료할 때 환자와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인지	ㅇ수술실 안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는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순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환자인데, 서로 잘 아는 사이로 보였는지	○ 잘 모르겠음
○ 김영재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전혀 몰랐음
○ PRP주사는 어디에 맞았는지, 고관절이 아닌지	○ 허리와 무릎에 들어감. 고관절도 맞았음
○ 김영재의원에 초음파 기계가 있는지, 초음파 없이 고관절에 주사할 수 있는 것인지	○ 없음. 원장님께서 하심.
○ 프로포폴 처방 시간이 기록되는지	○ 마취 들어가는 시간을 기록함
○ PRP 고관절 치료를 다른사람을 대상으로도 하는지	○ 간혹 하는 분들도 계심
○ 고관절 치료를 하면서 초음파 기계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	
○ 김영재원장과 박채윤이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함께 들어간 사실을 알았는지	○ 이번에 알게 됨

4) 김지훈 증인(김영재의원 경영지원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파쇄기를 언제 구입했는지	○ 2012년 이후에 구입함. 사무실에 파쇄기 3대가 있음
○ 실 만드는 회사 직원이 몇 명인지	○ 오더를 빼고 8명 있음
○ 화장품은 직영인지 하청인지	○ 직영임. 개발만 저희가 하고 외주로 하고 있음

5) 박응순 증인(강남보건소 의약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초 내원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지	○ 의료법상 정확한 이름을 확인해야 함
○ 의료보험공단과 연결된 환자진료기록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 비보험 진료기관에서는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안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김영재원장은 실제로 의료보험공단과 연결된 환자진료기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 종이차트를 쓰고 있음

6) 심한석 증인(강남보건소 의무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김영재원장은 실제로 의료보험공단과 연결된 환자진료기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ㅇ종이차트를 쓰고 있음

7) 심문호 증인(강남보건소 약무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왜 진료기록 자료를 파쇄하도록 지시했는지	ㅇ (답변 없음)

(다) 특이사항

○ 세월호 참사 당일(2014. 4. 16.의) 진료차트와 다른 날짜 진료차트의 김영재 원장 서명에 차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증거보전 등을 위하여 특검에서 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거함.

(2)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개요

○ 일시: 2016년 12월 16일 15:20

○ 장소: 청와대 대통령경호실(경내 진입 불가 통보로 무산)

○ 참석자: 국정조사특위 위원 16인,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관계자

(나) 특이사항

○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내 진입 불가를 통보하여 연풍문 면회실에서 비공개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합의되지 못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함.

[12월 26일]

(1) 서울구치소 증인 수감동 출입 및 면담 신문

(가) 출입 및 면담 신문 개요

○ 일시: 2016년 12월 26일 15:30~17:30

○ 장소: 서울구치소 수감동 내 접견실

○ 참석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등 위원 9인, 최순실 증인, 구치소장 등 구치소 관계자

- 위원 : 김성태(위원장), 김한정,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장제원, 하태경, 황영철, 윤소하 위원

(나) 주요 면담 신문 요지[2)]

1) 박근혜대통령과의 관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근혜대통령이 도와달라고 먼저 말했는지	○ 말못함.
○ 박근혜대통령이 시녀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지	○ 처음 들음.
○ 박근혜대통령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운동회사진을 봤는지	○ 사진을 못봤음.
○ 박대통령을 만날 때 본인에 대한 호칭은 무었인지	○ 최원장이라고 부름.

2) 속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면담·신문에 참여한 위원들이 신문사항을 발표한 내용과 면담에 배석한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대통령이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최순실도 그러한지	○ (불명)
○ 박대통령 탄핵에 대한 생각	○ 죄스럽게 생각함.
○ 헌재가 기각하도록 사죄하고 싶은지	○ 마음이 복잡함. 얘기하고 싶지 않음.
○ 최순실씨가 다 해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박대통령이 너무 황당하다고 했는데	○ 대답하기 힘듬.
○ 박대통령이 최순실씨는 엄마 역할을 했다는데	○ (불명)
○ 장시호가 대통령을 어떻게 불렀는지	○ (불명)
○ 육영재단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 (불명)

2) 김기춘, 우병우, 고영태 등 주위 인물과 관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기춘, 우병우, 김장자를 아는지	○ (불명확)
○ 고영태가 고집쎈 사람이라고 했는데	○ 고영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음.
○ 대통령 피팅룸에서 이영선, 윤전추행정관과의 옷값지불 영상 관련 질의	○ 특검에서 말하겠음.
○ 김장자씨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임순 소개인지	○ 이임순씨한테서 애기받았음.
○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과의 회의 및 문고리 3인방과의 관계질의	○ 신문이 아니라 확인한다고 해서 나왔음. 너무 힘듬.
○ 김장자를 아는지	○ 모름.
○ 차은택씨 증언으로 기흥CC에서 김장자씨와 같이 골프를 쳤다는데	○ 다음에 얘기하겠음.
○ 이영선행정관과 옷샘플 만들고 핸드백 가져갔는지	○ (불명)

3)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K스포츠재단 설립이 박대통령의 아이디어인지	○ 아님. 모든 것은 재판과정에서 말하겠음.
○ 안종범 수석아는지	○ 모름. 한번도 못봤음.

4) 프로포폴 처방 의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영재피부과 확인 결과 2년간 136회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실에 관한 질의	○ 아님. 모든 것은 재판과정에서 말하겠음.
○ 프로포폴 투여 및 미용시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함께 갔는지	○ 고영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음.
○ 프로포폴 처치 안받고 있으니까 힘든 점은 없는지	○ 약먹고 있음.
○ 김영재의원 8천만원 어치 처방. 본인혼자 맞았는지, 다른 사람들과 나눠썼는지, 일주일에 한번씩 맞은 것인지	○ 말도안됨.
○ 박대통령도 맞았는지	○ (불명)
○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생일이 2월 2일인지	○ 기억안남.

5) 동계스포츠센터 운영 등 삼성과의 관계 질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동계스포츠센터 운영 과정 질의	○ 검찰에서 얘기하겠음.
○ 삼성의 지원 여부 질의	○ 검찰에서 얘기하겠음.

6) 태블릿PC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태블릿PC의 위치 및 사용여부 질의	ㅇ 쓴적이 없음. 워드파일도 안씀. 검찰에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보여줌.
ㅇ 정유라가 사용했는지	ㅇ (불명)
ㅇ 독일에 가져갔는지	ㅇ 쓰지 못해서 안가져감.

7) 정유라 관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이대 입시 부정 관련 질의	ㅇ 검찰에서 얘기하겠음.
ㅇ 이대 교수들에게 쇼핑백 선물 질의	ㅇ (불명)
ㅇ 정유라를 검찰이 잡아서 들어오기전에 자진 귀국을 설득할 의사가 있느냐 질의	ㅇ (불명)
ㅇ 정유라를 IOC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태환선수를 출전 못하게 한 것인지	ㅇ 말도안됨. 박태환 잘모름.
ㅇ 김경숙 학장을 아는지	ㅇ (불명)

8) 기타 의혹 질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독일에 만든회사 있는지	ㅇ (불명)
ㅇ 독일에 차명계좌 8천억이 있는지	ㅇ 말도 안됨.
ㅇ 새누리당 총선 참패 등 선거 관여 여부 질의	ㅇ (불명)

9) 개인신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ㅇ 심정은	ㅇ 국민들에게 죄송함
ㅇ 공황장애 등 건강상태는 어떤지	ㅇ 증세 있으나 자세한 말은 못함.
ㅇ 청문회 불출석 사유 질의	ㅇ 너무 힘듬, 심경 복잡, 재판 중임.
ㅇ 정유라와 박근혜 중 누가 더 상실감이 크겠는지	ㅇ 딸임.
ㅇ 의원 중에 아는 의원있는지	ㅇ 장제원의원 앎.
ㅇ 구치소에서 신문을 보는지	ㅇ 볼 시간이 없음.
ㅇ 세월호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 그날 대통령과 통화한적 있는지	ㅇ 기억이 안남. 그것과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ㅇ 몇년형을 받을 것 같은지	ㅇ 종신형도 생각함.
ㅇ 왜 현금만 썼는지	ㅇ 카드도 있음.
ㅇ 청문회, 관련 뉴스 보고 있는지	ㅇ (불명)
ㅇ 정윤회와 독일에서 살았는지	ㅇ 확인해봐야함.

(2) 남부구치소 증인 수감동 출입 및 면담 신문

(가) 출입 및 면담 신문 개요

○ 일시 : 2016년 12월 26일 15:25~18:30

○ 장소 : 남부구치소 직원교육실

○ 참석자 : 국정조사 특위 위원 7인, 정호성 증인, 안종범 증인, 구치소장 등 구치소 관계자

- 위원 : 박범계, 도종환, 이만희, 이혜훈, 정유섭, 김경진, 이용주위원

(나) 주요 면담 신문 요지[3)]

1) 정호성 증인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모두발언) 국정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고 싶었음. 언론보도를 보면 부정확한 보도 많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음. 개인적으로는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고 싶었으나, 검찰·특검·탄핵 등이 진행중이라 조심스러웠고,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음. 청문회에 나가서 재판중이라

3) 속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면담에 배석한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속기록이 없음을 감안하여 질의위원명을 병기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답변하지 못한다고 일관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지만 불출석하였음. 지금도 같은 입장임.
○(모두발언) 박범계 위원/ O.J.심슨의 경우 전국에 생중계되는 재판을 통해서도 오히려 무죄 판결을 받았음.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검찰 수사에 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라 생각됨. 본인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을 알려주기 바람.	
○정유섭 위원/ 김종, 장시호, 차은택 등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청문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있음. 추가로 청문회를 열어 출석을 요구한다면 나올 의향이 있는지?	○출석할 의향이 없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입장임.
○이만희 위원/ 대통령과의 인연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대통령 업무 스타일이나 최순실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실 것 같음. 공소장에 나와 있	○1998. 4. 2. 보궐선거 당선 이후에 시작되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사실과 상관없는 사실만 물어보겠음.	
○ 이만희 위원/ 소위 문고리3인방 중 가장 역할이나 비위 사실이 적은 증인이 구속되었다는 것에 대해 억울하지는 않는지?	○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이만희 위원/ 대통령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인지?	○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 믿고 신뢰하는 사람임.
○ 이만희 위원/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였는지?	○ 대통령과 잘 아는 분이고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대로 대통령은 당신의 인생 역정 상 소위 '배신의 트라우마'가 큰데 최순실씨는 지난 경험들을 통해 볼 때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음.
○ 이만희 위원/ 최순실은 3명의 비서관을 발탁한 정윤회의 부인이지 않은지?	○ 그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음.
○ 이만희 위원/ 최순실이 3인방을 비서처럼 대하지 않았는지, 통화내용 녹취파일을 들어봐도 그런 느낌인데 동의하는지?	○ 그런 것은 아닌데...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만희 위원/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최순실이 지시하고 정전비서관은 깍듯하게 응대함. 99년 녹취파일에서는 대통령(당시 국회의원)에게도 지시하는 느낌이었음을 지적	
○ 이만희 위원/ 관저 조리장이었다는 한상훈씨를 아는지?	○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고, 잘 모름.
○ 이만희 위원/ 한상훈씨에 따르면 최순실이 매주 일요일 관저에 와서 3인방과 회의를 하고, 식사도 했고, 집에 돌아갈 때 따로 뭔가를 준비해서 주기도 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 사실인지?	○ 다른 것은 다 이야기해도 관저는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이라 관저 관련 이야기는 수사 받을 때에도 하지 않았음. 관저 관련된 사항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고, 따라서 잘 모르고, 진술할 수 없다고 검찰에서도 말했음. 조리장이 무슨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겠음.
○ 이만희 위원/ 일요일 관저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 저는 관저에 자주 가고, 일요일도 평일처럼 일했기 때문에 관저에 감.
○ 이만희 위원/ 최순실이 일요일마다 관저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 그런 것은 아님.
○ 이만희 위원/ 관저는 순수한 사적 공간이 아님. 대통령은 집무의 상당 부분을 관저에	○ 안타까운 것이 대통령은 그 전주까지도 일정이 빡빡하게 차 있었음. 대통령이 피곤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 했다고 함. 세월호 당일에는 대통령이 어디 계셨는지?	하셔서 일정을 하루 비운 것이 공교롭게 그 날이었고, 관저에 계셨음. ○ 대통령 업무 스타일에 대해 아쉬움과 비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음. 대면보고가 없고 했던 것 등..그러나 대통령은 자료를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궁금한 것은 바로 전화로 문의하는 스타일임. 안 전수석도 매일 대통령과 전화를 수십통, 한두시간씩 하였을 것임. 대통령은 업무 스타일이 그때그때 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이라 실제로 대면보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을 것임.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새벽부터 전화를 하심(안 전수석 동의) ○ 측컨대, 관저에 계셔도 하루 종일 서류검토를 주로 하시니 세월호 당일에도 그러셨을 것으로 생각됨.
○ 도종환 위원/ 세월호 7시간 동안 보고가 15건 올라가는데 잘못된 보고도 있었고 했는데, 걱정도 되고 확인이나	○ 제가 아는 지식이 적다는 것을 전제로, 많은 희생자가 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왜 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시도 했을 법 한데?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임. 세월호 첫 보고 이후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통화하고, 해경청장과 통화하고 하면서 지시를 했는데 그게 부족하였다는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구하는 사람도 아닌데...(지나친 비난은 아쉬움)
○ 박범계 위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관저에서 서류 등 업무검토)은 정 전비서관의 추측임을 확인	○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측임.
○ 박범계 위원/ 세월호 당일에는 본인도 일정이 없었는지?	○ 저는 당일 본관에서 근무함.
○ 박범계 위원/ 수요일마다 대통령이 일정이 없었는지?	○ 수요일에 대통령이 일정이 없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음. 가끔 일정을 비웠는데 공교롭게 그날이었음.
○ 박범계 위원/ 세월호 당일 본인이 아는 대통령의 행적은?	○ 해경청장과 통화해서 업무지시를 직접 하셨으면 그 이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후속 조치 보고를 받는 등이라고 생각함. 당일 직원들끼리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안전에 신경을 써서 전원 구조되고 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함.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것임. ○ 오후 2시경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알고 여기저기 보고하고 중대본 방문 일정을 짜고 했음. 사실 다음날 현장 방문도 비서진들은 반대했었는데..
○ 박범계 위원/ 세월호 당일 오전에는 대통령을 뵙지 못했다는 것인지, 오후에는 대통령을 몇시쯤 어디서 뵈었는지?	○ 오전에는 뵙지 못했음. 오후에는 2시 후반쯤, 안보실장과 통화하시기 직전에 관저에 가서 뵈었음.
○ 박범계 위원/ 오전에 세월호가 이미 상당히 기울어졌었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정 전비서관도 대통령을 못뵐 정도였으면 누가 보고를 했겠는지?	○ 제가 못 뵐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못 뵐 일'은 없음. 언제라도 뵐 수는 있고,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할 일을 하셨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용주 위원/세월호 당일 본관에서 근무할 때, 오전에 안보실에서 서면보고자료를 정 전비서관에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본관, 관저 어디에 대통령이 계신지 몰라서 양쪽으로 보냈다고 함.	○ 대통령께서 안보실에서 보낸 보고자료를 보고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겠는지.
○ 이용주 위원/ 본관으로 보고자료가 올 경우 정 전비서관이 받아서 보고를 할텐데,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가 파악이 안되는지? 잘 모르면 전화 통화를 하면 되지 않는지?	○ 그 점에서 김장수 대사가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이해가 안됨.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르면 전화 통화를 하면 됨.
○ 이용주 위원/ 최소한 안보실장은 대통령 소재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디 계신지 몰랐다고 함. 청와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몰랐음. 통상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하든지 하지 않았겠는지?	○ 안보실장은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함. 청와대에 들어간 후에는 안 전 비서관이 대통령 전화 교환을 하지 않았음.
○ 이용주 위원/ 전화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양쪽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 이상함.	○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 중 어디라도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보고자료를 보냈을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용주 위원/ 본관에 보고하러 다녀온 사람이 '대통령께서 본관에 안 계신것 같다'고 하여 관저로 다시 보내보았다는 점을 지적	
○ 박범계 위원/ 대통령이 관저에서 서면보고를 보고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	○ 그러셨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임.
○ 박범계 위원/ 본관에 계신지 관저에 계신지 모른다는 것은 행적을 모른다는 말이나 같다는 점을 지적	
○ 박범계 위원/ 관저 서면보고는 안봉근 비서관이 가져다 드리는지? 누가 당일의 서면보고를 가져다 드렸는지? 통상적으로 가져다 드리는 행정관은 누구인지?	○ 항상 안 전 비서관이 하는 것은 아니고 관저 내에도 직원이 많음. 매일 오전에 보고되는 안보 관련 보고라든지...일상적인 절차로 보고되었을 것임. 통상적으로는 경호실 직원이 함.
○ 이용주 위원/ 세월호 당일 오전 7시에도 통상적인 안보 관련 보고가 관저로 갔는지? 오전에 관저로 보고했다면 오후에도 관저로 보고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지?	○ 통상 오전 7시에는 항상 관저에 계시는 시각이므로 관저로 보고가 됨. 당일 오전에도 통상적인 안보실 보고는 받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용주 위원/ 대통령이 '배신의 트라우마' 외에도 커터칼 테러로 인한 얼굴 흉터로도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들었음. 대통령 얼굴, 피부의 시술, 필러 등, 멍자국이 수시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는지?	○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되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
○ 박범계 위원/ 2시 넘어서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관저에서 했음을 다시 확인	
○ 이혜훈 위원/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대통령께 전달한 적이 있는지?	○ 재판중인 사안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움.
○ 박범계 위원/ 역대 대통령 어느 한 분도 국민의 사고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힘의 관계'에 있어서 최순실이 실질적인 우위에 있었다는 점이 참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	
○ 박범계 위원/ 안보실장과 대통령은 무엇으로 통화하였는지?	○ 유선으로도, 무선으로도 함. 무선의 경우 대통령 소지 휴대폰으로 할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범계 위원/ 본인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하는지?	○ 보통은 직접 뵙거나, 휴대폰으로 통화하였음.
○ 박범계 위원/ 본인은 안봉근 비서관과 자주 통화하는 사이였는지?	○ 잘 아는 사이지만, 통화는 자주 하지 않음.
○ 박범계 위원/ 2부속비서관이 세월호 당일 관저에 있었는지?	○ 관저를 관할해서 자주 왔다갔다 하지만 근무장소는 본관에 있으므로 본관에 더 자주 있음.
○ 박범계 위원/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재야에서 보궐선거 출마하던 시절부터 정윤회가 소위 대장 역할을 하였는데...	○ 그 문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박범계 위원/ 백여 건의 문건이 유출된 것을 대통령이 보셨는데, 그렇게 유출된 상태로 왜 방치했는지? 당시 5~6월쯤 문건 유출 보고를 받았는데도 방치한 이유는?	○ 처음 세계일보에서 유출 보도가 난 날 새벽 5시반쯤 민경욱 대변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대응방안을 물어보았는데, 전혀 걱정할 것 없고 나중에 세계일보가 사과보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문건 내용 중 사실은 0%임. 그 거짓 내용에 대해 수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유출 경로 관련 문제만 제기되어 아쉬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유출이 방치된것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고 안타까움. 사실과 전혀 다른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왜 회수가 안되었는지를 모르겠음.
○박범계 위원/ 본인은 문건 회수 노력을 하였는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라고만 하였고, 판단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음.
○박범계 위원/ 민정수석실 누구에게 보고하라고 했는지?	○ (답변 없음) ○ 저도 작성, 유출, 회수에 있어 전반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함.
○이혜훈 위원/ 세월호 날 대략 9시-오후 5시 사이에 대통령을 몇 번 뵈었는지?	○2번정도 뵈었음. 오후 2시 후반부에 대면인지 관저 인터폰인지 모르겠으나 관저에 가서 보고했고, 5시쯤 중대본 가실 때 보고함.
○이혜훈 위원/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중대본 등 현장에 가시라는 조언은 안했는지?	○대통령이 안보실장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해경청장 보고를 받고 특공대 투입 등을 지시하셨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이혜훈 위원/ 특공대 투입 지시가 명시적으로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	○특공대 투입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혜훈 위원/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음을 재차 지적 및 시진핑, 아베, 오바마 등 세계 지도자들도 모두 현장이나 상황실로 간다는 점을 지적	
○ 이혜훈 위원/ 99년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최순실은 그 당시에도 대통령에게 지시하다시피 이야기를 함. 정윤회에서 최순실로 그 역할이 넘어간건지, 원래부터 최순실이 그랬는지?	○ 그 녹취파일은 제가 들어보지 못하였으나, 18년 동안 대통령을 모시면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지시를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음. 최순실이 대통령을 잘 모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신뢰하였던 것임.
○ 이혜훈 위원/ 정윤회가 대통령 관련 일에서 언제 손을 떼었는지?	○ 공식적으로는 2004년 손을 뗌. 헤어질 때 나쁘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서...
○ 이혜훈 위원/ 2007년 미국 LA에서 교포간담회를 하였을 때 정윤회가 주재하였다는 점을 지적	
○ 정유섭 위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3인방이 최순실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는지?	○ 최순실은 뒤에서 대통령을 돕고, 도와 온 사람이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님. 지금도 공적 영역에 나섰기 때문에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돕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사람을 비서실장 등에게 왜 보고하는지? 최순실은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임.
○ 정유섭 위원/ 인사서류 등 각종 공적 문건들을 최순실에게 유출했는데, 최순실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사실인지?	○ 지금 말씀은 사실이 아님. 최순실이 찍어서 임명되고 하는 것은 아님. ○ 문서가 유출된 것은 맞음. 인사서류에 있어서도 발표문의 문안 수정 등이 있었으나, 인사 내용이 바뀐 것은 없음. 최순실이 사전에 문서를 보고 내용을 안 것은 맞지만, 낙점한 것은 아님.
○ 정유섭 위원/ 윤창중 대변인 등 이상한 인사, 공천, 비례대표 선정 등에서 이상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최순실이 사전에 보고 낙점을 한 것이 단 한건도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저는 최종적인 인사 결과를 보고 알 뿐 최순실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는 바가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듦.
○ 도종환 위원/ 인선 개입은 없었다는 것 재확인. 문건은 최순실이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인지, 대통령이 가져다 주라고 한 것인지?	○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건건이 지시한 적은 없음. 최순실 의견을 사전에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큰 틀에서의 말씀이 있었고, 보낸 문건들은 제가 재량으로 판단해서 보낸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인사안 관련해서도 '내일 이런 것이 발표된다'는 차원에서 미리 한번 살펴보라고만 준 것임.
○ 도종환 위원/ 그렇다면 최순실이 그것에 의견을 준 적은 있는지?	○ 말씀드렸다시피 발표문의 문구를 고쳤음. ○ 이제 보니 최순실이 문화·체육계 쪽에는 관심이 많아서 의견을 좀 냈을 수도 있었던 것도 같음. 다른 영역의 인사는 최순실이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문화·체육계 인사도 차은택이 추천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음.
○ 도종환 위원/ 최순실의 문건 고치는 능력이나 정책능력 같은 것은 어떤지?	○ 말씀자료 등은 자료를 보고 의견을 얘기하거나 나름대로 수정해서 보내는데 어떤 때는 어려운 말을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말도 안되는 수정을 해 오면 제 선에서 잘랐음.
○ 도종환 위원/ '통일 대박'은 최순실 작품인지?	○ 대통령께 여러 가지 책이 청와대로 보내져 옴. 그 중 아주 이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통령께 올리는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 몇 개월 전쯤 모 교수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보낸 것에서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임. ○ 대통령이 은유나 댓구 같은 것에 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귀에 꽂히는 표현들은 대부분 대통령 아이디어임.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유 등은 모두 대통령 작품임.
○ 도종환 위원/ 청와대에서 문건이 오면 몇 명이 함께 모여 비선회의를 했다는데?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최순실과 차은택 사이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 2015년에도 최순실에게 문건을 가져다주고 의견을 들었는지?	○ 2015년도에는 거의 없었음. 세계일보 문건유출사건 보도 이후,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일로 비화되는 것을 보고 최순실 의견 듣는 부분도 현저히 줄였음. 아주 가끔 사전 체크를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는 2014년까지만 한 것으로 생각됨.
○ 도종환 위원/ 김기춘과 최순실, 우병우와 최순실은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인지?	○ 다른 사람의 관계나 일에 대해서는 모름. 적어도 제가 안종범, 김기춘, 우병우에게 최순실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은 없음. 최순실은 뒤에서 대통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령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함.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한 모를 것.
○ 도종환 위원/ 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삼성이 쫓아가서 혜택을 주는지?	○ 그 점이 미스테리이고, 알고 난 후에 경악했음.
○ 도종환 위원/ 핸드폰을 압수당한 후에 울었는지?	○ 피의자 신문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음.
○ 도종환 위원/ 왜 울었는지?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인지?	○ 여러 가지로...죄송해서 그랬음.
○ 도종환 위원/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명의 비서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퇴임 후에도 계속 모실 생각인지?	○ 대통령은 그 법의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앎. ○ 대통령을 알게 되고 모시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함.
○ 박범계 위원/ 최순실의 역할에 대한 재확인. 포괄적으로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뜻이 있었고 문건을 재량으로 보여줬다는데, 인선이나 외교안보기밀 관련 문건은 표현을 수정할 내용이 없는데 왜 보여준것인지?	○ 표현상 수정이나,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음. 인선안에도 '발표 문안'이 포함되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범계 위원/ 사람에 대해서도 최순실이 잘 알지 못하는데 그걸 수정하라고 줬다는 것인지?	○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보냈음. ○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제가 외교안보, 메시지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의견을 들어본 것임.
○ 박범계 위원/ 최순실과 통화 시 정 전비서관은 서로 어떻게 호칭했는지? 대통령과는 서로 어떻게 호칭했는지?	○ 저는 최순실씨를 그냥 '선생님'이라고 호칭했고, 최순실씨는 저를 정 비서관이라고 부름. 대통령이 '최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오보임. 대통령이 최순실을 뭐라고 불렀는지는 답변드릴 수 없음.
○ 이혜훈 위원/ 문고리 3인방 중 정 전비서관만 그나마 인사개입 등 권력남용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 안타까움. 3인방이 '할매'라고 지칭한 사람은 누군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자주 언급하였다는 제보가 있음.	○ 저는 '할매'라는 표현을 처음 들음.
○ 박범계 위원/ 정 전비서관 휴대폰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간에 정 전비서관이 연결고리가 되는 녹음파일이 263개	○ 녹음파일 12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들었음. 나머지 파일은 대선 때 제가 '메시지'를 담당하면서 관련 회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나왔다고 하는데, 맞는지?	등을 녹음해 두었던 것인데 사용하고 삭제했는데 복구되어서 나온 것임. 파일 개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음.
○ 김경진 위원/ 대선 전에도 최순실씨가 개입했었는지?	○ 최순실이 문건을 수정한 것은 2012년 대선 이후임. 2007년에는 개입 없었음. ○ 정윤회 비서실장 근무 때 정유라를 한 번인가 봤는데, 최순실이 딸 때문에 무척 바쁜 사람이었음.
○ 이혜훈 위원/ 박용철씨를 아는지? 박용철씨 증언에 따르면 정윤회가 2007년 한국에서...	○ 박용철씨는 모름. 정윤회는 2007년 한국에 없었음.
○ 김경진 위원/ 청와대에 최순실이 얼마나 자주 출입했는지?	○ 답변드릴 수 없음.
○ 김경진 위원/ 조리장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셋이 일요일에 회의를 한 적은 없음.
○ 김경진 위원/ 본인과 최순실은 자주 통화를 했는지?	○ 저는 자주 통화했음.
○ 김경진 위원/ 인사서류는 매번 사전에 최순실에게 갔는지?	○ 그렇지 않음. 초기에 조각할 때는 갔었음.
○ 김경진 위원/ 최순실과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는 아는지?	○ 모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경진 위원/ 김영재는 청와대에 가끔 왔는지?	○ 김영재가 청와대에 왔으면 관저로 왔을 것임. 자주 온 것은 아니고 몇 번 왔다간 것으로만 알고 있음. ○ 여성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으신 분이라서 저는 지금도 대통령이 어려움. 지금도 대통령은 저에게 존대를 하심. 관저에서의 개인 사생활 등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음.
○ 김경진 위원/ 대통령의 성형시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지?	○ 대통령 당선 되시기 전에, 여기자들을 만나보면 신발, 옷, 백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이 많았음. 저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실 잘 모름. 알려고도 하지 않았음. 관심을 끄려고 노력했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음.
○ 김경진 위원/ 대통령께서 피로회복 주사를 맞으셨다는데?	○ 대통령은 24시간 국정에 올인하는 스타일임. 아무것도 안하고 놀기만 했다는 언론보도는 정말 아님. 워낙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외국에 순방을 가면 시차 적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수면제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권유해도 절대 드시지 않음. 외국에 순방을 가도 정상회담 자료를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드는 스타일임. 그렇다보니 피로가 누적돼서 순방 3~4일 지나면 꼭 링거를 맞음. ○ 국내에서도 피곤하면 링거 맞으면서 쉬는 것이 대통령이 쉬시는 시간임. ○ 세월호 당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 것이 슬픔.
○ 이만희 위원/ 대통령이 큰 틀에서 최순실의 의견을 들으라고 한 의도가, 최순실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무언가 그 뒤에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인지?	○ 대통령 스타일이 결정한 것에 대해 확인을 반복하는 스타일임. 어렸을 때부터 실수를 절대 하면 안되는 환경이어서 그랬는지 실수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더 체크를 하려는 차원에서 최순실의 체크를 받아보라고 한 취지임.
○ 이만희 위원/ 세월호 당일 2시 후반 대통령 보고 이후 정 전비서관은 쭉 관저에 머물렀는지? 그 때 누가 온 적이 있는지? 미용사가 왔다고 하는데?	○ 중간에 한 번 나갔다 오고 거의 쭉 있었음. 제가 미용사들을 오라고 불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만희 위원/ 미용사를 언제 불렀는지?	○ 관저에 가서 중대본 가는 결정이 된 이후에 불렀던 것으로 기억함. ○ (미용사들 들어온 시간과 머리 손질 90분을 고려하면 부른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머리 손질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국빈 만찬 등에도 1시간이면 머리 손질이 충분함.
○ 이혜훈 위원/ 故 이춘석 보좌관의 사고 관련 보험금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잘 해결되도록 부탁을 했다는 제보가 있던데?	○ 그것에 대해서는 모름. 저는 관여한 바 없음.
○ 이혜훈 위원/ 우리은행의 문동성 부행장을 아는지? 3인방의 집사처럼 행동했다는 제보가 있음.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도 따로 만났다고 하는데?	○ 처음 듣는 사람임. 저는 청와대 3년 반 생활동안 개인 약속을 10번밖에 안 잡을 정도로 개인적인 약속을 안 하는 사람임. 인수위 시절에도 한 사람도 따로 만난 적이 없음.
○ 이만희 위원/ 최순실에게 문건은 어떻게 보내는지? 답은 어떻게 다시 오는지?	○ 최순실에게는 인편이나 이메일로 문건을 보냈고, 따로 밖에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음. 답은 전화로 받거나 다시 인편으로 보내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만희 위원/ 인편이라면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 (다른 위원들이 질의) 고영태라든지..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오지 않는지?	○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음. 인편으로 보낸 사람이 다시 가져옴. 고영태는 이번에 처음 알았음.
○이용주 위원/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증언하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좀 바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청문회가 열리면 출석하고 싶지는 않은지?	○ 아무도 대통령 입장에서 이야기를 안 해줘서 저도 나가고 싶지만 재판,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생방송으로 한 마디라도 잘못 전달되면 그 영향이..
○이용주 위원/ 미용사를 부른 것은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알아서 부른 것인지?	○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혹시 외부로 나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미리 불러놨던 것으로 생각됨.
○이용주 위원/ 여자들이 오전에 보통 머리 손질을 할텐데, 오후에 다시 부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인지?	○ 그날은 공식 일정이 없었고, 일반적으로 일정이 없으면 미용사들이 오지 않음.
○이용주 위원/ 오후 관저 보고는 대통령이 불러서 갔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갔는지?	○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고하러 갔음.
○이용주 위원/ 관저에는 다른 비서관들이 없었는지? 이재만비서관이라든지...윤전추, 이영선은 있었는지?	○ 저는 부속 비서관이니까 관저에 자주 들락날락하지만, 이비서관은 그렇지 않음.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거의 관저에 있으므로 아마 있었을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용주 위원/ 관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 관저 인터폰으로 보고한 것인지, 대면 보고였는지 기억이 안나는 것인지?	○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대통령이 여성분이시고, 대통령의 당시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인터폰 보고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임.
○ 박범계 위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특공대 투입 관련 지시가 없었고, 이미 오전에 세월호 사건은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었음. 교신 기록은 없는데 청와대의 주장만 있다는 점 지적	○ 교신은 본 적이 없고, 당일 오전에 안보실장, 해경청장과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말은 안비서관으로부터 들었음. 장소는 기억이 안나지만 어디에선가 들었음.
○ 박범계 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들은 것인지? 2시 관저에 갔을 때 들었는지?	○ 안보실장, 해경청장 둘 다 지시해서 조치했다는 것을 중대본 방문 전에 들었음. 2시에 안비서관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고, 점심 때 들었는지,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중대본 방문 전에 들은 것은 맞고, 관저에서 들었는지 어디에서 들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음.
○ 박범계 위원/ 263개 녹음파일 중 12개만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중 최순실 관련 파일은 없는지?	○ 없음. 나머지는 모두 업무관련 파일이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범계 위원/ 정윤회 문건 관련 유출 처리를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라고 한 것은 6월경인지?	○ 당시 오 모 행정관이 가져왔는데,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민정 쪽에 보고하라고만 했음.
○ 박범계 위원/ 당시 우병우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때였는지?	○ 우병우가 있었던 때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음. 우병우를 안 것은 12월에 세계일보 보도가 나간 이후이고, 그 전에는 서로 관계가 없었음.
○ 이혜훈 위원/ 세월호 사건의 중대성이나 그 직후 바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날에 대해 잘 기억이 안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	○ 세월호 관련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좀 있음.
○ 이혜훈 위원/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 사건 관련하여 핸드폰, 노트북 폐기 등 자세한 대응방안을 지시했는데 정 전비서관은 왜 핸드폰을 폐기하지 않았는지?	○ 저는 그런 대응방안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 도종환 위원/ 홍보수석실 음정환 행정관이 세월호 당일 중대본 방문을 제안했는데 정 전비서관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음.	○ 그런 제안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 제안을 받았다면 중대본 방문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용사를 부르는데 참고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도종환 위원/ 음정환 행정관이 이정현 홍보수석에게 보고하고, 홍보수석이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하였을 수는 있는 것인지?	○ 그렇게 보고되었을 수도 있음. 음 행정관은 평소에 제안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 날의 제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
○ 김경진 위원/ 대통령은 미용사 정송주·정매주 자매의 방문이 없으면 외부 일정을 나가지 못하는지?	○ 꼭 그 미용사 자매가 와야 하는 것은 아님. 주로 일정이 있으면 매일 오전에 미용사들이 들어옴.
○ 이혜훈 위원/ 대통령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 1년에 130일에 달하였음을 지적, 매주 수요일은 일정이 없었는지?	○ 수요일마다 일정이 없는 날은 아님.
○ 김경진 위원/ 김영재 부인 박채윤씨 사업을 대통령이 챙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 번 관련 지시를 하셨는지?	○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여러 번 지시하시지는 않았고 한 번 지시하셨음.
○ 박범계 위원/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하면,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하는 것인지?	○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대통령의 지시 하에’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재량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음.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2) 안종범 증인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정유섭 위원/ 오늘 이 자리는 비공식적인 자리이므로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겠음. 사실 확인만 부탁드리겠음.	○(모두발언)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청문회에 참석하고는 싶었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음. 허리 디스크 문제로 오랜 시간 앉아 있기 힘든 상황임.
○정유섭 위원/ 안종범 증인은 교수,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공소장을 보면 전부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있음. 아직도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이 맞는지?	○최순실씨는 전혀 몰랐고, 대통령과도 공모한 바 없음.
○정유섭 위원/ 대통령의 지시는 받은 것인지? 최순실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는지?	○대통령으로부터는 지시를 받았고, 최순실로부터는 지시받은 적 없음.
○정유섭 위원/ 최순실 녹취록에 안수석이 '안'이라고 자주 언급되었는데, 소위 '문고리3인방'이 영부인처럼 오셔 온 최순실을 모를 수가 있는지?	○최순실은 전혀 몰랐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유섭 위원/ 전경련을 통해 모금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은 없었는지?	○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이 국정과제였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에 대한 의심은 없었음.
○ 정유섭 위원/ 조양호 평창올림픽 준비위원장 사퇴, 대기업에 대한 면담 및 롯데그룹의 70억원 추가 출연, 삼성물산 합병, KD코퍼레이션 알선, 김영재의원에 대한 산자부 R&D 15억원 지원 등의 사건에 모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대통령의 포괄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인지?)	○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나, 각각의 건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사건이 진행중이라 이야기하기 어렵고 법정에서 밝히겠음. (포괄적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음. 지시하신 사실은 있지만 일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정유섭 위원/ (최순실 소유) 미승빌딩 마사지샵에 다닌 것이 맞는지?	○ 마사지샵 다닌 적 없음.
○ 도종환 위원/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구치소에서도 알고 계신지? 이에 대한 심정은 어떤지?	○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대통령을 보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지겠음.
○ 도종환 위원/ 촛불집회 규모 등 소식을 듣고 있는지, 촛불집회의 구호도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도종환 위원/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이 재단을 통해 딸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사적 이익을 취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KD코퍼레이션의 경우 최순실이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알선해서 현금 및 명품백 등을 받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게 한 것들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는 것인지?)	○ 참담한 심정임. (그러함)
○ 도종환 위원/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최순실은 삼성과 불법적인 계약을 하고, 현금으로 지원을 받아 정유라가 강아지 패드를 사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였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최순실이 재벌을 동원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데 있어 안 전수석이 연락을 하는 등 중간에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이러한 역할을 한 공동정범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법정에서 밝히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도종환 위원/ 최순실 관련된 이런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것인지?	○ 최근에 알게 되었음.
○ 도종환 위원/ KD코퍼레이션 건 등 최순실 관련 사건들에 안 전수석이 모두 관련된 것인지? 전혀 관련되지 않은 사안도 있는지?	○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하겠음.
○ 도종환 위원/ 안 전수석의 업무수첩에 적혀있는 내용 관련, 삼성 합병에 대해 청와대에서 도와준 것이 맞는지?	○ 업무수첩이 어떤 경로로 제출되었는지 잘 몰라서(제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서), 수첩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음.
○ 도종환 위원/ 최순실의 존재 자체를 몰랐나?	○ 몰랐음.
○ 김경진 위원/ 최순실과 전화 통화도 안했는지? 최순실에 대해 인지 자체를 못했는지?	○ 최순실은 몰랐음. 최순실에 대해서 '존재'는 언론 등을 통하여 알았으나 그 '실체'는 몰랐음.
○ 김경진 위원/미르, K스포츠 관계자는 만난적 없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 미르, K스포츠 담당자는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음.(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김경진 위원/미르, K스포츠 재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생각했는지?	○ (대답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경진 위원/ 최순실이 재단 직원을 면접 보고 한 것은 몰랐는지?	○ 몰랐음.
○ 김경진 위원/ 차은택과 아랍에미리트 같이 다녀온 적 있는지?	○ (대답 없음)
○ 김경진 위원/ 차은택은 아는지?	○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음.
○ 김경진 위원/ 국정조사, 국회의원, 청문회가 우스운지? 검찰에서 말한것을 왜 이야기하지 않는지?	○ 그런 것은 아님.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고, 재판 및 특검 조사를 앞두고 말씀드릴 수 없음.
○ 김경진 위원/ (재질의) 차은택과 아랍에미리트 같이 다녀왔는지?	○ (대답 없음)
○ 김경진 위원/ 김필승씨 검찰 조사 전에 안 전수석이 행정관을 시켜 대응 문건을 준 적 있는지?	○ 검찰에서 이야기했음.
○ 김경진 위원/ 검찰 조사 전날 정동구씨가 조사받은 내용은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민정수석실인지?	○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재판 및 검찰 수사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음.
○ 김경진 위원/ 답변할 수 없다고만 하면 검찰 및 사법부에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는 없음. 정동구씨 조사 내용은 어디에서 들었는지?	○ 정동구씨 검찰수사 관련해서는 들은 적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경진 위원/ 구속 이후 청와대나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연통을 받은 적 있는지?	○ 없음.
○ 김경진 위원/ 국회의원에게는 한 말씀도 안하실 건지?	○ 말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음.
○ 김경진 위원/ 롯데그룹에 70억원 돌려준 것은 대통령 지시인지?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정에서 밝히겠음.
○ 김경진 위원/ 김영재를 아는지?	○ (대답 없음)
○ 이혜훈 위원/ KD코퍼레이션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셨는지?	○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음.
○ 이혜훈 위원/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KD코퍼레이션을 소개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는지? 이후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상황을 알아보고 보고했는지? 포레카 강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지?	○ 재판 진행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움.
○ 박범계 위원/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최순실은 모른다고 했는데, 대통령, 최순실과의 공모 관계에 있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 인정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범계 위원/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일을 이행한 것인지?	○ 그러함.
○ 박범계 위원/ 최순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대통령은 따르기만 한 것은 아닌지?	○ 그것은 잘 모르겠음.
○ 박범계 위원/ 재단 설립, 기금 출연 모금 등은 대통령의 결정인지?	○ 그러함.
○ 이혜훈 위원/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장소, 인물 등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를 하였던 다른 재단이 있었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 다른 사례는 없음.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이 워낙 중요한 국정과제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음.
○ 이혜훈 위원/ 누군가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하지 않았는지?	○ 절대 의심해 본 적이 없음. 여기 저기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 이혜훈 위원/ 총선 공천 시기 중에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두 재단 관련하여 최순실이 누군데 이렇게 시중에서 시끄러운지 알아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알고 있는지?	○ 기억이 나지 않음. 처음 듣는 이야기임.
○ 이혜훈 위원/ 우병우 전 수석	○ 자주 이야기 하지 않음. 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과는 자주 이야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 자주 이야기를 하는지?	의 때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았음.
○ 이혜훈 위원/ 부당한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지시는 대통령이 한 것인지?	○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음.
○ 이혜훈 위원/ 업무일지에 쓴 것이 모두 사실인지, 개인의견이나 추측은 없는 것이죠? 안 전수석의 지성이나 식견을 보았을 때 잘못 이해해서 적은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잘못 받아적었을 가능성은 있을지 모름. 100% '지시'만 받아쓴 것은 아님.
○ 이만희 위원/ 최순실을 안다고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것임.
○ 이만희 위원/ 더블루케이 직원을 만난 적이 있는지?	○ 만난 적 없음. K스포츠 직원만 만난 적 있음.
○ 이만희 위원/ 더블루케이 직원을 같이 만나서 회사에 찾아가고, 누슬리 업무체결식도 가시는 등 녹취록에도 안 전수석이 등장함.	○ 최순실은 모르고, 일면식도 없고, 통화도 한 적 없음. 업무체결식에는 갔음. 저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만 한 것임.
○ 이만희 위원/ 공소장에 보면 8가지 혐의가 모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 인정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용주 위원/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많이 하겠지만, 수석이 대통령께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 것 같음. 대통령과는 어떻게 전화가 연결되는지? 직접 전화 연결이 되는지?	○ 대통령이 직접 수석에게 전화를 하고, 제가 대통령께 전화를 드리면 직접 전화를 받으심. 수석 전화는 직접 받으심.
○ 이용주 위원/ 재단 관련하여 안 전수석이 한 일에 최순실이 관계 없다고 하면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로 연결되어 뇌물죄로도 갈 수 있는데, 유사한 재단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유독 두 재단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퇴임 후에 갈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간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음.
○ 이용주 위원/ 재단의 기본재산 비율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변경했다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이 아는지, 무슨 의도로 지시했을지?	○ 그 부분은 검찰에 자세히 설명했음.
○ 이용주 위원/ 공개될 이야기를 왜 여기서는 하지 못하는지?	○ 대통령 외에 다른 사람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
○ 박범계 위원/ 재단 설립 관련해서,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말씀하심. 구체적인 광고회사 강탈행위라든지 각종 이권개	○ 저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했고, 최순실은 몰랐음.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입 등도 대통령이 결정·지시한 것인지, 최순실의 결정이었는지?	
○ 도종환 위원/ 민정수석실에서 차은택 관련 조사를 해서 안전수석과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민정수석실에서 재단 관련한 사항을 들여다 보는 것을 몰랐는지?	○ 민정수석실과의 문제는 없었음. 민정수석실에서 재단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알지 못했음.
○ 박범계 위원/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하면,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하는 것인지?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음.

Ⅳ. 종합의견

1.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경위

○ 2016년 9월 언론보도를 통하여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 출연, 재단 설립 과정의 이례적인 신속성, 재단 이사장이 박근혜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의 인맥으로 임명되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됨.

○ 한편, 2016년 9월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이화여자대학교에 특혜를 받고 부정입학하였다는 의혹이 제기[4]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정유라에 대한 입학·학사관리 비리 및 현재 독일에서 승마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2016년 10월 언론보도를 통하여 최순실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 PC[5]에 청와대 기밀문서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순실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최순실의 각종 정책·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됨.

○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하여 최순실의 존재는 인정하였으나 연설문의 표현 등 일부 자료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발표함.

○ 2016년 10월 27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기존에 수사중이던 관련 사건을 포함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음.

---

4) 2016년 11월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정유라가 입시 및 학사관리에 있어 특혜를 받은 것이 드러나 교육부가 이화여대 측에 정유라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구하였음.
5) 검찰 및 특검의 의견에 따르면 동 태블릿PC의 소유자는 최순실인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임.

○ 2016년 11월 17일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음.

○ 국회 의결에 따라 2016년 11월 17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정조사를 개시하였고, 2016년 11월 30일 박영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특검수사도 개시되었음.

2.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 및 원인 규명

(1) 최순실에 대한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최순실의 정책·인사 개입 의혹

○ 박근혜대통령이 연설문 등 각종 문건에 관해 최순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연설문, 말씀자료, 인사, 외교안보 관련 문서들이 발표 사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되었음(구치소 현장조사시 정호성 전 비서관 발언).

- 최순실에게 전달된 문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본인 재량으로 선별하였고, 인편으로 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거나 전화로 답변을 받았음.

- 2014년까지는 의견을 많이 들었고, 소위 정윤회 문건 사건 이후로는 문건 유출을 현저히 줄여 2015년도의 경우 간혹 의견을 들었음.

○ 최순실은 청와대 이영선 비서관을 통하여 문건 등을 주고받았음(고영태 증인의 증언).

○ 최순실의 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체부의 승마협회 관련 보고서 내용이 당사자인 박원오에게 유출되었고, 박원오가 담당 문체부 국장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노태강 증인의 증언).

○ 박근혜대통령은 최순실의 지인인 차은택의 후임으로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에 취임한 여명숙 증인에 대하여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해임을 지시한 바 있음(여명숙 증인의 증언).

- 이에 대하여 **김종덕 증인**은 관련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이후 언론 보도로 해임 지시 전달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었음.

- 해임 지시에 차은택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차은택 증인**은 부정하였음.

○ 최순실의 지인인 차은택은 최순실을 통하여 문화계 관련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차은택 증인의 증언).

- 차은택 증인이 시인한 사안으로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임명 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임명 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임명 건임.

(2) 최순실 및 소위 '보안손님'의 청와대 무단 출입 의혹

○ 소위 '보안손님'은 청와대 제2부속실 소관 사항으로, 신원 등에 대해서는 제2부속실에서만 파악하고 있고, 경호실에서는 알지 못함(대통령경호실 차장 증언).

- 보안손님이 청와대(관저 포함)에 출입할 때에는 신체 및 소지품에 관한 검색 등 경호실의 안전조치를 거쳐 출입하고, 출입 기록 사항을 경호실에서 별도로 관리하나, 보안손님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기록하지는 않음.

○ 보안손님의 형태로 김상만·김영재 등 소위 '비선 의료진'이 출입하여 대통령을 진료할 경우 경호실(의무실 포함)에서는 진료사실을 알 수 없는 구조임(대통령경호실 의무실장 증언).

○ 보안손님은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로, 청문회에서 보안손님으로 밝혀진 사람은 최순실, 차은택임. 이외의 정유라, 정윤회, 최순득 등에 대해서는 보안손님의 신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호실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함(대통령경호실 차장 증언).

○ 보안손님을 비롯한 청와대, 관저 출입기록 자료를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출입기록이 2급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함(청와대 경호실).

(3)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출연·운영과정의 의혹

○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 사유가 경영권 승계, 사면, 세무조사의 편의, 면세점 특허 취득, 수사 무마 등에 대한 대가였다는 점은 **기업측 증인들**이 부인함.

○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 과정에 청와대로부터의 압력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은 **기업측 증인들**이 부인함.

○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기업이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청와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증언이 있었음(허창수, 이승철 증인).

○ 삼성의 경우 **이재용 증인**은 당시 출연 사실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고, 직접 결정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남.

○ 롯데의 경우 **신동빈 증인**은 출연 사실에 대해 당시에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SK의 경우 **최태원 증인**이 당시 수감중이어서 출연 사실을 보고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증언함.

○ 전경련은 청와대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아 기업에 이를 전달하였고, 청와대에서 출연금 총액을 결정하여 기존 관례에 따라 각 기업에 이를 배분하였음. 일반적인 다른 사회공헌재단과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관여하였음(이승철 증인의 증언).

-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주재하여 전경련 직원들과 수차례 재단 설립에 관한 회의를 하였음.

- **이승철 증인**은 최순실을 모르고, 최순실이 두 재단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증언함.

○ **안종범 증인**은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하였고, 문화융성 및 스포츠발전이 주요 국정과제였기 때문에 재단 설립 배경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발언함.

- 안종범 전 수석은 이와 관련하여 최순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임.

○ **김기춘 증인** 및 **우병우 증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함.

○ 차은택은 자신의 지인인 미르재단 김형수 전 이사장 및 이성한 전 사무총장 임명을 최순실에게 부탁하였음(차은택 증인의 증언).

○ 청와대는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였고(정현식 증인의 증언), 대통령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 재가를 하였음(정동춘 증인의 증언).

○ 특별감찰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제보를 받아 기초적인 단계의 정보 수집 등을 하였으나 본격적인 내사를 하기 전에 특별감찰관이 해임되었음(이석수 증인의 증언).

- **이석수 증인**에 따르면, 당시 기업들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할당되어 출연하였다는 제보가 있었음.

- **이석수 증인**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주도로 기업에 모금하여 재단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으나 안종범 수석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문이 있었고,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소위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의문이 있었다고 증언함.

○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각각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문체부 기관보고).

(4)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공모 의혹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양자 간 합병비율 평가에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측에 유리하게 평가한 정황이 있음.

-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이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전에 만났고, 합병비율 조정을 요청하였음(홍완선, 이재용 증인의 증언).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내부 투자위원회가 최종 결정하였음(문형표 증인의 증언).

○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평가가 있음.

-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제출된 회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약 3,500억원의 손해라고 사전적으로 계산이 되었고, 사후적으로 볼 때 약 8,000억원 이상이라는 계산 결과도 있음(김상조 참고인 발언).

○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삼성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용 증인**이 부인함.

○ **문형표 증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관하여 논의한 바 없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합병 건에 협조하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부인하였고, **홍완선 증인**도 합병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이후 특검 수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문형표, 홍완선 증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남.

○ **주진형 참고인**은 삼성으로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찬성 압박을 받았고,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았으나, 임기는 마치고 이후 연임은 되지 않는 것으로 회사측과 타협하였다고 발언함.

○ 문형표 이사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을 타결시켜 장관 퇴임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최광 증인**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5)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비리 의혹

○ 남궁곤 입학처장이 최경희 총장에게 정유라의 입시 지원을 보고한 사실이 있음(남궁곤 증인의 증언). 총장이 정유라를 선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경희 증인** 및 **남궁곤 증인**이 모두 부인하였으나,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총장이 지시한 정황이 드러남.

○ 최순실은 최경희 총장을 개인적으로 두 번 방문하였는데, 입학 1년 후인 2015년 가을 휴학중 학사 의논으로 왔다가 인사를 하였고, 2016년 4월 정유라와 같이 방문하여 인사를 하였음(최경희 증인의 증언).

○ **최경희 증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를 알고 있고, 알프스 여성 최고위 과정 모임에서 만난 사실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관계는 아니라고 증언함.

○ **남궁곤 증인**은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정유라 지원사실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함.

- 남궁곤 증인에 따르면, 김경숙 학장은 '승마, 유망주, 아시안게임'을 언급한 후 정윤회 딸이 지원하였다는 것을 언급함.

- 이후 지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남궁곤 입학처장이 직접 알아보았고, 특이사항으로 총장에게 보고함.

○ **남궁곤 증인**은 면접위원들에게 '면접 대기 장소에 가 보니 국가대표 단복을 입은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아시안게임 입상자들이 있으면 이 아시안게임 입상 실적이 서류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면접평가에는 반영해 달라'고 말하였고, 정유라 선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당시 아시안게임 입상 실적은 입시 서류 마감 이후의 실적으로서 서류평가에 반영될 수 없는 실적이었음.

- 정유라 혼자만 단복 및 메달을 면접장에 들고 들어갔음(남궁곤 증인의 증언).

○ **김경숙 증인**은 최순실 및 정유라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정유라 입학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거나 부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정유라의 학사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교수들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류철균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에게 정유라의 학사관리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남.

- 류철균 교수는 정유라에 대하여 출석 및 시험 성적을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함.

(6) 정유라에 대한 삼성 및 승마협회의 부정지원 의혹

○ 2015년 8월 삼성은 최순실이 실 소유주인 독일의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약 35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유라에게 말 등 승마 훈련을 특혜 지원함.[6)]

- 계약 당시의 명목은 승마선수 6명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이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것은 정유라 한사람 뿐이었음.

- **이재용 증인** 및 **김종중 증인**은 누가 지원을 결정하였는지 모른다고 답변함.

6) 동 계약에 따르면 향후 지원금액 총액이 약 2백억원에 달함.

○ **이재용 증인**은 정유라에 대해 말 구입, 승마 경기장 구입 등 지원 계획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 계획이 이재용 증인에게 보고되었다는 정황[7]이 드러남.

○ '2018년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는 해외전지훈련' 계획이 실질적으로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박기범 증인**은 승마협회에서 동 계획을 준비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문체부 감사 결과 승마협회의 일부 임원이 추진하였고 정유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짐.[8]

(7) 박근혜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및 부실대응, 은폐 의혹

○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공식 일정이 없었고, 중대본 방문 전까지 관저에 머무르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음 (한광옥 비서실장의 증언).

- 매주 수요일마다 공식 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부인하였음.

---

7) 특검에 따르면, 대한승마협회장을 겸직하던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이재용 증인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됨.

8) 문체부의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2016. 12. 14. 결과발표), 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부 임원이 자의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삼성 후원으로 최대 505억원의 후원 예산이 소요되며, 정유라가 그 혜택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짐.

- 관저는 숙소의 개념이 아니고, 관저에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집무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음(한광옥 비서실장 등).

○ 대통령의 구체적인 구조 지시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지시는 다 하였다는 의견, 당시 구조상황 파악에 오류가 있는 등 상황이 혼란스러웠다는 점, 대면보고가 없었던 점이나 보고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아쉬웠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음(한광옥 비서실장, 정호성 전 비서관, 김장수 전 안보실장 등).

○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 방문객의 관저 방문 사실이 없고, 의무실의 신보라 간호장교가 관저에 방문하여 의료용 가글을 전달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의 관저 출입사실이 없다는 **경호실 차장**의 증언이 있었으나, 이후 언론보도를 통하여 대통령의 헤어 및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정송주·정매주가 출입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남.

- 정송주·정매주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오후에 청와대를 방문하였음.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등 일정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방문을 요청하였다고 발언함.

- 이와 관련하여 정송주·정매주의 청와대 입출입 시각 기록과 대통령의 머리손질 등에 소요되었다고 청와대가 밝힌 시간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세월호 참사 당일을 비롯하여 당일의 전후로 대통령에 대한 성형·피부 시술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호실 및 소위 비선 의료진**은 모두 부인하였음.

○ 세월호 수사와 관련하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해경 서버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병우 증인**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함.

○ 세월호 수사와 관련하여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는 것에 대하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우병우 증인**은 원론적으로 법리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의견만 냈다고 증언함.

(8) 박근혜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 **김영재 증인**은 대통령에게 안면시술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고, 대통령의 피부 트러블, 안면 비대칭 및 색조화장품 사용에 대하여 관저 파우더룸에서 문진 등을 한 적은 있다고 증언함.

○ **김상만 증인**은 대통령 주치의가 되기 전 대통령 주치의의 배석 없이 관저에서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함.

- 이병석 증인이 주치의였던 기간에는 배석 없이도 진료하였고, 서창석 증인이 주치의였던 기간에는 배석 하에 진료하였음.
- 주치의 임명 전 관저에서의 진료는 라이넥이라는 태반주사를 피하주사하였고, 청와대에 주사제가 준비되지 않아서 주사제를 가져가 2-3차례 주사하였음. 태반주사 외의 다른 주사제(글루

타치온, 고용량 비타민 C, 비타민 B, 마늘주사 등)는 대통령이 집무 종료 이후 맞기 때문에 주사제를 전달만 하고 나왔다고 진술함.

○ 2013년 9월 2급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 혈액을 청와대 외부로 무단 반출하여 김상만 증인이 혈액검사를 한 사실이 있음.

- 청와대 행정관이 담당 간호사에게 전달하였다고 **김상만 증인**이 증언함.

- 대통령 건강검진 시 면역기능 등 몇 가지 좋지 않은 표지자에 대한 추적검사와 호르몬 균형검사를 실시함.

○ 대통령의 필러 등 성형·피부 관련 시술에 대해서 **전·현직 대통령 주치의 및 소위 비선 의료진**은 모두 시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함.

(9) 김영재 등 최순실 주변인물에 대한 청와대 등의 특혜 지원 의혹

○ 김영재 의사가 개발·제작·판매하는 봉합실(이하 “봉합실”)의 중동진출 관련, 청와대에서 각종 특혜를 지원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김영재 증인**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봉합실 중동진출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인사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음.

- 안종범 전 수석은 김영재 증인과 통화 및 직접 만나 중동진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음(김영재 증인의 증언).

- 중동진출 무산 이후 **정기택 증인**(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권고사직된 바 있고, **이현주 증인**(컨설팅업체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은 국정원 사찰 등의 보복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중동진출 무산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경질 배경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정기택 증인은 중동 순방 멤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청와대 지시로 배제되었고, 보건산업진흥원 중동센터장은 현장에서 봉합실 관련 부당한 압력을 호소하며 이메일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정기택 증인의 증언).

- **김영재 증인**은 코트라의 공모 등을 통하여 대통령의 해외 순방(중남미, 중국, 아프리카·프랑스)에 동행하였다고 증언함. 중동의 경우 순방에 함께 간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함.

-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중동진출 무산 이후, 서창석 증인은 김영재 증인에게 2015년 4월 전화를 하여 봉합실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제안[9]하였고, 김영재 증인의 부인이 중동 진출을 문의하자 서울대병원의 성형외과 의사를 소개하여 서울대병원과 김영재 증인의 회사인 와이제이콥스 합작으로 중동진출이 추진됨(서창석 증인의 증언).

9) 서창석 증인은 이임순 증인으로부터 김영재 증인을 소개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이임순 증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증인 간 진술이 엇갈림.

○ 서창석 증인이 봉합실에 대하여 서울대병원 치료재료로 신속하게 등록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서창석 증인**은 관련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권한 남용은 부인함.

○ 산업부의 봉합실에 대한 R&D지원이 이미 특허를 취득한 봉합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김영재 증인**은 이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답변함.

- 산업부에서는 와이제이콥스에 R&D 예산으로 15억원을 지원하였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청와대 안종범 수석의 부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김영재 증인**은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만 진술함.

○ 김영재 증인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 존제이콥스의 화장품이 청와대 설 선물세트로 선정되고, 신라면세점에 입점된 것에 대한 최순실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김영재 증인**은 부인하였으나,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시 동 제품을 소개하고 면세점 입점 부탁을 하였다는 점이 드러남.

○ 김영재 증인이 서울대 외래진료의사로 위촉된 것에 대해 추천에 대한 구두 합의만 있고 추천서류가 미비하였다는 지적 및 2주만에 해촉된 점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서창석 증인**은 중국의 최고위층이 진료를 예약하면서 김영재 증인을 지정하여 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하였으나 환자의 진료가 취소되어 원인 무효로 해촉한 것으로 증언함.

○ 최순실 및 안종범 전 수석은 최순실이 실 소유주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통령 순방 행사 지원, 민간 업체의 광고 발주 지원 등 혜택을 주도록 강요하였음(법무부 기관보고).

- 멕시코, 아프리카 순방행사의 경우 연출자를 선정하고 해당 연출자가 소속된 기획사가 순방행사를 기획하였는데 해당 기획사가 플레이그라운드였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임(문체부 기관보고).

-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하여 약 71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정몽구 증인**은 광고 관련 사항을 잘 모른다고 답변함.

- ㈜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차은택의 지인을 채용하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변경하게 한 후, 약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였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차은택 증인**은 채용 등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변함.

○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만찬 및 문화행사의 대행사 선정에 차은택 증인이 개입하여 김종덕 전 장관에게 특정 업체를 추천하였고, 해당 업체로부터 영상제작비용 명목으로 알선에 대한 사례를 받은 사실이 있음(문체부 기관보고).

○ PADAF(융복합공연예술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한 '원데이(One Day) 공연'의 예산지원 및 집행 과정에서 차은택 증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본인이 총연출을 맡고, 예산 중 일부를 본인 소유 회사인 아프리카픽쳐스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문체부 기관보고).

○ 최순실은 지인(정유라의 친구 부모)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박근혜대통령에게 부탁하였고, 대통령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독대 시 이를 알선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는 최순실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음(이종욱 증인의 증언).

- **정몽구 증인의 대리인(변호인 최창묵)**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몽구 증인이 정확하게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함.

○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실질적으로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 문체부 및 삼성그룹(제일기획)으로부터 지원이 이루어진 사실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장시호 증인**은 횡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음.

- **김재열 증인**은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동계스포츠센터 설립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김종 증인**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였음.

- 삼성의 후원금 16억원은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에서 지원하였음(김재열 증인의 증언).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가 장시호 증인의 차명회사로 추정되는 누림기획에 유입되었음(문체부 기관보고).

(10)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혹

○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의 존재 및 국정개입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조사 등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이에 대하여 **우병우, 김기춘 증인**은 최순실의 존재에 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함.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사건 개입 직권남용 의혹(제 7항, 세월호 은폐 의혹과 동일한 내용)

- 세월호 수사와 관련하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해경 서버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병우 증인**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함.

- 세월호 수사와 관련하여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는 것에 대하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우병우 증인**은 원론적으로 법리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의견만 냈다고 증언함.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군 사조직인 일명 '알자회(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를 세력화하여 승진, 인사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우병우 증인**은 부인함.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방위사업청의 법률소송담당관 임명 및 기존 인력(진양현 차장)의 해임 압력 등 인사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우병우 증인**은 부인함.

○ 故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어버이연합을 통하여 정권에 찬성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김기춘 증인**은 부인함.

(11) 최순실 등의 문화예술계, 체육계 농단 의혹

○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조양호 전 평창동계올림픽 추진위원장에게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통보하였음(조양호 증인의 증언).

- 이에 대하여 **김종덕 증인**은 사퇴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조양호 증인이 자진 사퇴한 것이라고 증언함.

○ 조양호 전 평창동계올림픽 추진위원장은 청와대로부터 '누슬리가 좋은 회사인데 동계올림픽 시설 공사 관련하여 한번 만나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조양호 증인의 증언).

- 누슬리는 최순실 소유의 더블루K와 협약을 맺은 업체였으나, 조양호 증인은 당시 협약 체결 전이었고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함.

○ 승마협회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문체부 고위공무원은 징계, 좌천 등의 불이익을 받았고, 사직을 강요받아 명예퇴직을 하였음(노태강 증인의 증언).

○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에 압력을 행사하여 재단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기존 테네시대학에서 김종 차관의 지인이 있는 조지아대학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민정수석실에서 김종 차관에 경고를 하라고 교문수석에게 통보하였던 사실이 있음(우병우 증인의 증언).

○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생활체육회 사무총장을 최순실에게 추천하고, 최순실 소유의 더블루K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최순실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김종 증인**은 모두 부인하거나 잘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함.

○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주무부처를 산업부에서 문체부로 변경하고, 전시·영상감독에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임명된 것에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종덕 증인**은 부인함.

○ 정부가 9,473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 배제대상으로 정하여(이른바 블랙리스트) 불이익을 준 사실이 확인됨. **김기춘, 김종덕, 정관주, 조윤선 증인**은 이를 알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특검 수사 결과 위증한 것으로 드러남.

- 이후 **조윤선 증인**은 2017. 1. 9.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문화예술인과 국민들에게 심대한 고통과 실망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며, 다만 본인은 이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특검수사를 통해 전모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함.

(12) 대법원장 사찰, 언론탄압, CJ부회장 퇴진압력 등 기타 의혹

○ 청와대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하여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후, 통일교 총재인 한학자에게 당시 세계일보 사장이었던 조한규 증인을 해임하라고 전화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조한규 증인은 해임 통보를 받고 해임되었음(조한규 증인의 증언).

○ 청와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체크하고, 2014년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원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는 등 사찰을 실시하였음(조한규 증인의 증언 및 증거 제출).

○ 故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청와대가 공영방송인 KBS 사장 선임에 개입하였고, 세계일보, 시사저널, 일요신문 등에 대하여 언론탄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하여 **김환균 참고인**(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동의하였음.

○ 청와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손경식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통령의 뜻이라며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이미경 부회장은 퇴진은 하지 않았으나 미국으로 출국하여 활동하였음(손경식 증인의 증언).

3.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향후 대책

○ (대통령 경호실) 부속실에서 경호실에 사전에 출입 협조를 요청한 사람(소위 '보안손님')에 대해서도 실명을 기재하고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수정, 보완할 것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절차에 있어 의결권 행사를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관련, 내부 투자위원회가 찬반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의하도록 하고 있는 현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할 것

○ (문화체육부, 기획재정부)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거쳐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환수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 (문화체육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한 경과를 명확하고 소상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 및 징계토록 하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부) 대학이 선출한 총장 임용예정자에 대해 장기간 미임용 상태로 방치하거나, 2순위자를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K스포츠재단) 최순실의 영향력으로 이사장에 임명되고, 재단의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인 노승일 증인·참고인에 대한 징계를 시도한 정동춘 이사장에 대하여 사퇴를 권고하며, K스포츠재단은 정동춘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할 것을 요청함.

○ (특검, 법무부 및 대법원)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사건들의 철저한 수사 및 엄벌을 요청함.

○ (포스코, KT) 최순실 및 청와대와 공모하거나 서로 요청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 펜싱팀 창단, 포레카 매각,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특혜, SKT-CJ헬로비전 간 합병 반대 청탁 등 의혹에 대한 공식 해명 및 대국민 사과를 실시할 것

4. 위증 및 불출석등 고발의결사항

(1) 위증고발 관련사항

(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그룹 관련

○ 문형표(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 개입 관련 위증(2016. 12. 29. 고발의결)

○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삼성계열그룹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 인지 및 개입 관련 위증(2017. 1. 12. 고발의결)

(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및 인사 관련

○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문화예술계인사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2017. 1. 3. 고발의결)

○ 김종덕(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화예술계인사 블랙리스트 및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여명숙) 사임 관련 위증(2017. 1. 3. 고발의결)

○ 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

- 문화예술계인사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2017. 1. 17. 김경진위원 등 10인의 연서로 고발)

(다) 정유라 입학·학사비리 관련

○ 최경희(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전 이화여대 입학처장)(3인 모두 현 이화여대 교수)

- 정유라 입학특혜, 학점 및 출석관리 특혜 등 관련 위증(2017. 1. 9. 고발의결)

(2) 불출석증인에 대한 고발 관련사항 등

(가)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 불출석 3회, 동행명령 거부 3회

-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유진룡, 윤전추, 이영선(8인)

○ 불출석 2회, 동행명령 거부 2회

- 최순득, 김장자, 홍기택, 김한수, 박재홍, 우병우(6인)

○ 불출석 1회, 동행명령 거부 1회

- 정윤회, 박관천, 한 일, 한용걸, 윤후정, 김영석, 김형수, 류철균, 이한선, 고영태, 최경희, 김경숙, 박상진, 추명호, 정송주, 정매주 (16인)

(나) 불출석 증인

○ 불출석 3회 - 박원오

○ 불출석 2회 - 장승호, 이성한, 조여옥 (3인)

○ 불출석 1회 - 정동구 (1인)

5. 기타 사항

(1) 특검수사 의뢰사항

○ 정동춘(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박헌영(재단법인 K스포츠 과장), 이완영(국회의원), 이만희(국회의원)

- 국정농단의혹사건 관련 태블릿PC(JTBC가 보도하고 검찰에 제출된 태블릿PC)의 소유 및 사용관계 등에 관한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 관련 수사 의뢰 (2016. 12. 22. 의결)

○ 김경숙(이화여대 전 체육대학장), 김천제(김경숙의 남편), 최순실(최서원), 윤남수, 데이비드윤(윤영식)

-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 피의뢰인 5인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입학을 청탁하였다는 의혹 관련 수사 의뢰 (2016. 12. 30.)

○ 김관복(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최경희(이화여대 전 총장)

-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 이화여대의 체육특기생 관련 학칙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에 피의뢰인들이 관여되었다는 의혹 관련 수사 의뢰 (2016. 12. 30.)

○ 김영재(김영재의원 원장), 박채윤(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영재 부인), 안종범(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서창석(전 대통령 주치의), 김진수(전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 서울대병원과 와이제이콥스, 김영재의원 간의 유착관계 및 김영재의원에 대한 특혜 제공을 위한 청와대의 개입 및 압박 의혹 관련 수사 의뢰 (2016. 12. 30.)

○ 김영재(김영재의원 원장)

- 최순실에 대한 차명진료(최보정이라는 가명 사용), 진료차트(2014. 4. 16. 세월호 참사 당일의 진료차트) 조작 의혹, 산업부 R&D 수주 관련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2016. 12. 30.)

○ 박재희(전 비덱스포츠 직원), 문형수, 양회경

- 피의뢰인들이 K스포츠재단 모금, 최순실의 재산관리, 독일 등 해외에서의 최순실 일가 지원 등 조력을 한 의혹 관련 수사 의뢰(2016. 12. 30.)

○ 신원 불상의 청와대 관계자(대법원장 사찰 관련자)

- 신원 불상의 청와대 관계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하였다는 조한규(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 관련 수사 의뢰(2016. 12. 30.)

○ 정윤회(전 박근혜국회의원 비서실장), 신원 불상의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

- 정윤회가 신원 불상의 현직 부총리급 인사에 관여하고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조한규(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 관련 수사 의뢰 (2016. 12. 30.)

○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는 증언의 위증 의혹,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 변호사 활동시 수입료 신고 누락 의혹 및 효성사건 재배당 관련 외압 행사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및 최순실 국정농단의혹사건 관련 민정수석으로서의 감찰 직무유기 의혹, 방위사업청 인사 개입 의혹, 현직 검사장인 김기동을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인 차은택에게 소개하였다는 의혹 관련 수사 의뢰 (2016. 12. 30.)

○ 이선우(대통령경호실 의무실장), 조여옥(육군 간호장교, 대위)

- 피의뢰인 조여옥이 미국에서 실시한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 행적 관련 인터뷰를 피의뢰인들이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의혹 및 피의뢰인들의 위증 의혹 관련 수사 의뢰 (2016. 12. 30.)

○ 홍완선(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신원 불상의 삼성그룹 관계자

- 피의뢰인 홍완선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한 대가로 현 직장인 '프라이머인베스트먼트'에 삼성그룹 관계자가 돈을 지급하였다는 의혹 관련 수사 의뢰 (2016. 12. 30.)

○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원동(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권오준(포스코 회장)

- 피의뢰인 김기춘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뢰인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내정한 후, 피의뢰인 조원동으로 하여금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선임되게끔 지시하였다는 의혹 관련 수사 의뢰 (2017. 1. 4.)

○ 김수일(금융감독원 부원장)

- 미르재단설립 당시 삼성생명 등에 출연을 강요하였다는 의혹 관련 수사 의뢰 (2017. 1. 13.)

○ 데이비드윤(윤영식), 이상화(KEB 하나은행 독일 현지법인장), 박승관(변호사), 장남수(비덱스포츠 대리)

- 피의뢰인 4인은 최순실의 부동산 구입, 은행업무, 삼성 관련 자금의 회계처리 등을 담당하여 최순실의 독일 소유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 의뢰 (2017. 1. 13.)

○ 정동춘(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 재단법인 K스포츠 소속인 박헌영(재단법인 K스포츠 과장)이 비덱스포츠에 상근한 것을 묵과하고, 같은 법인 소속 노승일(재단법인 K스포츠 부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이유로 징계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의혹 관련 수사 의뢰 (2017. 1. 13.)

○ 최순실(최서원)

- 박근혜대통령의 의상구입비를 최순실이 대납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관련 수사 의뢰(2016. 12. 30.)

- 피의뢰인 최순실에게 대통령의 연설문(포항연설문) 및 대통령 방미기념행사(대통령 방미기념 한국문화 페스티벌, 2015. 9) 관련 문서가 유출되었고, 최순실이 이를 수정하였다는 의혹 관련 수사 의뢰 (2017. 1. 13.)

(2) 기타 논의사항(국정조사제도 개선사항 등)

○ 국정조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사람에 대한 국정조사 출석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출석자에 대한 처벌 강화, 동행명령의 강제력 부여, 국정조사특위의 강제구인권 신설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정조사에서의 위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증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 및 위증여부 판단을 위하여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국회의 자료 취득권한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역에 대하여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을 환수·몰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주요 증인의 불출석 등으로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안이 많아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국정조사의 충실한 준비 등을 위하여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과 국정조사위원이 사전에 접촉할 경우, 국정조사의 신뢰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